

연구보고서 2021-37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변수정
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1-37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35-8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37>

발|간|사

과거와 비교해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은 매우 증가하였다. 단일민족성이 높은 국가였던 한국도 예외 없이 외국인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한국 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다양성이 증가하는 만큼 그 안에서의 갈등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 또는 한국인은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깊은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노력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이주민과의 갈등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입국을 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 중 물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며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처음 입국시의 기대와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에 실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물리적인 불편함도 있겠지만, 인식적인 차별이나 편견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정서적인 불편함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이주민뿐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인과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지 고민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동화나 이해로는 균형 있는 공존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포용에 대한 생각이나 수준을 알아보는 것에서 나아가 이주민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주류 집단인 한국인의 생각이나 태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파악해야 서로를 이해하고 교차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서로의 교차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서로에 대한 태도, 생각과 인식을 알아보아 서로의 현 수준을 이해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가 한 행동과 평소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나의 문화 또는 나의 관습만을 지키고 따라주기를 요구하기보다 서로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용과 적응, 이해와 타협을 바라며 함께 나아가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변수정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수행되었고, 본원의 김기태 부연구위원과 정희선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에 직업 참여해 준 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연구위원과 협성대학교 김희주 교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곽윤경 부연구위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양계민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조사에 참여해 준 이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이주민 대상 정책	31
제1절 이주민의 개념	33
제2절 한국의 이주민 현황	3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2
제4절 이주민 대상 정책	74
제3장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차별 경험	107
제1절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109
제2절 이주민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123
제3절 소결	147
제4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 양적 연구	153
제1절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155
제2절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와 포용성	178
제3절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203
제4절 소결	219

제5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I: 질적 연구	227
제1절 이주노동자가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229
제2절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279
제3절 전문가가 본 한국 사회 수용성	328
제4절 소결	345
제6장 결론	35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5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85
참고문헌	403
부록	411
[부록 1] 부표	411
[부록 2]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조사표	415
[부록 3]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조사표 언어별 샘플	43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조사대상 목표 표집 인원	19
〈표 1-2〉 조사대상 실제 응답자 분포	20
〈표 1-3〉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내용	22
〈표 1-4〉 조사 참여 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27
〈표 2-1〉 법과 정책에서의 이주민 관련 용어와 정의	36
〈표 2-2〉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40
〈표 2-3〉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42
〈표 2-4〉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43
〈표 2-5〉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44
〈표 2-6〉 외국인주민 세부 현황	48
〈표 2-7〉 이전국적별 외국인주민현황(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49
〈표 2-8〉 이전국적별 외국인주민현황(한국 국적을 가진 자)	50
〈표 2-9〉 지역별 외국인주민현황	51
〈표 2-10〉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관련 기존 연구	71
〈표 2-11〉 제1차~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83
〈표 2-12〉 제1차~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93
〈표 2-13〉 사회통합정책	101
〈표 2-14〉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104
〈표 3-1〉 한국인과 대화 빈도	110
〈표 3-2〉 이주민의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사용 언어	111
〈표 3-3〉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한국인 수	113
〈표 3-4〉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 도움 교환	115
〈표 3-5〉 이주민이 한국인 중심인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116
〈표 3-6〉 이주민이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118
〈표 3-7〉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 관계 만족 정도	119
〈표 3-8〉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 경험	121
〈표 3-9〉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정책의 집단별 관심 정도	124

〈표 3-10〉 이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	125
〈표 3-11〉 이주민이 이주민 관련 기관 이용하는 빈도	127
〈표 3-12〉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1: 일자리 정책	129
〈표 3-13〉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2: 주거 정책	130
〈표 3-14〉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3: 교육 정책	131
〈표 3-15〉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4: 보건/의료 정책	133
〈표 3-16〉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5: 자녀 양육정책	134
〈표 3-17〉 이주민의 한국 생활 만족 정도	136
〈표 3-18〉 현재 생활 지역이 이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 정도	137
〈표 3-19〉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 추천	139
〈표 3-20〉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추천 이유: 출신지역별 차이	142
〈표 3-21〉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비추천 이유: 출신지역별 차이	142
〈표 3-22〉 한국에서 생활 지속 희망	143
〈표 3-23〉 한국 국적 취득 희망	145
〈표 3-24〉 향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	146
〈표 3-25〉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및 주된 이유	149
〈표 3-26〉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150
〈표 4-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159
〈표 4-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162
〈표 4-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165
〈표 4-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기대	169
〈표 4-5〉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에 관한 생각	173
〈표 4-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	175
〈표 4-7〉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177
〈표 4-8〉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 정도	179
〈표 4-9〉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 정도	181
〈표 4-10〉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183



〈표 4-1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선호 정도	186
〈표 4-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188
〈표 4-1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	190
〈표 4-1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193
〈표 4-1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과 위협의식	197
〈표 4-1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정도	198
〈표 4-17〉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200
〈표 4-18〉 이주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	202
〈표 4-19〉 비교대상 조사 개요	204
〈표 4-20〉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문화개방성	206
〈표 4-21〉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국민정체성	207
〈표 4-22〉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고정관념	209
〈표 4-23〉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일방적 동화기대	211
〈표 4-24〉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거부·회피 정서	212
〈표 4-25〉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상호교류 행동의지	213
〈표 4-26〉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 정도	214
〈표 4-27〉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215
〈표 4-28〉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16
〈표 4-29〉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16
〈표 4-30〉 출신지역별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217
〈표 4-31〉 출신지역별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217
〈표 4-32〉 이주민(외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218
〈표 4-33〉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219
〈표 4-34〉 다양성 차원에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220
〈표 4-35〉 관계성 차원에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221
〈표 4-3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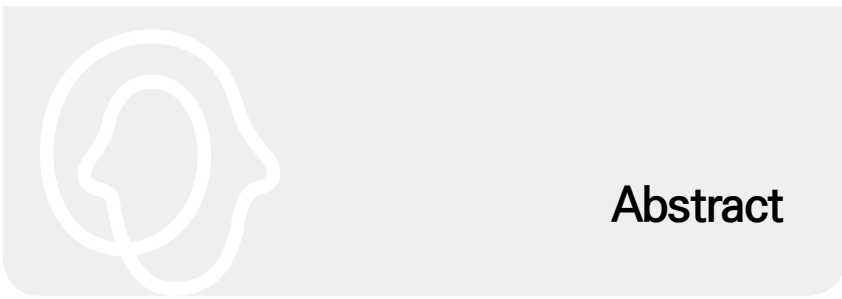
〈표 4-37〉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관한 생각과 위협의식	224
〈표 5-1〉 이주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232
〈표 5-2〉 결혼이주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279
〈표 5-3〉 전문가 특성	329
〈표 5-4〉 전문가가 만나는 이주민 그룹 특성	330
〈표 5-5〉 전문가가 본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331
〈표 5-6〉 전문가가 본 이주민의 차별 경험 상황 및 환경	334
〈표 5-7〉 전문가가 본 이주민 특성에 따른 차별 경험 차이	337
〈표 5-8〉 전문가가 본 한국인의 이주민 수용 및 차별 태도 개선	339
〈표 5-9〉 전문가가 본 한국에 대한 이주민의 생각	341
〈표 5-10〉 전문가가 본 이주민 대상 정책의 도움 정도	343
〈표 6-1〉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결과	360
〈표 6-2〉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361
〈표 6-3〉 이주민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결과	363
〈표 6-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차원	364
〈표 6-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차원	365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연구의 틀	29
[그림 2-1]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현황	39
[그림 2-2] 외국인주민현황	47
[그림 3-1] 이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한국인과의 관계(n=1,062)	114
[그림 3-2] 이주민의 차별 경험 환경과 이유	123
[그림 3-3]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추천/비추천 이유	141
[그림 4-1] 다문화 수용성 구성과 활용 범위	156
[그림 6-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367
[그림 6-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관한 생각과 위협의식	368
[그림 6-3]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문화개방성	371
[그림 6-4]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국민정체성	372
[그림 6-5]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고정관념	373
[그림 6-6]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일방적 동화기대	375
[그림 6-7]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거부·회피 정서	376
[그림 6-8]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상호교류 행동의지	377
[그림 6-9]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 정도	378
[그림 6-10]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379
[그림 6-11]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380
[그림 6-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380
[그림 6-13] 이주민(외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381
[그림 6-14]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382
[그림 6-15]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386
[그림 6-1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388



Abstract

Another view of social integration: Korean Society's inclusivity as perceived by migrants

Project Head: Byoun Soo-Jung

This study explores migrants' perceptions of Korea. It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s such as region of origin and types of visas. It also fin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oughts of Koreans and the perceptions of migrant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migrants have differences among various subgroups. In particular, the region of origin and visa type of migrants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bring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migrants' perceptions of Korea and their lives in Korea. This study finds that the Korean language level is important in living in Korea and migrants' perception of Korea changes when the period of stay in Korea is more than 5 years.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Korea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makes a difference in migrants' perceptions of life satisfaction or acceptability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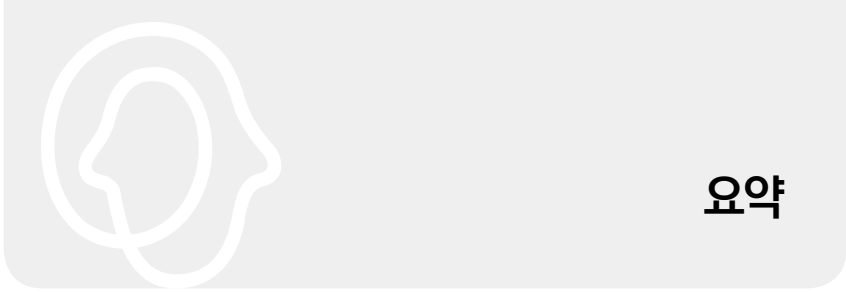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Migrants' perception of inclusivity to migrants in Korea tends to be better than Korean's thoughts. Koreans are at the level of

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accepting various cultures and migrants to some extent. However, Koreans are very wary of migrants becoming leaders or negatively affecting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results,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hould come up with a way for migrants and Koreans to truly understand each other in real life. The study emphasizes, on the one hand, anti-bia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aimed at Koreans is essential. On the other hand, social environment where migrants can learn the rules and customs necessary for living in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ir arrival is needed.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e monitoring system for the media or the internet should work to prevent distorted perceptions of migrants.

Keyword : migrant perception, inclusivity, social integra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정착이나 적응에 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이주민의 인권, 차별, 인식 등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민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성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과 한국인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인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수용성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짚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이주민의 경험과 인식은 다양한 집단별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주민이 가진 여러 특성 중 출신지역과 체류자격에 따라 그들의 한국 생활과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서 한국어 수준도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약간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은 한국 생활의 만족도나 수용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이다.

4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인의 수용성과 이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 비교를 보면, 다문화 수용성에서 문화개방성은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 한국인이 덜 개방적이고, 국민정체성과 고정관념 측면에서는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 한국인이 자신을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를 더 많이 기대하며 거부·회피 정서도 더 많지만, 상호교류의 행동의지에서는 이주민이 한국인을 더 개방적으로 생각한다. 각각의 개념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 개념 안에서 항목 간의 경향성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이제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문화가 다양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만, 완전히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가까운 곳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는 수준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있고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등의 환경에는 부정적인 수준이다. 즉,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에 이주민이 증가해 다인종, 다문화가 되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주류사회에 진입하거나 나의 이익과 관계된 측면에서는 무조건 환영하지는 않는 정도로 이해된다. 반면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 대해 호의적인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오래 살거나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수용성을 높게 인식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뜻한 태도나 신뢰 등 감정적인 부분 이외에 한국인이 되는 기준이나 조건, 한국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기대 등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한국인 수용 정도를 유사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주민 증가와 함께 한국도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민과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의 수용성,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부정적 인식이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에서 인권이나 다양성 존중에 대한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안의 세부추진과제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여러 문화를 접하는 기회나 이주민과 선주민의 단순 교류, 또는 선언적인 내용에서 더 나아가 이주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다양성 인정, 반 편견·반 차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넓혀 다양성과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교육 대상 또한 확대해 이주민을 접할 기회가 많은 직군은 물론 일반 시민도 이를 당연한 시민성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 한국 생활에 중요한 규칙이나 관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입국 초기에 이러한 교육을 더욱 꼼꼼히 받아 갈등이 발생할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가 필요한 이주민에게는 한국어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6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이 외에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이 차별받지 않고 발휘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영향력이 커지는 미디어나 언론, 온라인 등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이주민 인식, 수용성, 사회통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과거로부터 하나의 인종,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흔히 사용되는 단일민족, 한 핏줄 등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4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KOSIS, 2020).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하고 그만큼 한국에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의 민족 특성을 나타내던 표현의 적절성이 약화하는 현실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태도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보편성, 다양성, 관계성 등의 지표를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서 한국인은 52.81점을 보여 높은 수준의 수용성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보다 이주민이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 수준이 약간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실제 생활에서도 이주민 포용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혐오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경험(이우연,

2021.10.4.),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외국인에게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거나(조준형, 2020.3.11.),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특정 이주민 집단을 혐오하는(장이츠, 김민아, 2021) 사례를 최근에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맞닿아 있는 사례들이다. 이주민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이 다양한 문화나 인종 및 언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전에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의 인식이나 실제 생활의 태도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차별이나 혐오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향점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다문화사회로 진행한 한국이 인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 수준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확인해 왔던 한국인의 관점이 아닌 이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주민이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 환경 변화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중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에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알아본다면 이주민의 생각과 인식보다는 한국에의 적응이나 경험, 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인식이나 차별 경험은 그 안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등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주민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다수와 소수의 구도 속에서 소수인 이주민의 인식보다는 다수인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주민의 인식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단일민족주의나 순혈주의가 강했던 한국 사회가 처음 이주민을 대함에 있어 차별적 배제나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현재는 필요에 따라 일부에서는 다문화주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동화주의 입장 또는 차별적 배제주의를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고유의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회의 특성상 동화주의적 입장에 대한 필요성은 남아 있고 이러한 입장으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용이한 부분에서는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동시에 다른 관점에 대한 요구도 살펴야 한다. 한국의 이주민 증가 경향이나 국제적인 이동이 증가하는 세계적인 추이를 본다면 향후 한국의 이주민 규모도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 사회에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관점과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더 묻어있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이 더 강조되기도 할 것이다. 즉, 국제적인 인구이동 경향으로 보아 다시 단일민족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모든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소수집단으로 남겨두고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보다 각자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관점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한 사회에 들어온 여러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이라면, 서로를 상호교류의 대상과 공동체로 인식하고 상대의 가치를 나누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Parekh, 2000; Parekh, 2007; 김태원, 2012에서 재인용)이 앞으로의 사회통합에 더욱 필요한 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나 인종 간 양방향 이해와 적응이 필연적이다. 즉, 이주민이라는 소수집단이 이주한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함께 그 사회의 다수 집단 또한 새로운 소수집단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주민에게 강력한 일방적인 동화 방식을 지속해서 요구한다면 이주민 뿐 아니라 한국인의 권리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주민에게만 한국 사회의 적응을 강조하는 결과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더 많이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이주민의 부적응이나 부정적인 결과는 그들의 삶의 질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집단과 기존 집단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양방향의 조화로운 적응을 위해서 한국인의 인식 뿐 아니라 이주민의 인식과 생각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주민 관련 연구나 조사는 주류집단인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i.e., 권진, 경승구, 2016; 김진희, 2019;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김희정, 2017). 또한,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나 조사는 이주민 집단 내 대상의 입국 목적 및 출신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언어적 한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집단 별 연구로 분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i.e., 소성규, 2010; 정하나, 2016). 연구나 조사의 내용은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이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져 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주민의 생활 실태나 한국 적응에 주로 관심을 두어왔던 경향과 특정 집단 대상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괄하여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 파악은 그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주민이나 다문화사회에 관한 생각 및 태도를 알아보아 한국의 수용성을 파악했던 방법과 달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직접 알아본다. 세부적으로는 이주민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인과의 관계, 차별 경험, 한국 생활 만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파악한 수용 정도의 내용을 활용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과 경향 및 차이를 비교한다. 즉,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용·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기존 문항을 변형해, 한국인이 어떠한다고 생각하고 인식하는지 이주민에게 물어봄으로써 한국인이 생각하는 수용 정도와 실제 이주민이 인식하는 정도에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경향을 살펴본다.

이렇게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을 직접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정책의 대상으로부터 얻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란, 2013). 이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수용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순, 2019). 그리고 이 과정은 그동안 충분히 진행되었다. 이제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에서 동화주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수용 및 인식 측면의 발전에서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중 받지 않았던 이주민의 시각을 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사회의 수용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정책 발전을 위해 정책 대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이해하려는 과정을 한국인에게는 당연히 거치면서 이주민을 대상으로는 생략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을 이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한국인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이 거부당하거나 차별받는 환경은 제거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수용 정도에 대한 인식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주민의 시각을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그동안 수용성을 한국인 중심으로 이해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수용성은 한국 사람, 한국의 정책 및 법제도, 한국의 언론 등의 영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보아 이 연구의 이주민 대상 인식조사에는 이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한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수용성은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신뢰 및 포용 등 그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이나 포용성을 파악할 때 활용되었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인의 수용 수준을 직접 경험해 본 이주민은 어떻게 판단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한쪽의 생각만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제2장은 이론적 검토와 이주민 대상 정책을 소개하고 간략히 평가한다. 먼저 이주민의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후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수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행정통계를 활용해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어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제3장과 제4장은 양적 조사의 결과로 내용이 구성된다. 제3장은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나 차별 경험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혜택을 받은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며,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을 추천할 것인지 등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우선 알아본다.

제4장은 이 연구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부분으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 신뢰와 포용성 등을 이주민에게 직접 알아본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과 이주민의 한국 사회 수용성 정도에 관한 생각의 경향과 차이점 등을 비교해 본다.

제5장은 양적 조사로 심도 있게 알아보기 힘든 내용에 대해 이주민과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한국의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뷰 결과를 통해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한다. 또한, 이주민을 현장에서 가까이 접하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 본 한국 사회의 수용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면서 마무리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나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인식, 이주민이 한국인에 대해 가지는 인식 등 이주민의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및 이주민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활용한 분석이다. 이주민의 한국 사회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직접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주민의 특성상 온라인 방식이나 전화방식은 적절하지 않아 대면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이주민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주민 관련 센터나 단체의 조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조사를 하였다. 양적 조사를 위한 조사 질문지 구성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이주민 대상 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로 포럼을 한차례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행정통계 자료,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전문가 조사 및 자문을 통해 생성된

질적 자료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통계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자료로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통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얻은 데이터는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를 포함한다. 이에 더해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자료와 자문을 통해 얻은 자료들도 질적 자료로 활용한다. 각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터를 활용한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가. 문헌 검토 및 행정통계 자료 이용

한국에서 이주민의 의미, 그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알아본 이주민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 지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알아본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기존의 문헌을 활용한다. 또한,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본계획 및 문헌을 검토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규모 파악을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행정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현황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주민현황 자료를 활용한다.

나. 양적 연구

양적 연구를 위해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는 면접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상세한 조사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자는 단기 체류를 제외하고 귀화자를 포함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이다. 이 연구는 다른 이주민/외국인 대상 연구들이 이주민 내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체류자격 분류상의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주민 전반이 연구 대상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1,300명을 목표 표집 인원으로 설정하고 이주민 집단별 분포를 고르게 하도록 출신지역과 체류 목적, 그리고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여 유의표집을 하였다. 출신지역은 국적별 등록 외국인 규모를 고려해 중국 출신,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출신,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을 30%씩 설정하고 나머지 10%는 서양과 일본 및 대만 등의 국가 출신으로 목표 인원을 설정했다. 체류 목적은 취업, 결혼이민, 동반을 각각 30%씩, 그리고 학업 및 기타 목적은 10%로 설정했다. 체류 기간은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을 3분의 1씩 나누었다. 그리고 지역별 안배를 위해 서울·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을 권역별 비율로 맞추어 목표 표집 인원을 설정했다.

조사대상자의 국적에 따른 인한 언어 다양성 때문에 조사에서 특정 국가 출신이 배제되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질문지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총 10개 언어로 준비하였다.

〈표 1-1〉 조사대상 목표 표집 인원

구분		목표 구성비 (%)	표집 인원(명)					
			총계	서울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전체		100.0	1,300	259	500	155	112	274
출 신 지 역	중국(한국계 포함)	30.0	391	78	150	47	34	82
	동남+서남아시아	30.0	391	78	150	47	34	82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30.0	391	78	150	47	34	82
	기타(서양 및 일본·대만 등)	10.0	127	25	50	14	10	28
체 류 목 적	취업	30.0	391	78	150	47	34	82
	결혼이민	30.0	391	78	150	47	34	82
	동반	30.0	391	78	150	47	34	82
	학업 및 기타	10.0	127	25	50	14	10	28
체 류 기 간	3년 미만	33.0	429	86	165	51	37	90
	3~5년 미만	33.0	429	86	165	51	37	90
	5년 이상	34.0	442	87	170	53	38	94

이주민 대상 면접조사는 2021년 8월 11일에 시작해 10월 6일에 완료되었다. 실제 조사 완료된 응답자는 목표 인원보다 10명 많은 1,310명이다. 2021년에 코로나19의 유행이 이어져 조사에 친화적인 환경을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출신지역, 체류 목적, 체류 기간의 세 가지 특성을 조사 인원 분배 조건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지역을 교차로 조사 목표 인원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조사대상을 구하는 것이 쉬운 조건은 아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까지 겹쳐 조사 시행에 제약이 많았다. 그 결과 목표로 한 조사 인원을 설정한 대로 구하는 것이 어려워 조사 마지막 시기에 조정을 통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제 조사 응답자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2〉 조사대상 실제 응답자 분포

구분	목표 인원 대비 비율 (%)	최종 구성비 (%)	조사 인원(명)						
			총계	서울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전체	100.8	100.0	1,310	245	514	156	117	278	
출신 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108.2	32.3	423	70	188	46	27	92
	동남+서남아시아	110.7	33.1	433	70	154	50	57	102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80.6	24.0	315	62	132	46	23	52
	기타(서양 및 일본·대만 등)	109.4	10.6	139	43	40	14	10	32
체류 목적	취업	117.6	35.1	460	105	188	47	32	88
	결혼이민	94.6	28.2	370	52	119	51	52	96
	동반	86.4	25.8	338	61	147	44	20	66
	학업 및 기타	111.8	10.8	142	27	60	14	13	28
체류 기간	3년 미만	82.8	27.1	355	66	154	47	23	65
	3~5년 미만	91.8	30.1	394	77	133	48	36	100
	5년 이상	126.9	42.8	561	102	227	61	58	113

2)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이주민을 직접 만나 가능한 언어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재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조사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면접조사원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들을 소개받아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을 눈덩이 표집(snow ball) 방식으로 접촉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진행되었다. 또는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이 많은 지역, 공단 주변에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거나, 동일 지역 출신이 모여 사는 타운 등을 찾아서 표집 목표에 해당하는 이주민을 접촉해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이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 거리

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나 어학원 선생님 소개, 대학교 내 이주민 모임 친구 소개, 조사를 응답했던 지인 소개 및 추천 등 역시 눈덩이 표집 (snow ball)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3) 조사 내용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하위개념으로 다양성과 관계성을 알아보고, 신뢰와 포용성 그리고 정책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위협의식과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으로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특히 한국인과의 관계와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나 그 문화를 가진 존재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척도가 다문화 수용성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다. 이주민에게 질문하기 적절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영역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중 이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관계성을 다문화 수용성 내용으로 포함한다.

다른 또는 낯선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기 때문에 조사 영역에 신뢰 항목을 포함하고, 이에 더해 한국인이 선주민으로서 이주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포용 태도 또한 이주민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주민이 직접 인식하는 것은 이주민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갖는 데 중요하다. 이

2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 일자리 경쟁이나 범죄율 및 국가재정 부담증가 등 이주민 유입이 한국 사회나 한국인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한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여성가족부, 2018) 이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한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터인데, 그중 차별 경험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인으로부터의 경험에 더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정책적 관심이나 정책 이용 경험 등을 함께 조사한다.

그 외에 한국인과의 관계, 생활의 만족 등은 한국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서, 분석 시 그룹 구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과 일반 사항을 조사 내용으로 포함한다.

〈표 1-3〉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내용

영역		항목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정도
		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정도
		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정도
	관계성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정도
2) 이주민이 생각하는 본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정도		
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정도		
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정도		

영역	항목
신뢰·포용 및 정책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신뢰 정도 2) 이주민 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 정도 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따뜻한 감정 정도 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웃, 직장동료, 친구, 배우자) 사회적 거리감 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정도 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7) 이주민이 인식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 8)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영향 9)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 정도 10)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11)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정책 관심 정도 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정부의 인식개선 노력 정도 13) 정책 지원 필요도, 경험 및 도움 정도
위협·차별 및 차별 경험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와 위협 인식 정도 2) 한국인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 여부 및 발생 장소, 이유
가족 및 주변 관계	1) 배우자 유무 및 한국 동거 여부, 배우자 국적, 2) 자녀 유무 및 양육, 자녀가 다니는 기관 한국인 부모와의 교류 정도 3) 이주민의 부모, 형제, 자매 등 한국 거주 여부 4) 한국인과의 대화 정도 5) 한국인과의 대화 언어 6)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한국인 빈도 및 관계 7)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8) 한국 친구 또는 한국 사람 중심의 모임 참석 정도 9) 같은 국가 출신 친구 또는 이주민 모임 참석 정도 10) 이주민을 위한 기관 이용 정도 11)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
한국 생활 만족	1) 한국 생활 만족 정도 2) 살고 있는 지역의 인식 정도 3)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 추천 정도 및 이유 4)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정도 5) 한국 국적 취득 희망 여부 6)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및 일반 사항	

조사의 내용은 이주민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직접 묻는 방식과 한국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차별 경험, 가족 및 주변 관계, 그리고 한국 생활 만족 등은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부분 현재 환경이나 경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다. 그러나 인식을 파악하는 질문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즉, 위의 조사 내용 표에서 다문화 수용성 부분과 신뢰·포용 및 정책 부분의 ‘이주민이 인식한’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항목은 이주민에게 한국(인)이 어떠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이주민이 인식한’으로 시작하지 않는 항목은 이주민이 본 한국인의 태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 생각을 응답하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주요 특성에 대한 조사대상자 집단 구분

조사대상에서 논의했듯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표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특성은 체류 기간, 체류 자격, 출신지역이다. 이주민 내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그룹마다 분석이 가능한 표본 규모 확보를 위해 분포를 고려하였다. 각 조건의 세부 집단은 매우 다양하여 여러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집단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과 해당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체류 기간, 체류 자격, 출신지역에 대한 세부 집단을 구분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집단 수를 고려하면서도 인식조사인 점을 감안해 세부 집단이 특성을 잘 드러내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

체류 기간은 자신이 선택해 이주한 국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쉬운 이주 초기와 적응 과정기, 적응기 구분을 위해 3년 미만, 3~5

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의 대상자가 단기 체류를 제외한 이주민이기는 하지만 3년 미만 그룹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이주민도 포함되어 있다(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조사 대상자의 약 2%). 입국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단기체류 자격(90일 이하)을 제외한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입국 후 최소 체류 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는다. 체류자격은 취업, 결혼, 정주, 학업 및 기타로 구분한다. 취업 자격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1~E-7(전문인력)을 포함하고, 결혼 자격은 F-2-1, F-5-2, F-6(F-6-1~F-6-3)(결혼이민) 집단을 의미한다. 재외동포·영주·거주 자격과 한국 국적 취득의 경우는 정주 자격을 포함하며, 유학생, 방문 동거, 동반, 기타는 학업 및 기타 자격으로 구분한다.

출신지역은 등록외국인의 국적과 규모를 고려하여 가장 큰 규모인 중국을 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때 한국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집단을 나눈다. 한국계 중국인을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면 출신지역 집단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한국계 중국인도 출신지역으로 구분해 중국에 포함한다. 한국계는 다른 지역 출신에게도 있을 수 있고, 항목 분석상 한국계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필요시에 한국계 여부 변수를 사용해 한국계/비한국계를 구분해 활용한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파키스탄, 인도 등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 역시 동남·서남아시아 출신으로 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등은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외 국가는 기타로 구분한다. 기타는 주로 서양 국가와 일본, 대만으로 구성되는데,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인만큼 일본과 대만을 다른 아시아 출신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기타 국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신지역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이주민 대상 인식조사에 참여한 전체 수는 1,310명이며 여성이 64.4%, 남성이 35.6%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 기간 평균은 6.4년으로 3년 미만이 27.1%, 3년~5년 사이가 30.1%, 5년 이상이 42.8%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은 취업 35.3%, 결혼 28.2%, 정주 25.8%, 학업 및 기타가 10.5%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신지역별 구성은 중국 32.3%, 동남·서남아시아 33.1%,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이 24.0%, 그리고 서양 국가나 일본 및 대만 출신 비율은 10.5%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도시가 50.3%, 중소도시가 39.3%, 농촌인 경우는 10.4%였으며 거주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면, 수도권 거주자 58.1%, 비수도권은 41.9%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 이주민의 평균 연령은 34.5세로 20대 28.5%, 30대 49.4%, 40대 15.0%, 50세 이상은 7.1%로 분포했다. 이주민의 학력은 고졸 이하의 경우가 45.1%, 대졸 이상이 54.9%였고, 취업을 한 경우가 49.2%, 그렇지 않은 경우가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조사 참여 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비율	명
전체	100.0	(1,310)
성별		
여성	64.4	(844)
남성	35.6	(466)
체류 기간 (평균 6.4년, S.D. 5.57)		
3년 미만	27.1	(355)
3년~5년 미만	30.1	(394)
5년 이상	42.8	(561)
체류자격		
취업	35.3	(463)
결혼	28.2	(370)
정주	25.8	(338)
학업 및 기타	10.6	(13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32.3	(423)
동·서남아시아	33.1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4.0	(315)
기타(서양 국가 및 일본·대만 등)	10.5	(138)
거주지		
대도시	50.3	(659)
중소도시	39.3	(515)
농촌	10.4	(136)
거주지		
수도권	58.1	(761)
비수도권	41.9	(549)
연령 (평균 34.5세, S.D. 8.51)		
19~29세	28.5	(373)
30~39세	49.4	(647)
40~49세	15.0	(197)
50세 이상	7.1	(93)
학력		
고졸 이하	45.1	(591)
대졸 이상	54.9	(719)
취업 여부		
취업	69.2	(906)
비취업	30.8	(404)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조사 참여 이주민에 대해 살펴본 일반적 특성은 제3장과 제4장의 조사 결과 분석에서 이주민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항목별 필요에 따라 변수는 추가 또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그룹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항목이 다수여서 필요시에만 포함하고 차별 경험이나 한국인과의 접촉, 자녀 유무, 귀화 여부, 한국계 여부 등이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에는 관련 변수를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

다. 질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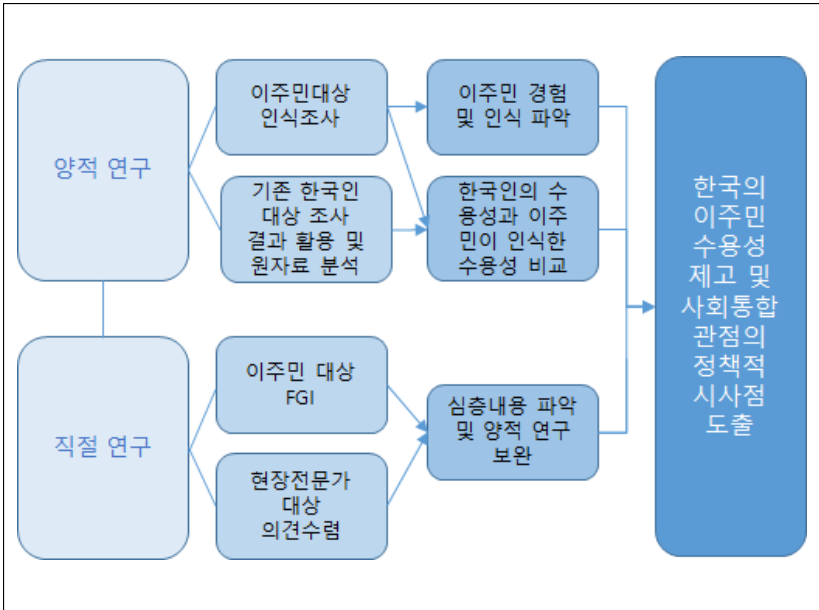
질적 연구는 한국의 이주민 집단 중 가장 큰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한다. 이주노동자는 언어적 이질성으로 인해 국가별로 진행하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질적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 참여자 정보는 각 그룹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은 질적 연구 부분인 이 연구의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현장에서 이주민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대우나 이주민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현장전문가를 포함해 연구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정책적으로 개선할 점 등에 대해 자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 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연구 틀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식 및 수용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그림 1-1] 연구의 틀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이주민 대상 정책

제1절 이주민의 개념

제2절 한국의 이주민 현황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이주민 대상 정책

제 2 장 이론적 검토 및 이주민 대상 정책

이 장에서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한국인이 인식한 수용성과 이주민이 인식한 수용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직접 파악하기 전에 이주민의 개념과 현재 한국 사회의 이주민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의미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현황을 행정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기존 연구는 그동안의 흐름과 수용성 관련된 선행연구를 세분화하여 검토한다.

제1절 이주민의 개념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주민’이란 누구인가, 즉 이주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인 연구이다. 이주민 중 특정 집단의 생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려는 연구가 아니므로 연구 대상을 특정 이주민 집단으로 국한하거나,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될 필요성이 높지 않다. 다만, 단기 입국 외국인보다는 영주를 포함한 장기체류외국인이 사회통합 및 수용의 주요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 출신자’로 정의한 (유민이, 2019, pp. 21-22) 이주민 개념을 기준으로, 이 연구는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간(90일 이하) 체류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이주민보다 ‘이주’ 자체는 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주란 국경이나 특정 국가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기관과 구성, 이주의 원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주의 주체는 난민이나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국제이주기구, 2011, p. 66).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nt, IOM)는 이주민(Migrant)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IOM, 2019). 이 경우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나 밀입국자(smuggled migrants), 국제법에서 이주민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유학생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유엔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또한 국제 이주민이란 이주 이유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국을 변경하는 사람들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체류 기간과 관련해서 3~12개월의 기간 동안 거주국을 변경하는 경우 단기 또는 임시이주라고 정의하고, 1년 이상 거주국을 변경하는 경우 장기 또는 영구이주로 정의하였다(IOM, 2019). 종합하면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이주민은 이주의 이유나 법적 지위,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자신의 거주지역 또는 거주국을 떠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범주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주민의 정의 또는 개념이 법률이나 정부 문서에서 서로 다르게 지칭되고 있어, 이주민의 대상이나 정책 수립에 혼선을 준다는 점이다(유민이, 2019, p. 20; 이창원, 2015, p. 1). 정부 부처별 이주민 관련 법과 정책, 용어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정부에서 지칭하는 외국인의 용어는 부처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반면,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국적 미취득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의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다(이창원, 2015, p. 3).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서는 귀화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법과 정책, 부처마다 이주민을 의미하는 동일한 용어들이 다르게 정의되고 범주화되어 결과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정책 성과와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주며 이로 인해 이주민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창원, 2015).

이처럼 한국의 특정 법 또는 정책에서는 이주민을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적합한 유민이(2019)의 정의 기준을 활용한다.

〈표 2-1〉 법과 정책에서의 이주민 관련 용어와 정의

법과 정책	이주민 관련 용어	정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출생·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 귀화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외국인주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한국 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그 외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인주민 자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교육부 다문화 학생통계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자료: 이창원. (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 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p. 3.
유민이. (2019).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 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p. 20 표 재구성.

제2절 한국의 이주민 현황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 등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규모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의 규모를 행정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주민에 대한 현황은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통계를 관리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로 다른 목적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상세히 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법무부의 분류기준은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이탈·상실자,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외국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¹⁾). 따라서 법무부 데이터를 활용해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안전부 통계를 활용해서는 외국인주민현황을 파악한다. 이때,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인주민 등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각 행정 자료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제시된 용어를 사용한다.

1.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는 법무부에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본 통계에는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이탈·상실자,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파악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p. 5). 법무부의 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본다.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_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6.21. 인출.

가. 체류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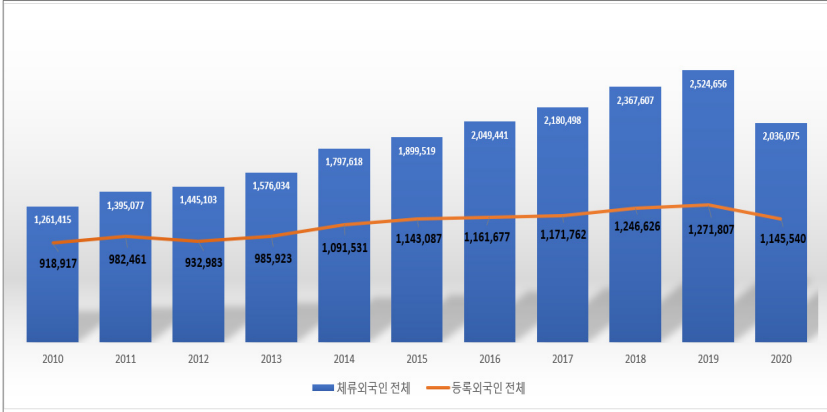
체류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의미한다. 즉,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있으며, 체류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p. 4).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p. 4).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3만 6,075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 간의 추세를 보기 위해 코로나19 상황 전체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52만 4,656명으로 2010년의 126만 1,415명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등록외국인은 2019년에 127만 1,807명으로 체류외국인의 절반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0년에는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이 약 73%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등록외국인의 증가 폭보다 체류외국인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구분해 보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동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자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그룹이며, 재외동포 자격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도 단일 그룹으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 체류외국인의 수가 2019년과 비교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동반 자격의 외국인 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020년의 감소는 취업, 방문취업, 단기, 공무 자격의 외국인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까지의 경향을 파악해 보면, 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대부분의 체류자격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체류외국인 전체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86,075
공무(A)+B	153,110	173,099	180,356	138,417	193,841	204,160	236,111	305,217	384,420	460,845	239,583
단기(C)	91,696	88,191	124,033	132,438	146,971	154,813	191,064	201,265	220,073	258,379	116,638
유학(D)	128,073	125,736	108,486	109,357	114,988	123,448	141,375	157,802	182,639	200,701	174,218
취업(E)	270,643	291,051	290,548	308,564	333,882	339,102	342,239	340,881	343,308	339,294	295,404
- 비전문취업(E-9)	220,319	234,295	230,237	246,695	270,569	276,042	279,187	279,127	280,312	276,755	236,950
동반(F)	326,677	407,621	495,423	573,912	653,395	719,219	790,437	848,478	893,920	937,924	930,714
- 재외동포(F-4)	84,912	136,702	189,508	235,953	289,427	328,187	372,533	415,121	444,880	464,152	466,682
- 영주자(F-5)	45,475	64,979	84,140	100,171	112,742	123,255	130,237	136,334	142,151	153,291	160,947
- 결혼이민(F-6)	-	4,823	86,944	117,007	120,710	120,485	121,332	122,523	125,238	131,034	133,987
방문취업(H)	287,171	304,391	239,990	241,728	284,351	287,009	256,867	241,226	253,269	229,458	155,411
- 방문취업(H-2)	286,586	303,368	238,765	240,178	282,670	285,342	254,950	238,880	250,381	226,322	154,537
기타	4,045	4,988	6,267	71,618	70,190	71,768	91,348	85,629	89,978	98,055	124,107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나. 등록외국인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만 구분해서 보면, 앞의 [그림 2-1]에서 보았듯이 2019년 127만 1,807명에서 2020년에는 114만 5,540명으로 등록외국인 역시 감소하였다. 등록외국인을 기준으로 체류자격별, 국적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등록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 자격 집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집단은 취업 비자를 가진 집단이며 그중에서도 비전문취업(E-9)에 해당하는 집단이 등록외국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표 2-4>에 나타나 있듯이 2020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록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8만 6,933명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3만 2,525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중 2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어서 중국 출신이 20만 8,081명, 베트남 출신이 18만 7,334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베트남이다. 2019년에 2순위였던 중국 출신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하고 베트남은 큰 차이 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규모상 고정되어 있던 국적 순위에 변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뒤이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출신의 등록외국인이 각각 4~5만 명의 규모로 나타났다.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분포를 <표 2-5>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시에 많은 등록외국인이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경상남도과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도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다른 도와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구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외국인 전체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8,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공무(A)+B	45	139	246	0	1,611	2,208	3,159	0	0	0	0
유학(D)	125,674	123,072	105,912	106,745	111,537	120,257	135,996	151,887	176,863	194,874	168,845
취업(E)	266,374	285,257	282,942	300,773	326,296	332,346	335,438	333,420	336,198	332,025	291,414
- 비전문취업(E-9)	217,108	231,248	225,001	241,098	265,256	271,310	274,168	273,406	274,727	270,751	234,287
동반(F)	239,429	267,542	301,523	334,415	359,676	386,967	413,695	428,995	444,687	469,017	459,516
- 영주자(F-5)	45,475	64,979	84,140	100,169	112,519	123,033	130,011	136,118	141,973	153,038	160,733
- 결혼이민(F-6)	-	4,356	86,037	115,906	118,995	118,879	119,706	120,840	123,546	129,200	132,124
방문취업(H)	283,350	301,514	236,316	236,668	280,902	284,580	251,804	227,639	248,919	226,461	153,407
- 방문취업(H-2)	282,801	300,554	235,147	235,182	279,291	282,995	250,005	225,455	246,189	223,513	152,565
기타	4,045	4,937	6,044	7,322	11,509	16,729	21,585	29,821	39,959	49,430	72,358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표 2-4〉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외국인 전체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한국계 중국인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341,863	318,768	345,318	332,525	286,933
베트남	151,945	161,098	171,174	187,934	137,769	151,385	170,707	187,334	181,415
중국	322,861	329,835	375,572	380,091	207,259	208,343	207,777	208,081	178,910
우즈베키스탄	114,211	113,843	122,571	128,042	42,106	47,722	52,585	56,237	48,371
필리핀	28,022	30,699	34,710	36,945	46,069	45,236	45,305	45,354	40,687
캄보디아	33,194	38,768	43,155	45,282	44,538	45,713	45,247	45,016	40,222
네팔	23,351	30,664	37,299	41,991	33,060	35,426	38,862	40,933	38,527
인도네시아	17,824	20,746	25,493	29,189	39,130	36,917	37,429	37,043	33,239
타이(태국)	29,812	33,195	38,718	40,045	29,292	30,196	31,416	32,633	30,801
미국	8,272	11,499	14,694	18,123	23,930	24,166	24,602	26,025	25,910
미얀마	21,423	26,185	26,827	27,927	21,275	23,472	26,655	27,483	24,985
몽골	23,440	23,990	24,890	24,094	20,116	22,570	24,218	24,845	24,515
일본	19,779	18,382	17,334	18,493	23,267	23,343	23,892	24,316	22,798
스리랑카	22,648	23,087	23,237	23,046	26,036	25,323	24,309	23,476	21,231
타이완(대만)	21,176	21,187	21,014	20,485	20,413	20,363	20,489	19,872	18,357

주: 본 표에는 2020년 기준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많은 국가 순으로 15개 국가만 제시하여, 그 합계가 등록외국인 전체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44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2-5〉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외국인 전체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서울특별시	262,902	279,220	247,108	244,410	266,360	274,957	273,441	267,153	283,984	281,876	242,623
부산광역시	32,471	35,116	35,049	35,943	38,315	39,991	41,840	42,837	45,738	45,999	40,366
대구광역시	20,401	22,014	21,922	23,302	25,203	26,141	26,493	26,442	28,033	30,191	27,798
인천광역시	49,992	50,217	47,305	50,382	55,323	57,669	59,103	62,596	67,869	72,259	67,648
광주광역시	13,360	14,106	14,492	15,557	17,064	18,455	19,920	21,279	22,815	23,825	21,323
대전광역시	14,876	15,047	14,571	14,798	15,658	16,416	17,035	17,431	18,184	19,109	16,895
울산광역시	16,043	18,421	19,247	22,427	25,885	26,183	23,457	20,513	20,002	20,450	17,884
세종특별자치시	-	-	2,271	2,462	2,719	3,481	3,745	4,125	4,940	5,700	5,076
경기도	285,262	302,447	288,251	314,715	352,166	369,665	373,923	381,628	408,526	414,318	380,144
강원도	13,737	13,332	12,901	13,409	14,443	15,108	15,833	16,949	18,261	19,069	17,332
충청북도	24,453	25,730	24,830	27,481	30,700	32,637	35,499	36,656	39,537	40,714	37,060
충청남도	42,753	48,091	46,230	49,937	54,568	56,583	60,353	64,155	68,234	70,675	64,546
전라북도	20,152	21,851	22,030	23,067	25,086	26,194	27,320	28,588	31,347	33,074	31,288
전라남도	21,970	23,797	23,602	24,544	28,254	30,566	31,750	31,221	33,042	34,638	32,906
경상북도	36,895	39,984	40,067	43,499	47,805	49,765	51,351	53,364	56,969	58,119	52,469
경상남도	57,718	65,960	64,371	69,126	77,778	82,316	81,021	75,136	74,304	76,123	67,239
제주특별자치도	5,932	7,128	8,736	10,864	14,204	16,960	19,593	21,689	24,841	25,668	22,943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2. 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작성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p. 5). 본 통계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p. 5). 즉, 외국인주민은 “지역 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2).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이 교수 등 취업 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를 의미하며,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유학생은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 부설 여학원 연수(D-4-1), 외국어 연수생(D-4-7)’인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를 의미한다. 그 밖에 기타외국인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 체류 기간 초과 불법체류자”를 의미한다(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0, p. 5).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6.21. 인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현황에서는 거주 외국인 전체를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2019년 거주 외국인 전체는 221만 6,612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2010년 113만 9,283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거주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77만 8,918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18만 5,728명,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 25만 1,96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별 구성을 상세히 보면,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중에는 기타외국인이 62만 6,130명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51만 5,051명으로 그다음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순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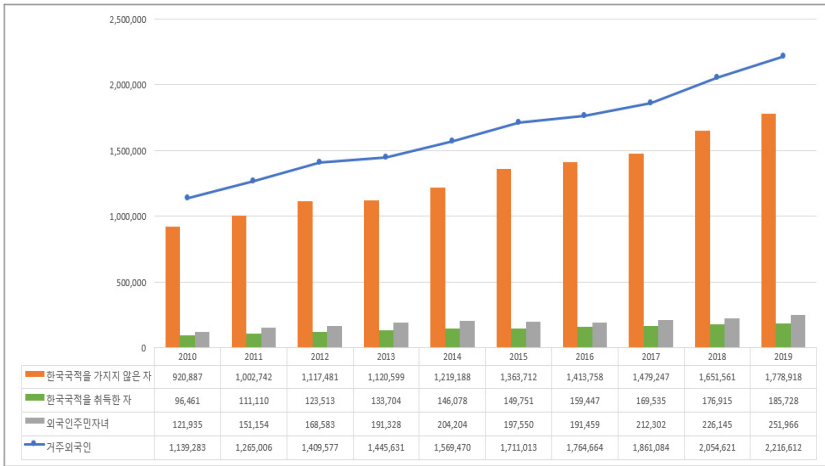
외국인주민을 이전국적별로 보면, 2019년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주민 177만 8,018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30.2%였고, 그다음은 중국 출신으로 22만 399명이다. 이전국적이 중국인 경우로 산출해 보면, 전체의 44.8%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약 20만 명, 18만 명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이 10만 명 이하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인 외국인의 이전국적을 보면, 한국계이면서 중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가 8만 5,977명으로 한국 국적인 외국인주민 중 46.3%로 나타났다. 그다음 많은 집단은 이전국적이 베트남인 경우로 중국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221만 6,612명 중 경기도에 72만 9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32.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는 46만 5,885명의 외국인주민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18만 5,975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5%)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주민이 있는 시도는 경상남도, 인천, 충청남도, 경상북도로 나타났고 그 외의 시도는 10만 이하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외국인주민현황

(단위: 명)



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표 2-6〉 외국인주민 세부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외국인주민 전체	1,139,283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11,013	1,764,664	1,861,084	2,054,621	2,216,612
소계	920,887	1,002,742	1,117,481	1,120,599	1,219,188	1,363,712	1,413,758	1,479,247	1,651,561	1,778,918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558,538	552,946	588,944	520,906	538,587	573,378	541,673	495,792	528,063	515,051
결혼이민자	125,087	141,654	144,214	147,591	149,764	144,912	159,501	160,653	166,882	173,882
유학생	80,646	86,947	87,221	83,484	80,570	82,181	95,963	117,127	142,757	160,610
외국국적 동포	50,251	83,825	135,020	187,616	233,265	216,213	235,926	276,750	296,023	303,245
기타외국인	106,365	137,370	162,082	181,002	217,002	347,028	380,695	428,925	517,836	626,130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96,461	111,110	123,513	133,704	146,078	149,751	159,447	169,535	176,915	185,728
혼인귀화자	56,584	69,804	76,473	83,929	90,439	93,249	-	-	-	-
기타 사유	39,877	41,306	47,040	49,775	55,639	56,502	-	-	-	-
소계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191,459	212,302	226,145	251,966
외국인 주민 자녀	6,971	9,621	10,451	12,301	13,512	6,001	-	-	-	-
외국인-한국인 부모	98,531	126,317	146,071	166,333	179,283	183,181	-	-	-	-
한국인 부모	16,433	15,216	12,061	12,694	11,409	8,368	-	-	-	-

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단위: 명)

〈표 2-7〉 이전국적별 외국인주민현황(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국적 아닌 외국인주민 전체	920,887	1,002,742	1,117,481	1,120,599	1,219,188	1,363,712	1,413,758	1,479,247	1,651,561	1,778,918
중국(한국계)	367,631	397,656	462,268	438,592	487,278	500,564	490,000	497,656	531,263	536,638
중국	125,916	139,261	147,301	151,945	161,098	188,251	201,764	212,072	215,367	220,399
베트남	86,146	98,225	110,564	114,211	113,843	126,921	133,106	147,519	169,177	197,340
태국	28,194	27,576	25,981	21,428	26,190	78,032	82,225	93,077	151,104	182,160
미국	63,104	64,144	66,887	67,575	68,691	55,186	51,875	45,033	66,003	78,539
우즈베키스탄	15,928	21,158	25,803	30,879	34,448	-	45,670	51,117	57,998	62,076
필리핀	38,443	39,537	38,378	33,206	38,783	51,338	51,808	48,033	47,532	50,217
캄보디아	8,739	11,672	16,784	23,351	30,664	41,272	44,358	45,406	45,144	45,475
네팔	7,362	9,208	12,603	17,824	20,746	-	32,413	34,293	37,346	40,230
인도네시아	25,960	27,515	29,645	29,901	33,295	42,043	41,656	38,418	38,890	39,360
몽골	21,022	21,775	21,278	19,779	18,382	22,412	26,120	29,730	32,704	36,813
카자흐스탄	1,231	1,415	1,691	2,121	2,455	-	9,110	16,993	25,850	29,009
미얀마	3,582	3,809	5,606	8,272	11,499	18,142	21,327	22,985	25,874	27,592
스리랑카	14,408	17,369	20,483	21,002	21,883	-	26,735	25,759	24,727	24,491
러시아	3,628	3,863	3,771	3,858	4,061	11,090	8,471	14,293	18,615	22,875

주: 1) 2019년 기준으로 이전국적 중 수가 많은 상위 15개 국가만 제시하였으며, 그 합계가 한국 국적 아닌 외국인주민 전체와 일치하지 않음.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표 2-8〉 이전국적별 외국인주민현황(한국 국적을 가진 자)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국적인 외국인주민 전체	96,461	111,110	123,513	133,704	146,078	149,751	159,447	169,535	176,915	185,728
중국(한국계)	54,999	57,258	68,612	72,631	76,921	74,551	75,103	79,985	83,347	85,977
베트남	4,740	6,804	10,452	13,319	16,890	22,998	26,314	30,274	32,257	38,469
중국	26,757	34,648	30,926	32,928	35,644	29,455	32,987	35,221	36,094	35,199
필리핀	4,547	4,952	5,537	5,922	6,434	7,314	7,744	8,183	8,529	8,921
캄보디아	124	227	755	1,161	1,609	2,376	2,881	3,368	3,631	4,112
대만	1,531	1,374	1,876	2,091	2,311	2,483	2,913	3,286	3,391	3,621
몽골	373	538	681	798	899	1,138	1,280	1,382	1,436	1,596
미국	252	421	339	432	507	2,118	1,121	1,176	1,166	894
태국	321	381	325	371	456	647	681	747	808	888
우즈베키스탄	200	252	296	362	420	-	647	690	751	856
러시아	263	245	139	173	211	847	937	715	740	771
일본	520	619	560	606	666	927	819	839	834	599
파키스탄	276	335	381	394	418	-	484	538	568	588
네팔	75	98	110	136	187	-	368	451	501	582
러시아(한국계)	88	302	489	532	458	-	*	313	342	354

주: 1) 2019년 기준으로 이전국적 중 수가 많은 상위 15개 국가만 제시하였으므로, 그 합계가 한국 국적인 외국인주민 전체와 일치하지 않음.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임.

3) *은 5인 미만인 경우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표 2-9〉 지역별 외국인주민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외국인주민 전체	1,139,283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11,013	1,764,664	1,861,084	2,054,621	2,216,612
서울특별시	336,221	366,279	406,293	395,640	415,059	408,083	404,037	413,943	446,473	465,885
부산광역시	41,365	44,726	49,329	51,617	54,394	58,080	59,872	64,145	71,570	77,968
대구광역시	20,273	21,594	23,683	24,076	25,822	38,899	40,251	42,506	47,017	53,023
인천광역시	63,575	69,350	73,588	75,552	82,523	89,515	94,670	104,441	115,720	130,292
광주광역시	16,632	18,824	20,649	22,291	24,466	29,131	31,162	34,412	38,698	43,053
대전광역시	19,699	21,360	22,499	22,907	23,729	25,886	26,656	28,404	31,100	34,148
울산광역시	19,354	21,400	25,163	28,045	32,772	36,953	35,929	34,373	35,249	37,284
세종특별자치시	-	-	-	3,668	3,782	5,570	6,084	6,761	8,187	9,814
경기도	337,821	380,606	424,946	440,735	492,790	549,503	571,384	603,609	672,791	720,090
강원도	19,041	21,940	22,731	23,738	25,141	27,253	28,469	31,123	34,682	38,504
충청북도	30,138	34,083	37,653	39,177	43,148	52,073	56,660	61,246	68,641	74,880
충청남도	48,874	57,869	67,157	68,639	75,438	88,189	95,553	104,854	117,094	127,057
전라북도	28,450	31,515	35,281	37,788	39,777	44,184	45,836	49,840	55,940	62,151
전라남도	31,305	35,077	39,006	41,340	43,828	50,864	53,066	55,504	61,607	68,719
경상북도	46,658	50,808	56,250	59,330	64,931	74,919	78,339	83,898	94,873	104,596
경상남도	66,800	74,517	87,395	89,986	97,148	112,387	114,594	116,379	123,947	134,675
제주특별자치도	7,348	8,499	10,406	12,656	15,568	19,524	22,102	25,646	31,032	34,473

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제3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한국인에게 수용 정도를 직접 알아보는 방식, 다음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추진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한국인이거나 한국 사회 그리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직접 파악하는 방식의 연구이다.

이러한 방식 중 이 연구는 마지막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이주민 수용 정도나 태도를 알아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그 체계가 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먼저 큰 틀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한다. 그리고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수용성을 알아보는 지표 검토를 한 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용성을 알아본 기존 연구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 사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알아본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흐름

오랫동안 민족과 문화 동질성의 사회환경을 유지해 온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이를 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다른 문화 집단 간의 상호존중과 평등은 새로운

이주 문화 또는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때 내국인들은 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과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이주민’ 또는 ‘다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추진하였다(최영미, 이나련, 2016). 특히 이주민들이 한국 국민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되어가고, 국가가 다문화 소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한 국 국민이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중요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유민이, 2019, pp. 22-23).

아쉽게도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은 크게 변화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신동훈, 양경은, 2020).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토대가 되는 대표적인 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던 시기에 조사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서남아시아인보다 미국인에 대해 친밀감과 정서적 호감을 더 많이 느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수용성을 보면, 친구나 이웃, 동료로서는 수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나 가족,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는 배타적인 특성을 보였다(정기선, 이선미, 김석호, 이상립, 박성일, 2010;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김영란, 2013, pp. 16-17에서 재인용).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사들을 보면 통해 한국 국민은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황정미 외, 2007; 김영란, 2013, p. 18에서 재인용). 그리고 주류사회가

외국인집단, 즉 이주민에게 느끼는 위협의식과 관련된 종족 배제주의³⁾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던 시기에는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경제적 이익의 대립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나 생활공간도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위협이나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은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다(윤인진, 송영호, 2007; 황정미 외, 2007; 김영란, 2013, p. 1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주민들이 범죄 등 치안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 근접한 공간에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영란, 2013; 임도경, 김창숙, 2011). 정리해 보면, 이 시기의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문화와 백인들에게는 호의적이고 개방적이나 비서구 문화와 백인을 제외한 인종들에게는 폐쇄적인 이중적 시선과 선택적인 차별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제적 경쟁을 통한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아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어서 이들과 친밀한 관계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양상들을 보였다.

이러한 시각은 2020년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정주 이주민과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

3) 종족 배제주의는 주류사회가 외국인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외부 위협과 인지적 위협으로 구분된다. 외부 위협은 권력과 자원, 이익과 보상을 위한 집단 간 경쟁과 갈등, 문화적 위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인지적 위협은 직접 이주민들과 경쟁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의미한다(윤인진, 송영호, 2007; 황정미 외, 2007; 김영란, 2013에서 재인용).

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대상이 되었지만, 영화와 뉴스를 통해 등장하는 외국인 범죄의 흉악성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이고 공포를 주는 이미지를 더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한국 사회(최영미, 이나련, 2016)).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실태를 조사한 곽윤경, 주유선, 우선희(2019)의 연구에서는 2014~2018년 사이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직장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또한 연도별로도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들을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가장 낮고 증가 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이 아직도 외국인과 결혼에 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곽윤경 외, 2019, p. 78). 또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정도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있어 ‘나와의’ 근접한 거리에서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장주영(2021)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 대상 정책이 관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귀화자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해 높게 나타났고,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엄격해야 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단순 기능인력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가 증가하고, 청년실업 등 국민의 일자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전에는 현실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단순인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 이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반(反)난민정서, 외국인 혐오 등이다(법무부, 2018; 최영미, 이나련, 2016). 이주민이 유입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던 2000년대 초반

부터 ‘반(反)다문화’를 주장하는 활동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문화정책이 확대되고,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난민까지 유입되면서 이러한 반(反)다문화주의가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난민을 반대하는 여론이 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와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난민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산하면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태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난민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난민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약 40%로 나타나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경우 난민 수용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난민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난민법상 5가지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 외에 ‘빈곤’을 추가하고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빈곤을 난민 인정 사유로 선택하고, 난민법상의 난민 인정 사유를 모두 선택한 비율은 50% 이하로 나타나 난민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장주영, 2021). 좀 더 구체적으로 난민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단어에서 ‘가난’, ‘빈곤’, ‘전쟁’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국민이 인식하는 난민의 정의와 법적 개념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난민 관련 연상 단어에 난민 혐오와 관련된 단어는 1.1%에 불과하여 언론에서 보도한 난민에 대한 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주영, 2021, p. 5). 이러한 연구결과는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난민 주의, 난민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들이 확산하면서 막연한 공

포감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난민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동훈과 양경은(2020)은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경험이 막연하고 표면적인 수준이면 이주민 수용성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즉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심도 있는 접촉이 아닐 경우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오히려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묘사되는 이주민의 모습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될 경우 이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을 억압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신동훈, 양경은, 2020, p. 132) 즉, 언론매체를 통해 봉사활동처럼 한국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이나 노동, 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이주민을 자주 접할 때는 이주민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자와 같이 위협적인 이미지를 경험하면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수용성은 국민 개인의 노력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매체나 정부 기관의 정책적 노력과 다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고, 이주민과의 질적이고 긍정적인 소통의 기회가 증가할 때 개인의 인식도 변화하고,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실현하고, 긍정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2.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관련 지표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이민자 통합 관련 질문들과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의 이민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이 있다. 유로바로미터에서는 이민자 규모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 이민자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태도, 이민자들과의 관계, 이민에 대한 일반적 인식 그리고 이민자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그리고 유럽사회조사에서는 이민에 대한 반대, 이민의 자격, 통합정책, 사회적 거리, 이민수용으로부터의 위협, 이민자와 접촉, 민족 우월주의 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European Social Survey, 2015).

한국 조사 중에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캐나다, 유럽으로 지역을 나누어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 동네,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기를 바라는지, 한국의 외국 상품 수입 및 문화 교류에 관한 생각, 이주민이 한국의 경제·일자리·자연환경에 어떠한(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알아보고 있다(Survey Research Center 홈페이지⁴⁾). 예를 들어, 이주민에 대한 긍정 항목과 부정 항목으로 구성된 이주민에 대한 태도 중 ‘이민자들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나 ‘합법적 이민자들도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등과 같

4) Survey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KGSS 설문지 Questionnaires]. (http://kgss.skku.edu/?page_id=41). (Documentation)KGSS 설문지 Questionnaires> 한글 >2018A)에서 2021.3.19. 인출.

은 명제들이 긍정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또는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등과 같은 문항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알아보는 항목들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문항은 다양한 연구(i.e, 권진, 경승구, 2016; 전대성, 이주실, 2015; 정하나, 2016)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1년부터 매해 사회갈등, 사회통합, 공정성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2020년 역시 전국 19세 이상 약 8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에서 다루는 사회참여, 소통, 신뢰, 공정성 등 다양한 분야 중 관용성(사회적 포용) 분야에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민자 또는 노동자와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등으로 관계의 깊이를 달리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새롭게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을 온도로 표시해 0도씨(°C)에서 100도씨(°C) 사이 중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도록 하는 문항을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관용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 다른 사회통합 관련 연구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정해식 외(2016)와 김문길 외(2019) 등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갈등 등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에 다문화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민자가 자신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주민 고유의 문화나 관습 대신 한국의 문화 및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대우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한국 사람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지표들은 사회조사나 사회통합 조사 등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조사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부분에 사용된 지표들이다. 이러한 조사들 이외에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표적인 조사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증가하고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2012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가장 최근 2018년도에 조사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진단 문항,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직접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 다문화 교육 경험, 국민정체성, 한국인 자긍심,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난민 수용 태도 및 세계시민 의식, 이주민, 다문화사회 관련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조사 항목 중 다문화 수용성을 진단하는 내용은 3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은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그다음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의지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주민이 아닌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연구의 측정 도구들을 각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인식,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 위협 인식, 정체성, 차별, 동화기대, 교류, 다문화지지 등이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빈번하게 이용되었다(i.e., 권진, 경승구, 2016; 김경숙, 유미, 2012; 장임숙, 이원일, 2012).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사용된 여러 지표 중 이주민에게 역으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활용해 이주민 대상 조사표를 구성한다. 또한, 이어서 검토하는 관련 개별 연구에서 조사를 위해 활용한 문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로 이 연구에 필요한 문항들을 활용한다.

3.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관련 기존 연구

이주민에 대한 태도 또는 다문화 수용성 지표들을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 및 수용 정도를 알아본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중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알아본 장임숙과 이원일(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 수준을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 ‘이주노동자의 송환 지지’, ‘민족적 거리감’을 통해 알아보았다. 대학생의 전반적인 다문화 인식 수준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으며, 4가지 다문화 인식 변수 중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은 ‘민족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 순이었고, ‘이주노동자의 송환 지지’에서는 다문화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로바로미터와 유럽사회조사, 그리고 한국의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활용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6개 요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조사하였다(김태완, 서재권, 2015). 그 요인은 ‘대중교통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꺼려진다’ 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외국 이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된 인권 및 법적 지위에 대한 태도,

‘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와 같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 ‘외국 이주민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다’와 같이 이주민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와 같이 이주민 집단이 지역 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사회적 수용(필요성) 정도, ‘외국 이주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불편하다’와 같이 외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이다(김태완, 서재권, 2015, pp. 219-220). 여러 요인 중 부산시민은 인권 및 법적 지원에 대한 태도, 그다음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적 수요 정도의 순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김태완, 서재권, 2015).

한국인의 사회참여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중국 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에 대해 ‘한국 방문’, ‘한국 국민이 되는 것’, ‘직장동료’, ‘가까운 이웃’, ‘절친한 친구’,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활용해 가장 먼 거리인 ‘한국 방문’ 찬성 1점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인 ‘배우자’ 찬성을 6점으로 사회적 거리를 파악하였다(전대성, 이주실, 2015). 사회적 거리는 평균 3.86점으로 나타났고, 종교모임이나 문화단체 등에 참여하는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감소하였으며, 동창 모임 및 친목회 등에 참여하는 한국인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전대성, 이주실, 2015).

사회적 거리감을 활용한 또 다른 연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알아본 전영자, 전예화(2010)의 연구가 있다.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부터 내가 활동 중인 동호회에 여성 결혼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 이웃, 동료, 친구, 가족 일원이 된다는 것까지 사회

적 거리감에 대해 ‘전혀 꺼리지 않는다’에서 ‘매우 꺼릴 것이다’까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난하다, 복종적이다, 후진국 출신이다, 순박하다, 용기가 있다’ 등을 포함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감정은 ‘피하고 싶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친근하다, 편안하다’ 등을 포함해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영자, 전예화, 2010).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해당 외국인이 어떠한 집단인지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자료를 분석한 연구(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에서 한국인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서 이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인구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응답자의 67.5%가 긍정했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32.5%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성별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인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견해에 대해 20대와 60세 이상 집단이 30~50대 집단보다 긍정의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 가치를 어지럽힌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21.5%가 긍정 응답을 보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27.2% 비율이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견해에서도 한국 사회 가치를 어지럽힌다는 견해에 대해 20대의 31.3%가 긍정

으로 응답해 20대 그룹이 평균보다 더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김지윤 외(2014)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어느 국가 출신인가에 따라 한국인의 인식이 다르다는 결과도 보여준다. 미국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9%, 필리핀 출신에 대해서는 52.1%, 나이지리아인에 대해서는 45.7%, 중국인은 40.3%,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40.3%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고, 필리핀 출신 외국인에 대해 과반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인에 대한 긍정 인식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 외 국가 출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김지윤 외, 2014).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이주민 내 집단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주민 집단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이주민 집단을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자녀, 새터민 및 조선족으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초등학생보다는 중고생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가지고 있었으나, 새터민과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였다. 김혜숙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한국인에 대한 심리에 대해 동시에 알아보았는데, 이때에도 이주민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으로 구분해 각각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 온도 지표를 활용하여 각 집단을 생각할 때의 느낌을 매우 차가운 수준의 0도에서 매우 따뜻한 수준의 99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 집단이 중간 점수에 분포해 있었고, 여러 집단 중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조선족, 이주노동자, 새터민 순으로 이주민 내부 집단에 대한 긍정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김혜숙 외, 2011).

즉,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이 이주민 내에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인식이 다르거나, 이주민의 출신국가 및 지역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 차이는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얼마나 자주 또는 가까이에서 접촉하느냐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접촉에 따른 인식의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부정적인 방향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주민 집단과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연구(김혜숙 외, 2011) 결과가 있는 한편, 친밀한 접촉이 아니라 피상적인 접촉을 경험하는 경우는 이주민을 낮설게 느끼는 상황이 작용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수 있다(신동훈, 양경은, 2020)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접촉의 빈도가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높게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진희, 2019). 오히려 어떠한 관계로 접촉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이주민을 친척이나 이웃,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친구로 접촉하는 경우가 더욱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은주, 장소현, 2020). 즉, 직접 접촉의 측면에서는 이주민과의 접촉의 기회나 빈도의 영향보다는 누구와 어떠한 거리감에서의 접촉인지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주민과 간접 접촉의 기회가 미디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데, 대중매체 속에서 묘사되는 이주민의 모습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동훈, 양경은, 2020).

이외에 한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도 존재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다르다는 연구나(윤혜수, 2015),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이부영, 강운

선, 2015; 최영미, 이나련, 2016)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고 차별적 태도를 더 보일 수 있다는 결과(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여성가족부, 2015)를 보이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은 높다는 결과(최영미, 이나련, 2016; 황정미, 2010)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차이의 방향이 항상 일관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수용 태도가 높아지는 결과(권진, 경승구, 2016; 황성식, 김두섭, 2020)와 상이하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가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 결과(황창호, 정세희, 2019)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의 다양한 특성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태도(권진, 경승구, 2016)로 인해 수용성 차이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도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 요인은 이주민과 한국인이 가진 특성이나 이주민과 관련된 경험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주민이 본 한국 사회의 수용성 관련 기존 연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용성을 파악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이해하는 데는 이주

민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소절에서는 한국의 수용성 정도 파악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알아본, 즉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김은재와 최현미(2016)의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식을 질적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 중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자 통합교육'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한 한국 거주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된 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이주민의 출신국가 및 피부색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가진 편견으로 인해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양인보다 동양인, 동양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인이나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 현상이 있음을 지적한 연구(남순현, 2012)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김은재와 최현미(2016)의 연구 결과, 이주민에 대한 특정 정책에 대한 오해로 한국인은 이주민이 불필요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국 문화에 일방적인 흡수를 바라는 동화주의적인 태도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등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이주민과 한국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해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를 연구한 김혜련(2014)은 최소 2년 정도는 거주해야 이민국으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인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2년 이상 거주한 재한 중국인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약 250명의 재한 중국인의 구성은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역이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접근성, 가족 재

결합, 장기 거주 접근성, 정치참여, 국적 취득 접근성, 차별금지, 교육 등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족 재결합과 장기 거주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주노동자가 어렵게 느끼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노동시장 접근성, 정치참여, 국적 취득 접근성, 차별금지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2014).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나타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가진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성규(2010)의 연구는 경기도 포천시의 결혼이민자 46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인들이 결혼이민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정도에 관해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응답은 5점 중 2.74점 정도로 약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지역인 포천시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인프라에 대한 만족은 5점 척도 중 2.35점으로 나타나 약간 불만족스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중 약 80%는 차별 경험이 있었으며, 언어 미숙으로 인한 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5점 척도 중 2.80점으로 보통보다는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소성규, 2010). 이 결과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은 정책이나 인프라, 또는 차별 경험과 같이 실질적인 생활환경 수준보다는 한국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와 같은 인식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인식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이용의 측면에서 알아본 연구도 있다. 이주민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이용 특성에 따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알아본 양혜승(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의 대화시간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주요 연구 대상인 이 연구는 293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 사람과 대화시간이 많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이주민의 정착 의지 또는 적응 정도가 한국 인과의 대화시간과 한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일 것으로 꼽았다(양혜승, 2011).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와 같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주민 내에서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주민 집단 안에서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주민을 동일 집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결혼이주여성, 또는 유학생 등 거주목적에 따라 그 성격과 특징이 매우 상이할 수 있어서 한 연구에서 모든 집단을 다루기보다는 대상을 구분해 특정 집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주민을 전체 집단으로 보았을 때와 그 안에서 세부 집단을 구분했을 때의 견해가 다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하나(2016)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 안에서도 거주목적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여 집단 내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또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가 늘어난다' 등과 같이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것의 위협에 관한 7가지 명제들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주민 집단을 학업, 취업, 결혼, 기타 등 거주목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이주노동자 집단은 유학생이나 결혼이주여성, 기

타 집단보다 다문화 위협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정하나, 2016).

이 연구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차이와 외국인 내에서의 인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위협에 대한 인식을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각각 알아보고 이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거주목적에 따라 구분한 후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의 다문화 위협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정하나, 2016). 표본 구성의 어려움으로 대표성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인식 측면과 이주민의 인식 측면을 비교할 수 있다면 그 비교와 함께 이주민 내에서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인식에 대한 차이를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러한 방식이 현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0〉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관련 기존 연구

연구	연구 방법	대상 및 조건	기간 및 기타	비고
<p>이주민 당사자들이 이식한 선주민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식 경험/김은재, 최현미 (2016)</p>	<p>질적 연구</p>	<p>'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 통합교육'에 등록된 참여자 중 경기도 거주 이주민(결혼이주여성, F1 비자 이주민) 15명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된 참여자 : 한국어 사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 관련 기관에 서 통·번역, 다문화 이해 강사, 다문화 자원 봉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는 이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면접: 2016년 4~7월 3회기, 각 1시간 • 개별 심층 면담: 직접 면담 또는 전화 인터뷰 등 1~2회(1시간~1시간 30분) 	
<p>다문화사회의 위협 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하나 (2016)</p>	<p>양적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한국인, 외국인 600명 중 외국인 300명 • 다문화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눈명이 표집 300명 대상 설문지 배포, 280부 수거, 245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5~6월 • 서울 조사 이유: 2013년 기준, 주민 등록 대비 가장 많은 외국인 거주(서울 시민의 3.9%), 출신국가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목적(학업, 취업, 결혼, 기타) • 외국인의 한국 거주목적(학업, 근로, 결혼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고른 분포 고려 • 다문화지원센터 거점 표집으로 성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결혼이민자가 다수; 성별, 입국 목적별 대상자 등에 대한 고른 분포 필요
<p>한국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조사 연구: 재한 중국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련 (2014)</p>	<p>양적 연구</p>	<p>재한 중국인 212명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주민 집단 • 다양한 이주 특성을 지닌 이주민 포함; 결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이주민, 취업 목적 이주노동자, 귀환 이주민, 해외이주민 조선족,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8.12.~10.4 • 300명 대상 설문지 배포, 251부 회수, 212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유형(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영이주민)

연구	연구 방법	대상 및 조건	기간 및 기타	비고
이주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이용이 한국사회의 가치(value)에 대한 인식 및 한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향 /양혜승 (2011)	양적 연구	기체류 목적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 학업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 등 <조건> • 2년 이상 체류 중국인: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것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가능 • 이주민 293명 • 이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회 복지관, 이주노동자 많이 근무하는 공단, 이주민 많이 모이는 종교기관 방문 총 293부 설문지 회수	• 2011.4월 초-5월 말 • 사회복지관에서 한 국어 교육 수강 중 이주여성 10여 명 예비조사 • 영어 번역 설문지 준비 • 2명의 면접원 조사	• 이주이유(취업, 결혼) • 기본적으로 한국어 설문지에 응답자 직접 응답 • 한국어 읽고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① 한국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듣고 이해 하는데 문제없으면 면접원이 설문지 읽어주고 응답(약25%) ② 영어 능력이 있는 경우 영어 설문지에 응답자 본인어 직접 응답(15.4%)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 제도의 개선 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성규 (2010)	양적 연구	포천시 거주 결혼이민자 46명	• 2010.3.20.-4.2. • 설문원(통역)이 일대 일 인터뷰하는 대면 방식 조사	• 체류목적(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 표본추출: 체계적인 표본 추출 불가능, 2009년 포천시 650명 결혼이민자 거주, 그중 10%에 해당하는 60여명 무작위 표본추출 •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가 많아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조사원(다문화 관련 기관 근무자) 및 외국어에 능통한 조사원 선별, 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해 1시간 교육, 결혼이민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조사 강조

지금까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주민에 관한 수용 연구에서도 한국인 중심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의 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 있으나, 이주민의 시각에서 이민 사회가 자신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느끼고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이러니하게 이주민에 관한 연구이지만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이나 이주민 수용성은 수용을 하는 한국인 입장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로 탐구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시선을 어떻게 감지하고 이주한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동시에 파악해 나아가야 한국인에게 확인하는 그 변화가 실제 이주민의 한국 생활환경을 바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을 직접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수용의 정도나 인식을 직접 파악하는 연구가 매우 드문 현실 속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라도 언어 문제 등으로 양적인 조사가 용이하지 않아 소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소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규모의 확대를 통한 출신국이나 체류자격 등 특성별 세부 집단 분석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양혜승, 2011). 즉,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문 점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주민 대상 연구라 해도 그 안에서 거의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점은 조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조사를 하더라도 대표성 있는 표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주민 집단 내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집중된 연구

가 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해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이 아닌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본다. 나아가 이주민 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이주민 대상 조사를 통해 이주민의 경험과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한국인의 수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직접 알아본다.

제4절 이주민 대상 정책

한 사회의 정책에는 그 사회가 정책 대상을 생각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정책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주민보다는 선주민을 우선시하는 동화 정책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전국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결혼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동화하는 내용이 전체의 50% 이상이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옥, 김영란, 홍기원, 설진배, 김연화, 2012). 즉,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이주민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주민을 직접 접하는 전문가들은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고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이주민 대상 생활 지원정책과 함께 이

주민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정훈, 2017).

전통적으로 이민 국가가 아닌 한국과 같은 사회는 이주민의 생활 지원 및 서비스 정책만큼이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 이주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현재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인식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두 기본계획과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이주민 대상 정책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인식이나 수용 또는 통합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각 기본계획과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략히 짚어본다.

1. 한국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윤인진, 2008). 그리고 증가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 추구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 모델은 크게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을 간략히 알아보면, 차별적 배제주의에서는 소수의 이

주민이 다수 내국인의 문화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으며 단일문화주의를 강조한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이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버리고 이주한 사회의 언어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주류사회로의 빠른 흡수를 유도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사회에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태원, 2012; 김학태, 2015).

한국 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에 도전하고, 증가하는 장기체류 이주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패러다임과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정, 즉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과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언젠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2006년 4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들인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때 ‘다문화’라는 용어는 ‘가족’과 결합하면서 국제결혼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환, 의미가 축소되었다(김정선, 2011; 우수명, 주경희, 김희주, 2021에서 재인용).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대상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명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유학생들은 정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전에 제정되었고, 이 법의 모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정책 패러다임은 합법적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 사회에 계속 남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순혈주의적인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만을 정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 이탈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적 주체들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사회통합 모델이라고 비판하였다(김정선, 2011). 한편으로는 다문화정책의 내용은 동화주의가 중심이라는 시각의 비판도 있다(이종두, 백미연, 2012)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대상에 따른 차별적 지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기존의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서 난민, 유학생, 재외동포 등 이주민들의 체류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정책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1, 2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어 검토하겠지만,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우수 인재 유치와 성장지원, 재한외국인과 가족들에 대한 차별방지와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인권과 다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에 재외동포, 난민 정책 추진, 이민자인권 보호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정책의 대상을 외국인노동자나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난민, 재외동포, 유학생, 관광객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기초는 단순히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에 대한 대응보다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저임금 이민자 증가에 따른 안전과 일

자리 침해 우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국민 일자리 보호와 반이민 정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고 있다(법무부, 2018).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차별적 배제, 동화, 다문화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러다임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듯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반드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최근의 주장도(양경은, 함승환, 2020)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현재는 하나의 모델을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이 반영되면서 여러 모델이 조합된 한국 고유의 다문화정책으로 다듬어져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가. 제1차~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검토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은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응하고, 외국인정책을 국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의의를 두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기본 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pp. 10-12). 이를 토대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라는 4가지 정책목표를 세웠으며, 13가지의 중점 과제 및 169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p. 13).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의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민자 지원에 대해 정부,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관한 관심과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질서 있는 이민 행정을 위하여 국경관리에 대한 과학화와 고객 만족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익 위해자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 옹호를 위하여 난민법을 제정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였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p. 13-14).

하지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에는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취업자격 외국인 중 단순 기능인력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으며, 2003년에 도입한 고용허가제하에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동반 장기 거주 및 불법체류의 비율이 높아져서 정주화 증가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어 그 외의 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으며, 다문화에 대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밖에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민자 출신국과의 공동 발전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p. 15-16).

이를 토대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 유지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며, 제1차 기본계획의 가치인 인권·다문화·민원 편의 제공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을 반영”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 2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5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먼저, 개방은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통합은 ‘대한민국 공동가치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은 ‘차별 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안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은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정책목표로 하여 19개의 중점 과제, 14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 2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개방분야]에서는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비자신청대행서비스 운영,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경기와 외국인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 유학생에 대한 취업 연계 등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통합분야]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국제결혼 법·제도 정비, 이민 배경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서비스,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다. [인권분야]에서는 재한외국인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미디어를 활용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추진하였다. [안전분야]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체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추진하였으며, [협력분야]에서는 국제이주기구(I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난민기구(UNHCR) 등과 다자협의를 구축하고 각 국가의 이민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법무부, 2018, pp. 10-1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비전문직 종사자의 장기거주로 인하여 사회적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단순 기능인력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 지원 편중, 우수 인재, 영주자격자, 국내 체류 동포 등의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거나 외국인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비가 부족하며,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이 부족하다(법무부, 2018, pp. 15-17).

한편, 세계적으로 이민은 중요한 글로벌 현상이며, 많은 국가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경제활동 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문화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체류외국인의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이민자 취업률 증가로 인한 반이민 정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법무부, 2018, pp. 18-21).

이러한 진단을 통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은

‘선순환적 이민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하고, 상생과 화합을 통한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국가는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꾸준히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법무부, 2018, p. 22).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다. 정책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선정하고 18개의 중점 과제 166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법무부, 2018, p. 2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민자의 양적인 확대 이외에도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류·영주·국적 등에 대한 연계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한외국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만 중점을 둔 기존의 정책에서 ‘유입→자립→성장→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추상적인 인권 보호보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통계·연구를 통한 기반을 확충, 이민 관련 법 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법무부, 2018, pp. 24-26).

〈표 2-11〉 제1차~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구분	제1차 외국인정책	제2차 외국인정책	제3차 외국인정책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2.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인권] 차별 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책 지원 2-4. 이민 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2-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2. 이민 배경 자녀 역량 강화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2-4. 이민자의 지역사회참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 업무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4-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 관리 4-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관리 역량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이민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4-3.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주: 중점 과제 중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제시함.

자료: 법무부. (2018). p. 23.;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p. 13;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 22.

지금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민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기본계획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나 교육, 지역사회 내 소통, 자조 집단 등에 대한 노력과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도 이민 유형별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민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처우 영향평가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도 단순 교육과 홍보로만 이루어졌던 제1차 계획의 세부 과제가 제2차에서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다국어 자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현실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본계획 보다는 좀 더 국민과 외국인 입장에서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명만 보더라도, 개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강조하였으며,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였다. 또한, 이민자에게 단순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서가 아닌, 이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피해, 차별피해 등에 대한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며,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에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민 초기에 중점을 두었던 교육은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민자의 취업에 중점을 두었던 세부 과제들은 직장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민 배경 자녀에게도 단순한 이해 교육을 떠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서비스 고도화 작업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존을 위한 과제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김영란, 2013). 그렇기에 외국인정책은 약 15년 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은 이민자를 향한 정책이기보다 주류를 향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용승, 2016). 또한, 인종차별과 편견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과 이러한 인식을 느끼고 있는 이주민 간의 괴리감도 아직 남아 있다(김영란, 2013).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 수용적 입장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이용승, 2016). 단순히 법률의 당위성이나 명목상에 머물러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다른 민족의 신념,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공존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다문화주의 협력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김영란, 2013), 더 나아가 이주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상호 존중하기 위하여 상생, 소통 모형으로 접근하여 이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김혜련, 임채완, 2014), 시민 통합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변종현, 2016)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인식 및 수용 관련 정책

외국인 기본계획 중 통합 및 수용과 관련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4-1. 외국인 차

별방지 및 권익 보호'가 있고,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3-1.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이 추진되었다.

가장 최근의 기본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4-3.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 등의 정책이 이주민 통합 및 수용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결혼이민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민원센터, 모바일 민원 처리 등 체류 관리를 위한 고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에게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축된 하이코리아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민원·생활정보 서비스 확충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필요한 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의료정보, 고충 민원 처리, 통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외국인을 위한 방송 통신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며, 능동적이고 소통적인 민원 응대 시스템을 검토하고,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을 통일하는 법령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로는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를 하기 위하여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방법 및 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지자체, 국민·이민자의 협업 및 공동 참여를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체류·영주·국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적 취득 시 이수자를 우대해 주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생활 지원을 지원하고자 고충처리 상담을 확대, 노무관리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농촌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과의 이해를 증진하여 이민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결혼 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우선 국제결혼의 심사 기준을 점검하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인권교육 등을 추가하여 국민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강화, 결혼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법무부, 2018, pp. 41-45).

다음으로 ‘4-3.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2가지 세부추진과제인 ‘문화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문화 다양성 이해 제고’를 제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문화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제공자인 교원 및 관리자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는 등 공공부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재한외국인을 위하여 다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 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하여 이주민을 위한 콘텐츠를 확대하고자 하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문화 다양성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며, 국민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선도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법무부, 2018, pp. 62-64).

마지막으로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의 2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에서는 동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약속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미성년 동포의 교육을 위하여 동포 체류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확충 및 지정하여 확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입양인 친생부모의 뿌리를 찾기 위한 DB를 구축하고 모국을 방문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입양인 모국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에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의 왕래 및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 요건을 강화하거나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포 집중거주지역에 동포 체류 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사업을 확충하고, 동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동포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이나 방문취업비자가 만료된 재입국 동포에게는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등 사증 발급 편리를 위한 노력,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포 체류지원센터를 통한 기초법이나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법무부, 2018, pp. 64-65).

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가. 제1~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검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처음 제정된 2008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1년 법 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의 조항이 신설되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결혼이민자 수는 2000년대부터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5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수는 0.3%(167천 명)를 차지하였으며, 이 인구 중에서 89.7%(150천 명)가 여성이고,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다수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부분이 200만 원 미만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결혼이민자 증가에 다른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증가하여 2050년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약 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점차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2006년부터 수립·추진하였으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처별·소관 분야별 대책을 강화하였다.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간 유사·중복·역할 분담 등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였다. 정책 내용에서도 중장기적 지원대책이 부족하였으며,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도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pp. 1-5).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2010~2012년)은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분야별 중점 과제 선정,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초한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전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세웠으며, 목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책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추진과제는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 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책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의 5대 영역을 선정하고 20개의 중점 과제, 61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pp. 6-7).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제결혼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 교육지원,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다(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pp. 8-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의 결혼이민자

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결혼이민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취학 자녀의 증가에 따른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지원은 강화되었으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은 부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역차별 논란,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 남아 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pp. 11-12).

이를 위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은 “인구·가족·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의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사회 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목표를 두고, 주요 정책과제를 6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의 6대 영역에서 23개의 중점 과제, 86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pp. 25-26).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 상담, 가족 통합 교육,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참

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령기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pp. 2-3).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초기 적응에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폭력,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p. 4). 이를 바탕으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두고,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책과제의 영역은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5대 영역을 설정하고 17개의 중점 과제, 7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p. 10).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출생 및 초기 성장 등의 도입 및 성장기인 시기에서 국제결혼의 감소, 다문화가족의 안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비율 상승 등의 정착기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즉, 결혼이민자의 정착 주기가 장기화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가정폭력 피해 대응, 가족관계 증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마련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

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지원을 넘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여성가족부, 2018, pp. 11-12).

〈표 2-12〉 제1차-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구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2차 다문화가족정책	3차 다문화가족정책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한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과제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4-1.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4-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4-3.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4-4.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4-1.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4-2.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4-3.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4-4.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5-1.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5-2. 다문화 이해 증진을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5.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94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2차 다문화가족정책	3차 다문화가족정책
	위한 학교 교육 강화 5-3. 지자체 일선 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5-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 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내실화

주: 중점 과제 중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제시함.
 자료: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p. 7;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p. 26; 여성가족부. (2018). p. 10.

이상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이민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정책 방향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를 정하여 전달체계 및 추진 업무를 조정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한 관리와 입국전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이민자의 유입 단계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다문화 전문 강사 및 교원 연구 과정 등에 대한 이해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이 태동기에서 발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교육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상대방 문화를 존중하고 쌍방향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이민자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인의 이민자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일자리 확대 및 교육훈련 등을 좀 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도자나 단체활동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정책 결정 과정과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인종과 문화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

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에서 그와 관련된 법령과 조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자료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하였다.

한편,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와 제2차보다 좀 더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다문화가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및 체계를 마련하였다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더 나아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기로 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사례관리사업을 추가하거나 정책단계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패키지로 확대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던 사업도 그 양을 늘려가는 등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형성된 시점에서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 등에 대한 점도 고려하여 피해 여성에게 상담을 지원하거나 자립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 혜택에서도 한 부모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도 공무원, 교사, 다문화 관련 사업 종사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다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을 주는 등의 정책으로 넓혀가는 것과 같은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이민 배경을 가진 대상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족 정책 이상으로 이민 배경자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혜순, 2017). 하지만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전히 동화주의와 다문

화주의가 혼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정장엽, 정순관, 2014). 교육,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문화주의가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문화정책은 동화주의가 더 강하고, 복지정책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정장엽, 정순관, 2014). 하지만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적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동질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의 양자택일이 아닌, 그 사회의 구성원과 역사를 맞추어 적응된 다문화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태원, 김유리, 2011). 더 나아가 이민자에 대한 존중이나 지원과, 내국인을 위한 다문화 인식에 대한 계도 간의 관계가 잘 정립되지 못한다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혜순, 2017).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정책은 쌍방향 접근을 기초로 하여 사회통합과 다양성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김태원, 김유리, 2011), 이민자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정책(변중헌, 2016)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중앙집권식 하향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주민 간의 협의기구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이성순, 2013).

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인식 및 수용 관련 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과 인식에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제1차에서는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정책이 있으며, 이 정책은 ‘5-1.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5-2.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5-3. 지자체 일선 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5-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의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분야에서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조성'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가장 최근의 제3차 기본계획 중 수용성 관련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에서 '4-1.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4-2.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4-3.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4-4.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4-1.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에는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차별적 제도와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며, 다문화 수용성 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환류를 추진하고 있다.

'4-2.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5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교육의 콘텐츠와 강사를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학교·단체 등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교육, 대상 특성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

사를 양성하는 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4-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에서는 인권 및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콘텐츠 개발 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미디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와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화 사업을 추진한다.

‘4-4.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다문화와 관련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포상을 주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주민과 선주민 교류를 지원하거나 쌍방향으로 체험을 교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내에서도 다문화 작품이 전시되도록 하는 등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4. 사회통합정책

사회통합정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⁵⁾).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지원하여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또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회통합 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

5)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에서 2021.5.6. 인출.

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세부 지원 항목을 발굴하기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 지정',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교육기관) 지정', '운영기관에서 KIIP 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은 0단계(기초), 1단계(초급1), 2단계(초급2), 3단계(중급1), 4단계(중급2)까지 구성되어 있고, 한국 사회이해 과정은 5단계에서 기본과 심화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교육 시간은 0단계 15시간, 1단계~4단계는 각각 100시간, 5단계 기본은 50시간, 심화는 20시간으로 총 48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하며, 단계별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과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인 특정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이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체류하여 교제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이 된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 예절 등을 소개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결혼사증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심사기준, 정부 정책 등을 소개하는 과정을 이수한다. 이때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상담 및 피해사례에 대한 소개과정을 시민단체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 중에는 국제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 등 국제결혼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다. 마지막 과정에는 부부간 인권 존중, 갈등 해소에 대한 방법, 가정폭력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시기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 즉 사증 신청을 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 밀집 지역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외국국적 동포가 그 대상자가 된다. 강의는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에 대한 공통과목을 약 3시간 정도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유형별 특수과목을 교육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조언, 진로 개척 및 직업 선택’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밀집 지역 외국인은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준법 의식’에 대한 교육, 외국인 연예인은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구제 절차’, 결혼이민자는 ‘부부와 가족 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 자녀는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준법의식 및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에 대한 특수과목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강의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3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표 2-13〉 사회통합정책

구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2.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레벨 지정 3.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교육기관) 지정 4. 운영기관에서 KIIP 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 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적응을 위한 교육
참여 대상	모든 이민자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등 - 밀집 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홍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 결혼이민자: 단기 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

10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p>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 외국국적 동포(H-2, F-4) 신규입국: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외국국적 동포(H-2, F-4)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 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 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이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와 한국 문화 - 0단계: 기초과정, 15시간 교육, 평가 없음 - 1단계: 초급1 과정, 100시간 교육, 1단계 평가 - 2단계: 초급2 과정, 100시간 교육, 2단계 평가 - 3단계: 중급1 과정, 100시간 교육, 3단계 평가 - 4단계: 중급2 과정, 100시간 교육, 중간평가 ○ 한국 사회이해 	<p>4개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 사례 및 국제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목: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3시간) ○ 특수과목 - 외국인 유학생: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조언, 진로 개척 및 직업선택 - 밀집 지역 외국인: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준법 의식

구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기본과정): 50시간 교육, 영주용 종합평가 - 5단계(심화 과정): 20시간 교육, 귀화용 종합평가 	<p>(국제결혼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 존중 및 갈등 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연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구제 절차 - 결혼이민자: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중도입국 자녀: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외국국적 동포(중국, CIS):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이수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신청 시 혜택 -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이민귀화 적격과정 이수 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 심사가 면제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사증신청시 혜택 -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 	<p>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이수 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 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 이수 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료: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프로그램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국 308개 기관의 참여자는 56,535명이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9,667명,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51,354명이다(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회통

합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점차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14〉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통합 프로그램	총 참여자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운영 기관 수	271	278	304	308	300	309	309	308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4,129	11,706	8,103	7,057	7,330	7,784	8,821	9,667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4,331	6,420	34,290	47,845	60,358	91,938	79,656	51,354

자료: 법무부, (각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이렇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의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장준영, 2020). 따라서 교육내용이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내용구성되어야 하며,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재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워크북과 같은 보충 교재를 통해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장준영, 2020).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 경험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김영옥, 2010).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어 교육과 함께 비언어적인 소통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영옥, 2010). 더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개발, 자원

봉사자, 멘토결연맺기 등의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소외 문제,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의 주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통·번역과 연계된 의료적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이성순, 2013), 좀 더 활발한 사회통합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차별 경험

제1절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제2절 이주민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제3절 소결

제 3 장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차별 경험

제3장과 제4장은 이 연구의 양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장으로 구성한다. 이 연구는 이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관계, 차별, 정책 이용, 생활 만족 등이다.

제1절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한국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므로 가까운 한국인 규모나 관계, 교류 특성이나 관계 만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한국에서 경험하는 차별도 인식 형성과 중요한 관계가 있기에 차별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경험했는지 등과 같은 관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교류 및 관계

이주민이 한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알아보았다.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지 살펴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다. 일주일에 3~7회, 일주일

에 1~2회, 한 달에 1~3회, 한 달에 1회 미만, 전혀 대화 안 함의 순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한국인과의 대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한국인과 대화 빈도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대화 안 함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7회	하루에도 여러 번	계	(명)	평균 (6점)	t/F
전체	4.5	10.4	12.4	12.9	18.5	41.2	100.0	(1,310)	4.54	
성별										
여성	4.3	10.2	13.4	14.5	16.9	40.8	100.0	(844)	4.52	0.00
남성	4.9	10.7	10.7	10.1	21.5	42.1	100.0	(466)	4.59	
체류 기간										
3년 미만	5.9	9.3	13.0	13.2	22.5	36.1	100.0	(355)	4.45	0.79
3년~5년 미만	3.8	10.7	11.9	13.2	19.5	40.9	100.0	(394)	4.57	
5년 이상	4.1	10.9	12.5	12.5	15.3	44.7	100.0	(561)	4.58	
체류자격										
취업	4.8	10.8	9.7	8.6	18.6	47.5	100.0	(463)	4.68	2.29
결혼	3.8	10.8	16.5	13.8	17.3	37.8	100.0	(370)	4.44	
정주	5.9	8.3	11.2	14.5	20.4	39.6	100.0	(338)	4.54	
학업 및 기타	2.2	12.9	13.7	20.9	17.3	33.1	100.0	(139)	4.37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5.2	8.7	11.3	12.8	21.5	40.4	100.0	(423)	4.58	1.31
동·서남아시아	4.8	10.8	12.9	9.9	17.7	43.8	100.0	(434)	4.56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5	11.7	14.6	18.1	15.2	36.8	100.0	(315)	4.40	
기타	3.6	10.9	9.4	10.9	19.6	45.7	100.0	(138)	4.69	
거주지										
수도권	5.1	12.2	12.1	10.6	22.1	37.8	100.0	(761)	4.46	3.61
비수도권	3.6	7.8	12.9	16.0	13.7	45.9	100.0	(549)	4.6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4.9	10.8	14.5	14.8	20.4	34.6	100.0	(324)	4.39	3.15 *
보통	5.5	9.5	12.1	13.3	20.9	38.9	100.0	(422)	4.51	
잘하는 편	3.5	10.8	11.5	11.5	15.8	46.8	100.0	(564)	4.66	
취업 여부										
취업	4.0	9.5	10.9	10.4	17.5	47.7	100.0	(906)	4.71	0.00
비취업	5.7	12.4	15.8	18.6	20.8	26.7	100.0	(404)	4.1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대화 안 함' 1점 ~ '하루에도 여러 번' 6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과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모국어나 영어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한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로만 대화한다는 응답도 30.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한국어만으로 대화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다. 체류자격별로는 정주나 결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출신 이주민은 다른 지역 출신보다 한국어로만 대화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한국계가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에서 온 이주민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는 조금만 사용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이 나타났다.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이주민의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사용 언어

(단위: %, 명, 점)

구 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전혀 사용 안 함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전혀 사용 안 함	계	(명)
전체	3.6	22.0	43.9	30.5	100.0	(1,310)
성별 ($\chi^2=19.64^{***}$)						
여성	2.3	20.4	44.3	33.1	100.0	(844)
남성	6.0	24.9	43.1	26.0	100.0	(466)
체류 기간 ($\chi^2=176.55^{***}$)						
3년 미만	6.8	35.8	40.3	17.2	100.0	(355)
3년~5년 미만	3.3	26.6	50.5	19.5	100.0	(394)
5년 이상	1.8	10.0	41.5	46.7	100.0	(561)

11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전혀 사용 안 함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전혀 사용 안 함	계	(명)
체류자격($\chi^2=71.69^{***}$)						
취업	5.4	30.9	40.2	23.5	100.0	(463)
결혼	1.1	13.2	48.9	36.8	100.0	(370)
정주	3.3	18.6	40.5	37.6	100.0	(338)
학업 및 기타	5.0	23.7	51.1	20.1	100.0	(139)
출신지역($\chi^2=108.64^{***}$)						
중국(한국계 포함)	1.4	14.7	38.3	45.6	100.0	(423)
동·서남아시아	3.7	19.6	46.8	30.0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5.7	28.3	49.5	16.5	100.0	(315)
기타	5.1	37.7	39.1	18.1	100.0	(138)
거주지($\chi^2=83.74^{***}$)						
수도권	5.0	14.7	42.7	37.6	100.0	(761)
비수도권	1.6	32.1	45.5	20.8	100.0	(549)
연령($\chi^2=33.66^{***}$)						
19~29세	4.8	26.5	46.6	22.0	100.0	(373)
30~39세	3.2	20.4	45.9	30.4	100.0	(647)
40세 이상	2.8	19.7	35.9	41.7	100.0	(290)
학력($\chi^2=11.77^{**}$)						
고졸 이하	2.2	23.7	40.9	33.2	100.0	(591)
대졸 이상	4.7	20.6	46.3	28.4	100.0	(719)
한국어 능력($\chi^2=260.84^{***}$)						
못하는 편	9.6	47.5	30.9	12.0	100.0	(324)
보통	1.7	19.9	48.8	29.6	100.0	(422)
잘하는 편	1.6	8.9	47.7	41.8	100.0	(564)
취업 여부($\chi^2=1.10$)						
취업	3.9	21.7	43.4	31.0	100.0	(906)
비취업	3.0	22.5	45.0	29.5	100.0	(40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한국인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았다. 도와줄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은 18.9%였고, 1~2명 있는 경우는 46.3%, 3~4명 있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한국인 숫자가 적고,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도 적다. 한국어를

못하는 편인 이주민은 주변에 도와줄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30.6%로 높다.

〈표 3-3〉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한국인 수

(단위: %, 명, 점)

구 분	없음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18.9	46.3	26.9	4.7	3.1	100.0	(1,310)	2.27	
성별									
여성	16.0	45.9	30.0	4.5	3.7	100.0	(844)	2.34	3.93
남성	24.2	47.2	21.5	5.2	1.9	100.0	(466)	2.13	*
체류 기간									
3년 미만	22.0	49.9	23.7	3.4	1.1	100.0	(355)	2.12	
3년~5년 미만	19.5	45.2	29.2	4.8	1.3	100.0	(394)	2.23	9.61
5년 이상	16.6	44.9	27.5	5.5	5.5	100.0	(561)	2.39	***
체류자격									
취업	24.2	49.5	21.0	4.3	1.1	100.0	(463)	2.09	
결혼	13.0	45.4	34.6	3.8	3.2	100.0	(370)	2.39	9.67
정주	20.1	41.1	25.7	7.7	5.3	100.0	(338)	2.37	***
학업 및 기타	14.4	51.1	29.5	1.4	3.6	100.0	(139)	2.2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23.4	46.1	21.5	5.4	3.5	100.0	(423)	2.20	
동·서남아시아	14.7	48.8	29.0	4.1	3.2	100.0	(434)	2.32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1.0	43.8	28.9	4.1	2.2	100.0	(315)	2.23	2.38
기타	13.8	44.9	32.6	5.8	2.9	100.0	(138)	2.39	
거주지									
수도권	26.1	45.3	21.4	3.7	3.4	100.0	(761)	2.13	
비수도권	8.9	47.7	34.6	6.2	2.6	100.0	(549)	2.46	0.11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0.6	47.8	19.8	0.6	1.2	100.0	(324)	1.94	
보통	18.0	47.9	28.2	3.6	2.4	100.0	(422)	2.24	35.69
잘하는 편	12.9	44.3	30.1	8.0	4.6	100.0	(564)	2.47	***
취업 여부									
취업	18.4	47.4	25.5	5.1	3.6	100.0	(906)	2.28	
비취업	20.0	44.1	30.2	4.0	1.7	100.0	(404)	2.23	1.36

주: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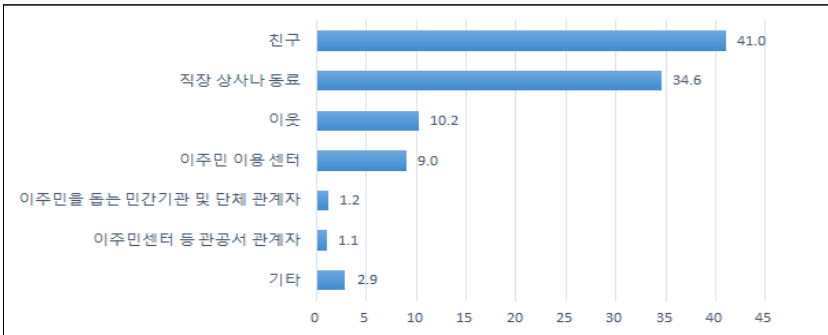
2) 평균은 '없음' 1점 ~ '10명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이 주변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1,062명), 어떠한 관계인지 알아보았다. 한국인 친구의 경우가 41.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직장 상사나 동료 34.6%, 이웃이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이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한국인과의 관계(n=1,062)

(단위: %)



주: 1)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도와줄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2) 기타: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 가족, 선생님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과 도움을 주는지, 받는지 또는 서로 주고받거나 전혀 도움을 교환하지 않는지 알아보았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든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33.1%는 주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은 전혀 도움을 주고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15.0%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움을 교환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든 응답이 55.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결혼이나 정주 자격의 이주민이 도움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고, 학업 및 기타 자격의 경우는 한국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12.2%로 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중국 출신의 이

주민이 51.8%의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과 도움을 교환한다고 응답하였고, 수도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비수도권보다 높기는 하지만,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47.9%로 높고 전혀 교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4%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 교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 도움 교환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음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에게 주로 도움을 줌	주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주로 도움을 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	계	(명)
전체	15.0	8.4	33.1	43.5	100.0	(1,310)
성별($\chi^2=19.64^{***}$)						
여성	12.1	7.1	33.9	46.9	100.0	(844)
남성	20.4	10.7	31.5	37.3	100.0	(466)
체류 기간($\chi^2=176.55^{***}$)						
3년 미만	15.2	9.6	38.6	36.6	100.0	(355)
3년~5년 미만	15.5	9.4	42.1	33.0	100.0	(394)
5년 이상	14.6	7.0	23.2	55.3	100.0	(561)
체류자격($\chi^2=71.69^{***}$)						
취업	18.6	8.9	37.1	35.4	100.0	(463)
결혼	10.8	8.6	31.1	49.5	100.0	(370)
정주	14.5	5.9	30.2	49.4	100.0	(338)
학업 및 기타	15.8	12.2	31.7	40.3	100.0	(139)
출신지역($\chi^2=108.64^{***}$)						
중국(한국계 포함)	13.5	7.6	27.2	51.8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3.8	10.6	35.5	40.1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8.4	6.7	40.3	34.6	100.0	(315)
기타	15.9	8.0	26.8	49.3	100.0	(138)
거주지($\chi^2=83.743^{***}$)						
수도권	21.3	8.3	22.3	48.1	100.0	(761)
비수도권	6.4	8.6	47.9	37.2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260.84^{***}$)						
못하는 편	17.9	11.1	44.1	26.9	100.0	(324)
보통	13.3	9.5	32.0	45.3	100.0	(422)
잘하는 편	14.7	6.0	27.5	51.8	100.0	(564)

구 분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음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에게 주로 도움을 줌	주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주로 도움을 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	계	(명)
취업 여부($\chi^2=1.10$)						
취업	14.5	8.7	31.8	45.0	100.0	(906)
비취업	16.3	7.7	35.9	40.1	100.0	(40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은 한국인이 절반 이상인 한국 사람 중심의 모임에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1회 미만이 31.1%, 한 달에 1~3회가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와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민은 한국인과의 모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3-5〉 이주민이 한국인 중심인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45.3	31.1	16.3	5.5	1.8	100.0	(1,310)	1.87	
성별									
여성	42.5	32.7	17.4	5.9	1.4	100.0	(844)	1.91	1.05
남성	50.4	28.3	14.2	4.7	2.4	100.0	(466)	1.80	
체류 기간									
3년 미만	52.4	25.4	15.2	5.1	2.0	100.0	(355)	1.79	
3년~5년 미만	46.2	31.7	14.0	6.3	1.8	100.0	(394)	1.86	2.41
5년 이상	40.3	34.4	18.5	5.2	1.6	100.0	(561)	1.93	
체류자격									
취업	52.7	29.2	13.4	4.1	0.6	100.0	(463)	1.71	
결혼	37.8	35.1	21.1	5.1	0.8	100.0	(370)	1.96	6.69
정주	43.5	30.5	16.0	8.0	2.1	100.0	(338)	1.95	***
학업 및 기타	45.3	28.8	13.7	5.0	7.2	100.0	(139)	2.00	

구 분	전혀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6.6	30.7	15.8	5.7	1.2	100.0	(423)	1.84	2.00
동·서남아시아	44.5	30.2	19.1	4.8	1.4	100.0	(434)	1.88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48.6	31.4	12.7	4.4	2.9	100.0	(315)	1.82	
기타	37.0	34.8	16.7	9.4	2.2	100.0	(138)	2.05	
거주지									
수도권	50.5	31.3	12.9	3.4	2.0	100.0	(761)	1.75	3.28
비수도권	38.3	31.0	20.9	8.4	1.5	100.0	(549)	2.0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61.7	23.8	10.8	1.9	1.9	100.0	(324)	1.58	31.59 ***
보통	49.5	29.6	14.5	5.2	1.2	100.0	(422)	1.79	
잘하는 편	32.8	36.5	20.7	7.8	2.1	100.0	(564)	2.10	
취업 여부									
취업	45.0	31.7	16.4	5.1	1.8	100.0	(906)	1.87	0.57
비취업	46.0	30.0	15.8	6.4	1.7	100.0	(404)	1.8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참석하지 않음' 1점 ~ '일주일에 3회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횡수의 평균은 아님.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과의 비교를 위해 이주민이 모국 친구나 이주민끼리의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도 알아보았다. 이 항목은 한국인과 의 관계를 보여주는 항목은 아니지만, 이주민 모임의 참석 정도가 기준으로 있어야 한국인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기에 추가한 것이다. 이주민이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는 한 달에 1회 미만인 경우가 39.4%, 한 달에 1~3회는 26.6%로 이 두 카테고리의 빈도가 높고, 그다음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4%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모임에 참석하기보다 이주민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율로 비교하면 한국인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45.3%인데 반해, 이주민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23.4%로 차이를 보인다.

학업 및 기타 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은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주일에 1~2회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출신의 이주민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에도 참석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3-6〉 이주민이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23.4	39.4	26.6	8.8	1.9	100.0	(1,310)	2.26	
성별									
여성	23.0	40.8	26.1	8.5	1.7	100.0	(844)	2.25	2.78
남성	24.0	36.9	27.5	9.2	2.4	100.0	(466)	2.29	
체류 기간									
3년 미만	27.6	34.4	23.4	12.1	2.5	100.0	(355)	2.28	0.07
3년~5년 미만	19.0	45.2	26.6	7.9	1.3	100.0	(394)	2.27	
5년 이상	23.7	38.5	28.5	7.3	2.0	100.0	(561)	2.25	
체류자격									
취업	25.3	40.0	25.3	8.0	1.5	100.0	(463)	2.21	4.78**
결혼	22.2	40.8	29.7	5.7	1.6	100.0	(370)	2.24	
정주	24.6	38.8	24.9	10.1	1.8	100.0	(338)	2.26	
학업 및 기타	17.3	35.3	26.6	16.5	4.3	100.0	(139)	2.5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25.8	44.0	22.2	6.9	1.2	100.0	(423)	2.14	4.50**
동·서남아시아	20.7	34.6	32.7	9.9	2.1	100.0	(434)	2.38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2.9	42.5	22.5	9.2	2.9	100.0	(315)	2.27	
기타	25.4	33.3	29.7	10.1	1.4	100.0	(138)	2.29	
거주지									
수도권	24.8	37.1	26.9	8.4	2.8	100.0	(761)	2.27	6.73**
비수도권	21.3	42.6	26.0	9.3	0.7	100.0	(549)	2.2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0.9	38.6	20.7	7.1	2.8	100.0	(324)	2.12	4.83**
보통	20.9	40.3	30.1	7.1	1.7	100.0	(422)	2.28	
잘하는 편	20.9	39.2	27.3	11.0	1.6	100.0	(564)	2.33	
취업 여부									
취업	22.0	40.2	27.7	7.9	2.2	100.0	(906)	2.28	0.70
비취업	26.5	37.6	24.0	10.6	1.2	100.0	(404)	2.2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참석하지 않음' 1점 ~ '일주일에 3회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횡수의 평균은 아님.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비율이 87.3%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이주민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약간 만족한다는 비율이 74.7%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92.3%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인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24.2%로 높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91.6%에 달한다. 도움을 줄 한국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한국인과 모임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7〉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 관계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계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2.8	9.9	12.7	67.6	19.7	87.3	100.0 (1,310)
성별($\chi^2=5.08$)							
여성	2.6	8.6	11.3	68.4	20.4	88.7	100.0 (844)
남성	3.2	12.2	15.5	66.1	18.5	84.5	100.0 (466)
체류 기간($\chi^2=6.91$)							
3년 미만	2.3	9.6	11.8	67.9	20.3	88.2	100.0 (355)
3년~5년 미만	2.5	10.9	13.5	70.6	16.0	86.5	100.0 (394)
5년 이상	3.4	9.4	12.8	65.2	21.9	87.2	100.0 (561)
체류자격($\chi^2=8.13$)							
취업	2.6	11.2	13.8	67.4	18.8	86.2	100.0 (463)
결혼	3.0	7.3	10.3	71.4	18.4	89.7	100.0 (370)
정주	2.7	10.1	12.7	64.5	22.8	87.3	100.0 (338)
학업 및 기타	3.6	12.2	15.8	65.5	18.7	84.2	100.0 (139)
출신지역($\chi^2=8.96$)							
중국(한국계 포함)	2.4	10.9	13.2	68.6	18.2	86.8	100.0 (423)
동·서남아시아	3.5	10.1	13.6	64.1	22.4	86.4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9	10.5	13.3	68.3	18.4	86.7	100.0 (315)
기타	2.2	5.1	7.2	73.9	18.8	92.8	100.0 (138)

구 분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계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거주지($\chi^2=34.47^{***}$)							
수도권	3.8	13.3	17.1	62.4	20.5	82.9	100.0 (761)
비수도권	1.5	5.3	6.7	74.7	18.6	93.3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13.31^*$)							
못하는 편	3.4	14.2	17.6	65.7	16.7	82.4	100.0 (324)
보통	3.1	10.0	13.0	67.5	19.4	87.0	100.0 (422)
잘하는 편	2.3	7.4	9.8	68.6	21.6	90.2	100.0 (564)
취업 여부($\chi^2=3.77$)							
취업	2.5	10.5	13.0	66.3	20.6	87.0	100.0 (906)
비취업	3.5	8.7	12.1	70.3	17.6	87.9	100.0 (404)
차별 경험($\chi^2=28.59^{***}$)							
없음	2.4	6.1	8.4	67.4	24.2	91.6	100.0 (595)
있음	3.2	13.1	16.4	67.7	15.9	83.6	100.0 (715)
도움 줄 한국인($\chi^2=36.24^{***}$)							
없음	4.8	19.0	23.8	62.5	13.7	76.2	100.0 (248)
있음	2.4	7.8	10.2	68.7	21.1	89.8	100.0 (1062)
한국인과 모임($\chi^2=26.47^{***}$)							
안 함	4.4	13.0	17.3	66.5	16.2	82.7	100.0 (594)
함	1.5	7.4	8.9	68.4	22.6	91.1	100.0 (71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이주민의 차별 경험

이주민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정도를 알아보았다. 전혀 없음 - 한 번 - 몇 번 - 한 달에 한 번 정도 - 한 달에 몇 번 정도 -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순서대로 1~6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평균 값이 2.09점으로 나타났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전혀 없음이 45.4%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지난 1년 동안 몇 번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차별 경험이 있는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이 길수록 차별 경험이 많았고, 중앙아시아, 몽골 및 러시아 지역 출신의 경우가 차별 경험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작았으며, 차별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55.9%로 과반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비한국계 이주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차별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류 기간 과도 연관이 있고, 언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일어나 다른 사회생활을 통해 한국인을 만나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8〉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없음	한 번	몇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	(명)	평균 (6점)	t/F
전체	45.4	13.2	32.4	5.0	3.3	0.6	100.0	(1,310)	2.09	
성별										
여성	47.7	12.9	30.6	5.0	3.2	0.6	100.0	(844)	2.05	0.05
남성	41.2	13.7	35.8	5.2	3.4	0.6	100.0	(466)	2.18	
체류 기간										
3년 미만	53.8	15.8	22.8	3.1	4.2	0.3	100.0	(355)	1.89	8.73 ***
3년~5년 미만	44.7	14.0	31.7	6.6	2.5	0.5	100.0	(394)	2.10	
5년 이상	40.6	11.1	39.0	5.2	3.2	0.9	100.0	(561)	2.22	
체류자격										
취업	45.1	14.3	31.5	5.0	3.5	0.6	100.0	(463)	2.09	0.15
결혼	44.9	12.7	34.1	5.1	2.7	0.5	100.0	(370)	2.10	
정주	45.6	12.1	32.8	4.7	4.1	0.6	100.0	(338)	2.12	
학업 및 기타	47.5	13.7	30.2	5.8	2.2	0.7	100.0	(139)	2.04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39.2	16.8	35.9	5.4	1.9	0.7	100.0	(423)	2.16	5.66 ***
동·서남아시아	42.9	11.3	35.3	5.5	4.4	0.7	100.0	(434)	2.1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55.9	12.1	25.1	4.1	2.5	0.3	100.0	(315)	1.86	
기타	48.6	10.9	29.7	4.3	5.8	0.7	100.0	(138)	2.10	
거주지										
수도권	44.3	13.0	37.3	2.6	2.1	0.7	100.0	(761)	2.07	14.56
비수도권	47.0	13.5	25.7	8.4	4.9	0.5	100.0	(549)	2.12	***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50.6	13.3	31.2	2.5	2.5	0.0	100.0	(324)	1.93	6.36 ***
보통	45.3	15.2	31.0	5.5	2.8	0.2	100.0	(422)	2.06	
잘하는 편	42.6	11.7	34.2	6.2	4.1	1.2	100.0	(564)	2.21	

구 분	전혀 없음	한 번	몇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	(명)	평균 (6점)	t/F
취업 여부										
취업	43.9	12.5	35.1	4.7	3.1	0.7	100.0	(906)	2.13	0.24
비취업	48.8	14.9	26.5	5.7	3.7	0.5	100.0	(404)	2.02	
한국계 여부										
한국계	49.8	18.2	26.5	3.8	1.4	0.3	100.0	(291)	1.90	17.69
비한국계	44.2	11.8	34.2	5.4	3.8	0.7	100.0	(1,019)	2.15	***
한국인과 모임										
안 함	48.3	12.0	32.7	4.4	2.4	0.3	100.0	(594)	2.02	3.36
함	43.0	14.2	32.3	5.6	4.1	0.8	100.0	(716)	2.16	

주: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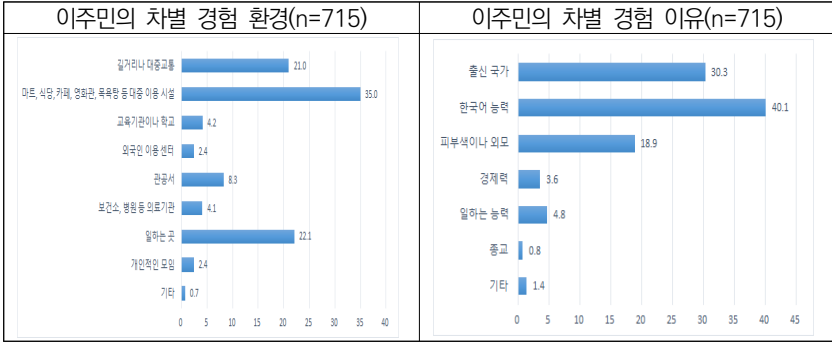
2) 평균은 '전혀 없음' 1점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어떠한 곳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 이유는 주로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차별을 경험한 환경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대중 이용 시설이다. 마트나 식당, 카페, 극장, 목욕탕 등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에서의 차별 경험이 35.0%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일하는 곳(22.1%)과 길거리나 대중교통(21.0%)으로 나타났다. 즉, 일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방문하게 되는 장소에서의 차별 경험이 흔한 것을 알 수 있다. 관공서에서의 차별 경험은 8.3%, 교육기관이나 학교,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의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이유를 알아보면, 한국어 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출신국가(30.3%), 피부색이나 외모(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이주민의 차별 경험 환경과 이유

(단위: %)



주: 1) 지난 1년 동안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2) 차별 경험 환경 기타: 기업의 서비스 거부, 부동산, 동네 등
 3) 차별 경험 이유 기타: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성별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2절 이주민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에 이어 정책에 관한 생각 및 경험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이 누적되어 결국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제1절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에 이어 정책 경험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생활 만족을 알아본다.

1.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한국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외국인 지원정책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다. 한국이 이주민 그룹에 대해 얼마나 정책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정확하게 정책 대

상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정책의 관심과 한국의 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룹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책의 관심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7.9%이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정책의 관심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8.5%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6% 포인트 차이로 더 높다. 다문화가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체류자격이 결혼인 이주민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정도가 약간 많다는 의견은 49.5%, 매우 많다는 의견은 37.6%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87.0%로 정책 대상인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정책의 집단별 관심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약간 관심 많다	매우 관심 많다	관심 많다	모르 겠다	계	(명)	
전체	2.8	19.5	22.4	48.6	19.3	67.9	9.7	100.0	(1,310)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체류자격($\chi^2=9.44$)									
	취업	2.8	17.7	20.5	51.2	18.8	70.0	9.5	100.0	(463)
	결혼	2.4	17.8	20.3	48.9	21.4	70.3	9.5	100.0	(370)
	정주	3.6	22.2	25.7	45.6	19.5	65.1	9.2	100.0	(338)
	학업 및 기타	2.2	23.7	25.9	46.8	15.1	61.9	12.2	100.0	(139)
전체	1.1	11.2	12.3	50.1	28.4	78.5	9.2	100.0	(1,310)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체류자격($\chi^2=62.46^{***}$)									
	취업	1.3	9.7	11.0	51.4	22.5	73.9	15.1	100.0	(463)
	결혼	0.0	9.5	9.5	49.5	37.6	87.0	3.5	100.0	(370)
	정주	2.1	14.8	16.9	48.8	26.9	75.7	7.4	100.0	(338)
	학업 및 기타	0.7	12.2	12.9	50.4	27.3	77.7	9.4	100.0	(13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프로그램 참여 및 정책 지원 경험

이주민 입국이나 정착, 그리고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참여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한국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참여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28.9%, 그중 도움이 된 정도는 4점 중 평균 3.30점으로 도움이 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일 참여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는 총 4점 중 평균 2.54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여성, 체류 기간 5년 이상, 결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 동·서남아시아 출신, 비수도권, 40세 이상, 고졸 이하, 한국어 능력 중간, 취업한 경우의 이주민 사이에서 3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와 향후 참여 의향은 큰 차이가 없다.

〈표 3-10〉 이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

(단위: %, 명)

구 분	참여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향후 참여 의향 평균	(명)
전체	28.9	(1,310)	3.30	(378)	2.54	(932)
성별						
여성	32.7	(844)	3.34	(276)	2.51	(568)
남성	21.9	(466)	3.21	(102)	2.57	(364)
체류 기간						
3년 미만	22.8	(355)	3.10	(81)	2.57	(274)
3년~5년 미만	26.6	(394)	3.32	(105)	2.55	(289)
5년 이상	34.2	(561)	3.38	(192)	2.50	(369)
체류자격						
취업	27.0	(463)	3.24	(125)	2.51	(338)
결혼	39.2	(370)	3.34	(145)	2.54	(225)
정주	23.4	(338)	3.34	(79)	2.53	(259)
학업 및 기타	20.9	(139)	3.31	(29)	2.64	(110)

126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참여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향후 참여 의향 평균	(명)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2.7	(423)	3.31	(96)	2.55	(327)
동·서남아시아	35.9	(434)	3.38	(156)	2.60	(278)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8.9	(315)	3.24	(91)	2.53	(224)
기타	25.4	(138)	3.09	(35)	2.34	(103)
거주지						
수도권	26.7	(761)	3.23	(203)	2.62	(558)
비수도권	31.9	(549)	3.39	(175)	2.41	(374)
연령						
19~29세	24.9	(373)	3.24	(93)	2.58	(280)
30~39세	28.0	(647)	3.28	(181)	2.55	(466)
40세 이상	35.9	(290)	3.40	(104)	2.44	(186)
학력						
고졸 이하	32.0	(591)	3.31	(189)	2.45	(402)
대졸 이상	26.3	(719)	3.30	(189)	2.60	(530)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24.4	(324)	3.23	(79)	2.46	(245)
보통	32.7	(422)	3.39	(138)	2.62	(284)
잘하는 편	28.5	(564)	3.27	(161)	2.53	(403)
취업 여부						
취업	30.2	(906)	3.30	(274)	2.53	(632)
비취업	25.7	(404)	3.32	(104)	2.56	(300)
차별 경험						
없음	28.2	(595)	3.31	(168)	2.47	(427)
있음	29.4	(715)	3.30	(210)	2.59	(505)

주: 1) 참여율은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임.

2) 도움 정도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향후 참여 의향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없음' 1점, '별로 없음' 2점, '약간 있음' 3점, '매우 많음'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어서 정책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정책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 다문화센터 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이주민을 위한 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이 기관 이용 빈도를 이어지는 정책 지원 경험에서 변수로 활용한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57.3%로 높고, 한 달에 1회 미만인 경우가 27.1%, 한 달에 1~3회인 경우는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체류 기간이 길수록,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동·서남아시아 출신인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기관 이용 빈도가 높다. 한국어 능력이 보통인 경우가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잘하는 편인 경우는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한 이주민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못하는 편인 경우는 체류 기간이 짧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기관을 이용할 방법을 모를 수 있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의 이주민이 관련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1〉 이주민이 이주민 관련 기관 이용하는 빈도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57.3	27.1	11.0	3.1	1.6	100.0	(1,310)	1.65	
성별									
여성	52.3	28.3	13.9	3.7	1.9	100.0	(844)	1.75	28.46
남성	66.3	24.9	5.8	1.9	1.1	100.0	(466)	1.47	***
체류 기간									
3년 미만	63.9	22.5	8.7	3.4	1.4	100.0	(355)	1.56	4.37 *
3년~5년 미만	56.9	30.2	9.1	2.8	1.0	100.0	(394)	1.61	
5년 이상	53.3	27.8	13.7	3.0	2.1	100.0	(561)	1.73	
체류자격									
취업	63.7	25.3	8.0	1.7	1.3	100.0	(463)	1.52	
결혼	42.2	34.1	18.9	3.0	1.9	100.0	(370)	1.88	13.17
정주	61.8	22.8	8.3	5.3	1.8	100.0	(338)	1.62	***
학업 및 기타	64.7	25.2	6.5	2.2	1.4	100.0	(139)	1.5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63.1	24.3	9.7	2.1	0.7	100.0	(423)	1.53	
동·서남아시아	43.5	34.3	15.9	3.9	2.3	100.0	(434)	1.87	15.16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61.3	24.8	8.9	2.9	2.2	100.0	(315)	1.60	***
기타	73.2	18.1	4.3	3.6	0.7	100.0	(138)	1.41	

구 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거주지									
수도권	68.9	20.5	6.7	1.8	2.1	100.0	(761)	1.48	4.39*
비수도권	41.2	36.2	16.9	4.7	0.9	100.0	(549)	1.88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61.7	26.2	7.4	2.5	2.2	100.0	(324)	1.57	3.87*
보통	51.4	29.6	14.2	2.6	2.1	100.0	(422)	1.74	
잘하는 편	59.0	25.7	10.6	3.7	0.9	100.0	(564)	1.62	
취업 여부									
취업	58.5	26.2	11.1	2.3	1.9	100.0	(906)	1.63	0.11
비취업	54.5	29.2	10.6	4.7	1.0	100.0	(404)	1.69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이용하지 않음' 1점 ~ '일주일에 3회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정책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책 분야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의료, 자녀 양육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적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지원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일자리 정책은 37.5%가 필요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중 51.9%가 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3.30점으로 약간 도움 된다는 의견에 가깝게 나타났다. 체류자격이 취업이나 결혼일 때 지원 비율이 높고, 동·서남아 시아 출신 이민자의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할수록, 그리고 이주민 기관을 이용 하는 경우 지원 경험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3-12〉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1: 일자리 정책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37.5	(1,310)	51.9	(491)	3.30	(255)
성별						
여성	37.8	(844)	52.7	(319)	3.36	(168)
남성	36.9	(466)	50.6	(172)	3.20	(87)
체류 기간						
3년 미만	27.9	(355)	51.5	(99)	3.27	(51)
3년~5년 미만	37.8	(394)	45.6	(149)	3.25	(68)
5년 이상	43.3	(561)	56.0	(243)	3.34	(136)
체류자격						
취업	37.4	(463)	54.9	(173)	3.35	(95)
결혼	38.9	(370)	57.6	(144)	3.39	(83)
정주	37.0	(338)	44.8	(125)	3.18	(56)
학업 및 기타	35.3	(139)	42.9	(49)	3.10	(21)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36.6	(423)	45.2	(155)	3.27	(70)
동·서남아시아	46.5	(434)	62.9	(202)	3.33	(12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4	(315)	42.4	(99)	3.19	(42)
기타	25.4	(138)	45.7	(35)	3.50	(16)
거주지						
수도권	32.2	(761)	46.5	(245)	3.20	(114)
비수도권	44.8	(549)	57.3	(246)	3.38	(141)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5.5	(324)	44.3	(115)	3.16	(51)
보통	39.6	(422)	54.5	(167)	3.26	(91)
잘하는 편	37.1	(564)	54.1	(209)	3.40	(113)
취업 여부						
취업	41.6	(906)	57.6	(377)	3.30	(217)
비취업	28.2	(404)	33.3	(114)	3.32	(38)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27.9	(750)	38.8	(209)	3.26	(81)
함	50.4	(560)	61.7	(282)	3.32	(174)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주거 정책은 응답자의 28.7%가 필요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29.0%가 지원 경험이 있고 도움 정도는 3.35점으로 약간 도움 된다는 견해에 가깝다. 체류자격이 취업일 때 상대적으로 필요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지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원 비율은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높으며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의 지원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2: 주거 정책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28.7	(1,310)	29.0	(376)	3.35	(109)
성별						
여성	27.7	(844)	32.1	(234)	3.37	(75)
남성	30.5	(466)	23.9	(142)	3.29	(34)
체류 기간						
3년 미만	25.9	(355)	30.4	(92)	3.18	(28)
3년~5년 미만	30.5	(394)	21.7	(120)	3.27	(26)
5년 이상	29.2	(561)	33.5	(164)	3.47	(55)
체류자격						
취업	32.0	(463)	20.9	(148)	3.29	(31)
결혼	24.3	(370)	42.2	(90)	3.53	(38)
정주	29.6	(338)	29.0	(100)	3.31	(29)
학업 및 기타	27.3	(139)	28.9	(38)	3.00	(11)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4	(423)	27.6	(116)	3.34	(32)
동·서남아시아	33.6	(434)	28.1	(146)	3.46	(41)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6.7	(315)	31.0	(84)	3.12	(26)
기타	21.7	(138)	33.3	(30)	3.50	(10)
거주지						
수도권	26.1	(761)	28.6	(199)	3.18	(57)
비수도권	32.2	(549)	29.4	(177)	3.54	(52)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29.6	(324)	30.2	(96)	3.31	(29)
보통	26.8	(422)	31.0	(113)	3.23	(35)
잘하는 편	29.6	(564)	26.9	(167)	3.47	(45)
취업 여부						
취업	31.9	(906)	28.4	(289)	3.35	(82)
비취업	21.5	(404)	31.0	(87)	3.33	(27)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23.7	(750)	18.5	(178)	3.06	(33)
함	35.4	(560)	38.4	(198)	3.47	(76)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교육 정책은 필요했던 경험이 30.9%이며, 지원 경험은 67.7%로 다른 정책보다 높다. 도움 정도 평균은 3.50점으로 약간 도움과 매우 도움의 사이로 나타났다. 지원 경험이 높은 그룹은 여성, 체류 5년 이상, 학업 및 기타 체류자격, 동·서남아시아 출신과 서양 및 일본·대만 등의 출신, 비수도권, 한국어를 못할수록,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3: 교육 정책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30.9	(1,310)	67.7	(405)	3.50	(274)
성별						
여성	36.8	(844)	71.1	(311)	3.52	(221)
남성	20.2	(466)	56.4	(94)	3.40	(53)
체류 기간						
3년 미만	20.8	(355)	64.9	(74)	3.52	(48)
3년-5년 미만	25.4	(394)	60.0	(100)	3.32	(60)
5년 이상	41.2	(561)	71.9	(231)	3.55	(166)
체류자격						
취업	17.3	(463)	53.8	(80)	3.47	(43)
결혼	44.1	(370)	74.8	(163)	3.53	(122)
정주	28.4	(338)	64.6	(96)	3.34	(62)
학업 및 기타	47.5	(139)	71.2	(66)	3.64	(47)

13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30.5 (423)	61.2 (129)	3.43 (79)
동·서남아시아	37.6 (434)	74.2 (163)	3.55 (121)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6.7 (315)	63.1 (84)	3.53 (53)
기타	21.0 (138)	72.4 (29)	3.38 (21)
거주지			
수도권	29.8 (761)	61.7 (227)	3.49 (140)
비수도권	32.4 (549)	75.3 (178)	3.50 (13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21.6 (324)	74.3 (70)	3.38 (52)
보통	32.2 (422)	68.4 (136)	3.46 (93)
잘하는 편	35.3 (564)	64.8 (199)	3.57 (129)
취업 여부			
취업	29.8 (906)	69.6 (270)	3.48 (188)
비취업	33.4 (404)	63.7 (135)	3.53 (86)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22.9 (750)	59.9 (172)	3.43 (103)
함	41.6 (560)	73.4 (233)	3.54 (171)

-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보건 및 의료 정책이 필요했던 경험은 47.4%로 다른 정책보다 필요했던 이민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원 경험률도 65.4%로 비교적 높으며 도움 정도는 3.52점으로 나타났다. 필요했던 경험이 많은 이주민 집단은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동·서남아시아 출신, 한국어를 잘할수록,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지원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여성, 4년 이상 체류,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동·서남아시아 출신,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이다.

〈표 3-15〉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4: 보건/의료 정책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47.4	(1,310)	65.4	(621)	3.52	(406)
성별						
여성	47.4	(844)	70.0	(400)	3.55	(280)
남성	47.4	(466)	57.0	(221)	3.44	(126)
체류 기간						
3년 미만	38.9	(355)	58.7	(138)	3.48	(81)
3년~5년 미만	46.4	(394)	65.0	(183)	3.45	(119)
5년 이상	53.5	(561)	68.7	(300)	3.57	(206)
체류자격						
취업	45.4	(463)	58.1	(210)	3.46	(122)
결혼	53.5	(370)	77.3	(198)	3.56	(153)
정주	43.8	(338)	59.5	(148)	3.53	(88)
학업 및 기타	46.8	(139)	66.2	(65)	3.51	(43)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8.9	(423)	66.2	(207)	3.47	(137)
동·서남아시아	52.3	(434)	70.0	(227)	3.59	(15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42.2	(315)	57.9	(133)	3.39	(77)
기타	39.1	(138)	61.1	(54)	3.67	(33)
거주지						
수도권	45.9	(761)	63.0	(349)	3.43	(220)
비수도권	49.5	(549)	68.4	(272)	3.62	(18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44.1	(324)	60.1	(143)	3.45	(86)
보통	44.3	(422)	69.5	(187)	3.51	(130)
잘하는 편	51.6	(564)	65.3	(291)	3.55	(190)
취업 여부						
취업	48.2	(906)	65.9	(437)	3.52	(288)
비취업	45.5	(404)	64.1	(184)	3.50	(118)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41.5	(750)	57.2	(311)	3.40	(178)
함	55.4	(560)	73.5	(310)	3.61	(228)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자녀 양육 지원 경험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한국어를 잘할수록,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지원한 비율은 다른 정책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지원 비율이 낮은 집단을 보면, 남성, 체류자격이 취업이거나 학업 및 기타인 경우,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동거 자녀가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 3-16〉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5: 자녀 양육정책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25.3 (1,310)	70.8 (332)	3.51 (235)
성별			
여성	34.6 (844)	72.6 (292)	3.53 (212)
남성	8.6 (466)	57.5 (40)	3.26 (23)
체류 기간			
3년 미만	10.7 (355)	71.1 (38)	3.56 (27)
3년~5년 미만	14.0 (394)	63.6 (55)	3.29 (35)
5년 이상	42.6 (561)	72.4 (239)	3.54 (173)
체류자격			
취업	7.3 (463)	55.9 (34)	3.11 (19)
결혼	53.8 (370)	77.4 (199)	3.58 (154)
정주	23.4 (338)	65.8 (79)	3.44 (52)
학업 및 기타	14.4 (139)	50.0 (20)	3.50 (1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8.8 (423)	71.3 (122)	3.49 (87)
동·서남아시아	30.4 (434)	75.0 (132)	3.63 (9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5.2 (315)	58.3 (48)	3.29 (28)
기타	21.7 (138)	70.0 (30)	3.29 (21)
거주지			
수도권	23.3 (761)	62.7 (177)	3.47 (111)
비수도권	28.2 (549)	80.0 (155)	3.54 (12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12.0 (324)	79.5 (39)	3.42 (31)
보통	25.8 (422)	75.2 (109)	3.41 (82)
잘하는 편	32.6 (564)	66.3 (184)	3.59 (122)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취업 여부			
취업	22.6 (906)	73.2 (205)	3.54 (150)
비취업	31.4 (404)	66.9 (127)	3.45 (85)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18.7 (750)	60.0 (140)	3.33 (84)
함	34.3 (560)	78.6 (192)	3.60 (151)
동거 자녀 유무			
없음	7.1 (873)	50.0 (62)	3.35 (31)
있음	61.8 (437)	75.6 (270)	3.53 (204)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3. 이주민의 한국 생활 만족과 향후 한국 생활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보면, 응답자의 67.2%가 약간 만족한다, 25.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양아시아 및 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경우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30.8%로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만족한다는 비율이 95.2%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31.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3-17〉 이주민의 한국 생활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만족 정도			만족 정도			계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 한다		
전체	0.7	6.5	7.2	67.2	25.6	92.8	100.0	(1,310)
성별($\chi^2=2.98$)								
여성	0.6	5.8	6.4	66.9	26.7	93.6	100.0	(844)
남성	0.9	7.7	8.6	67.6	23.8	91.4	100.0	(466)
체류 기간($\chi^2=2.10$)								
3년 미만	0.8	5.4	6.2	68.7	25.1	93.8	100.0	(355)
3년~5년 미만	0.5	7.6	8.1	66.5	25.4	91.9	100.0	(394)
5년 이상	0.7	6.4	7.1	66.7	26.2	92.9	100.0	(561)
체류자격($\chi^2=4.20$)								
취업	0.4	6.9	7.3	69.3	23.3	92.7	100.0	(463)
결혼	1.1	6.2	7.3	66.5	26.2	92.7	100.0	(370)
정주	0.6	6.8	7.4	65.1	27.5	92.6	100.0	(338)
학업 및 기타	0.7	5.0	5.8	66.9	27.3	94.2	100.0	(139)
출신지역($\chi^2=18.41^*$)								
중국(한국계 포함)	0.2	8.5	8.7	70.9	20.3	91.3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2	6.2	7.4	65.0	27.6	92.6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4.1	4.8	64.4	30.8	95.2	100.0	(315)
기타	0.7	6.5	7.2	68.8	23.9	92.8	100.0	(138)
거주지($\chi^2=13.65^{**}$)								
수도권	0.8	8.5	9.3	64.8	25.9	90.7	100.0	(761)
비수도권	0.5	3.6	4.2	70.5	25.3	95.8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8.21$)								
못하는 편	0.3	9.6	9.9	65.7	24.4	90.1	100.0	(324)
보통	0.9	5.9	6.9	66.6	26.5	93.1	100.0	(422)
잘하는 편	0.7	5.1	5.9	68.4	25.7	94.1	100.0	(564)
취업 여부($\chi^2=1.56$)								
취업	0.6	6.8	7.4	66.7	25.9	92.6	100.0	(906)
비취업	1.0	5.7	6.7	68.3	25.0	93.3	100.0	(404)
차별 경험($\chi^2=31.12^{***}$)								
없음	0.5	3.7	4.2	64.0	31.8	95.8	100.0	(595)
있음	0.8	8.8	9.7	69.8	20.6	90.3	100.0	(715)
한국 국적($\chi^2=2.46$)								
취득	0.5	4.4	4.9	66.8	28.3	95.1	100.0	(205)
미취득	0.7	6.9	7.6	67.2	25.2	92.4	100.0	(1,10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 생활 만족도에 이어서 현재 사는 곳이 이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72.3%가 대체로 살기 좋다고 응답하였고, 23.6%가 매우 살기 좋다고 응답해 95.9%가 현재 사는 지역이 이주민이 살기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사는 지역이 이주민이 살기 좋은지 물었기 때문에 거주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살기 좋다는 응답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살기 좋다는 응답이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매우 살기 좋다는 응답 비율이 2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현재 생활 지역이 이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나쁘다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좋다	매우 살기 좋다	살기 좋다	계	(명)
전체	0.5	3.7	4.1	72.3	23.6	95.9	100.0	(1,310)
성별($\chi^2=3.59$)								
여성	0.2	3.4	3.7	71.9	24.4	96.3	100.0	(844)
남성	0.9	4.1	4.9	73.0	22.1	95.1	100.0	(466)
체류 기간($\chi^2=10.12$)								
3년 미만	0.8	3.9	4.8	70.7	24.5	95.2	100.0	(355)
3년~5년 미만	0.3	4.3	4.6	76.6	18.8	95.4	100.0	(394)
5년 이상	0.4	3.0	3.4	70.2	26.4	96.6	100.0	(561)
체류자격($\chi^2=9.84$)								
취업	0.4	3.9	4.3	74.3	21.4	95.7	100.0	(463)
결혼	0.3	2.7	3.0	74.1	23.0	97.0	100.0	(370)
정주	0.3	3.6	3.8	70.1	26.0	96.2	100.0	(338)
학업 및 기타	1.4	5.8	7.2	66.2	26.6	92.8	100.0	(139)

구 분	살기 나쁘다			살기 좋다			계	(명)
	매우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나쁘다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좋다	매우 살기 좋다	살기 좋다		
출신지역($\chi^2=10.35$)								
중국(한국계 포함)	0.2	4.0	4.3	76.1	19.6	95.7	100.0	(423)
동·서남아시아	0.5	4.6	5.1	69.8	25.1	94.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1.9	2.5	71.7	25.7	97.5	100.0	(315)
기타	0.7	3.6	4.3	69.6	26.1	95.7	100.0	(138)
거주지($\chi^2=13.85^{**}$)								
수도권	0.8	4.7	5.5	69.4	25.1	94.5	100.0	(761)
비수도권	0.0	2.2	2.2	76.3	21.5	97.8	100.0	(549)
차별 경험($\chi^2=12.63^{**}$)								
없음	0.0	3.0	3.0	69.9	27.1	97.0	100.0	(595)
있음	0.8	4.2	5.0	74.3	20.7	95.0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하는지 알아보았다.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65.0%,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1.2%로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매우 추천한다는 응답이 26.5%로 상대적으로 높아 약간 추천한다는 응답과 더해 추천한다는 응답은 90.4%로 높게 나타났다. 중앙아시아나 몽골 및 러시아 출신의 이주민은 추천한다는 비율이 9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추천한다는 비율이 92.0%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서도 차별 경험이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26.9%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의 매우 추천 비율인 1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9〉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 추천

(단위: %, 명)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1.2	12.5	13.7	65.0	21.2	86.3	100.0	(1,310)
성별($\chi^2=4.65$)								
여성	0.8	12.6	13.4	66.4	20.3	86.6	100.0	(844)
남성	1.9	12.4	14.4	62.7	23.0	85.6	100.0	(466)
체류 기간($\chi^2=16.49^*$)								
3년 미만	1.1	8.5	9.6	63.9	26.5	90.4	100.0	(355)
3년~5년 미만	1.0	11.9	12.9	68.3	18.8	87.1	100.0	(394)
5년 이상	1.4	15.5	16.9	63.5	19.6	83.1	100.0	(561)
체류자격($\chi^2=15.19$)								
취업	1.1	11.0	12.1	65.9	22.0	87.9	100.0	(463)
결혼	1.6	10.0	11.6	68.6	19.7	88.4	100.0	(370)
정주	1.2	18.0	19.2	59.5	21.3	80.8	100.0	(338)
학업 및 기타	0.7	10.8	11.5	66.2	22.3	88.5	100.0	(139)
출신지역($\chi^2=32.11^{***}$)								
중국(한국계 포함)	1.4	17.3	18.7	66.0	15.4	81.3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2	12.0	13.1	62.7	24.2	86.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7.0	7.6	65.7	26.7	92.4	100.0	(315)
기타	2.2	12.3	14.5	68.1	17.4	85.5	100.0	(138)
거주지($\chi^2=35.22^{***}$)								
수도권	1.7	16.2	17.9	59.1	23.0	82.1	100.0	(761)
비수도권	0.5	7.5	8.0	73.2	18.8	92.0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5.16$)								
못하는 편	0.6	11.7	12.3	63.9	23.8	87.7	100.0	(324)
보통	1.4	13.0	14.5	63.0	22.5	85.5	100.0	(422)
잘하는 편	1.4	12.6	14.0	67.2	18.8	86.0	100.0	(564)
취업 여부($\chi^2=2.14$)								
취업	1.2	13.4	14.6	64.8	20.6	85.4	100.0	(906)
비취업	1.2	10.6	11.9	65.6	22.5	88.1	100.0	(404)
차별 경험($\chi^2=28.29^{***}$)								
없음	0.7	9.4	10.1	63.0	26.9	89.9	100.0	(595)
있음	1.7	15.1	16.8	66.7	16.5	83.2	100.0	(715)
한국 국적($\chi^2=0.55$)								
취득	1.0	13.7	14.6	65.4	20.0	85.4	100.0	(205)
미취득	1.3	12.3	13.6	65.0	21.4	86.4	100.0	(1,10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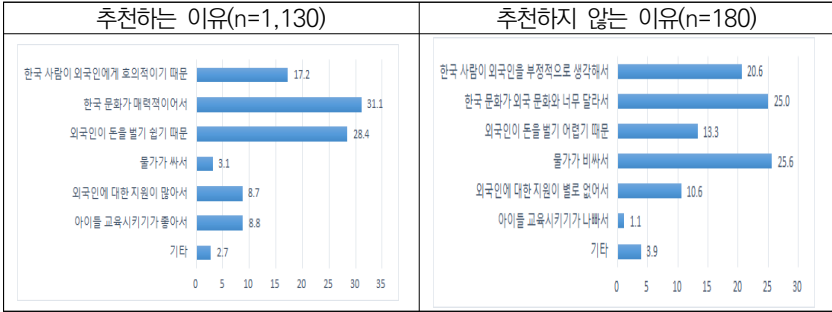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1.1%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쉬워서 추천한다는 이유가 28.4%,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17.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 생활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나 한국인의 정서로 한국 생활을 추천하는 이유가 절반 가까이 된다.

반면,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것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5.6%인데,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라는 이유가 25.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한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라는 이유가 20.6%, 외국인이 돈을 벌기 어려워서가 13.3%,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서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비싼 물가이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어서, 한국인이 호의적이어서 추천한다는 비율과 한국 문화가 너무 달라서, 한국인이 부정적으로 대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의 이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한국이 가진 환경 중 한국인과 한국 문화가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추천/비추천 이유

(단위: %)



주: 1)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하는 경우/추천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각각 응답
 2) 추천하는 이유 기타: 복지(의료 제도 등)가 잘되어 있어서, 치안이 우수해서, 편리한 것이 많음 등
 3) 추천안 하는 이유 기타: 언어 장벽,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해서, 비자받기가 힘들어서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추천과 비추천의 이유가 출신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를 추천하는 이유를 출신지역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은 한국인이 호의적이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서양 및 일본·대만 등의 출신은 매력적인 한국 문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많은 동·서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의 경우 돈을 벌기 쉽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20〉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추천 이유: 출신지역별 차이

(단위: %, 명)

구 분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어서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쉽기 때문	물가가 싸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아이들 교육 시키기가 좋아서	기타	계	(명)
전체	17.2	31.1	28.4	3.1	8.7	8.8	2.7	100.0	(1,13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17.2	28.8	27.9	3.5	5.8	13.4	3.5	100.0	(344)
동·서남아시아	12.5	28.1	34.2	2.7	11.4	8.8	2.4	100.0	(37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2.7	29.9	28.2	0.7	10.0	6.5	2.1	100.0	(291)
기타	18.6	50.0	11.9	9.3	5.1	1.7	3.4	100.0	(118)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 생활을 다른 외국인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출신지역 별로 보면, 중국 출신의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다.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과 서양 및 일본·대만 등의 출신 이주민은 이질적인 한국 문화를 그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고,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은 외국인이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다.

〈표 3-21〉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비추천 이유: 출신지역별 차이

(단위: %, 명)

구 분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	외국인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	물가가 비싸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 교육 시키기가 나빠서	기타	계	(명)
전체	20.6	25.0	13.3	25.6	10.6	1.1	3.9	100.0	(18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8	17.7	12.7	24.1	13.9	1.3	2.5	100.0	(79)
동·서남아시아	14.0	28.1	10.5	28.1	10.5	0.0	8.8	100.0	(5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2.5	33.3	29.2	25.0	0.0	0.0	0.0	100.0	(24)
기타	20.0	35.0	5.0	25.0	10.0	5.0	0.0	100.0	(20)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 참여자 중 90.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한국 생활 지속을 매우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3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년 미만인 경우와 3~5년 정도 된 이주민보다 5년 이상 된 이주민이 전반적으로 희망한다는 비율로 보면 근소한 차이이기 는 하지만 그 비율이 가장 낮다. 결혼이나 정주 자격으로 체류 중일 때는 이미 한국에서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생활 지속을 희망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결혼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의 경우 매우 희망하는 비율이 44.1%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표 3-22〉 한국에서 생활 지속 희망

(단위: %, 명)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1.5	8.2	9.8	59.0	31.2	90.2	100.0	(1,310)
성별($\chi^2=28.77^{***}$)								
여성	1.2	6.3	7.5	57.0	35.5	92.5	100.0	(844)
남성	2.1	11.8	13.9	62.7	23.4	86.1	100.0	(466)
체류 기간($\chi^2=32.41^{***}$)								
3년 미만	2.8	7.0	9.9	63.4	26.8	90.1	100.0	(355)
3년~5년 미만	0.0	8.6	8.6	65.2	26.1	91.4	100.0	(394)
5년 이상	1.8	8.7	10.5	51.9	37.6	89.5	100.0	(561)
체류자격($\chi^2=58.85^{***}$)								
취업	2.2	9.5	11.7	67.8	20.5	88.3	100.0	(463)
결혼	0.5	5.1	5.7	50.3	44.1	94.3	100.0	(370)
정주	1.5	8.6	10.1	57.7	32.2	89.9	100.0	(338)
학업 및 기타	2.2	11.5	13.7	56.1	30.2	86.3	100.0	(139)
출신지역($\chi^2=7.25$)								
중국(한국계 포함)	1.4	9.0	10.4	61.0	28.6	89.6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6	8.5	10.1	57.4	32.5	89.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0	6.3	7.3	61.0	31.7	92.7	100.0	(315)
기타	2.9	9.4	12.3	53.6	34.1	87.7	100.0	(138)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주지($\chi^2=26.47***$)								
수도권	2.4	10.9	13.3	56.9	29.8	86.7	100.0	(761)
비수도권	0.4	4.6	4.9	61.9	33.2	95.1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14.57*$)								
못하는 편	2.5	10.2	12.7	59.9	27.5	87.3	100.0	(324)
보통	2.1	8.8	10.9	54.7	34.4	89.1	100.0	(422)
잘하는 편	0.5	6.7	7.3	61.7	31.0	92.7	100.0	(564)
취업 여부($\chi^2=1.91$)								
취업	1.3	7.9	9.3	60.0	30.7	90.7	100.0	(906)
비취업	2.0	8.9	10.9	56.7	32.4	89.1	100.0	(404)
차별 경험($\chi^2=5.55$)								
없음	1.5	6.7	8.2	58.0	33.8	91.8	100.0	(595)
있음	1.5	9.5	11.0	59.9	29.1	89.0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 생활을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 국적 취득 여부일 것이다.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1,275명) 한국 국적 취득하기를 희망하는지 살펴해보았더니 응답자의 64.8%가 한국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희망하는 비율은 비슷했으나, 5년 이상 된 경우 매우 희망하는 비율이 30.6%로 5년 미만의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나 정주 자격의 이주민은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동·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몽골·러시아 출신의 경우에 국적 취득 희망 비율이 높다. 그러나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 출신의 이주민은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51.8%로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표 3-23〉 한국 국적 취득 희망

(단위: %, 명)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11.4	23.8	35.2	42.6	22.2	64.8	100.0	(1,275)
성별($\chi^2=42.04^{***}$)								
여성	9.1	21.3	30.4	42.3	27.3	69.6	100.0	(809)
남성	15.2	28.3	43.6	43.1	13.3	56.4	100.0	(466)
체류 기간($\chi^2=41.22^{***}$)								
3년 미만	13.5	25.1	38.6	46.2	15.2	61.4	100.0	(355)
3년~5년 미만	11.5	22.9	34.4	48.3	17.3	65.6	100.0	(393)
5년 이상	9.9	23.7	33.6	35.9	30.6	66.4	100.0	(527)
체류자격($\chi^2=95.70^{***}$)								
취업	13.2	28.1	41.3	46.0	12.7	58.7	100.0	(463)
결혼	6.8	15.7	22.4	39.2	38.4	77.6	100.0	(370)
정주	11.6	26.4	38.0	43.9	18.2	62.0	100.0	(303)
학업 및 기타	17.3	25.9	43.2	37.4	19.4	56.8	100.0	(139)
출신지역($\chi^2=66.17^{***}$)								
중국(한국계 포함)	13.7	28.2	41.9	40.2	17.9	58.1	100.0	(408)
동·서남아시아	5.0	20.1	25.2	45.1	29.7	74.8	100.0	(41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1.2	21.4	32.6	46.6	20.8	67.4	100.0	(313)
기타	24.1	27.7	51.8	32.8	15.3	48.2	100.0	(137)
거주지($\chi^2=166.65^{***}$)								
수도권	18.6	30.4	48.9	35.6	15.4	51.1	100.0	(738)
비수도권	1.5	14.9	16.4	52.1	31.5	83.6	100.0	(537)
한국어 능력($\chi^2=34.97^{***}$)								
못하는 편	18.0	25.1	43.0	40.2	16.7	57.0	100.0	(323)
보통	12.0	26.3	38.3	38.5	23.2	61.7	100.0	(410)
잘하는 편	7.0	21.2	28.2	47.0	24.7	71.8	100.0	(542)
취업 여부($\chi^2=2.29$)								
취업	12.0	23.4	35.3	41.7	22.9	64.7	100.0	(877)
비취업	10.1	24.9	34.9	44.5	20.6	65.1	100.0	(398)
차별 경험($\chi^2=8.70^*$)								
없음	11.1	23.1	34.2	39.9	25.9	65.8	100.0	(579)
있음	11.6	24.4	36.1	44.8	19.1	63.9	100.0	(696)

주: 1) * $p<0.05$, ** $p<0.01$, *** $p<0.001$

2) 한국 국적 취득자는 제외하고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떠해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알아보았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2.7%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서양과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5.2%로 상대적으로 높고 차별을 경험한 경우보다는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4〉 향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구 분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	(명)
	매우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전체	0.8	6.5	7.3	65.3	27.3	92.7	100.0 (1,310)
성별($\chi^2=6.02$)							
여성	0.5	5.9	6.4	65.2	28.4	93.6	100.0 (844)
남성	1.5	7.5	9.0	65.7	25.3	91.0	100.0 (466)
체류 기간($\chi^2=12.37$)							
3년 미만	0.8	5.1	5.9	67.6	26.5	94.1	100.0 (355)
3년~5년 미만	1.0	5.3	6.3	70.1	23.6	93.7	100.0 (394)
5년 이상	0.7	8.2	8.9	60.6	30.5	91.1	100.0 (561)
체류자격($\chi^2=7.89$)							
취업	1.1	6.7	7.8	66.3	25.9	92.2	100.0 (463)
결혼	0.5	4.3	4.9	65.7	29.5	95.1	100.0 (370)
정주	0.6	8.6	9.2	63.3	27.5	90.8	100.0 (338)
학업 및 기타	1.4	6.5	7.9	66.2	25.9	92.1	100.0 (139)
출신지역($\chi^2=25.91^{**}$)							
중국(한국계 포함)	0.7	6.6	7.3	64.3	28.4	92.7	100.0 (423)
동·서남아시아	0.7	5.5	6.2	65.9	27.9	93.8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6	3.8	5.4	67.0	27.6	94.6	100.0 (315)
기타	0.0	15.2	15.2	63.0	21.7	84.8	100.0 (138)
거주지($\chi^2=27.67^{***}$)							
수도권	1.2	8.4	9.6	59.9	30.5	90.4	100.0 (761)
비수도권	0.4	3.8	4.2	72.9	23.0	95.8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7.65$)							
못하는 편	0.6	7.7	8.3	66.0	25.6	91.7	100.0 (324)
보통	0.9	6.6	7.6	60.9	31.5	92.4	100.0 (422)
잘하는 편	0.9	5.7	6.6	68.3	25.2	93.4	100.0 (564)

구 분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	(명)
	매우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취업 여부($\chi^2=1.69$)								
취업	0.9	7.1	7.9	64.9	27.2	92.1	100.0	(906)
비취업	0.7	5.2	5.9	66.3	27.7	94.1	100.0	(404)
차별 경험($\chi^2=10.69^*$)								
없음	0.5	5.0	5.5	63.5	30.9	94.5	100.0	(595)
있음	1.1	7.7	8.8	66.9	24.3	91.2	100.0	(715)
한국 국적($\chi^2=5.14$)								
취득	1.0	2.9	3.9	67.3	28.8	96.1	100.0	(205)
미취득	0.8	7.1	8.0	65.0	27.1	92.0	100.0	(1,105)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3절 소결

1.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이주민은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하루에도 여러 번 대화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41.2%). 평균적으로는 한국인과 대화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1~2회와 3~7회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한국어이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30.5%로 한국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은 주변에 1~2명 있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고, 평균적으로도 1~2명에 가까웠다.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인이 많은 결과로 미루어 한국에 생활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주나 결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이 많았다.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은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환관계가 43.5%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도움을 주는 관계가 33.1%로 한국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21.3%)와 남성(20.4%)인 경우이다.

한국인 위주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참석하는 경우는 한 달에 1회 미만인 경우가 31.1%로 가장 많기는 하나 전혀 안 하는 비율이 45.3%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한국어를 잘할수록 참여 빈도가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 중심인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체류 기간 3년 미만,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로 한국에 거주 기간이 짧거나 정주 가능성이 작을수록 한국인 위주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은 전반적으로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도움 줄 한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인과 모임을 하는 경우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차별 경험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지난 1년간 전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45.4%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몇 번 경험했다는 비율이 32.4%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한 번 정도 경험했다는 응답에 가까웠다.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수도권 거주, 한국어 못할수록, 한국계일 때 차별 경험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차별을 경험하는 곳은 마트나 식당, 카페, 극장 등 대중 시설과 일하는 곳, 길거리나 대중교통이

주를 이루었으며, 차별을 경험한 이유는 한국어 능력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고, 출신국이나 피부색이 주된 이유였다. 차별 경험에서 한국어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 빈도도 높아지는 특징과 차별의 중요한 이유가 한국어 능력인 결과와 종합해 보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 때는 차별을 경험할 빈도가 낮고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여러 환경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언어로 인해 자신이 차별받는다든 것을 더 잘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차별을 경험한 이유는 최근의 다른 조사에서도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과 달리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법무부, 2020)는 비전문취업과 유학생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차별을 경험한 주된 이유로 출신국가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출신국가와 한국어 능력이 차별의 주요 이유인 점은 공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표 3-25〉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및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있음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					
		출신국가	한국어 능력	외모	경제력	직업	기타
외국인	20.3	61.1	24.9	7.0	1.4	2.1	3.5
귀화허가자	24.1	63.2	28.2	4.3	1.7	0.9	1.7

자료: 통계청, 법무부. (2020. 12. 21.).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p. 77.

2.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정책적 경험은 그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한국이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에게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다

문화가족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한국이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비율이 87.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 초기에 주로 받게 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28.9%로 3분의 1이 되지 않는 정도이지만, 일단 참여한 후에는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혜택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필요함을 느꼈을 때 지원을 했던 경험은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 보건/의료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 도움을 느끼는 편이었는데, 그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보건/의료 정책,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정책은 상대적 필요도나 실제 지원을 받은 경험도 낮은 경향이 있고, 다른 정책들은 필요도나 지원 경험이 비슷한 수준이다. 단, 자녀 양육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할 가능성이 커서 그 수요가 적어 보이지만, 필요함을 느끼면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교육, 자녀 양육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6〉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일자리 정책	37.5	(1,310)	51.9	(491)	3.30	(255)
주거 정책	28.7	(1,310)	29.0	(376)	3.35	(109)
교육 정책	30.9	(1,310)	67.7	(405)	3.50	(274)
보건/의료 정책	47.4	(1,310)	65.4	(621)	3.52	(406)
자녀 양육정책	25.3	(1,310)	70.8	(332)	3.51	(235)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현재 한국 생활에 대해 이주민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92.8%) 나타났다.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86.3%). 여기서도 한국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만족도가 이주민에게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하는 이유는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쉬워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로 나타났다. 즉, 추천과 비추천 이유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목적과 관련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의 이주민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어서 한국을 추천한다는 이유가 다른 출신지역 이주민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응답 이주민의 90% 이상이 한국 생활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체류자격이 결혼일 때 한국 국적 취득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비율이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92.7%로 높은 비율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긍정적인 기대 비율이 높은 집단(긍정 응답 95% 정도)은 결혼이주민,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나타났다.



제4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 양적 연구

제1절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제2절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와 포용성

제3절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제4절 소결

제 4 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 양적 연구

앞서 제3장에서는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조사의 주요 내용에서 보았듯이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은 다문화 수용성과 신뢰 및 포용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과 이주민이 인식한 수용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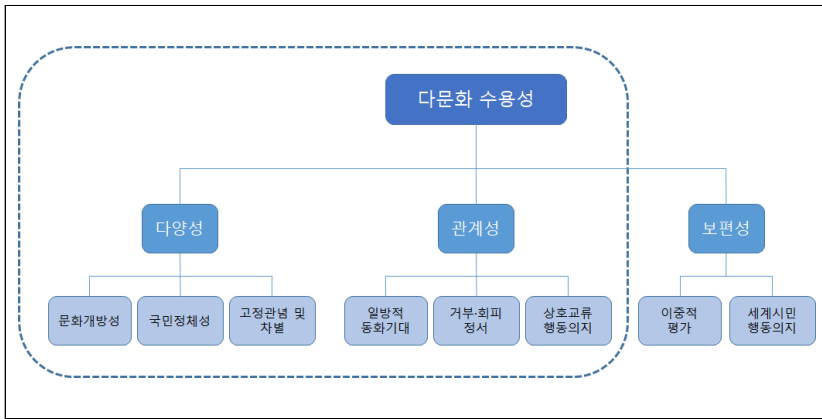
제1절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항목을 활용한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3개의 차원은 다시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를 갖는데,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개 요소를 갖추고 있고,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 수용성 3개의 차원 중 이 연구에서 이주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은 한국 사회의 수용성에 적절하고 이주민에게 질문이 적절한

차원인 다양성과 관계성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축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활용해 이주민의 시각으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한다. 아래 그림에서와같이 다문화 수용성 구성 중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연구에서 활용해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4-1] 다문화 수용성 구성과 활용 범위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p. 42.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척도와 동일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6점으로 그 정도를 알아보고 평균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표현된 항목은 역 코딩한 점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한국인이 스스로에 대해 응답한 결과와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4장 제3절에서 그 경향을 비교한다.

1. 다양성 차원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주민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하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

가. 문화개방성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개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알아본 것은 한국인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 수용에 대해 약간 개방적인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6점 중 평균 4.18점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국인을 더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라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수준에 관한 생각이 달랐는데, 중국이나 동남·서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보다는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이 한국인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더욱 개방적으로 인식하였고,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출신이 한국인이 다른 민족과 문화 수용에 대해 덜 개방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민보다는 보통 수준이거나 못하는 편인 이주민이 한국인의 타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파악을 위해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한국인이 더 많은 이주민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1.6%로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보다 부정적인 비

율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도 3.95점으로 약간 낮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체류자격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그다음은 결혼, 정주, 학업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서남아시아 출신과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보다 중국 출신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경우 이주민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중국 출신보다 서양 및 일본·대만 출신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민보다는 보통이나 못하는 이주민이 한국인이 이주민 유입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 파악을 위해 알아본 것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이다.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 코딩 과정을 거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평균 점수의 방향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분석하였다. 이 마지막 문화 다양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총 6점 중 3.42점으로 약간 싫어하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 보았을 때, 중국 출신 이주민이 다른 지역 출신 이주민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낮은 그룹은 동·서남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으로, 중국이나 동·서남아시아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자신을 이웃으로 반기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화 다양성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인식하는 개방성 수준이 더 높다. 그

리고 이 문화 다양성에서는 차별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이 경험이 있는 이주민보다 한국인의 개방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민이 이웃으로 가까이 사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경험을 통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즉 다른 문화개방성 항목과 달리 이웃에 사는 것에 대한 태도로 알아본 문화개방성은 차별 경험이 크게 작용해 한국인이 이주민을 가까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표 4-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단위: 명, 점)

구 분		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4.18		3.95		3.42	
성별							
여성	(844)	4.15	10.69**	3.90	5.53*	3.38	7.75**
남성	(466)	4.24		4.04		3.49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4.25		4.00		3.48	
3년~5년 미만	(394)	4.20	1.47	4.00	2.02	3.42	0.84
5년 이상	(561)	4.13		3.88		3.38	
체류자격							
취업	(463)	4.26		4.10		3.50	
결혼	(370)	4.18	1.92	3.94	5.70***	3.36	1.51
정주	(338)	4.13		3.81		3.36	
학업 및 기타	(139)	4.05		3.78		3.44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4.19		3.87		3.28	
동·서남아시아	(434)	4.19	2.67*	4.05	5.11**	3.42	3.5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4.25		4.03		3.53	
기타	(138)	3.96		3.68		3.54	

구 분		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거주지							
수도권	(761)	4.20		3.92		3.51	
비수도권	(549)	4.16	16.61***	3.98	20.87***	3.29	11.42***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4.27		4.07		3.48	
보통	(422)	4.26	5.52**	3.96	3.60*	3.47	2.24
잘하는 편	(564)	4.08		3.87		3.34	
취업 여부							
취업	(906)	4.17	1.12	3.93	1.60	3.44	0.45
비취업	(404)	4.21		3.99		3.35	
차별 경험							
없음	(595)	4.26		4.08		3.48	
있음	(715)	4.12	3.73	3.83	0.12	3.36	13.22***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3번 문항은 부정문으로 역 코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나. 국민정체성

다양성의 하위개념으로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국민정체성이다. 문화개방성과 마찬가지로 총 6점 중 평균을 산출하였다. 부정문인 문장으로 인식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역 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고 높을수록 한국이 이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살펴본 것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여도 피부색이 다르면 한국인은 그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서이다. 이

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5점으로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편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결혼-정주-학업 및 기타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낮다.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정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동·서남아시아 지역 출신 이민자의 점수가 높고 중국 출신 이민자의 점수가 가장 낮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는데,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인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큰 그룹이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국민 인정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낮아 한국인과의 경험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알아본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이다. 전체 평균은 3.20점으로 한국인은 국민이 되려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주민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이 정주인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은 결혼, 학업 및 기타, 취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국민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그룹에 속한 이주민이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국민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이주민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국민정체성은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주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2.99점으로

이주민은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허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이 정주일 때는 이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이 결혼, 학업 및 기타, 취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출신지역에 따라서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국 이주민이 한국인의 인정 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고, 서양 및 일본·대만 등의 지역 출신 이주민이 그다음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인의 이주민 인정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단위: 명, 점)

구 분		1.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15		3.20		2.99	
성별							
여성	(844)	3.16		3.20		2.98	
남성	(466)	3.13	0.08	3.19	2.39	3.01	0.40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20		3.32		3.03	
3년~5년 미만	(394)	3.20	1.97	3.19	2.55	3.04	1.26
5년 이상	(561)	3.07		3.13		2.93	
체류자격							
취업	(463)	3.29		3.34		3.13	
결혼	(370)	3.18		3.17		2.99	
정주	(338)	3.00	5.41**	3.03	4.12**	2.82	3.89**
학업 및 기타	(139)	2.96		3.20		2.9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2.96		3.03		2.79	
동·서남아시아	(434)	3.34		3.35		3.10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16	7.99***	3.23	5.21**	3.13	6.13***
기타	(138)	3.08		3.16		2.92	

구 분		1.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거주지							
수도권	(761)	3.07		3.16		2.94	
비수도권	(549)	3.26	1.47	3.25	2.85	3.06	1.78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28		3.37		3.20	
보통	(422)	3.11	3.04*	3.21	5.07***	2.95	6.4***
잘하는 편	(564)	3.10		3.09		2.90	
취업 여부							
취업	(906)	3.15		3.19		3.00	
비취업	(404)	3.13	2.64	3.22	2.68	2.98	3.25
차별 경험							
없음	(595)	3.30		3.31		3.11	
있음	(715)	3.02	16.71***	3.11	4.43*	2.89	0.84
한국 국적							
취득	(205)	3.24		3.23		3.11	
미취득	(1,105)	3.13	0.73	3.19	1.16	2.97	1.5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다. 고정관념 및 차별

다양성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하위개념은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 역시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방향을 질문했기 때문에 역 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적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이 이주민끼리만 모여 요리, 종교, 음악 등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 이주민이 인식한 것을 알아보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3.64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며, 전혀 그렇지

않다 5.6%, 그렇지 않다 21.3%, 약간 그렇지 않다 24.9%를 더해 보면 51.8%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인이 이주민끼리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 이주민끼리의 활동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이주민 그룹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취업, 정주, 결혼, 학업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민자가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 비율은 중국 출신의 경우가 가장 낮다. 여기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이민자 연령 그룹보다 30대 이민자의 경우가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능력별로는 앞의 결과와 일관되게 한국어를 못할수록 한국인 고정관념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다음 알아본 한국인의 고정관념은 국제결혼 후 이혼한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전체 평균은 3.4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이 취업인 이주민의 경우를 제외한 결혼, 정주, 학업 및 기타 자격의 이주민은 한국인이 그렇게 본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출신 이민자가 한국인이 국제결혼 후 이혼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주민의 취업 여부와 차별 경험에 따라서도 한국인의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보다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차별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경험한 한 경우에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으로 알아본 마지막 내용은 이주

민의 피부색에 따른 고정관념이다. 피부색이 어두운 이주민을 보면 한국인은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인데, 평균 3.27점으로 한국인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정관념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은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이나 3~5년 된 이주민보다 5년 이상인 이주민이 한국인은 이주민의 피부색에 따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별로는 취업 자격의 이주민이 다른 이주민보다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신지역 중에는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민자가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 이민자는 평균 점수가 2.91점으로 낮아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이 없기보다는 있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단위: 명, 점)

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64		3.45		3.27	
성별							
여성	(844)	3.61	4.89***	3.44	0.37	3.27	1.87
남성	(466)	3.70		3.47		3.26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61		3.49		3.36	
3년~5년 미만	(394)	3.66	0.16	3.53	2.44	3.36	5.02**
5년 이상	(561)	3.65		3.37		3.14	

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체류자격						
취업 (463)	3.78		3.63		3.46	
결혼 (370)	3.59	5.52***	3.37	6.61***	3.11	6.88***
정주 (338)	3.64		3.39		3.25	
학업 및 기타 (139)	3.33		3.21		3.0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46		3.40		3.25	
동·서남아시아 (434)	3.66	6.61***	3.35	4.33**	3.23	7.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85		3.65		3.50	
기타 (138)	3.67		3.49		2.91	
거주지						
수도권 (761)	3.80	3.02	3.49	7.19**	3.36	49.92***
비수도권 (549)	3.43		3.40		3.15	
연령						
19~29세 (373)	3.54		3.45		3.31	
30~39세 (647)	3.75	5.09**	3.49	0.72	3.25	0.35
40세 이상 (290)	3.53		3.39		3.2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78		3.56		3.45	
보통 (422)	3.66	3.65*	3.49	3.15*	3.31	7.38***
잘하는 편 (564)	3.55		3.36		3.13	
취업 여부						
취업 (906)	3.67	1.82	3.47	5.42*	3.25	2.33
비취업 (404)	3.59		3.42		3.30	
차별 경험						
없음 (595)	3.76	0.01	3.58	4.33*	3.41	11.78***
있음 (715)	3.55		3.35		3.15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관계성 차원

관계성 부분은 하위개념으로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포함한다.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제외하고는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 코딩을 통해 방향성을 일치시켜 평균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평균 점수의 의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일방적 동화기대는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일방적 동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이주민 스스로는 일방적 동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파악한다.

가. 일방적 동화기대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일방적 동화기대에서 살펴본 것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하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한국인이 바란다고 느끼는지에 관해서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2.80점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이 일방적 동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 및 기타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기대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일방적 동화기대 내용은 한국인은 이주민의 자녀라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끼는지에 관해서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역 코딩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

주민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면,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체류자격 이주민보다는 결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이 이러한 일방적 동화를 한국인이 높이 기대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민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출신지역별 차이에서는 다른 지역 출신보다는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의 동화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한국인의 언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알아본 동화기대 내용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자기 문화와 관습보다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5년 이상된 이주민이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다. 체류 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한국인의 동화기대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한국인의 동화기대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일방적 동화기대는 이주민이 느끼기에 한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이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하여 따르기를 바라는지에 관해서이다. 평균 점수는 2.80점으로 다른 동화기대와 유사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자격의 이주민보다는 그 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한국인의 동화기대 수준을 높이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출신, 비수도권 거주, 한국어 수준이 높은 이주민일 수록 한국인의 가족 풍습 동화기대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40세 이상 이주민 그룹에서 한국인의 동화기대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기대

(단위: 명, 점)

구 분		1.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4.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2.80		2.88		3.25		2.80	
성별									
여성	(844)	2.77	0.79	2.88	0.00	3.23	3.79	2.75	0.58
남성	(466)	2.85		2.88		3.28		2.89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2.89		2.96		3.32		2.91	
3년~5년 미만	(394)	2.82	2.80	3.02	7.96***	3.36	4.79**	2.93	11.4***
5년 이상	(561)	2.73		2.74		3.13		2.64	
체류자격									
취업	(463)	2.92		3.08		3.43		2.99	
결혼	(370)	2.76	4.05**	2.75	7.85***	3.11	5.37**	2.71	7.72***
정주	(338)	2.77		2.81		3.21		2.67	
학업 및 기타	(139)	2.59		2.77		3.14		2.72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2.75		2.72		3.20		2.67	
동·서남아시아	(434)	2.80	2.07	2.82	9.13***	3.17	2.26	2.83	3.7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2.91		3.08		3.37		2.93	
기타	(138)	2.69		3.14		3.38		2.80	
거주지									
수도권	(761)	2.86	26.93	2.92	5.32*	3.43	39.13	2.85	13.1***
비수도권	(549)	2.71	***	2.83		3.00	***	2.74	

구 분	1.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4.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2.90		3.02		3.41		2.90
보통	(422)	2.80	2.31	2.90	4.43*	3.31	6.47**	2.84
잘하는 편	(564)	2.74		2.79		3.12		2.72
취업 여부								
취업	(906)	2.80		2.88	0.01	3.22		2.80
비취업	(404)	2.79	1.27	2.89		3.31	0.55	2.81
차별 경험								
없음	(595)	2.77		2.85	5.33*	3.19	0.59	2.84
있음	(715)	2.82	0.17	2.91		3.30		2.7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에 이어 이주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한국인의 생각에 대한 인식과 평균 점수 비교를 위해 이 역시 역 코딩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앞서 한국인의 일방적인 동화기대에서는 한국인은 이주민이 먼저 한국인을 배려하거나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주민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주민 스스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이주민 스스로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하기보다 이주민이 먼저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것이다. 전체 평균은 3.14점으로 이주민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주

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기대는 2.80점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주민은 한국인이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된 상황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가 일방적 동화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에서는 이주민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민자가 일방적 동화에 동의하는 수준이 낮다.

그렇다면, 이주민 스스로는 이주민의 자녀가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3.27점으로 역 코딩을 고려하면 이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주민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약간 더 가까운 것으로 다양한 언어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의 이주민 그룹보다 5년 이상인 이주민 그룹이 이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높으며, 체류자격이 결혼일 때는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높다. 즉, 자녀에 대한 한국어 기대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래 지낸 그룹일수록,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많은 이주민 그룹인 결혼이주민의 경우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이주민이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동의하는 경향이 더 많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주민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주민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동화기대에 관해 이주민 스스로는 어떠한 생각인지 알아보았다. 평균 점수는 3.86점으로 한국인이 기대한다고 느끼는 정도(평균 3.25점)보다는 개방적인 방향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 및 기타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이 문화적 동화기대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혼이주민의 경우가 동의하는 수준이 가장 높다. 동·서남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의 경우, 이주민이 문화적 동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수준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중국이나 서양,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 이민자는 문화적 동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 출신지역에 따라 다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차별 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보다 문화적 일방 수용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내 풍습에 대한 일방적 동화에 대한 이주민의 생각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3.33점으로 한국인이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수준(평균 2.80점)보다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이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결혼이주민의 경우가 한국 배우자의 가족 풍습이나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체류자격 이주민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 이주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학력이 대졸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 가족 내 풍습에 대한 일방적 동화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이주민의 일반적 동화에 관한 생각

(단위: 명, 점)

구 분		1. 나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 나는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14		3.27		3.86		3.33	
성별									
여성	(844)	3.15		3.24	0.89	3.89	2.64	3.32	2.82
남성	(466)	3.10	4.28*	3.31		3.81		3.34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16		3.37		3.90		3.34	
3년~5년 미만	(394)	3.06	1.35	3.33	4.09*	3.81	0.53	3.41	1.92
5년 이상	(561)	3.17		3.16		3.88		3.27	
체류자격									
취업	(463)	3.20		3.39		3.89		3.46	
결혼	(370)	3.09	1.22	3.10	4.55**	3.71	3.06*	3.19	3.9**
정주	(338)	3.13		3.22		3.92		3.30	
학업 및 기타	(139)	3.02		3.40		4.06		3.3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18		3.18		4.02		3.29	
동·서남아시아	(434)	3.07	0.93	3.11	11.88***	3.63	8.59***	3.27	4.91**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14		3.37		3.86		3.31	
기타	(138)	3.20		3.77		4.14		3.67	
거주지									
수도권	(761)	3.30		3.56	33.77***	4.29	4.26*	3.60	91.38***
비수도권	(549)	2.91	41.55***	2.86		3.27		2.95	
학력									
고졸 이하	(591)	3.00	5.82*	3.05	9.61**	3.59	0.33	3.13	18.67***
대졸 이상	(719)	3.25		3.44		4.09		3.4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07		3.32		3.86		3.38	
보통	(422)	3.18	1.01	3.28	0.69	3.94	1.18	3.35	0.79
잘하는 편	(564)	3.14		3.22		3.81		3.29	
취업 여부									
취업	(906)	3.14	0.15	3.26	0.03	3.88	5.00*	3.37	1.85
비취업	(404)	3.12		3.27		3.83		3.23	
차별 경험									
없음	(595)	3.06	1.73	3.21	0.18	3.70	13.96***	3.27	0.45
있음	(715)	3.20		3.31		4.00		3.3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나. 거부·회피 정서

관계성에서 다음으로 알아본 하위개념은 거부·회피 정서이다. 거부 및 회피 상황에 대한 항목으로 부정적 표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역 코딩을 거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거부·회피 정서를 알아보는 첫 번째 항목은 한국인이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출신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피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지에 관해서이다. 전체 평균은 3.81점이며, 체류자격이 취업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이 다른 출신지역 이주민보다 한국인의 거부 및 회피 정서를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부 및 회피 정서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대중교통 내의 상황에서 파악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알아보았다. 한국인이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한 평균은 3.79점으로 역 코딩을 하였기 때문에 중간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는 편으로 기울어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이 다른 이주민과 비교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중국 출신이나 서양 및 일본·대만 등의 출신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거부 및 회피 정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대졸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와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민일수록 한국인의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도

(단위: 명, 점)

구 분		1.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81		3.79	
성별					
여성	(844)	3.81	15.84***	3.77	8.24**
남성	(466)	3.81		3.84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76		3.78	
3년~5년 미만	(394)	3.93	2.41	3.91	2.85
5년 이상	(561)	3.76		3.71	
체류자격					
취업	(463)	4.00		3.98	
결혼	(370)	3.73	5.00**	3.70	5.14**
정주	(338)	3.72		3.70	
학업 및 기타	(139)	3.66		3.6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69		3.68	
동·서남아시아	(434)	3.86	2.88*	3.81	3.6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95		3.97	
기타	(138)	3.73		3.67	
거주지					
수도권	(761)	3.98		3.88	
비수도권	(549)	3.59	0.52	3.67	3.47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89		3.91	
보통	(422)	3.83	1.08	3.84	3.33*
잘하는 편	(564)	3.76		3.69	
취업 여부					
취업	(906)	3.82		3.80	
비취업	(404)	3.81	0.97	3.78	0.51
차별 경험					
없음	(595)	4.01		3.99	
있음	(715)	3.65	0.91	3.63	1.1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다. 상호교류 행동의지

한국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는 영역 중 하나인 관계성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하위개념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이다. 이는 긍정의미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역 코딩 과정 없이 원점수로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알아본 상호교류 행동의지 항목은 한국인이 이주민과 함께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려 하는지에 관해서이다. 평균 점수는 3.65점으로 중간에서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에 있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출신인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국인의 상호교류 의지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과의 모임이 없는 이주민보다 한국인과의 모임이 있는 이주민이 한국인이 이주민과 기꺼이 교류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으로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평균은 3.70점으로 약간 그렇다는 응답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별 차이를 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30대 이주민인 경우, 한국인과 모임을 하는 경우의 이주민이 한국인의 교류 행동의지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상호교류 행동의지 항목은 한국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주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지에 관해서이다. 평균 점수는 3.79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개방적인 곳에 가까운 것으로 이주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보다는 여성, 취업한 경우보다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한국인의 교류 행동의지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인 특성은 거주지와 한국인과의 모임 유무이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인과 모임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한국인과의 모임이 있는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의 교류 행동의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단위: 명, 점)

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2.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65		3.70		3.79	
성별							
여성	(844)	3.62	1.57	3.71	0.76	3.81	8.84**
남성	(466)	3.70		3.70		3.75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72		3.72		3.83	
3년~5년 미만	(394)	3.68	1.97	3.70	0.06	3.77	0.36
5년 이상	(561)	3.58		3.69		3.78	
체류자격							
취업	(463)	3.66		3.71		3.77	
결혼	(370)	3.72	1.47	3.78	1.67	3.87	1.05
정주	(338)	3.55		3.65		3.74	
학업 및 기타	(139)	3.64		3.59		3.7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47		3.63		3.80	
동·서남아시아	(434)	3.69	5.96***	3.78	2.15	3.79	0.16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77		3.66		3.80	
기타	(138)	3.77		3.79		3.73	
거주지							
수도권	(761)	3.57	12.62***	3.61	42.17***	3.65	120.87***
비수도권	(549)	3.76		3.83		3.9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72		3.73		3.75	
보통	(422)	3.60	1.01	3.73	0.82	3.83	0.56
잘하는 편	(564)	3.64		3.66		3.78	

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2.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취업 여부							
취업	(906)	3.60		3.68		3.74	
비취업	(404)	3.76	5.40*	3.75	0.09	3.91	8.29**
차별 경험							
없음	(595)	3.75		3.78		3.93	
있음	(715)	3.56	7.43**	3.63	0.01	3.68	7.61**
한국인과 모임							
안 함	(594)	3.54		3.58		3.70	
함	(716)	3.74	36.91***	3.80	20.47***	3.87	30.6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2절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와 포용성

이번 절은 이주민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신뢰와 포용성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인이 얼마나 이주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보는지와 이주민은 한국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감정을 알아본다. 또한, 한국은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려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신뢰와 포용성에 대한 항목 중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조사인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의 항목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변경해 질문이 가능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장의 제3절에서 한국인의 응답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 신뢰와 감정

이주민이 느끼기에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는데,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67.3%로 나타났다. 그중 약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3%, 매우 신뢰한다는 7.0%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 보면, 한국 거주가 3년 미만과 5년 이상인 이주민 보다는 3년~5년 사이 거주 기간의 이주민이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체류자격별로는 취업인 경우가 다른 자격을 가진 이주민보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경우 다른 지역 출신보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민인 경우와 한국계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하는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명)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전체	3.9	28.8	32.7	60.3	7.0	67.3	100.0	(1,310)
성별($\chi^2=6.35$)								
여성	3.6	29.3	32.8	61.4	5.8	67.2	100.0	(844)
남성	4.5	27.9	32.4	58.4	9.2	67.6	100.0	(466)
체류 기간($\chi^2=13.76^*$)								
3년 미만	4.2	29.3	33.5	56.6	9.9	66.5	100.0	(355)
3년~5년 미만	3.0	24.6	27.7	66.2	6.1	72.3	100.0	(394)
5년 이상	4.3	31.4	35.7	58.5	5.9	64.3	100.0	(561)

180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명)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체류자격($\chi^2=21.77^{**}$)								
취업	4.3	22.9	27.2	64.4	8.4	72.8	100.0	(463)
결혼	1.9	31.1	33.0	60.8	6.2	67.0	100.0	(370)
정주	4.1	33.4	37.6	56.2	6.2	62.4	100.0	(338)
학업 및 기타	7.2	30.9	38.1	55.4	6.5	61.9	100.0	(139)
출신지역($\chi^2=32.44^{***}$)								
중국(한국계 포함)	5.9	34.3	40.2	56.7	3.1	59.8	100.0	(423)
동·서남아시아	3.2	25.8	29.0	60.6	10.4	71.0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2	27.0	30.2	62.2	7.6	69.8	100.0	(315)
기타	1.4	25.4	26.8	65.9	7.2	73.2	100.0	(138)
거주지($\chi^2=40.76^{***}$)								
수도권	6.3	31.7	38.0	55.1	7.0	62.0	100.0	(761)
비수도권	0.5	24.8	25.3	67.6	7.1	74.7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6.83$)								
못하는 편	3.4	27.8	31.2	60.2	8.6	68.8	100.0	(324)
보통	4.0	28.0	32.0	59.5	8.5	68.0	100.0	(422)
잘하는 편	4.1	30.0	34.0	61.0	5.0	66.0	100.0	(564)
취업 여부($\chi^2=1.04$)								
취업	4.2	28.8	33.0	60.3	6.7	67.0	100.0	(906)
비취업	3.2	28.7	31.9	60.4	7.7	68.1	100.0	(404)
차별 경험($\chi^2=27.84^{***}$)								
없음	1.5	25.0	26.6	66.4	7.1	73.4	100.0	(595)
있음	5.9	31.9	37.8	55.2	7.0	62.2	100.0	(715)
한국 국적($\chi^2=9.21^*$)								
취득	1.0	26.8	27.8	67.3	4.9	72.2	100.0	(205)
미취득	4.4	29.1	33.6	59.0	7.4	66.4	100.0	(1,105)
한국계 여부($\chi^2=11.09^*$)								
한국계	5.8	33.0	38.8	57.0	4.1	61.2	100.0	(291)
비한국계	3.3	27.6	30.9	61.2	7.9	69.1	100.0	(1,01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반대로 이주민 스스로는 한국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69.0%,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17.4%로 신뢰한다는 비율이 전체 86.4%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신뢰 수준이 높고, 중국 출신의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로 한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 수도권 거주, 대졸 이하 학력, 차별 경험, 한국 국적 미취득, 한국계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를 잘하거나 못하는 이주민 보다는 보통 수준인 이주민이 한국인을 신뢰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표 4-9〉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 명)

구 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명)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전체	1.1	12.5	13.6	69.0	17.4	86.4	100.0	(1,310)
성별($\chi^2=15.10^{**}$)								
여성	0.8	11.4	12.2	72.6	15.2	87.8	100.0	(844)
남성	1.5	14.6	16.1	62.4	21.5	83.9	100.0	(466)
체류 기간($\chi^2=9.72$)								
3년 미만	1.7	11.5	13.2	64.8	22.0	86.8	100.0	(355)
3년~5년 미만	0.8	12.4	13.2	71.8	15.0	86.8	100.0	(394)
5년 이상	0.9	13.2	14.1	69.7	16.2	85.9	100.0	(561)
체류자격($\chi^2=16.91$)								
취업	1.3	10.8	12.1	67.4	20.5	87.9	100.0	(463)
결혼	0.5	10.3	10.8	73.0	16.2	89.2	100.0	(370)
정주	0.9	15.1	16.0	69.5	14.5	84.0	100.0	(338)
학업 및 기타	2.2	18.0	20.1	62.6	17.3	79.9	100.0	(139)
출신지역($\chi^2=41.33^{***}$)								
중국(한국계 포함)	0.5	19.6	20.1	66.7	13.2	79.9	100.0	(423)
동·서남아시아	2.1	9.9	12.0	67.7	20.3	88.0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0	8.9	9.8	72.7	17.5	90.2	100.0	(315)
기타	0.0	7.2	7.2	71.7	21.0	92.8	100.0	(138)
거주지($\chi^2=50.73^{***}$)								
수도권	1.6	16.6	18.1	61.6	20.2	81.9	100.0	(761)
비수도권	0.4	6.9	7.3	79.2	13.5	92.7	100.0	(549)
학력($\chi^2=11.58^{**}$)								
고졸 이하	1.2	9.8	11.0	73.4	15.6	89.0	100.0	(591)
대졸 이상	1.0	14.7	15.7	65.4	18.9	84.3	100.0	(719)
한국어 능력($\chi^2=13.69^*$)								
못하는 편	0.9	14.5	15.4	66.4	18.2	84.6	100.0	(324)
보통	1.9	8.8	10.7	70.1	19.2	89.3	100.0	(422)
잘하는 편	0.5	14.2	14.7	69.7	15.6	85.3	100.0	(564)

구 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명)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취업 여부($\chi^2=4.95$)								
취업	0.9	12.4	13.2	70.6	16.1	86.8	100.0	(906)
비취업	1.5	12.9	14.4	65.3	20.3	85.6	100.0	(404)
차별 경험($\chi^2=19.40^{***}$)								
없음	1.0	8.4	9.4	70.6	20.0	90.6	100.0	(595)
있음	1.1	15.9	17.1	67.7	15.2	82.9	100.0	(715)
한국 국적($\chi^2=8.01^*$)								
취득	0.5	8.3	8.8	77.1	14.1	91.2	100.0	(205)
미취득	1.2	13.3	14.5	67.5	18.0	85.5	100.0	(1,105)
한국계 여부($\chi^2=10.45^*$)								
한국계	2.4	15.8	18.2	64.9	16.8	81.8	100.0	(291)
비한국계	0.7	11.6	12.3	70.2	17.6	87.7	100.0	(1,01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은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 항목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에서 한국인에게 직접 이주민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졌는지 알아본 항목을 활용하였다.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온도를 0℃에서 100℃ 사이로 표현하도록 사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섭씨)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를 사용하지 않고 0(차갑다)-25-50-75-100(따뜻하다)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0(차갑다)은 1 점, 100(따뜻하다)은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따뜻한 감정 정도는 평균 3.51점(50과 70 사이)으로 중간에서 약간 따뜻한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국인을 따뜻하다고 느끼며,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한국인을 덜 따뜻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

격별로는 학업 및 기타-정주-결혼-취업 자격 순으로 한국인이 따뜻하다고 느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수도권 거주 이주민보다 한국인을 따뜻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주민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을 따뜻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단위: %, 명, 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명)	평균 (5점)	t/F
	0 차갑다	25	50 ↔	75	100 따뜻하다				
전체	0.9	7.3	38.3	46.7	6.7	100.0	(1,310)	3.51	
성별									
여성	0.7	6.9	39.8	46.7	5.9	100.0	(844)	3.50	3.89*
남성	1.3	8.2	35.6	46.8	8.2	100.0	(466)	3.52	
체류 기간									
3년 미만	1.4	7.9	34.6	44.5	11.5	100.0	(355)	3.57	3.05*
3년~5년 미만	0.8	5.3	37.6	51.8	4.6	100.0	(394)	3.54	
5년 이상	0.7	8.4	41.2	44.6	5.2	100.0	(561)	3.45	
체류자격									
취업	0.6	5.0	36.9	49.7	7.8	100.0	(463)	3.59	5.14
결혼	1.1	4.9	39.7	47.6	6.8	100.0	(370)	3.54	
정주	0.6	11.2	37.6	45.3	5.3	100.0	(338)	3.43	
학업 및 기타	2.2	12.2	41.0	38.1	6.5	100.0	(139)	3.3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0.9	9.2	38.1	45.2	6.6	100.0	(423)	3.47	0.50
동·서남아시아	0.9	6.0	39.9	45.4	7.8	100.0	(434)	3.53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6.0	40.3	46.3	6.7	100.0	(315)	3.52	
기타	1.4	8.7	29.7	56.5	3.6	100.0	(138)	3.52	
거주지									
수도권	1.6	11.3	42.0	38.1	7.0	100.0	(761)	3.38	63.68
비수도권	0.0	1.8	33.2	58.7	6.4	100.0	(549)	3.70	
학력									
고졸 이하	0.8	3.6	41.5	47.5	6.6	100.0	(591)	3.55	13.67
대졸 이상	1.0	10.4	35.7	46.0	6.8	100.0	(719)	3.47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1.5	7.4	41.0	41.4	8.6	100.0	(324)	3.48	0.38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명)	평균 (5점)	t/F
	0 차갑다	25	50 ↔	75	100 따뜻하다				
보통	1.2	6.2	38.9	46.0	7.8	100.0	(422)	3.53	
잘하는 편	0.4	8.2	36.3	50.4	4.8	100.0	(564)	3.51	
취업 여부									
취업	1.0	7.6	39.1	46.6	5.7	100.0	(906)	3.48	0.14
비취업	0.7	6.7	36.6	47.0	8.9	100.0	(404)	3.57	
차별 경험									
없음	1.0	4.7	33.6	52.4	8.2	100.0	(595)	3.62	3.02
있음	0.8	9.5	42.2	42.0	5.5	100.0	(715)	3.42	
한국 국적									
취득	0.5	3.9	33.2	56.1	6.3	100.0	(205)	3.64	9.13
미취득	1.0	8.0	39.3	45.0	6.8	100.0	(1,105)	3.49	
한국계 여부									
한국계	1.0	7.6	42.3	44.7	4.5	100.0	(291)	3.44	0.66
비한국계	0.9	7.3	37.2	47.3	7.4	100.0	(1,019)	3.5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차갑다(0)' 1점, '25' 2점, '50' 3점, '75' 4점 ~ '따뜻하다(100)' 5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사회적 거리감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이주민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거리감은 주류집단이 이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해 어떠한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아 집단에 대한 관계와 편견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회통합의 주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을 어떠한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아닌, 소수집단이 인식하기에 주류집단이 자신들을 어떠한 관계로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았다. 한국인은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선호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주민의 시각을 살펴본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1점)에서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4점)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평균 점수(2.81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2.73점), 이웃이 되는 것(2.70점), 배우자가 되는 것(2.6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을 한국인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성, 결혼 및 정주 자격,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한국인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남성, 취업자격,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 비수도권 거주, 한국어를 보통 이상 하는 경우의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한국인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성,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 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배우자가 되는 것을 한국인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성,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의 출신 이주민인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이주민이 한국인이 자신들과의 관계를 더 수용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직장동료 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는 자신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관계를 한국인이 더 수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자격보다 취업자격의 이주민이 한국인은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이 결혼일 때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평균 점수가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웃이 되는 것과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서남아시아

이주민이 한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가 되는 것과 절친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선호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주변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웃 관계나 절친한 친구 관계처럼 일상 생활에서 마주하는 관계에 대해서 특히 그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절친한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2.70		2.81		2.73		2.64	
성별									
여성	(844)	2.72	11.30***	2.81	4.23*	2.74	5.55*	2.70	20.49***
남성	(466)	2.67		2.82		2.71		2.53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2.72	0.34	2.84	0.32	2.76	0.45	2.66	2.24
3년~5년 미만	(394)	2.71		2.81		2.71		2.58	
5년 이상	(561)	2.68		2.80		2.72		2.67	
체류자격									
취업	(463)	2.69	3.74*	2.86	3.14*	2.73	0.62	2.56	6.25***
결혼	(370)	2.72		2.83		2.75		2.76	
정주	(338)	2.75		2.80		2.73		2.64	
학업 및 기타	(139)	2.55		2.67		2.65		2.5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2.70	4.26**	2.74	5.74***	2.57	15.26***	2.64	5.26**
동·서남아시아	(434)	2.65		2.82		2.75		2.5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2.70		2.83		2.82		2.64	
기타	(138)	2.87		3.00		2.96		2.85	
거주지									
수도권	(761)	2.67	52.93***	2.83	6.68**	2.72	28.21***	2.72	2.12
비수도권	(549)	2.74		2.79		2.74		2.53	
학력									
고졸 이하	(591)	2.69	1.19	2.79	2.02	2.71	1.48	2.56	0.09
대졸 이상	(719)	2.71		2.84		2.74		2.71	

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잘한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2.69		2.88		2.76		2.61	
보통 (422)	2.75	2.03	2.88	9.75***	2.74	0.60	2.68	1.13
잘하는 편 (564)	2.67		2.73		2.71		2.62	
취업 여부								
취업 (906)	2.70	0.15	2.83	0.01	2.71	0.26	2.63	0.03
비취업 (404)	2.71		2.79		2.77		2.67	
차별 경험								
없음 (595)	2.80	28.52***	2.88	2.96	2.85	15.80***	2.67	0.28
있음 (715)	2.62		2.76		2.63		2.62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2점, '약간 좋아하는 것 같다' 3점,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3. 포용

한국은 이주민에 대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한국인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항목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에서 한국인에게 스스로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을 이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조사한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10점)까지 점수에 대한 평균값은 5.7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한국인의 동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학업 및 기타 자격의 이주민이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수도권 거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한국인의 동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8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4-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구 분	동의 정도										계	평균 (명)	평균 (10 점)	t/F
	0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1	2	3	4	5	6	7	8	9				
전체	1.7	1.3	3.4	4.7	8.1	24.9	17.3	20.2	14.0	2.9	1.6	100.0 (1310)	5.78	
성별														
여성	1.2	1.1	3.1	4.1	7.3	24.4	19.2	19.8	15.6	2.6	1.5	100.0 (844)	5.89	7.8
남성	2.6	1.7	3.9	5.8	9.4	25.8	13.7	20.8	11.2	3.4	1.7	100.0 (466)	5.59	**
체류 기간														
3년 미만	1.7	1.7	3.1	6.8	7.3	23.7	19.4	16.3	15.2	3.1	1.7	100.0 (355)	5.73	
3년~5년 미만	1.5	1.3	2.0	3.8	9.1	21.3	18.5	24.4	13.7	2.8	1.5	100.0 (394)	5.92	1.40
5년 이상	1.8	1.1	4.5	4.1	7.8	28.2	15.0	19.6	13.5	2.9	1.6	100.0 (561)	5.72	
체류자격														
취업	1.9	1.3	3.2	4.3	7.1	24.4	19.2	21.8	11.4	3.0	2.2	100.0 (463)	5.80	
결혼	1.1	0.3	3.0	2.7	9.2	23.8	18.4	21.4	17.6	1.4	1.4	100.0 (370)	5.96	4.62
정주	1.2	1.5	3.6	5.9	7.7	27.2	13.3	18.9	14.8	5.0	0.9	100.0 (338)	5.78	**
학업 및 기타	3.6	3.6	4.3	8.6	9.4	23.7	17.3	14.4	11.5	1.4	2.2	100.0 (139)	5.2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1.2	1.4	2.8	3.1	8.3	28.8	17.3	20.3	13.2	2.6	0.9	100.0 (423)	5.78	
동·서남아시아	1.4	0.2	2.1	5.5	6.9	25.6	17.5	21.9	13.8	2.8	2.3	100.0 (434)	5.93	2.31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9	1.6	3.5	5.7	9.2	23.5	17.1	18.1	14.9	2.5	1.9	100.0 (315)	5.71	
기타	3.6	3.6	8.7	5.1	8.7	13.8	16.7	18.8	15.2	5.1	0.7	100.0 (138)	5.46	
거주지														
수도권	2.9	2.0	5.5	7.4	10.0	30.2	12.9	16.2	8.4	2.6	2.0	100.0 (761)	5.27	43.08
비수도권	0.0	0.4	0.4	1.1	5.5	17.5	23.3	25.7	21.9	3.3	1.1	100.0 (549)	6.49	***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1.9	0.9	3.4	4.9	8.3	28.4	19.1	17.0	11.7	3.1	1.2	100.0 (324)	5.65	
보통	1.9	2.4	2.6	5.0	9.0	21.8	15.9	21.6	14.9	3.3	1.7	100.0 (422)	5.80	1.00
잘하는 편	1.4	0.7	3.9	4.4	7.3	25.2	17.2	20.9	14.7	2.5	1.8	100.0 (564)	5.84	
취업 여부														
취업	1.8	1.4	3.6	4.4	8.2	26.0	18.0	19.9	12.9	2.6	1.1	100.0 (906)	5.70	0.82
비취업	1.5	1.0	2.7	5.4	7.9	22.3	15.6	20.8	16.6	3.5	2.7	100.0 (404)	5.96	
차별 경험														
없음	1.5	1.2	2.0	4.0	7.4	25.9	14.5	18.2	19.5	3.5	2.4	100.0 (595)	6.01	0.49
있음	1.8	1.4	4.5	5.3	8.7	24.1	19.6	21.8	9.5	2.4	1.0	100.0 (715)	5.59	
한국 국적														
취득	0.5	0.0	1.5	1.0	2.4	25.9	19.5	25.9	18.5	2.4	2.4	100.0 (205)	6.38	13.83
미취득	1.9	1.5	3.7	5.4	9.1	24.7	16.8	19.1	13.2	3.0	1.4	100.0 (1105)	5.67	***

구 분	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명) (10 점)	t/F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매우 동의 한다			계	
한국계 여부														
한국계	1.7	1.7	3.8	5.8	5.8	28.9	18.2	17.5	13.4	2.1	1.0	100.0 (291)	5.63	
비한국계	1.7	1.2	3.2	4.4	8.7	23.7	17.0	20.9	14.2	3.1	1.8	100.0 (1019)	5.8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보통' 5점, '매우 동의한다' 10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동포,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있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각각의 집단에 대해 한국인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주민에게 알아보았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혀 수용적이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수용적이다' 4점으로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적인 태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이 보기에 한국인이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주민 집단은 유학생으로 평균 3.47점이었고, 그다음은 동포(3.24점), 결혼이주여성의 자녀(3.22점), 결혼이주여성(3.17점), 이주노동자(2.98점), 난민(2.54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약간 수용적'이라는 의견에 가까우며 난민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와 수용적이지 않은 태도 사이의 점수로 나타나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대상에 따른 이주민 집단의 생각의 차이는 이주민 각각의 집단이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류자격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각자 자신의 집단에 대해 한국인이 수용적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해 한국인의 수용적인 태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체류자격이 취업인 이주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해 한국인이 더욱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주민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는 체류자격이 결혼인 이주민이다. 그리고 유학생에게 한국인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유학생을 포함하여 체류자격이 학업 및 기타인 집단이며, 동포에 대해 한국인의 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재외동포가 포함된 체류자격이 정주인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표 4-1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

(단위: 명, 점)

구 분	이주노동자 (n=1,215)		결혼이주여성 (n=1,198)		결혼이주여성 의 자녀 (n=1,173)		유학생 (n=1,192)		동포 (n=1,131)		난민 (n=1,024)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2.98		3.17		3.22		3.47		3.24		2.54	
체류자격												
취업	3.02		3.16		3.20		3.47		3.23		2.62	
결혼	2.98	0.09	3.25	4.21**	3.28	2.87*	3.42	2.43	3.26	1.03	2.52	0.30
정주	2.98		3.16		3.26		3.50		3.27		2.54	
학업 및 기타	2.85		3.01		3.01		3.51		3.15		2.3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수용적이지 않다' 1점 ~ '매우 수용적이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3) '모르겠다'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4) n은 전체 1,310명 중 해당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 수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4.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앞서 다양성 차원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국민정체성 개념을 통해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단일민족, 한 핏줄 등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제한적이었던 환경으로 서류상 한국인을 넘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이 인식하기에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어떠한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여러 다양한 조건 중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조건으로 이주민에게 알아본 것은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5) 일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9)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홉 가지이다. 각각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9가지 조건 중 이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3.21점)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한국 국적을 갖는 것(3.19점),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3.15점),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3.05점)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3.05점),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2.99점)과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2.99점), 그리고 일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2.89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점수가 높고,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은 이주민일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아

버지가 한국인인 것에 대해서는 여성, 체류 기간이 3년 이상, 서양과 일본 및 대만 등 출신, 연령이 높을수록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한국인인 조건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일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은 수도권 거주자인 경우와 연령이 높은 경우, 그리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학업 및 기타 체류자격의 이주민, 수도권 거주, 40세 이상, 한국어를 잘할수록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거주, 40세 이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한국 국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거주, 20대와 40대가 30대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서양 및 일본과 대만 등의 출신인 경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이 중요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그 외의 나머지 조건은 연령이 높은 40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20대와 40세 이상에서 중요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과 일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구분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률을 존중하는 것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9.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2.99		3.00		3.05		2.99		2.89		3.21		3.15		3.19		3.05	
성별																		
여성	3.01	1.46	2.99	4.47*	3.06	5.18*	3.00	1.65	2.90	0.86	3.21	0.63	3.17	0.99	3.18	0.82	3.05	0.95
남성	2.96		3.02		3.03		2.97		2.86		3.20		3.13		3.22		3.04	
체류기간																		
3년 미만	2.99		2.95		2.96		2.90		2.85		3.19		3.18		3.21		3.08	
3년~5년 미만	3.03	0.66	3.04	1.06	3.09	3.25*	3.02	3.14*	2.92	0.62	3.18	0.87	3.13	0.49	3.19	0.18	2.98	1.98
5년 이상	2.97		3.00		3.09		3.02		2.89		3.24		3.15		3.19		3.07	
체류자격																		
취업	3.02		3.00		3.04		2.99		2.85		3.17		3.12		3.21		3.07	
결혼	2.96		2.96		3.04		3.00	0.41	2.97	1.92	3.22	3.13*	3.18	1.95	3.18	1.53	3.05	0.31
정주	2.95	1.40	3.00	0.79	3.07	0.21	3.01		2.88		3.17		3.14		3.15		3.04	
학업 및 기타	3.09		3.09		3.08		2.92		2.82		3.38		3.27		3.29		3.01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99		2.99		3.14		3.09		2.95		3.17		3.15		3.19		3.08	
동·서남아시아	2.96		2.95		3.00		2.93		2.80		3.20		3.16		3.26		3.10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96	1.96	3.03	1.45	2.93	6.27***	2.87	7.15***	2.91	2.58	3.22	0.96	3.18	0.31	3.11	2.57	2.90	5.79***
기타	3.14		3.10		3.20		3.13		2.91		3.30		3.11		3.20		3.15	

(단위: 점)

구분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9.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거주지	2.98	3.01	3.09	3.02	2.90	3.27	3.21	3.23	3.13
수도권	1986**	2.99	3.00	2.94	4.02*	5.14*	2604***	2065***	0.06
비수도권					2.88	3.13	3.07	3.15	2.94
연령									
19-29세	2.98	2.92	2.94	2.90	2.80	3.20	3.16	3.24	3.03
30-39세	2.96	3.00	3.07	2.99	2.87	3.17	3.10	3.14	3.03
40세 이상	3.07	3.09	3.16	3.11	3.03	3.32	3.27	3.25	3.12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02	2.99	3.04	2.97	2.85	3.11	3.16	3.14	3.00
보통	2.96	2.99	3.04	2.99	2.90	3.23	3.19	3.23	3.05
잘하는 편	3.00	3.01	3.07	3.00	2.90	3.25	3.12	3.20	3.08
차별 경험									
없음	2.94	2.94	2.97	2.88	2.84	3.21	3.18	3.20	3.04
있음	3.03	3.05	3.12	3.08	1351***	3.21	3.14	3.19	3.05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과 위협의식

한국 사람은 한국에 이주민이 증가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위협을 느끼는지를 알아보았다. 위협에 대한 항목은 한국인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로 알아본 기존 위협의식 내용(김혜숙 외, 2011, 여성가족부, 2018)을 활용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항목들은 1)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3) 한국에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4)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 5)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 6) 이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가 한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등 6가지 항목으로, 각 항목에 대해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주민은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5)번과 6)번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어서 이 두 개 문항은 역 코딩하여 위협의식과 동일한 방향을 만들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이 인식하기에 한국인이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2.68점)과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2.68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다음은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2.56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간 점수인 2.5점보다 높아 한국인이 이러한 점에 대해 이주민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한다고 이주민은 인식하고 있다. 이어서 이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가 한

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역 코딩 2.47점),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점(2.43점),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역 코딩 2.31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은 2.5점 미만으로 한국인이 이주민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편에 가까운 점수로 이해할 수 있다.

특성별 차이는 한국인이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가까운 평균 점수를 보인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집중해 살펴본다. 먼저, 한국인은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체류자격이 정주인 때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외국인 노동자 집단을 의미하는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평균 점수가 오히려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와의 일자리 경쟁에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해서는 중국 출신 이주민,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일자리 위협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정주인 이주민의 경우와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의 위협의식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이주민 증가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주 자격과 함께 학업 및 기타 체류 자격 이주민의 경우도 높게 평가하며, 중국 출신, 차별 경험 있는 경우에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주민 증가에 따른 한국인 일자리 감소, 범죄 증가, 국가재정 부담증가에 대해 한국인이 위협이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체류자격이 정주인 경우와 중국 출신 이민자가 가장 그렇게 인식하며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공통

적으로 발견되었다.

〈표 4-1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과 위협의식

(단위: 점)

구 분	한국 사람은 . . . 라고 생각한다											
	1.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3.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		4.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		5.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		6. 이주민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로 인해 한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2.56		2.68		2.68		2.43		2.31		2.47	
성별												
여성	2.57		2.67		2.71		2.44		2.38		2.52	
남성	2.53	1.83	2.68	2.25	2.64	0.68	2.41	2.59	2.18	5.77*	2.38	0.01
체류 기간												
3년 미만	2.51		2.68		2.68		2.45		2.26		2.41	
3년~5년 미만	2.55	0.97	2.63	0.81	2.64	1.22	2.41	0.25	2.32	1.02	2.45	2.30
5년 이상	2.59		2.70		2.72		2.43		2.33		2.51	
체류자격												
취업	2.45		2.60		2.58		2.35		2.20		2.43	
결혼	2.58	4.12	2.66	2.74*	2.69	5.65	2.42	3.27*	2.36	6.50	2.50	1.44
정주	2.65	**	2.77		2.78	***	2.52		2.37	***	2.43	
학업 및 기타	2.60		2.71		2.79		2.45		2.40		2.5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9		2.77		2.80		2.57		2.35		2.45	
동·서남아시아	2.48	19.75	2.57	4.03	2.65	5.80	2.38	7.39	2.28	2.14	2.46	2.3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43	***	2.70	**	2.57	***	2.34	***	2.25		2.43	
기타	2.36		2.67		2.72		2.33		2.40		2.62	
차별 경험												
없음	2.46		2.58	15.44	2.59	22.12	2.35		2.29		2.42	
있음	2.64	4.34*	2.76	***	2.77	***	2.49	0.16	2.33	1.02	2.50	0.34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3) 항목 5와 항목 6의 평균 점수는 항목 1~항목 4의 위협의식과 동일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렇게 이주민에 대하여 여러 부정적 인식 및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3.0%로 나타났다.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에서 온 이주민은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한국 정부의 인식개선 노력 정도에 대해 다른 지역 출신 이주민보다 낮게 인식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사이에서도 노력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노력한다는 비율이 91.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과 비교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1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정도

(단위: %, 명)

구 분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한다			계	(명)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 하지 않는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노력 한다		
전체	2.1	15.0	17.0	65.2	17.8	83.0	100.0	(1,310)
성별($\chi^2=7.75$)								
여성	2.6	13.4	16.0	66.2	17.8	84.0	100.0	(844)
남성	1.1	17.8	18.9	63.3	17.8	81.1	100.0	(466)
체류 기간 ($\chi^2=12.41$)								
3년 미만	2.5	16.3	18.9	60.8	20.3	81.1	100.0	(355)
3년~5년 미만	0.8	13.5	14.2	71.1	14.7	85.8	100.0	(394)
5년 이상	2.7	15.2	17.8	63.8	18.4	82.2	100.0	(561)
체류자격($\chi^2=8.19$)								
취업	2.4	14.3	16.6	65.2	18.1	83.4	100.0	(463)
결혼	1.6	12.4	14.1	68.4	17.6	85.9	100.0	(370)
정주	1.5	17.5	18.9	63.9	17.2	81.1	100.0	(338)
학업 및 기타	3.6	18.0	21.6	59.7	18.7	78.4	100.0	(139)

구 분	노력			노력			계	(명)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 하지 않는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노력 한다		
출신지역($\chi^2=76.35^{***}$)								
중국(한국계 포함)	1.2	17.3	18.4	68.6	13.0	81.6	100.0	(423)
동·서남아시아	0.9	12.4	13.4	62.2	24.4	86.6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6	12.1	13.7	67.3	19.0	86.3	100.0	(315)
기타	9.4	22.5	31.9	59.4	8.7	68.1	100.0	(138)
거주지($\chi^2=53.96^{***}$)								
수도권	3.3	19.6	22.9	58.2	18.9	77.1	100.0	(761)
비수도권	0.4	8.6	8.9	74.9	16.2	91.1	100.0	(549)
한국어 능력($\chi^2=5.64$)								
못하는 편	2.8	14.5	17.3	65.7	17.0	82.7	100.0	(324)
보통	2.1	16.6	18.7	61.4	19.9	81.3	100.0	(422)
잘하는 편	1.6	14.0	15.6	67.7	16.7	84.4	100.0	(564)
취업 여부($\chi^2=0.21$)								
취업	2.1	14.7	16.8	65.5	17.8	83.2	100.0	(906)
비취업	2.0	15.6	17.6	64.6	17.8	82.4	100.0	(404)
차별 경험($\chi^2=26.0^{***}$)								
없음	1.5	10.3	11.8	66.9	21.3	88.2	100.0	(595)
있음	2.5	18.9	21.4	63.8	14.8	78.6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6. 이주민의 인식 변화와 영향

이주민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또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처음보다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 50.8%로 나타나 과반이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관심을 두고 볼 것은 체류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인데,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22.5%로 5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의견에서 5년 이상의 경우 8.4%로 5년 미만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결국, 한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정도 되면, 처음 인식과 변화 없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긍정이나 부정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류 기간과 연동해서 연령이 40대 이상인 이주민이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출신지역 중 서양과 일본 및 대만 등에서 온 이주민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이 1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비율과 매우 많이 나빠졌다는 비율이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의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4-17〉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명)

구 분	처음보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	처음 인식과 변함이 없다	처음보다 약간 좋아졌다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	계	(명)
전체	1.5	6.9	24.1	50.8	16.8	100.0	(1,310)
성별($\chi^2=21.02^{***}$)							
여성	0.8	7.6	21.9	50.5	19.2	100.0	(844)
남성	2.6	5.6	28.1	51.3	12.4	100.0	(466)
체류 기간($\chi^2=38.11^{***}$)							
3년 미만	0.8	5.6	29.6	51.8	12.1	100.0	(355)
3년~5년 미만	1.3	5.8	27.2	52.8	12.9	100.0	(394)
5년 이상	2.0	8.4	18.5	48.7	22.5	100.0	(561)
체류자격($\chi^2=20.51$)							
취업	1.1	5.4	27.4	52.3	13.8	100.0	(463)
결혼	1.6	6.5	19.5	52.7	19.7	100.0	(370)
정주	1.8	8.3	25.1	45.3	19.5	100.0	(338)
학업 및 기타	1.4	9.4	23.0	54.0	12.2	100.0	(139)
출신지역($\chi^2=25.11^*$)							
중국(한국계 포함)	1.4	6.1	24.3	46.6	21.5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8	6.5	22.8	53.0	15.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5.7	27.0	52.4	14.3	100.0	(315)
기타	2.2	13.0	21.0	52.9	10.9	100.0	(138)

구 분	처음보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	처음 인식과 변함이 없다	처음보다 약간 좋아졌다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	계	(명)
거주지($\chi^2=34.30^{***}$)							
수도권	1.8	10.0	24.7	46.5	17.0	100.0	(761)
비수도권	0.9	2.6	23.3	56.6	16.6	100.0	(549)
연령($\chi^2=33.03^{***}$)							
19~29세	1.3	10.2	26.8	49.6	12.1	100.0	(373)
30~39세	1.7	5.7	24.3	52.9	15.5	100.0	(647)
40세 이상	1.0	5.2	20.3	47.6	25.9	100.0	(290)
한국어 능력($\chi^2=18.99^*$)							
못하는 편	0.9	4.3	30.2	52.2	12.3	100.0	(324)
보통	1.9	7.8	23.5	50.2	16.6	100.0	(422)
잘하는 편	1.4	7.6	21.1	50.4	19.5	100.0	(564)
취업 여부($\chi^2=3.88$)							
취업	1.5	7.0	25.5	49.2	16.8	100.0	(906)
비취업	1.2	6.7	21.0	54.2	16.8	100.0	(404)
차별 경험($\chi^2=24.87^{***}$)							
없음	0.8	3.4	25.2	52.3	18.3	100.0	(595)
있음	2.0	9.8	23.2	49.5	15.5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각기 다르고 시간이나 경험 등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며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한국인 동료나 친구(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한국인 이웃(15.6%)으로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주민의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11.6%)이며, 그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 정책(8.9%)으로 언론과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은 이웃, 남성은 직장 및 학교의 동료나 친구에게 상대적으로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외국인이나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는 이웃의 영향이 매우 큰 편이며, 학업 및 기타 자격인 경우는 유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그룹은 한국 정책과 동일 국가 출신 커뮤니티 등 영향을 받는 요인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나 몽골 및 러시아 출신과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 집단에서도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 자격, 비수도권, 비취업의 경우 한국인 이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 그룹에 이웃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18〉 이주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

(단위: %, 명)

구 분	한국인 이웃	한국인 직장·학교 동료 친구	외국인 이용 센터 에서 만나는 한국인	외국인 관공서 에서 만나는 한국인	외국인 돕는 민간 단체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	외국 인에 대한 한국 정책	외국인 친구나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	기타	계	(명)
전체	15.6	41.4	7.0	4.1	2.2	11.6	8.9	8.2	1.0	100.0	(1,310)
성별											
여성	19.9	34.1	8.6	4.6	2.3	13.2	9.4	6.6	1.3	100.0	(844)
남성	7.9	54.5	4.1	3.2	2.1	8.8	7.9	10.9	0.4	100.0	(466)
체류 기간											
3년 미만	14.6	44.2	5.6	2.0	2.0	11.3	8.7	11.3	0.3	100.0	(355)
3년~5년 미만	14.2	44.4	7.9	3.3	3.0	10.7	6.1	9.1	1.3	100.0	(394)
5년 이상	17.3	37.4	7.3	6.1	1.8	12.5	10.9	5.5	1.2	100.0	(561)
체류자격											
취업	8.4	52.5	4.8	3.0	2.4	9.7	9.1	9.5	0.6	100.0	(463)
결혼	24.6	29.5	11.1	3.5	1.4	13.8	7.6	6.8	1.9	100.0	(370)
정주	19.5	35.2	6.2	7.1	3.3	13.6	8.3	5.9	0.9	100.0	(338)
학업 및 기타	6.5	51.1	5.8	2.2	1.4	7.2	12.9	12.9	0.0	100.0	(139)

구분	한국인 이웃	한국인 직장·학교 동료 친구	외국인 이용 센터 에서 만나는 한국인	관공서 에서 만나는 한국인	외국인 돕는 민간 단체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	외국인에 대한 한국 정책	외국인 친구나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	기타	계	(명)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15.4	36.2	6.1	6.4	3.5	13.7	11.8	5.9	0.9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4.1	43.1	9.7	2.8	1.4	12.0	7.4	8.3	1.4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7.5	47.6	5.7	3.2	2.2	7.6	5.1	11.1	0.0	100.0	(315)
기타	17.4	37.7	4.3	3.6	0.7	13.0	13.0	8.0	2.2	100.0	(138)
거주지											
수도권	11.7	46.1	4.6	4.3	0.9	10.6	10.1	10.8	0.8	100.0	(761)
비수도권	21.1	34.8	10.4	3.8	4.0	12.9	7.1	4.6	1.3	100.0	(54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9.3	44.8	9.6	2.5	2.5	8.3	8.6	13.9	0.6	100.0	(324)
보통	17.5	36.0	8.3	5.0	1.9	12.3	8.8	8.3	1.9	100.0	(422)
잘하는 편	17.9	43.4	4.6	4.4	2.3	12.9	9.0	4.8	0.5	100.0	(564)
취업 여부											
취업	12.4	46.8	6.4	4.1	2.1	10.4	8.9	7.9	1.0	100.0	(906)
비취업	23.0	29.2	8.4	4.2	2.5	14.4	8.7	8.7	1.0	100.0	(404)
차별 경험											
없음	18.2	43.5	6.2	3.0	1.7	10.1	5.2	11.1	1.0	100.0	(595)
있음	13.6	39.6	7.7	5.0	2.7	12.9	11.9	5.7	1.0	100.0	(715)

주: 기타: 배우자, 가족, 여행 중 만난 한국인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3절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지금까지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수용성을 알아보았다. 이 중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과 관계성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온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 항목의 내용을 이주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변형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또한, 신뢰와 포용성 내용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의 질문을 이 연구에서 차용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

땡게 인식하는지 알아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절에서는 한국인에게 알아본 수용성 결과를 이주민의 시각을 통해 알아본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 결과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 결과를 활용한다. 두 조사 결과를 이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와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용성과 이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수용성의 정도 차이나 경향성을 검토하는 수준임을 분명히 해 둔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와 비교한 두 가지 조사가 조사 방법 및 대상이 다르므로 절대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 가지 조사 개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표 4-19〉 비교대상 조사 개요

구분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19세~74세 성인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단기 체류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이주민 (귀화 포함)
조사 인원	4,000명	8,336명	1,310명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가구 방문 면접조사 원칙 (응답자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면접조사
조사시기	2018.11.2. ~2018.12.15	2020.9.1. ~2020.10.31	2021.8.11. ~2021.10.6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1.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항목에서 이주민에게 질문이 가능한 문항을 변경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한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2018년 조사로 전국의 일반 국민 만 19세~74세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비교한다.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수용성 문항을 이주민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응답의 선택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점으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 척도로 세부 항목의 점수, 각 차원의 점수, 전체 점수 등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하위 문항 개수가 동일하지 않아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활용한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 비수용적인 내용의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역 코딩한 점수로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가.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에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비교한다.

1) 문화개방성

문화개방성은 다양한 문화,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 증가,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 거주 항목인데 다양한 문화와 이주민 증가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점수보다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개방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이웃에 산다는 것에 관한 응답에서 한국인의 응답 점수가 이주민의 응답 점수보다 낮아 한국인의 생각과 달리 이주민이 보기에는 그 점이 가장 개방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이주민 서로의 느낌과 생각이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20〉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문화개방성

구분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3.3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4.18
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3.28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95
3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3.72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3.42
한국인 전체 평균		3.44	이주민 전체 평균	3.85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문화개방성3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국민정체성

국민정체성에서는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대한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데, 피부색의 중요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주민에게 투표권 부여는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비교한다. 전반적으로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 한국인이 스스로를 더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피부색과 한국에서의 출생 중요성에 대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생각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로 이주민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나 이주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체성 항목 중 이주민과 한국인이 가장 덜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항목이다.

〈표 4-21〉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국민정체성

구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59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15
2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60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20
3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2.96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99
한국인 전체 평균		3.38	이주민 전체 평균	3.11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3) 고정관념

다양성 차원에서 마지막 하위개념은 고정관념과 차별인데, 이 연구와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비교하는 문항은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한국인의 고정관념에서 요리, 음악이나 무용, 종교행사를 따로 구분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세 항목을 종합해 이주민끼리의 활동과 관련된 하나의 항목으로 대체하였다. 그래서 한국인의 고정관념 항목은 총 4개이고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항목은 총 2개를 활용해 평균을 비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그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관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개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고정관념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생각을 보면,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민끼리의 활동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고정관념 수준이 높은 한국인의 경향을 이주민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 대상 조사 항목에서는 이주민끼리의 행사를 구분해서 보았는데, 요리, 음악 및 공연, 종교 활동 중 한국인은 종교행사에 대해 가장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고정관념

구분	한국인의 고정관념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4.25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3.64
2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4.24		
3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4.14		
4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4.1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45
한국인 전체 평균		4.19	이주민 전체 평균	3.55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나. 관계성 차원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대해 한국인의 생각과 그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한다.

1) 일방적 동화기대

일방적 동화기대는 한국인의 동화기대,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동화기대, 그리고 이주민의 동화에 관한 생각 세 가지 비교가 가능하다. 동화기대의 점수는 높을수록 동화기대를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정도와 이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는 한국인의 응답이 더 수용적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이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방적 동화를 덜 기대하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 동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 수준은 사실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에 가깝다. 한국인과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이주민이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동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이다. 다른 항목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수준의 동화는 아니지만, 마지막 항목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관습을 따르는 수준의 동화에 대한 항목으로, 이에 대해서 한국인은 다른 항목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주민은 이 항목에 대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일방적 동화기대에서 각 집단의 생각이 팽팽한 항목으로 보인다.

〈표 4-23〉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일방적 동화기대

구분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에 관한 생각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3.29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80	나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4
2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3.19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2.88	나는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27
3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3.49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3.25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86
한국인 전체 평균		3.32	이주민 인식 전체 평균	2.98	이주민 생각 전체 평균	3.42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거부·회피 정서

거부·회피 정서에서는 두 개의 항목이 비교 가능한데, 한국인의 응답은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가 이주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한국보다 개발이 덜 된 국가 출신에 대한 수용 정도보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약간 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주민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거부·회피 정서

구분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4.33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3.81
2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하기 싫다	4.25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3.79
한국인 전체 평균		4.29	이주민 전체 평균	3.80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3) 상호교류 행동의지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두 개의 항목으로 비교해 보았는데, 이주민과의 모임이나 활동에 대한 의지와 먼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한국인의 응답보다 이주민이 더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이주민과 함께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3.0점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기대하지 않은 자세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다.

〈표 4-25〉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상호교류 행동의지

구분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2.99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3.65
2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 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3.15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70
한국인 전체 평균		3.07	이주민 전체 평균	3.68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신뢰와 포용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두 조사의 차이로 인해 비율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인은 외국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고, 이주민은 한국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주민의 응답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실제 한국인이 이주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4-26〉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 정도

(단위: %)

구 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한국인 응답	24.9	60.5	85.4	14.3	0.3	14.6
이주민 응답 1	3.9	28.8	32.7	60.3	7.0	67.3
이주민 응답 2	1.1	12.5	13.6	69.0	17.4	86.4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집단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2) 이주민 질문: 1 한국인은 이주민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한국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174.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감정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평균 점수로 비교해 그 경향을 알아보면,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감정이 '차갑다'와 '따뜻하다'의 중간에 못 미치는 정도로 차갑다는 쪽에 가깝지만, 이주민은 중간에서 따뜻하다는 쪽에 더 가깝게 한국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가 응답한 것으로 비교해 보아도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응답은 '차갑다'와 '따뜻하다'의 중간 지점이고, 이주민이 인식하기에는 중간보다 더 따뜻한 지점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을 약간 따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표 4-27〉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단위: %, 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평균 (5점)
	0 차갑다	25	50 ↔	75	100 따뜻하다	
한국인 응답	7.9	33.6	50.7	7.4	0.4	2.6
이주민 응답	0.9	7.3	38.3	46.7	6.7	3.5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도씨(℃)(차갑다)에서 100도씨(℃)(따뜻하다) 사이 중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2) 이주민 질문: 귀하는 평소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 따뜻한 감정(친근감, 우호적인 태도 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0(차갑다)에서 100(따뜻하다) 사이 중 자신이 느끼는 감정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82.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친밀함의 순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관계에 대한 선호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은지를 조사했다. 두 조사의 질문 방법이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한국인과 이주민이 가진 인식의 경향을 파악해 간접적인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의 결과에서는 한국인은 이민자/노동자를 직장동료가 되는 것까지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인은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선호한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점수가 가장 높다.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한국인 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이주민 조사에서도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에 대한 인식 점수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8〉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

구 분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전체	9.9	29.7	42.0	16.4	2.0

주: 질문: 귀하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60.

〈표 4-29〉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점)

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평균	2.70	2.81	2.73	2.64

주: 1) 질문: 한국인은 귀하를 포함한 이주민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십니까?
 2) 평균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출신지역에 따른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성균관대학교, 2018)의 결과와 경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 특정 지역의 외국인을 이웃/직장동료/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를 보면, 중국인-동남아시아인-미국·캐나다 및 유럽인의 순으로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웃-직장동료-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순으로 가능하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직장동료/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주민에게 알아본 결과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성균관대학교, 2018)의 질문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출신지역 별 이주민이 응답한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기타로 구분된 서양 국가 및 일본·대만 등 출신 이주민이 한국인이 자신들과 이웃/직장동료/배우자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에서 한국인이 미국/캐나다인, 유럽인과 관계 수용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동·서남아시아와 중국 출신의 경우는 한국인의 생각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주민의 출신지역 별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거리감이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가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출신지역별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단위: %)

구 분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중국인	77.9	21.2(0.9)	75.8	23.9(0.3)	68.3	31.0(0.7)
동남아시아인	82.7	16.3(1.0)	80.5	19.3(0.2)	69.9	29.2(0.9)
미국/캐나다인	86.9	12.1(1.0)	85.0	14.9(0.2)	75.5	23.9(0.7)
유럽인	86.4	12.5(1.1)	83.6	16.1(0.3)	74.8	24.5(0.7)

주: 1) 질문: 귀하는 다음 각 국가나 지역 사람들을 다음의 각 상황에서 받아들일시겠습니까?

2) 괄호 안은 무응답 비율임.

자료: 성균관대학교.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3-2018. pp. 594-596.

〈표 4-31〉 출신지역별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단위: 명, 점)

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전체	2.70	2.81	2.64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0	2.74	2.64
동·서남아시아	2.65	2.82	2.57
기타(서양 및 일본·대만 등)	2.87	3.00	2.85

주: 평균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2점, '약간 좋아하는 것 같다' 3점,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한국인에게 알아본 결과와 그에 관한 생각을 이주민에게 알아본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 정도의 수준이며 이주민은 동의한다고 인식하는 방향에 아주 약간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표 4-32〉 이주민(외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단위: %, 점)

구 분	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0 점)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동의 한다	
한국인 응답	1.9	1.9	4.5	7.3	10.5	30.8	19.0	16.7	5.9	0.8	0.8	5.2
이주민 응답	1.7	1.3	3.4	4.7	8.1	24.9	17.3	20.2	14.0	2.9	1.6	5.8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주민 질문: 귀하가 느끼기에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한국인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57.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세부 항목별로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으나, 기존 「2018년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없던 항목으로 비교 시에는 제외한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이주민이 인식하기보다 한국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여러 항목 중 한국인과 이주민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위 세 가지 요건이다. 이주민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인은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

〈표 4-33〉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구분	한국인 응답 평균	이주민 응답 평균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86	2.99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2.94	3.00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2.97	3.05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2.93	2.99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85	2.89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25	3.21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3.34	3.15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29	3.19
전체 평균(4점)	3.05	3.06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주민 질문: 귀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인과 이주민 질문 응답지는 동일한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됨.

4)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1.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에서는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통해 이주민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성 차원 중 문화개방성에 대해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수용성이 높은 부분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다. 다양성 차원 중 가장 수용성이 낮은 하위요소는 국민정체성으로 그중에서도 한

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까지는 주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주민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다양성 차원에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차원 하위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점수	하위요소별 평균 점수	다양성 차원 평균 점수
문화개방성	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4.18	3.85	3.47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95		
	3.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3.42		
국민정체성	1.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15	3.11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20		
	3.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99		
고정관념 및 차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3.64	3.45	
	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45		
	3.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3.27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관계성 차원의 하위요소 중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는 거부·회피 정서이다. 즉, 이주민이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거부나 회피 정서가

강하지 않아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호교류 행동 의지도 어느 정도 보여 수용성의 정도가 매우 낮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 동화기대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은 항목들이 다수 있는데, 이주민이 자기 문화를 완전히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나 언어가 우선으로 한국에 이주한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고 동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35〉 관계성 차원에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차원 하위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점수	하위요소별 평균 점수	관계성 차원 평균 점수
일방적 동화기대	1.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80	2.93	3.39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2.88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3.25		
	4.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2.80		
거부·회피 정서	1.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3.81	3.80	3.39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3.79		
상호교류 행동의지	1.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3.65	3.71	3.39
	2.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70		
	3. 한국 사람은 많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준다	3.79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신뢰와 포용성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7.3%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 집단은 신뢰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보면, 응답 이주민의 86.4%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한국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을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 출신 이주민이며, 가장 낮은 신뢰 정도를 보인 집단은 중국 출신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느끼는 감정은 보통보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갖는 감정이 어느 정도 따뜻한지는 이주민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주민과 관계를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에서는 보통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쪽에 가까웠는데, 네 가지 관계 중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느끼며, 배우자가 되는 것을 가장 덜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주민 집단과 한국인이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고,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는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다. 이웃이나 절친한 친구는 결혼이나 정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0에서 10 점 중 평균 5.78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더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도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한국인의 태도가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어,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국 국민과의 물리적·정서적인 거리가 실제로 밀접할 뿐 아니라 결혼 이주 집단에 대한 한국 국민의 수용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나 인종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국민정체성에서는 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민정체성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항목으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9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4점 중 3.21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다문화 수용성이나 차별 등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이 나타난 결과와 방향을 함께 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다음은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이 뒤를 잇고, 3점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국방의 의무는 그동안 질문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인데 외국인도 한국에서의 국방의 의무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3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구 분	평균 (4점)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99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3.00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3.05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2.99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89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21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3.15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19
9.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3.05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 산출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한국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범죄율과 국가재정에 관한 생각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대한 점수가 높아 이 세 가지에 대해 한국인이 이주민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7〉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관한 생각과 위협의식

(단위: 점)

한국 사람은 . . . 라고 생각한다	평균 (4점)
1.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56
2.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2.68
3.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	2.68
4.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	2.43
5.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	2.31
6. 이주민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로 인해 한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2.47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3.0%가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지역 출신 이주민보다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 출신 이주민은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상대적으로 낮고,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이주민 또한 노력한다는 비율(78.6%)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1.1%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현재 이주민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체류 기간 5년 이상인데,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22.5%로 상대적으로 높고,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의견에서는 5년 이상의 경우가 8.4%로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 즉, 한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처음 인식과 달리 변화하는 기점으로 보이고, 이때 한쪽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닌 긍정이나 부정의 방향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은 처음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 출신의 이민자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한국인 동료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변 한국 사람이 주는 영향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의 영향도 여러 요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 인식

이주민 수용성에 대해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결과와 이주민이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을 경향성 파악 수준에서 비교해 보았다.

다문화 수용성 중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고정관념에서는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수용성이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 중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방적 동화를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부·회피 정서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더 높은 의지를 가진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는 한국인의 응답과 이주민의 응답이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와 별개로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I: 질적 연구

- 제1절 이주노동자가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 제2절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 제3절 전문가가 본 한국 사회 수용성
- 제4절 소결

제 5 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I: 질적 연구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수행된 양적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제5장은 양적 연구 주제는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양적 조사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전체와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양적 조사에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힘든 이주민의 경험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면담 방법을 활용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주민 내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한국의 이주민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두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민 대상 센터나 민간 기관의 종사자 등 이주민을 현장에서 가까이 그리고 빈번하게 접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이주노동자가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무대 뒤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인 동시에, 무대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이다. 단기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회의 하위계층마저 끼리는 위험하고, 힘들고, 도시로부터 먼 곳으로 취업을 한다. 또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매우 제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전제된다. 이미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온전히 돈을 벌고, 저축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한국생활은 거의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사회적 관계 역시 사업장 내에서 혹은 이전 사업장 등 업무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대부분을 이룬다. 선행연구결과도 이주노동자의 주류사회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환경, 직급만족도, 직속 상사와의 관계 등 모두 작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석호, 김상욱, 한지은, 2009; Ea, Griffin, L'Eplattenier, & Fitzpatrick, 2008; Wang & Sangalang, 2005). 한국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수준이 이주민의 시각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집단의 다수를 형성하는 중국 동포, 베트남, 태국,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주노동자가 마주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 고용주 또는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지 한국 사회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묻지 않고, 그들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다양한 측면에 관해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공감하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경험과 개인의 독특한 경험 등을 구분할 수 있었다.

1. 이주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1) 한국에 대한 인상, 2)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3)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 교환, 4)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책, 5)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대를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별로 2021년 10월에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출신지역별로 그룹을 구성해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베트남인 3명, 중국 동포 3명, 태국인 3명, 필리핀인 3명 등 각 그룹 당 3명씩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 동포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은 통역사를 동반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태국인 그룹의 통역사는 한국인이면서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를 도우며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매우 가까이에서 함께 겪은 사람이었다. 인터뷰 중 도움이 되는 설명이 있어 아래 내용에 일부 포함한다. 각 인터뷰는 2시간 30분~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 참여자의 성비는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재외동포, 가족초청, 방문취업제 등 비교적 입국 경로가 다양한 중국 동포를 제외하고는 나라별로 남성 이주노동자 2명과 여성 이주노동자 1명으로 구성하여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입국 시기와 연령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 입국 직후와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1~2년 이내 입국자는 제외하였다. 체류 자격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E-9)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중국 동포의 경우 특별고용허가제도 비자인 방문취업제(H-2)로 제한하였으나, 방문취업제(H-2)에서 이후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직종은 중국 동포를 제외한 모두가 공장노동자였으며, 비교적 직종선택이 자유로운 동포 이주민은 입

주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에 종사 중이었다. 그 외 결혼 여부와 가족 상태는 미혼 1명, 동거 1명, 이혼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혼인 중이었고, 자녀 양육 과정에 있는 대상자 7명은 모두 모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표 5-1〉 이주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그룹	구분	연령	성별	출신국가	한국 입국 연도	함께 사는 가족	현재 거주 지역	직종	체류 자격
1	A1	30	남	베트남	2012	없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2	38	남	베트남	2005	있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3	37	여	베트남	2012	있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2	A4	62	여	중국 동포	2008	있음	수도권	입주 가사도우미	F-4 (H-2에서 변경)
	A5	70	남	중국 동포	2006	있음	수도권	요양보호사	F-4 (H-2에서 변경)
	A6	48	여	중국 동포	2014	있음	수도권	입주 가사도우미	H-2
3	A7	37	여	태국	2019	-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8	39	남	태국	2017	-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미등록
	A9	39	남	태국	2015	-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미등록
4	A10	34	여	필리핀	2017	없음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11	29	남	필리핀	2018	있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12	40	남	필리핀	2007	없음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E-9

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가. 한국 입국 전후 한국에 대한 기대

1) 입국 전 한국의 이미지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입국 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미디어, 특히 한류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 중인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형

성된다. “예쁘고”, “깨끗하고”, “대기업”에,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예비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언어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가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 드라마는 독학의 좋은 자원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도 (A7처럼) 드라마를 봤고,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이 되게 발전되어 있고 이런 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봐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한국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A8, 태국)

2) 한국으로의 출국 결정

이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출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본국에서 마주한 상황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한국행이다. 중국 동포의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가 본국 동포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오랜 기간 전해져왔을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동포 네트워크가 한국에 형성되어 있고, 가족초청 등 제도적 입국장벽이 낮아서 이주에 관한 결정과 실천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필리핀 출신 노동자의 출국 결정 사유는 이보다 더 경제적 이유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이주민 중 한 명은 한부모 가정으로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왔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국에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 강력할 경우, 총급여 수준이 이주할 국가를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이주민은 친구들로부터 한국의 급여 수준이 가장 좋다고 들어왔다고 하였으며 필리핀 출신 통역사 역시 필리핀 사람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해 해외 이주를 나가는 국가 중 한국의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등 국가보다 한국의 급여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 생각해 온 모습과 다른 한국

그러나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매우 달랐다. 당장 작업해야 하는 공장의 상황은 드라마에서 전혀 볼 수 없던 것이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마주할 때 그러한 차이를 느꼈다고 밝혔다.

“아까 이 친구(A1)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이 엄청 예쁘고 회사도 다 큰 회사만이 보이잖아요. 기업들만 보여주고. 근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드라마처럼 막 대기업인 거 아니고 가족이 하는 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처음에 자기 상상했던 거하고, 막상 오니까 좀 그런 거, 좀 너무 달라서 약간 좀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한국을 처음 왔을 때니까, 한국말 많이 못해서 좀 힘들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좀 잘 해줬어요. 잘 해줬고.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 근로자이다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운 일, 힘든 일을 좀 시켰고요. 한국 사람에 비해서.” (A2, 베트남)

나. 한국 사회·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대와의 차이에 따른 당혹스러움과 편견 및 차별적 대우에 의한 실망 이외에도,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이미지

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감탄이며, 둘째는 한국 사람들의 목적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태도이고, 셋째는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시민성, 마지막으로 주류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답습한 젠더 인식이다.

1) 공공시설 및 사회적 인프라

모든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한국 사회의 이미지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편리한 교통과 의료 시스템 등 공공시설 및 사회적 인프라이다. 그중에서도 의료 관련 복지와 병원 시설과 관련된 제반 환경이 본국보다 훨씬 좋다는 발언이 자주 등장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건강이 악화하거나 주변에 병원 신세를 지는 사례도 가까워서 봐왔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친절하고 의학적으로 뛰어난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그리고 공적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매우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또 다 병원 가면 서비스도 좋고, 태도도 좋고. ... 전철에 가면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직원들한테 전화로 하면, 내가 이거 무거워서 못 드는데 다 연락하면 갖다와주고. 중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 다 교포들이 말해요. 다만 차별하는 게...” (A4, 중국 동포)

“한국이 의료보험이 진짜 좋은기라. 중국은 의료보험 있지만 아직까지... 병원을 가면은 큰 병도 아닌데 막 검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뭐 검사하고 이것도 검사하고, 큰 병도 아닌데 (웃음)” (A5, 중국 동포)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통역사는 오히려 이주민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일부 감면해주는

대형병원의 복지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이주민 환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내고 치료비를 깎아주겠다는 사기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증언했다.

2) 경쟁 사회와 성공 지향적 한국인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는 성공 지향적이며, 목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때로는 "워커홀릭"의 이미지다. 기존에 "빨리빨리"라는 말로 대표되던 한국 사회의 인내가 부족하고 노동자를 다그치는 듯한 언어는 의외로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very hard working)" 효율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작업을 하는 데 이러한 워커홀릭의 이미지가 부담이 되거나 불가능한 요구로 들리는지 물어본 결과, 자신들도 한국 사람과 같이 비슷한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응답하는 이주노동자가 있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작업방식("빨리빨리")을 이주노동자도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작업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수월하게 국내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중국 동포 이주민들은 한국인의 그러한 경쟁적 태도가 정당정치의 측면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험뜯고 깎아내리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하였다.

3) 사회질서를 중시하는 시민성

한국인에 대한 세 번째 이미지는 규율을 잘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중시

하는 시민성이다.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discipline과 safety”를 꼽으며, 사람들이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킨다고 보았다. 또한, 필리핀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총을 쏘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친절한 경찰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도 언급하며,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고용주의 적극적 차별이나 공공규범을 어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 중국 동포 역시 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한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한국인들의 이미지이며, 모국과의 차이점이라고 언급하였다.

“All Koreans are discipline. In Philippine, they think they are always the leader, not like here, and always violate the law. At the red light, they just walk in. (웃음) …(If I go back to Philippine) Maybe we will tell our friends “Oh in Korea, no one cross on red light. They follow the rule.””
(A10, 필리핀)

4) 답습된 젠더 인식

마지막으로 답습된 젠더 인식으로 이름 붙인 한국의 또 다른 이미지는 “아줌마”로 지칭되는 중년 여성이다. 이러한 편향된 이미지는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요청하거나, 이주노동자를 하대하는 양상을 포괄하며 작업 공간을 둘러싸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아줌마”들은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보면 불필요할 정도로 세심하게 과업을 관리하며, 항상 화를 내고, 반말을 하며, 일을 시키는 동료이자 상급자이다.

돌봄 노동자 처지에서 “아줌마”는 가정관리사를 하대하여 일컫는 언어이기도 하다. 고용주인 “사모님”이 이주노동자를 지칭할 때 “이모님” 대

신 “아줌마”를 사용하는 경우 돌봄 노동자는 모욕감을 느끼며, 돌봐야 하는 “사모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지칭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돌봄 노동의 고용주인 “사모님”이 바로 이주 노동자가 언급한 “아줌마”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인데, 상대적으로 무심한 남성 고용주인 “사장님”과 대비하여 “사모님”은 까다롭고, 억세고 감정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다. 한국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한국의 미디어가 반영하는 이주민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TV나 영화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가끔가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주노동자의 모습은 아예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베트남 출신 면접 참여자는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주인공이 원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연출하는 <고부 열전>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을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한 면접 참여자도 필리핀의 다양한 문화 대신 가난하고 폭력적인 뉴스만 전달하는 한국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기도 필리핀의 문화가 다양한데,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왜냐면 여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척만 하나까. 음식이나 문화 다양하게 보여주면 좋겠고, 뉴스도 꼭 안 좋은 뉴스만 나온다. 필리핀에 총이 많다, 이런 얘기.” (A12, 필리핀)

중국 동포 출신의 면접 참여자는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인 대림동 일대를 우범지역으로 표현하여 논란이 되었던 영화 <청년 경찰>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소란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동포의 폭력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오히려 이처럼 통계적 사실이 아닌 미디어에 근거한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증 연장 과정에서 범죄경력 서류를 떼어오게 하는 등 동포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비판하였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는데,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인에 의한 범죄는 사건의 특성과 사실에 주목하여 간결하게 보도하는 것과 달리 동포에 의한 범죄는 범죄자의 국적과 “동포”라는 사실만 과도하게 주목받는다는 점이 그러했다.

“어디 한 번 교포가 살인사건 한 번 났다 하면 아무개 동포가 죽었다고 하면은 막, 중국 동포들이 어찌구 굉장히, 중국 동포들을 다 한데 끌어와서 뉴스를 막 내보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살인 했을 때는, 뭐 아무개, 무슨 뭐 어떻게 돼서 살인 됐다, 간단히, 이렇게. 근데 어쨌든 동포가 사람 죽였다 할 때는 음성이 더 커지잖아요, 말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대림동이 어떻다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더 벌벌 떠다느니. 근데 프로로 따지면, 그게 내 생각에 동포들이 몇 프로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동포들의 이미지를 이 뉴스에서 많이 깎아 내리는 보도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안 좋죠! 사람이란 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살인자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살인자가 뭐 국적을 따져요, 나라를 따져요. ... 그 사람들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살인 했겠죠, 뭐. 정신상의 이유든, 뭐 이웃 간의 불화든. 그걸 중심으로 말해야지, 뭐 중국 동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인했다고, 잉. 동포들한테 매 이러면 귀 시려워, 영 듣기 안 좋죠.” (A4, 중국 동포)

3.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가. 일상생활에서의 인종차별과 편견

한국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다시 일반 한국 사람들의 특정 국가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기존의 인식을 확증 편향하며 편견을 공고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일종의

가장 낮은 수준의 혐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혐오”란 글자 그대로 “극히 싫어함”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집단적 차별과 편견의 대상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성”을 표출한다는 의미이다(홍성수 외, 2016). 상대방을 부정적 의미로 전형화(stereotyping)하는 편견은 가장 낮은 수준의 혐오이지만, 언젠든 욕설 및 비인간화 등 ‘편견에 의한 개인적 행위’로 발전하거나, 그보다 한 걸음 나아가 정치, 경제, 주거, 교육상의 분리와 차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주의가 요구된다(Levin & Perry, 2009).

1) “못 사는 나라”에 대한 편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못사는 나라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로 인식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은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 출신 이주민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에게만 “이 월급이면 베트남에서 1년 연봉 아니냐?”는 식으로 말한다던가, “너희 나라 이런 거 없지?”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태국 출신 면접 참여자는 한국 사람들의 인종주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사람들이) 국적에 따라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과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차별을 두는 것 같다. (중략) 어떤 차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차별을 두는 것 같다.” (A7, 태국)

입주 가정관리사이자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면접 참여자는 고용주가 한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집안 물건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이직

을 고민할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내가 지금 손주가 있으니까. 혹시 얘기 물건이라도 가져갈까, “가방에 뭐 이리”하면서 보고. 옷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여자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가방을 보지는 않는데, “이모님 가방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할라고, 사람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손주 있으니까 그냥 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략) 자꾸 난 사람 의심하는 거. 물론 외국에서 오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 물색하고 하는 그 자체가 불편해요. 까딱하면 뭐, 없어졌다 하고.” (A6, 중국 동포)

그 외에도 언어적 장벽이 없어 한국인과의 상호작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동포들은 한국인 고용주들이 중국 동포를 향해 “거지같은 것들” 등 직접 경제 상태를 모욕하는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2) 일상적 하대, 무시와 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우월의식과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은 관점과 편견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무시와 반말 등 차별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특히, 작업장이나 고용 관계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무시와 차별 경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면접 참여자 중 필리핀 출신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물어봤을 때 “야”라고 응답하였다.

“야”. 평소에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기분 나쁘면 어떤 순간에 “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 이름 알려주고 “나 누구다, 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니, 그다음에 이름으로 불렀어요. (보통 반말하죠?) 네. (How do you feel?) Ok now. 반말해도 괜찮다.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크잖아요. 갑자기 목소리 크게 “야야야야!” 하면 기분이 나빠요.” (A10, 필리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말은 이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인지 과정의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평소 반말밖에 듣고 배울 기회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 외부 공간에서 한국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소란에 얽히거나 지나치게 높은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민지원 활동을 겸하는 태국 통역사는 한국에서 존댓말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한국 사회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중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 한국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없다. 태국 출신 면접 참여자는 한국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을 때, 그게 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고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증언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외국 사람”들은 그런 욕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에 오래” 가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심한 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또 항상 똑같이 지내는” 것에 놀라며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와의 상호작용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또 다른 지점은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작업 중에 이주노동자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들에게는 무시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언어적 설득이 한국인보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주민의 처지에서 이러한 고압적 태도와 무시는 다음에 자신이 의견을 내거나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일할 적에 저희들의 의견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근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A9, 태국)

그 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주노동자 옆자리가 비어있어도 아무도 앉지 않은 채로 서서 가거나, 버스의 카드 기기가 고장 났을 때 기사님이 자신만 뒷문의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서서 기다리게 한 경험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느닷없이 “너 외국 사람이냐?”고 묻는다거나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통화를 하면 소리가 크지 않아도 조용히 하라고 시비를 거는 등 일상적인 차별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직은 외국인이라는 그 눈빛하고 그 태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만약에 전화 올 때. 만약에 자기 나라 언어로 통화할 때, ‘약간 시끄럽다.’ 막 그런 것도 다른 한국 사람도 그렇게 통화는 괜찮은데, 근데 외국 사람이라 외국말을 하니깐 너무 시끄럽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A2, 베트남)

3) 이주민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앞서 지적된 편견과 차별적 행동보다도 작업장에서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언어적 장벽이 높는데, 결혼이주민처럼 한국인 남편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한국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여성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요청할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업 종사자 등 지리적으로도 고립된 공간에서 성폭행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 위험과 두려움이 월등히 높을 수 있다. 한 면접 참여자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사건이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고용주부터, 고용주의 아들, 동료 노동자까지 다양하다고 증언했다. 행동에 반박할 경우 “장난인데 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나”는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아직 심각한 상황인 건 여성 관련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직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 만약에 결혼이민자라면 당하면 남편한테 얘기하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외국인 여성 노동자이다 보니까 자기의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같은 동료 같은 사람 나라 사람이지만 누가 나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얘기하면 일자리를 잘리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너무 막 오버타임 같은 거 안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해도 CCTV가 확인이 안 되니까. 특히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막 새벽에 또 나가서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 요청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참을 수 있으면 그냥 참고 하든가 아니면 뭐 진정서 넣어도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아예 그냥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는 거죠. ‘너는 그 진정서 취하하면은 내가 사업장 변경해줄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 가면 나만 힘들어. 누가 나한테 편들어줘. 누구도 나를 끝까지 도와준 사람이 없어’라는 그 맘을 갖고 있으니까, 더이상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그냥 퇴사하는 걸로, 그 사건을 종료하는 거죠.” (A3, 베트남)

한편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여성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고 생각한다든지, 처음 만나자마자 항상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뒤에 와서 좀 치거나 그런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어서. 처음에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몇 살이나, 결혼했냐, 아이는 있냐라고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하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 저 같은 경우에, 여자는요.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A7, 태국)

4) 출신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 출신 이주민과 달리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

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한편 아시안 이주민 내에서도 국가별로 고정관념의 차이가 반영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인터뷰 결과 실제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 중 한 명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더 우호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람들은 이주민의 외모와 국적에 따라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언젠가 한 번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필리핀이라고 대답하자 자신에게 침을 뱉고 간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며, 필리핀에 충이 많아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도 봤다고 증언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외모, 모습이나에 따라 이란이나 인도 등 모습 보면 한국 사람들 차별 있어요. 택시들이 인도사람, 나이제리안 사람들을 안 태우더라고요. (중략) 그다음엔 국적에 따라 차별해요. 무슬림 같은 건 무섭다고 생각하거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A12, 필리핀)

반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선호는 분명하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특정 나라를 더 선호하거나 차별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여, 다른 국적 이주노동자의 응답과는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미국과 유럽 출신 이주민에 비해 동남아 이주민들이 더 무시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한 면접 참여자는 자신이 태국에서 왔다고 밝혔을 때 한국 남성들이 “마사지 같이 갈래?”, “마사지 갈래?”라고 물으며 자신을 퇴폐 마사지업소의 직원 처럼 대하는 적도 있었다고 증언하며, 태국 출신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또한, 한 면접 참여자는 태국인 친구가 회사 사장님이나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태국 사람 너무 무섭다, 너희 나라는 맨날 마약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 본인이 한 일도 아닌 것에

대해 비난받는 어려움을 호소했다고도 언급했다.

그 어느 국적자보다도 국가별 편견과 차별에 대해 분노한 이주노동자는 중국 동포였다. 중국 동포는 앞서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대립동 일대 동포 밀집 지역의 우범지역 이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지만, “중국” 자체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도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컨대 중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잘살게 되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늘 지지분하고 미덥지 않은 곳으로 간주되며,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모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근데 중국도 좋은 물건은 한국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한국 물건도 더 좋은 것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한국 물건이라 하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중국 것은 무조건 물건이 안 좋다, 근데 그 물건을 왜 사서 쓰는가, 하는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좋은 물건은 똑같이 그거보다 한국 물건보다 더 좋을 수 있거든. 근데 중국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길 하는 거는 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죠.” (A6, 중국 동포)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중국은 영 못살고, 더럽고. 물론 위생상은 중국도 한국보다 더러운 데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더러워서 중국에 여행도. 내가 지금 저 집에서 몇 년을 해도, 지금 중국 얼마나 유명한 곳이 많아요, 볼 데도 많고. 근데 아직은 “중국은 겁난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A4, 중국 동포)

한 동포 노동자는 중국이 더럽다는 한국인의 편견에 대해 반발하며, 자신이 일하던 한국 식당에서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도 다시 쓰는 모습들을 봐왔고, 오히려 자신이 버틸 수 없어 그만뒀다고 하였다.

나. 노동시장에서의 편견과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고 견디기 힘든 차별은 노동시장 및 작업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이다. 한국인과 같은

노동을 하거나 더 힘든 일을 하는데 임금은 더 적게 받는다던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며 보호 장비를 사주지 않는다거나, 법적 체류자격을 빌미로 혹은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주민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보내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작업장이나 숙소에서 보내는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주와의 불화는 곧바로 실직이나 임금체불, 체류 연장 금지(추방)를 의미할 수 있으며, 거의 유일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이자 고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은 대부분 일회적이며, 한국이든 본국이든 어디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관습으로, 한두 명의 반발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과중 노동 차별 임금

모든 이주노동자가 하나같이 주장한 이들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차별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많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더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한국인의 임금을 알 수 없어서 이러한 차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면 한국인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는 제외되는 것을 보며 반감이 더 커진다.

“한국분이 자꾸 무거운 일, 위험한 일을 이 친구들(베트남 이주노동자 인터뷰이들)한테 주니까. ‘같은 월급을 받는데 왜 나만? 외국 사람이니까? 나는 왜 이 무거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사람 사람도 월급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하고 나만 시키는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참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데서 좀 분노를 느끼는 거죠.” (T, 베트남 이주노동자 통역사)

게다가 이주노동자가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고용주는 물론 함께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도 알고 있다. 이는 오히려 한국 노동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며, 이주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심지어 자신이 더 좋은 인력으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불화를 조작하기도 한다. 요컨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힘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몫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고용주나 출입국관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 한국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일반화된 나머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대부분 지인의 소개나 직업소개소에서 직장을 찾는 중국 동포는 소개소에서부터 한국인 월급이 중국 동포보다 약 50만 원 정도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돌봄 노동 시장에서 이러한 급여 차이는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며 마치 “당연한” 것으로 논의되지만, 직접 업무량의 차이까지 경험하고 나면 그 부당한 임금체제와 한국인의 비양심을 체감하게 된다.

“아무래도, 물론 어린애들 본다 하면, 누가 똥 치우고 싶은 사람이 오셨나, 솔직히.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고... (일 공평하게 하자고 안 해보셨나요?) 그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일 더 하면 되지. 속 편한 게 낫죠. 어지간하면 안 다들려고 하고... (중략) 그냥 마음이, 같은 사람 이라면 솔직히 마음은 좋진 않죠. 돈은 자기가 더 벌면서. 어지간하면 안 다들려고 그냥. (중략) 아까 얘기하다시피 한국분하고 중국교포들하고, 월급 차이가... 일하는 거에 비해가지고는. (중략) 월급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일은 일대로 진짜. 사모님 없고 하면, 눈이 안 보일 때는, 애 둘이라도 볼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우리가 외국에서 와갖고 동포제지만도. 앞에서 하고 뒤에 하고 행동이. 월급은 또 월급대로 많이 받고, 일은 일대로 저희가 많이 해야 되고.” (A6, 중국 동포)

2) 과중 노동 차별복지

더한 문제는 단순히 월급과 업무량의 차이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식비도 적게 받고,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작업 현장의 모자 등 보호구를 사비로 사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자는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받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는 더 낮아진다.

“보호 기구 같은 것을 안 사줘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오면, 뭐 장갑을 달라고 그러면 장갑을 바로 주고. 아니면 모자 보호구 등 있으면 다 들어주는데, 이 친구들 매일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안 주니까 그런 거도 불만이 있고요. 또 연차도 없고. 연차는 다 그 빨간 날에다가 다 같고.” (A1, 베트남)

돌봄 노동자의 경우, 입주 가정관리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식비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근무일 동안 노동자가 직접 반찬을 따로 개인적으로 사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일은 중국 동포 가정관리사에게만 해당하며, 한국 사람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남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중국 출신 면접 참여자는 같은 일에 종사하는 중국 동포 지인이 입주하고 있는 집에 “남은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난리를 치는” 고용주가 있었다며 한탄을 토했다.

“좀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뭐 주변에도, 반찬을 아예 안 해줘서 아예 집에서 일주일 치를 해가는 사람이 많아요. (A6: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반찬 이런 거 먹는 거 가지고. 우리말로 사람을 깔보는 거죠, 알개 보는 거죠. (중략) 10명이 가정집에서 일한다 하면 그중 6-7명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할 거예요. (A6: 맞아요) 그리고 고기 먹을 것도 지 먹을 거는 다 싸가지고 간대요. 어떤 데는 과일도 다 싸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A4, 중국 동포)

3) 초과근로 배제

한국인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잔업”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잔업 혹은 특근이라 불리는 초과근로는 기본급보다 시간당 급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이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일정 기간의 급여 감소는 이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잔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부분 고용주는 이러한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주노동자를 잔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이들에게 실질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도구이다. 사업주가 이미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칭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극적인 대응은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오버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말 잘못하면 오버 타임을 안 시켜줘요. ‘그냥 너는 여덟 시간만 근무해라. 선생님은 오늘부터는 나오지 마라. 토요일도 나오지 마라.’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근무할 시간이 너무 짧는데, ‘나는 빨리 돈 벌고 자기 나라를 가고 싶은데.’ 근데 오버 타임이 없으면 그 의미 없잖아요. 전에는 기숙사비 같은 거 공제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기숙사도 공제하고 식비도 공제하고 공제하는 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기본급을 갖고 생활하기 힘든 거죠. 오버 타임을 안 하면.” (A3, 베트남)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오래된 이주노동자들은 주당 52시간 근무 이후 잔업이 줄어들어 전문취업(E-7) 자격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절대적인 일의 양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잔업과 임금은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4) 법적 체류자격을 이용한 착취

한국인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법적 체류자격을 빌미로 한 것으로 그 범위는 작게는 이주노동자와의 불평등 협상부터 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까지 다양하다. 가정관리사로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중국 동포는 많은 한국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기 싫어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구인하거나, 쓰더라도 계약 기간을 실제보다 줄여서 쓴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는 3년마다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1년 반이 연장되어 4년 반까지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그 때문에 H-2 동포 노동자 처지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 기간이 중요하지만,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는 고용주들이 이를 꺼려 한다는 것이다.

“그기 왜냐면은 H-2는 3년마다 나가는데 한 집에서 하면 1년 10개월 연장이 더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3년인데 4년 반, 1년 반은 더 있게 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 조건으로도 계약서 써 달라 하면 안 쓰겠다는 집도 많거든요. 아니 한 가지만 더요, 계약서를 쓴다 해도 거기다 써줄 때도 기간을 줄여서 써줘요, 왜냐면 세금 덜 내려고. 그런 거는 얘기해도, 아이 막 그냥. 내는 손해 안 본다고 하지만도, 세금 내도 적게 낸다 하지만도, 그건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누구는 뭐 계산할지 몰라가, 다 머리 쓰는 거예요.” (A6, 중국 동포)

또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한이 있는 사업주들은 이를 이용하여 이주노동자와 불평등하고 암묵적인 협상을 맺기도 한다. 면접에 참여한 한 고용허가(E-9) 이주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구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법무부에 이주노동자의 취업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는 취업 기간에 사업장 변경이 없어야 한다. 한 면접 참여자는 이러한 재입국 특례취업을 위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 기존에도 최저임금만 지급했던 사업장에서 1년간의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임금의 63%만 받으며 지냈다고 밝혔다.

고용주의 사업장 변경 권한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한 면접 참여자는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이주노동자 지인이 가해자인 고용주를 신고하려고 하자 고용주가 “네가 그 진정서 취하하면은 내가 사업장 변경해줄게.”라며 회유해왔다고 언급했다. 성범죄 특성상 증명이 어렵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싸움을 끝까지 진행해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변경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체급하거나, 신고와 실질적인 지불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신분으로 신고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찾아가 보면 통역도 있고 이러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비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이제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 그런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러 간단 말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장이 나쁜 마음으로, 실제로 저는 두 번 겪었는데, 사장이 112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불법체류자 잡아가라고. 그럼 거기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실제로 두 번 겪었어요. 그런 일을. 신문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서. 나 이제 거기 가서 잡혀갈 뻔했다, 잡혀갔다 이러면 누가 사실 신고를 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그걸 포기하는 게 낫지.” (T, 태국어 통역사)

5) 언어 소통의 문제

직장에서의 언어장벽은 중국 동포를 제외한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마

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이다. 특히 입국 초반에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사업주의 지시를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특히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오해하거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상대에게 명료히 설명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일하면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그런 거 물어도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니?” 옆에 물어보고, 내가 효과적으로 일 하는 게 맞는지 그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야! 잡담하지 마! 너 왜 장난이나 치고 그래” 막 욕을 하고. “이 새끼 맨날 장난만 치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8, 태국)

또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동료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한 것으로 고용주가 오해하게 이야기해 자신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혼났으나, 아무도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사례를 공개했다. 이러한 오해는 누적될수록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한 상황에서도 언어적 장벽은 이주민의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인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이주민들에게 호의를 가지는 점이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We don’t say it(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민 집단)’s very Filipinos but we experience. Most of the previous companies they much more like Filipino rather than other nations. (중략) Nowadays Koreans like Filipinos most because they want to learn English. That’s the reason.” (A10, 필리핀)

6)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험: 가정 관리·돌봄 노동의 특수성 및 임신

고용허가(E-9)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돌봄 노동 및 가사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중국 동포 노동자에게 실질적 차별로 다가오는 부분은 퇴직금이다. 이들은 개별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식당 등 여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포 노동자와 구분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입주 가사관리 및 돌봄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대부분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고 처리를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숨길 수 없는 시점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다.

“임산부는 거의 사장님이 임신한 거 알면 바로 퇴사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거의 숨겨요. 임신한 거는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장님 알면 그 회사 퇴사 처리하거나, (그게 그렇게 퇴사를 막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원래 자를 수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근데 사장님들은 거의 다 잘라버려요. (중략) 일단은 그렇게(‘임신했다고 자르시면 안 된다’) 얘기하죠. 얘기하더라도 근데 사장님이 오면 또 근로자한테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못 살게 하니 까는, 아예 본인을 못 자르는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A3, 베트남)

다. 한국 사회의 제도적 차별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저마다의 성향이 다양한 개개인에 의한 차별 경험보다도 법과 제도에 의한 체계적 차별 경험에 더 분노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때에도 법과 제도에 의한 차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해지고, 그것에 의한 차별을 체감하기가 쉬워진다. 그 때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제도변화에 대한 정보습득이 빠른 중국 동포 노동자의 경우 한국 사회의 제도적 차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끼기도 한다. 또한 고용허가(E-9) 이주노동자와 중국 동포가 마주한 제도적 상황이 달라서 두 집단 간 경험과 요구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체류자격 변경 조건 강화와 차별

우선 중국 동포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은 지나치게 높은 체류자격 변경 조건이다. 고용허가제(E-9) 노동자들은 이미 1회 이상 재입국을 통한 취업연장에 성공하였거나 고용허가제의 연령 제한(만39세까지)에 걸리는 경우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한국에 더 머무르고자 할 것이다. 이때 이주노동자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의 취득을 고려하게 되는데, 급여와 학력 요건 등이 까다로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다.

“그게(E-7-4 체류자격 변경) 하고 싶었지만, 친구들한테 듣기로 너무 risky. 왜냐면 패스하는 서류가 너무 어렵고, 그담에 point system도 있고. 근데 point system을 하기에는 기본급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월급이 패스하기에는 부족해요. (중략) 출입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까지 했고요. (중략) 그때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다가 비자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경제 조건이 급여를 안 맞출 것 같아서 중간에 안 했어요.” (A10, 필리핀)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E-7 취득 기준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에 2명, 제조업은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E-7 비자도 있는데 근데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은 바꿀 수도 없고. 첫째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를 50명 미만은 1명밖에 못 받고요. 법이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A2, 베트남)

한편 재외동포(F-4)의 경우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싶지만, 요건으로 정해진 최소 재산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영주권)도 소득 요건이 3,000만 원 이상이니, 이전에 내가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일 년에 2,500만 원인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 안 되니까 못 했죠. 영주권은 국적이고 상관없으니까, 영주권자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다 주잖아요.” (A4, 중국 동포)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정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은 욕구가 높으나 제시되는 요건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에게는 신청조차 못할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신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한국 사회의 정주 이민자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내비쳤다.

2) 체류자격에 따른 지원 차별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고용허가제(E-9)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이주민지원 혜택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가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때 차별로 느껴질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병원비와 예방 접종비 등의 혜택이 다양한데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혜택에서 모두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단은 거의 지금 지원되는 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 근로자들한테. 이주노동자한테는 지원해 준 거는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원해 준 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던 거는 본인도 똑같이 세금도 내고, 똑같은 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한국 사람은 되고 외국 사람이니까 안 되고, 외국 사람이 안 되도 결혼이민자는 되고, 근데 외국인 근로자는 안 되고. 그런 거 차별받고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왜 이렇게 혜택을 받을 때는 제일 못 받는지, 그런 거는 있고요. 다른 거 뭐 지원해 준 것은 많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요. 똑같이 않아도 어느 정도 50%나 60%라도 해주면 좋고” (A4, 베트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대책 역시 체류자격별로 상이하여 정부에 의한 제도적 차별로 간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민과 달리 자신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고, 중국 동포는 영주권자와 국적 취득자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호소했다.

“그거(재난지원금) 안 주더라고요. 25만 원짜리 줘야요. 그거 교포 준다고 해서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영주권이나 있냐고. F-4라 했더니 대상자가 한국 사람이면 되고,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마누라는 한국 사람이라 되고 나는 못 받았어요.” (A5, 중국 동포)

한편 중국 동포인 면접 참여자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차등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다.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중국인이라고 코로나에 더 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그게 어느 때였더라, 여름이었는데. 어느 날까지 외국인은 코로나 검사를 하라 해가지고, 나도 애를 보면서 그때가 마침 금요일이어서, 월수금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애를 보내고 나서 바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이튿날에 연락 와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 막 올라가는 거죠. 이기 코로나 검사도 그래요, 내가 오늘 검사를 해도 내일 확진자를 만나면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든가 해야 안 걸리든가 하지, 중국 사람만! 완전히 차별이죠, 그게. 완전히 차별.” (A4, 중국 동포)

3) 중국 동포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일반 이주노동자와 달리, 취업 조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 동포는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 직종을 제한하는 제도가 차별적이라고 느낀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만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서 만60세 이상 동포는 모두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두 체류자격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상이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체류자격에 맞게 경력과 일자리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의 현장직은 일부 기술/숙련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방문 취업자(H-2)는 취업이 가능해도 재외동포(F-4)는 취업할 수 없다. 재외동포(F-4)는 원칙상 단순노무직 취업이 금지되어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기술직”으로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접 참여자 중 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살아왔지만, 만 60세가 넘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해야 했고, 그 결과 남편이 기존에 종사하던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어 실직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가 재외동포에 대해 결과적으로 60세만 지나면 종사하던 직업을 잃게 만든다며 분노하였다.

“동포로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하고 뭐 100% 똑같진 않아도, 그래도 7, 80%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똑같지 않아요. (중략) 그래도 한 70까지는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5까지는 내 생각에, 현장에선 남자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장에서 F-4는 남자들도 일을 못 하고, 뭐, 무슨 증 가져오라, 무슨 증 가져오라. 한국 사람도 여기 없잖아요. 뭐 증이 없어도 다 일 하잖아요. 월급도 중국 사람보다도 몇

만 원씩 더 받고 일하잖아요.” (A4, 중국 동포)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차별

건강보험은 2019년에 모든 이주민에게도 의무가입이 필수가 되었다. 대부분 입국 및 취업과 동시에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고용허가제(E-9) 노동자들과 달리, 지역가입을 통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중국 동포들에게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중국 동포 중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반적인 동포들의 소득수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높은 보험료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가족원 부양조건이 까다로워 한 가족 내에서도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상황도 지적되었다. 이 중에서도 전자는 보건복지부가 자산과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의 특성상 보험가입자의 소득을 근거로 책정한 보험료와 전년도 전체 가구당 평균보험료(약 13만 원) 중에 금액이 많은 쪽을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동포는 한국 사람들보다 대체로 월급도 적은데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로 한 사람당 13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영주권자와 비교하면 이 같은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국 동포들은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요컨대 한국인은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반면, 이주민이 해외로 장기 출국한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주민은 한국에 재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처음 가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

원 등재를 위한 증빙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 중국 동포들은 이미 몇 년 동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그리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충분히 과거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기록 조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지내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보았다.

“근데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내다가 중국에 들어가면 한 달 있으면 이게 뭐,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건강보험이? 그러면 뭐, 우리는 국적이 중국이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자식 있고, 부모 있고, 이러니까. 좀 몸이 아프면 집에 가서 몇 달씩 쉬고도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한 달만 지나면 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끊어지면, 내 말했듯이 2, 3개월 있다 나오면, 다시 6개월 지나야 그 보험을 또다시 땀가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 한국에서 1년 있으면서 중국에 2, 3개월 있다 들어갔다 나온,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보험료 몇 년 냈잖아요. 몇 년 낸 사람들에겐, 그래도 치면 3-4개월씩은 중국에 가서 있다 오면, 내 3, 4개월 동안의 보험료를 내잖아요, 내면 되잖아요. 그걸 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뭐 들어가서 한 달 지나면 아예 다 끊어버리고, 오면 6개월 이후에 하라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안 아프란 보장이 없잖아요.” (A4, 중국 동포)

4.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 교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맺고 있는 사회관계와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국인과의 관계 및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 등에 관해 물어보았다.

가. 고립된 사회관계

1) 좁고 단절된 사회관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람들과 업무 외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근무 중 휴식 시간이나 식사시간 동안에도 분리된 생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10년 내외의 근로기간 동안, 한국 사람과 함께하는 회식에 참여한 경험이 아예 없었다는 사람도 다수 있었으며, 회식에 참여했어도 많아야 연중 1~2회 정도였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외부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제한적이며 따라서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도 한국인과의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생각보다도 더 고립된 사회관계를 맺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별히 회식은 없고, 식사시간, 점심시간 같은 때조차도 국가별로 따로 배치되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A7, 태국)

반면 동일한 모국출신 이주민과의 네트워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온라인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국 동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나 근로조건, 체류자격 등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로 SNS상의 모국 이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해결 방법에 관해 물어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이나 체류자격 관련 정책 변경 등의 정보 등도 SNS를 통해 획득하는데, 이때는 주로 이주민지원센터 SNS 계정의 게시물이나, 민족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주민 친구 계정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한

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모국인들이 주로 찾는 식당에 가서 급한 통역 도움을 받거나, 직장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딱히 동아리라던가 클럽을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고요. 주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는 곳이 태국 음식점. 음식점에 모여서 주말에 얘기하고 그래요. (중략) 특별히 한국 사회에 대해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쪽에 이런 얘길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은 서로 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A8, 태국)

2) 작업장에서의 위계적 관계

한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일부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자신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예컨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한국인 노동자와의 계약관계였다면 진작 계약이 파기되었을 만큼의 일방적 피해를 준 다음에도, 이주노동자가 자신을 신고하면 큰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는 마지막까지 벌금형 처벌을 받을지언정 이주노동자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듯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에게는 당연한 요구조차도 웬만큼 굳은 결심을 하지 않고는 임금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차라리 요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한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인이 동남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들은 나와 동등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니가 나를 고소해?’ 거기서 오는 게 가장 큼니다. 이거를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배신감이라고 느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껄심해서 못 준다는 겁니다, 사장들 얘기는. 근데 이게 같은 한국 사람들 얘기라면 거기는 배신감이니, 그런 감정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생길 수 없는 것인데. 유독 이분들에게 그런 게 생기는 것은 이미 의식 저편에는 이분들과 내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 태국어 통역사)

한국인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했다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사례는 면접 참여자가 입주 돌봄 노동자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사례이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주는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화장실과 이주노동자의 침실을 포함하여 집안 곳곳에 CCTV용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어린 자녀의 돌봄을 부탁하는 가정에서 이러한 카메라는 비교적 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국 동포는 이러한 카메라가 자녀의 안전이 아닌 자신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며칠 하고 보니까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걸 카메라 아닌가 했더니, 근데 그걸 애기들 샤워하고 이러다 다칠까 봐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그래, 내가 요구를 했어요. 화장실에 그걸 안 없애면 제가 못하겠다고 해서 없애줬어요. 근데 애기가 내 방에서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어요. 애기가 저녁에는 즈그 엄마 아빠랑 자는데, 낮에 (나와) 자는 것 때문에 (내 방에) 카메라가 있어요. 사람이 편안하게 자야 일을 하고 하는데. 애기를 델고 잔다고 하면 카메라 있어도 되요. 밤에 자다가 다칠까 어떨까 하니깐. 근데 낮에 잠시 자는 것 때문에 카메라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 집에서 일하는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받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감시하니깐. 내가 진짜 오데가 일해도 잠자는 데만큼은... 잠잘 때는 끈다고 하는데, 그게 지네 휴대폰으로 끈 거지 카메라가 꺼진 게 아니거든요. 불이 반짝반짝하는 거는 그게 작동된다는 거잖아요. 나 어딜 가도, 화장실 가면은 카메라 있년부터 보고, 이제는 어딜 가서 병이 났어요.” (A6, 중국 동포)

나. 한국인과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

1) 한국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이주노동자는 앞서 한국 사람들로 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였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소하게는 퇴근 후 집에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차로 데려다준 경우부터, 어디에 가고 싶을 때 자세히 설명해주거나, 아플 때 같이 약국에 가서 증상을 통역해준 사람도 있었다.

한 중국 동포 노동자는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한 후 한국 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중국 동포 지인에 대해 공유해주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비싼 치료비가 발생하자 병원의 원무과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주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었다.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니까 또 요런 걸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게,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며칠에 한 번씩 돈이 올라가는 걸 원무과에서는 다 알잖아요. 환자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이게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원무과에 한 번 왔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데나 가면은 이거 좀 어떻게 해주는 데가 있다 하니 연락해보라 해서 50%를 혜택받았잖아요. 중국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살기는 참 좋죠. 정부에서 안 해 줘도 단체, 민간단체에서 동포라고 해주고, 그 원무과에서도 그렇죠, 내 일이 아니면 너 4,000만 원 그냥 내라고 할 텐데.” (A4, 중국 동포)

2) 이주노동자의 기여와 노력

반대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이나 한국 사회에 도움을 준 경험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도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사업장 밖에서 한국인을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일할 때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계단을 올라야 할 때 도와드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도 자신의 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70대 이상 노인이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할 때는 자신이 도와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민족적 커뮤니티를 이루는 데 성공한 중국 동포들은 좀 더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예컨대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지역사회 청소를 꾸준히 나가기도 하였고 자발적인 결사체 모임인 동포 등산협회나 스포츠협회에서 (비)정기적인 기부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운동회 개최 등 지역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그런 거 좀 하신다고 들었고. 이래 거리 청소 같은 거, 다니면서 뭐 줍고. 코로나 있고는 그런 건 완전히 아예 없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형편이 그만큼 좀 안정된 사람들은 오늘 들어간다, 내년에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돈 벌어야 되니까.” (A6, 중국 동포)

“주말에 등산 가거든요. 등산협회가 있어요. 여기 뭐 등산협회도 있고 배드민턴 협회도 있고, 나도 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데서 한국 재난 있을 때 봉사하는 곳도 있고, 돈 모아서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A4, 중국 동포)

다. 이주민지원센터 이용 경험

1) 한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한 센터

작업장에서 한국인과의 교류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업무 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주민지원센터는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어 강사나 센터 직원 등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기능한다. 베트남 출신 면접 참여자는 주말마다 외국인지

원센터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다.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는 양천글로벌센터에서 제공하는 바리스타, 컴퓨터,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는데, 업무 외적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했던 태국어 통역사는 주 6일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남은 딱 하루의 휴일까지 공부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한국어 수업보다 노동 후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는 한국인 친구라고 덧붙였다.

2) 센터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이주노동자들이 센터에 대해 모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이주민을 위한 공간대여나 지원 업무를 하는 “센터”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돈을 내지 않고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놀라워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센터의 통역 등이 주로 같은 나라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센터에 찾아가면 통역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들었을 때 “웬만하면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냥 좀 참고 다니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마도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가장 수월하기 때문 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나는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감옥이라도 좀 집어넣어야지 그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는 돈, 시간, 그다음에

누가 도와주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기관도 기관이지만 좀 그 사건을 빨리 좀 종결하면 좋겠단 그 마음이 들잖아요. (사업장 변경하고 합의 보는 식으로 좀 하면 어떨겠냐고 얘기를 하는 기관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죠.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당연히 물어보는데 근데 하면은 어떤 일이 그 안 좋은 조건들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설명해주는 거 좋은데. 근데 그러다가 계속 설득해야 되니까 끝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A3, 베트남)

5.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 취업 활동 관련 정책, 체류자격 변경 요건, 건강보험이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의 배제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였다. 최저임금 등을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신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것과 중국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나면 원래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취업과 체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비해 이주민 대상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주민과 한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

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1) 체류자격 변경 조건 완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필요

로 했던 정책적 요구사항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법적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현재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연간소득, ②자격증, ③학력, ④연령, ⑤한국어 능력, ⑥근속기간, ⑦보유자산, ⑧산업 분야 및 근무경력, ⑨관련 직종 연수 경험, ⑩유학 경험 및 관련 중앙부처 추천 등 가산점, ⑪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감점의 영역에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에 한해 기량검증평가를 통과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총점수가 기준점을 넘더라도, ①연간소득이 최소 2,600만 원 이상이거나 ②자격증, ③학력, ④연령, ⑤한국어 능력의 총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앞 장에서 제도에 의한 차별 중 하나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연간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다른 면접 참여자는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재입국 특례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은 학력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가능하다면, 모두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고 더 오래 체류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본국에 두고 온 어린 자녀를 데려오고 싶으므로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취득조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재외동포(F-4) 자격의 동포 노동자들 역시, 영주권(F-5) 획득을 희망하였으나 높은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영주권을 따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것도 소득 요건이 3,000만 원 이상이니, 이전에 내가 한 번 하려고 하니깐 일 년에 2,500만 원인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 안 되니까 못 했죠. 영주권은 국적이고 상관없으니까, 영주권자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다 주잖아요. (A5: 영주권 되면 취업이 싹 풀리고, 대우가 비슷하고...)” (A4, 중국 동포)

2) 임신부 의료지원과 건강보험 관련 개정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가장 잘 되어 있고 좋은 점으로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뽑은 것과 달리,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료지원이 부족하며, 결혼이민자가 받는 출산지원과 혜택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임신 사실로 인해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하면 그러한 해고가 부당한 처우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이주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재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각각 그 기간(사업자 변경신청 후 3개월 혹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일정한 수입이 없이 출산을 기다리는 과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추방을 의미한다.

“많이 (본국으로) 나가고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있게 해주기는 해 주는데, 그래도 아직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임신하면... 그리고 코로나 없을 때는 임신하신 분들이 그냥 쉽게 출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비행기 표가 많이 없잖아요. 출국을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출산하면은 그런 도움을 주는 일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출산 후에 출산 조리해야 되는데 병원비용도 지원도 안 되고 일

반 결혼이민자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보건소 신청하면은 집에 와서 2주 정도 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외국인은 안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A3, 베트남)

또한, 앞서 법과 제도에 의한 차별에 관해 논의한 바 있듯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범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이주노동자도 다른 이주민과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건강보험 제도 개정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취업제한과 비슷한 정도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차별적이라며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요구는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 둘째는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처음부터 재가입해야 하는 절차, 셋째는 세대 별로 묶이지 않아, 개인 단위로 가입해야 하는 점 등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이주민에게 전년도 전체가구당 평균보험료(약 13만 원)와 이주민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중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많은 중국 동포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처음에는) 6-7만 원. 처음엔 딸이 있으면 딸 회사로 나가니까, 거기로 빠지다가, 딸이 결혼해서 나가니까 우리가 내지. 8만 얼마부터 올라가서 지금 13만 얼마. ... 직장 있고, 재산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몇십만 원 씩 내는데, 그냥 이런 지역 보험 같은 거는 1-2만 원씩, 3-4만 원씩. 이기 모아, 교포들도, 영주권 딴 사람들은 한 3-4만 원씩 내요. 근데 우리 동포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우리가 뭐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A4, 중국 동포)

다음은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에 반발하며, 이주민이 해외에 체류 가능한 기간을 더 현실적으로 늘리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대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에 돌아와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때 6개월의 국내 체류 기간 조건이 지나치게 길므로 이전에 1~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이주민이라면 이러한 과도기간을 단축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가입하는 과정이 매번 중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세대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데, 높은 공증 발급 비용(15만 원)을 고려하여, 기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 이주민에게는 서류 절차도 간소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방식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9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에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한 명의 개인이 하나의 세대가 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와 노인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2019년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존에 지역가입 대상자였지만 가입하지 않았던 이주민들이 모두 지역가입 대상자가 되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정기적 소득이 없는 노인 이주민의 경우, 자산이 없더라도, 이주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전체가구당 평균보험료, 약 13만 원)를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한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이 실질적 근로 여부나 자산 유무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지역가입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꾸준히 비판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특히 지역가입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노부모와 성인 자녀 등 가족 단위 이주가 빈번한 중국 동포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아는 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자녀들은 5, 60 되고 했는데. 연세든 엄마하고 이렇게 계시면 그것도 따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연세 든 분이 돈도 못 벌고 자녀들이 그 돈은 다 내줘야 하는데, 고만큰이 따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고. 오늘 이런 자리에 나온다고 하니 그걸 좀 부탁을 들었어요.” (A6, 중국 동포)

“그런 거는, 좀 연세를 따져 가지고. 한 65세 이상이라던지 70세라던지, 이런 사람들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자식들이 같이 있으면. 교포들이 사는 집 못 가봤죠? 크면 요만해요. (3~4평 남짓) 다 같이 사는데 크면 요만해. 요런 데서 내 자식, 내 부모 다 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사는데, 그래도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이나 이러면 따로 살아도, 보험료는 좀 자식이 내게끔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자식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부모들이 거기(중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A4, 중국 동포)

나.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정책 효과

1) 다문화 및 상호문화 교류 축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직접 참여한 경험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축제나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이 문화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많은 축제들이 단기간에 일회적으로만 개최되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일을 해야 하거나 고된 육체노동으로 인해 축제에 방문할 여력이 남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면접 참여자들 중에도 실제 참여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소수였다. 이러한 축제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여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노동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한편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다문화 축제에도 단점이 지적되었는데, 대부분의 문화교류가 자신들의 모국의 전통문화에 집중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문화를 모국의 현재의 문화로 착각하거나 모국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 이주노동자는 다문화 축제에는 정작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없어서 평소에도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이주민의 처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하였다.

“일단은 다문화 교육이나 축제, 세계인 행사 같은 거는 그거는 너무 다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세계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그 나라 특성이나 문화나 그거는 오면 바로 접근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인식해서 ‘이거는 옛날 전통문화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 나라는 아직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아직도 가난하고 막 이런 옛날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행사 같은 거에는 너무 적어요. 숫자가. 참여 숫자가 너무 적고 이런 프로그램이 약간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좀 반복해야지. 일반 문화뿐만 아니고 지금 새로운 문화도 교육이나 아니면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더 친근하지 않을까.” (A2, 베트남)

2) 한국인 대상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고용주에게 인권 및 다문화 수용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반

졌다. 태국 이주노동자 통역을 진행한 이주민지원활동가는 현재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1970-80년대에 한국산업의 역군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러한 현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더 빨리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70년대 80년대에 그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런 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많이 잊혀졌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이 없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손가락, 손목 무수히 많은 그런 재해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3D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깐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작업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하고요. 한국인들은 3D 업종에서 자꾸 기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누적만 돼요. 근데 그걸 어느 누구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장 안전에 대한 개선도 더더지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 눈에 보여야 하거든요, 모든 것은.” (T, 태국어 통역사)

6.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대

마지막으로 이주민과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각각 한국인과 이주민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만 제외하면 안전이나 시설, 자연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살기 좋은 사회라고 평가하였다. 점진적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해 서로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물었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밝힌 견해는 아래와 같다.

가.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한국인의 역할

1) 세계시민 교육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해 물었을 때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제시했으나, 가장 핵심인 동시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세계시민 교육’이었다. 요컨대 세계시민 교육이란 “문화 다양성, 성 평등, 인권, 평화 등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세계 시민성으로 확장하는 접근”(UNESCO, 1974)으로, 한국 사람들이 문화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 평등 및 인권적 접근을 갖춰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과의 관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배려라던가, 바로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짜증을 내지 않는 태도,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지 않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용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능력 등을 한국인에게 요구하였다.

“일단은 한국 분들이 개선해야되는 거는 세계시민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다른 나라 문화 이해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온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당연히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천천히 말 좀 해주고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 짜증을 내시는. 왜냐하면, 본인도 너무 답답한데 말 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니까 본인도 너무 속상한데. 근데 한국 사람 볼 때는. 이해심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토론.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좀 참여해 주고, 한국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인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하면 아마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A1, A2, A3, 베트남)

나아가 이러한 ‘세계 시민성’으로 대표되는 성격은 특정 국적이나 성별, 외모, 종교에 따른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 등을 포괄한다.

“우리들이 생각한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A8, 태국)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A9, 태국)

“여자들의 경우에 여기 와서 일을 하면은 다 무슨 업소 여자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실제로 그런 여자들도 있으니,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A7, 태국)

2) 언어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

언어장벽과 소통은 이주민과 한국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에서 근본적인 장애가 되는 부분이다. 이주민으로서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 고용주가 “한국어 공부하라”는 말만 하고 전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 면접 참여자의 고용주처럼 열정적인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로 소통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등 노력을 보이는 고용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서 한국인과의 소통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심과 떨어진 현장에서 야근까지 하고 나면 한국어를 배우려 다닐 시간이 없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에 한국어 강사를 초청하여 단체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면 수업이 가능할지,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면접 참여자 대부분이 이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 친구도 맨날 불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처럼 같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온지 5년, 10년이 되도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말이 안 느는 거죠.” (A2, 베트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거의 토요일 밤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하루는. 토요일 밤부터 친구들과끼리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날까지도 다음 날 나 공부있으니까 절제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좀. 생각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T, 태국어 통역사)

“사장님이 영어 잘 하지만, 한국어로 대화해요. 왜냐면 한국어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서” (A10, 필리핀)

나.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이주민의 역할

1) 한국어 습득

이주민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은 적극적인 한국어 학습으로 언어적 소통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을 폄하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결코 이주민의 언어 능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더 큰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하는 일이자,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동영상으로도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생겨서 한 면접 참여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노력해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한국 사람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전에는 접근하기 좀 어려웠는데 요새는 센터도 많고 또 온라인으로도 수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하기 너무 편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A1, 베트남)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두꺼운 사전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누가 말씀 하시면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찾아보고 무슨 말씀이신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A3, 베트남)

2)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 습득

이주민과 한국인이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이주민의 역할로 한국어 학습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것이 한국 사회의 규범과 사회 질서를 습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응답이었다. 이주민은 한국의 법이나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도 하였다. 예컨대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 그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규범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법이나 제도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미숙하다.” (A9, 태국)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아직 저, 동남아시아는 그런 걸 하지 않다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할 때도 우리는 그걸 다 정리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놔두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서로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T, 태국어 통역사)

“(쓰레기 종량제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교육하지 않나요?) 오기 전에 45시간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건 시험이니까 통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생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사전교육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이네요?) 큰 도움은 안 되죠. 시험보려고 받는 교육이니까. 우리가 학교다닐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45시간 갖고 될 리가 없거든요.” (A7, 태국)

제2절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1. 결혼이주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결혼이주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국적, 거주기간, 거주지역, 자녀 유무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게 모집하였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참여자 중 한국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참여자는 4년이었으며 가장 오래 거주한 참여자는 24년이였다.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고, 27세와 55세가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출신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은 3:1로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질문은 이주노동자 대상 인터뷰와 같이 한국에 대한 인상,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 교환,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대 등이다.

〈표 5-2〉 결혼이주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그룹	구분	연령	출신 국가	한국 거주기간	혼인 상태	자녀	현재 거주지	직업
1	B1	41	스페인	7년	배우자 있음	1명 (초6)	수도권	강사
	B2	45	일본	13년	배우자 없음	2명 (고3, 중2)	수도권	주부
	B3	27	프랑스	4년	배우자 있음	없음	수도권	주부
2	B4	40	중국	5년	배우자 있음	1명 (19개월)	수도권	아르바이트
	B5	41	중국	6년	배우자 있음	1명 (4살)	수도권	중국어 통·번역
	B6	32	필리핀	5년	배우자 있음	1명 (7살)	수도권	주부

그룹	구분	연령	출신 국가	한국 거주기간	혼인 상태	자녀	현재 거주지	직업
3	B7	43	베트남	20년	배우자 있음	1명 (초5)	수도권	이주여성 상담원
	B8	35	태국	11년	배우자 있음	없음	수도권	태국어 통·번역
	B9	33	중국	10년	배우자 있음	2명 (초4, 초1)	수도권	온라인 쇼핑몰
4	B10	38	중국	17년	사별	2명 (중1, 중3)	비수도권	보험 설계사
	B11	38	베트남	15년	이혼	1명 (중2)	비수도권	보험 설계사
	B12	55	일본	24년	배우자 있음	2명 (25세, 21세)	비수도권	일본어 강사

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가. 한국 이주 전후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

1) 한국에서 산다는 것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해 한국의 발전된 경제 수준, 편리한 생활환경, 복지, 금융, 교육, 의료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점, 사계절,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의지가 강한 한국인의 특징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단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나라잖아요, 뭐든지. 저한테는 편리해요.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B7, 베트남)

“개인적으로는 복지, 사회적 범죄 행위, 금융기관, 의료기관, 다 거의 잘 되고 있고 좋은 편이에요. 저희 나라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살기가 좋아요. 사람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게 저희 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나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살기가 좋아요.” (B11, 베트남)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 소비 수준이 높다 보니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 인해 가족 또는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부담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고, 한국어 교육 및 소통의 어려움, 취업 및 일자리 문제, 한국 음식 적응의 어려움 등을 떠올렸다.

“약간 힘들긴 해요. 경제적으로 소비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맞벌이 할 수밖에 없고 자녀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애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거 좀 빼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B5, 중국)

“안전적인 면은 큰 걱정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외지 사람 오면 조금 불안하지요. 범죄자 통지서 같은 거 오면 조금 그렇긴 한데, 생활면에서는 중국에 비하면 공공 기관은 되게 편리하고 병원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주여성이다 보니까 일자리 같은 걸 찾을 때 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B10, 중국)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대체로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지만, 인터넷, 미디어, 지인 등을 통해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 또는 호기심을 갖게 된 경우가 공통적으로 많았다. 특히 K-드라마를 통해 드라마 속 모습처럼 한국 사람들이 멋있고 예쁘고, 한국의 자연과 거주 환경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오기 전에 한국 잘 몰랐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어요. 한국 미용, K-드라마 유명해서.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좀 궁금해서 한국에 왔어요.” (B3, 프랑스)

“드라마에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길거리 봐도 다 잘생기고 예쁘고 막 그렇잖아요.” (B10, 중국)

“저는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드라마에 보면 연기하는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그것만 보고. 아는 사람 말 듣고 한국에 뭐든지 다 있고, 살기 좋다고 가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 듣고...” (B11, 베트남)

이러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었으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기대됐어요. 필리핀 여자들이 K 드라마 너무 좋아 하니까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한국말 못해요. 다른 사람처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됐어요.” (B6, 필리핀)

한국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은 유교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중국의 상하이처럼 한국도 똑같이 일 때문에 바쁘고 집과 회사가 반복되는 일상을 보낸다고 생각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한국에 처음 도착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또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돌이켜 생각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질문한 결과, 오기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깨끗하고 사회복지가 좋은 점,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인상에 대해 사람들이 착하고, 좋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고 있는 의견이 있던 반면, 예상보다 정직하지 않고, 공중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실망한 의견도 소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 와보니 드라마 속 모습과 현실이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너무 깨끗했어요.” (B6, 필리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아주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B3, 프랑스)

“오기 전에는 유교의 나라라고 들어서.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 많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일본은 워낙 깨끗하잖아요. 길거리도. 그런데 한국에는 쓰레기도 많고 침 뱉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느꼈었어요.” (B12, 일본)

“와보니까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드라마에서는 우아하고 멋있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예쁜 캐릭터가 예쁘게 꾸미고 나오잖아요.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B9, 중국)

거주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생각보다 너무 시골로 온 것 같다는 의견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 지하 또는 반지하 형태의 집 구조가 있다는 점을 처음 접했을 때 놀랐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처음에 신랑이랑 같이 인천공항에서 내리고 집에 가는데 너무 시골이라 보니, 제가 중국에서 살 때는 도시 쪽에 살아서 여기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B10, 중국)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반지하, 지하 그런 거 너무 많아서 거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지하에서. 지하철도 지하에서 내리고 해서 약간 공기도 불편한 것 같아서 놀랐어요. 처음 태국에서 와서. 너무 땅 깊숙하게 만든 거 같아요.” (B8, 태국)

한국의 계절과 관련해서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점과 기대하던 눈을 볼 수 있던 점을 좋아하는 반면, 처음 한국에 방문한 시점이 겨울인 경우, 출신국가 대비 온도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급격한 온도 차로 적응하기 어려워 너무 추웠고, 동상까지 걸렸던 경험을 떠올렸다.

“저는 눈이 오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처음 왔을 때도 겨울이었거든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눈 오는 게. 풍경이 너무 좋은데 너무 추웠어요. 동상도 걸리고 날씨 너무 추워서 한동안 적응해야 했어요. 눈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B7, 베트남)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추워지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신랑도 나이가 좀 있고 시어머니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챙겨주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B11, 베트남)

4) 현재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현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한국생활 적응 및 언어에 대한 어려움, 빠른 생활 패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느꼈을 때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 중 특히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변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는 그 사람 자체의 성향에 따라 달랐던 경험을 언급하며, 좋은 사람은 좋지만 나쁜 사람은 나쁘다는 표현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전 대비 선진국으로서 매너가 좀 더 좋아진 것, 외국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던 반면, 서로 배려가 없는 모습, 정직하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실망감을 느낀 것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뭐든지 다 변하니까, 지금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혼자 살아서 그런가. 편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전보다. 어디 가도 혼자 알아서 다니고 직장이든 어디에 가든 한국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읽고 쓰고 다 할 줄 알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좋은 분들이 다 알려주고 도와줘요.” (B11, 베트남)

“서로 배려가 없을 때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룰을 위반하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봐서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B1, 스페인)

“사람들이 기분 좋은 때는 괜찮았지만 나쁜 때는 좀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답답해서 외국인한테 외국인이 라고 눈치 주고. 저는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친구한테 욕 많이 했어요. 코로나 후에 많이 했어요. 왜 왔냐고.” (B3, 프랑스)

나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부드럽고 매너가 좋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성격이 세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많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친절했으나, 남성은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동으로 강압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도 일부 언급하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부드럽게 매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많은 분들 너무 성격이 세고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은 좋는데 진짜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사람도 많다.” (B2, 일본)

“엄청 많이 있어서. 남자가 마트나 어딘가에 가도 택시를 타도 남자가 여자보다 안 친절해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남자 말 들어야 해 그런 느낌.” (B2, 일본)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으로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 빠른 생활 패턴으로 인한 피로감 및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등 생활 물가에 대한 걱정, 일자리, 금융 및 대출 관련 문제를 꼽았다.

“처음 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적응하는 것 매우 어려워요. 모든 것에 대해 ‘빨리 해야돼, 지금, 빨리, 바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필리핀에서는 ‘우린 기다려 줄 수 있어, 기다려 줄게, 괜찮아’하는 데 여기서 재촉해요.” (B6, 필리핀)

“살아보니까 한국 사회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경쟁률도 높고 그 교육열 교육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행복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하철 탈 때도 사람 표정이 힘들다고 쓰여 있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단다.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B8, 태국)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 대비 학력이나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라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았던 차별 경험을 떠올리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차별은 좀 완화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저는 내가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해요.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문화 차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직...” (B7, 베트남)

나. 한국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

1) 한국에 대한 생각, 이미지 영향 요인

한국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K-드라마, K-pop, K-프로그램 등 미디어, 의료시설과 복지제도, 한국 사람 특유의 장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미디어를 통하여 K-드라마, K-pop, K-프로그램을 접한 사례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험하는 방송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점, 한국 유명 아티스트와 음악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 드라마 중 일부 폭력적인 장면은 아이 교육에 좋지 않아서 걱정된다는 점도 소수 언급되었다.

“k-pop하고 드라마. BTS가 좋아요.” (B6, 필리핀)

“방송 중에 친구들이 초청해서 여기 한국 여행 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한국 이미지나 그런 게 많이 좀 개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친구들 초청해서 다니는 거요. 세계적으로 그때는 되게 유행했었어요.” (B5, 중국)

“아무래도 BTS.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조카도 일본에서 정말 좋아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역할을. BTS 같은 유명해진 연예인들...” (B12, 일본)

복지정책 제도운영과 관련한 긍정적 요인으로 자녀 출 및 양육 관련 지원정책, 공공기관 및 의료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음을 언급했으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 입국 시 코로나 키트를 제공한 것에 감동하였던 경험을 떠올렸다. 한편, 면접 참여자 일부는 복지정책이나 시설은 잘 되어있으나 정부는 시민의 의식에 따라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니,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 미디어, 한류 이렇게도 있고, 그것보다 제가 겪은 거는 의료 쪽. 병원이 좋아요. 최근 친척이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원 하는 박스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고모가 되게 감동받았대요. 외국인한테도 그런 걸 줘서.” (B10, 중국)

“복지 기관은 잘 된 것 같아요. (그거보다) 시민들 인식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급여 차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시민의 인식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시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B7, 베트남)

한편, 한국 사람의 특성 중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것, 눈치와 행동이 빠른 점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저는 한국 사람들. 진짜 에너지랑 눈치가 되게 빠르고. 성격은 급하지만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잘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느리고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빠르게.” (B9, 중국)

다.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

1)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태도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시부모님 등 가족 간의 관계나 남편의 친구, 사회적 관계(직장 등)에서 오는 것이 있었다. 시부모와의 갈등은 경험하기도 하고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 친척들, 남편 지인 등의 경우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반가워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출신국가에 관한 관심이나 결혼 계기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는 경험을 하였다.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가깝지 않은 관계(시장, 아파트 경비원, 택시 기사 등)의 경우, 의사소통과 관련한 경험들을 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 사람과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가진 경우, 처음에 외국인인 줄 몰랐을 때는 같은 한국 사람처럼 평범하게 대하지만, 말을 하게 되어 한국어 발음을 듣고 난 이후 외국인임을 알게 되면 눈빛이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치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쳐다보거나 뒷담화하는 것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하였다.

“친척이나 지인이나 남편을 아시는 분을 되게 친절하게 베풀어주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저 동네 이런 어르신들 많아요. 뒷담화. 그런데 그래도 남편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부부나 이렇게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잘 챙겨 줘요.” (B10, 중국)

“전에 가족 택배가 아파트에 왔는데, 보통 택배가 오면 남편하고 같이 찾으러 가는데 그날은 저 혼자 있어서, 어머니가 혼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가니까 경비아저씨가 내가 여기 2년 동안 살았다고 해도 안 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야 받아왔어요.”
(B4, 중국)

“제가 시장가면 계속 어머니들이 어느 나라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이 어떻게 됐어요? 언제 왔어요? 결혼했어요? 외국인 맞아요? 하고 계속 말을 걸어서 너무 불편해요.” (B6, 필리핀)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도움 될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한국 부모 들끼리만 더 친하게 지내거나, 대화에 잘 끼워주지 않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떠올렸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감정을 느끼는데, 한국어로 대화가 어려운 부모의 경우 더 어려움을 겪고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저는 한국 친구들도 많고 그나마 다른 데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학부모님이 거기는 약간 좀 끼어들기에는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니까. 약간 엄마들하고 거리 두고 표시는 안 하는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들끼리 얘기하면서 애는 뭐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끼어들 때는 되게 힘들어요. 끼워 주는데 거리가 엄청나게 있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B5, 중국)

“나중에 학교 다니거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되잖아요. 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솔직히 한국어 약간 못하는 엄마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B5, 중국)

또한, 자녀 학교 담임 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외국인인 줄 몰랐다, 한국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험도 떠올렸다.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해 완전 못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아이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다문화가정인 줄 몰랐다.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별다르지 않아서 처음에는 몰랐다고 칭찬하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차별이잖아요. 다문화가정이면 어때. 어떤 건데. 그렇게 반박하고 싶죠.” (B7, 베트남)

2)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

한국 사람이 결혼이주여성을 대할 때 출신국에 따라 태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 면접 참여자들 모두 강하게 공감하였다. 특히 출신국의 이미지, 경제적 지위 등을 먼저 떠올리며, 그에 따른 선입견으로 평가하는 게 느껴진다는 사례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차이가 커요. 한국은 유럽 쪽을 선호하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약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긴 해요. 그쪽은 약간 되게 좋게 보고. 필리핀하고 베트남, 중국은 지금 어차피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이었고. 중국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게다가 교포분들이 많잖아요. 교포분들한테는 좀 당하는 거는 좀 당한 건지 뭘 한 건지 하여튼 중국 사람은 약간 안 좋게 좀 보는 이미지가 좀 많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특히 미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비하면 미국은 이만큼(높게) 우리는 이만큼(낮게).” (B5, 중국)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미국에서 오면 높게 봐요. 베트남 중국 이런 건 조금 안 좋게 보고.” (B9, 중국)

“발전된 나라들 그걸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유럽,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홀리스 거기도 많은데. 아마 그냥 나라 전체로 구분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어디는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전체 다 똑같은데, 섞여 있는데. 한국인은 나라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발전이 잘 된 나라 못 된 나라” (B8, 태국)

출신국가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일 경우 좋은 나라에서 온 사람,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 럭셔리한 이미지, 집안이 좋은 사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거나,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등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일, 학업 등 발전적인 이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향이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 프랑스 사람이라서’(라고 하면) 다들 오~하고 있지만, 유럽 사람이 아니면 ‘아, 그냥 좀 위험하지 않아요?’라고 하기도 하고. 유럽 사람에 대해서는 아, 대박이야, 럭셔리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B3, 프랑스)

“스페인 사람한테는 오, 스페인 사람이예요?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한테는 좀...” (B1, 스페인)

한편, 출신국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일 경우 가난한 나라, 고향에서 못하는 사람, 고향보다 더 많은 돈을 벌러 온, 한국에 살면서 돈을 벌고 고향에 보내려고 온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워낙 저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잘 사는 편이 많이 없는가 봐요. 가정을 잘 깨는 편인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베트남 여성들이 와서 자리 밀려서 여기서 살다가 이제 날개가 났으니까 그냥 다리 자르고 날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대접하는 것 같아요. 취직하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베트남 사람이라면 좋은 대접을 많이 안 받는 거 같아요.” (B11, 베트남)

“중국으로 처음 나 만나러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반대한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이 집에 베트남, 여기는 중국인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저희 신랑보고 너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왜 굳이 중국 가서 그것도 조선족 사람 만났냐. 차라리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런 애들이 더 말 잘 듣지 않느냐. 중국 여자들 세다. 특히 조선족 여자가 말도 잘하면 너 잡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10, 중국)

어느 국가이든 모두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데 출신국가의 전반적 이미지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및 답답함을 토로하며 개선이 빨리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떤 아줌마가 중국 사람은 어찌고저찌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일본 사람 이라고 말하니깐 ‘일본 사람이예요?’ 이러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걸 보고 좀 실망스럽고 좀 그렇다. ‘일본 사람은 다 키가 작아서 언니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키 커서’라고 했는데. 좀.”
(B12, 일본)

3.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가. 한국 사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기분 나빴던 경험

1) 한국 사람이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든 경험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한 경험은 언어적 측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더불어, 대부분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임을 인지하기 전·후 태도의 변화로 인한 경험들이 언급되었으며, 일부 한국 사람이 공중 예의가 부족하거나 배려 없는 행동 등을 목격했을 때 실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한편 가족 또는 친척 관계에서 내 행동 또는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 지인이나 직장, 자녀 학교 또는 학부모 관계와 관련한 상황도 다수 언급되었다.

한국인인 줄 알고 말을 걸거나, 길을 물었는데 외국 사람임을 알고 난 뒤 하던 말을 멈추고 자리를 피하는 등 외국인 자체나 외국어에 대한 공포증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던 경험들을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 사람을 마주쳤을 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행동이나, 눈치를 주는 행동도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응답하였다.

“보통 남자들이 갑자기 제 얼굴 보면 놀라면서, 영어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어만 하고 있는데도, 노 잉글리쉬라고 해요.” (B3, 프랑스)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말 안 하면 외국인인 줄 몰랐다.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전통시장 놀러 갔어요. 한국말도 못 하는데. 마트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너 비켜 비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급해서 미안. 이랬는데 이거 한국인 방식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B8, 태국)

그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대면하고 있을 때, 외국 사람임을 인지한 이후에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에서 무시당했던 경험, 출신국가의 이미지나 경제적 환경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이 지인과의 대화 또는 통화 등 상황에서 모국어로 얘기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욕하고 있거나 시끄럽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냉장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뻐는데.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지요. 지금은 신경 안 써요. 기분 안 좋지요.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라 생각하고” (B7, 베트남)

“아무래도 저희가 국적 귀화를 했지만요. 그래도 말하다 보면 티가 나잖아요. 상대방은 나쁜 의도는 아니고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자국 사람들이랑 통화하면 중국사람 억양이 좀 세잖아요. 소리도 크고. 막 얘기하면 진심은 아니지만 너 또 우리 욕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도 농담으로. 저도 농담으로 받아야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왜 꼭 말을 그렇게 하냐고 좀 그런 상황이 또 있었던 적도 있어요.” (B10, 중국)

또한, 일부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무례한 행동이나,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거리낌 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한국 사람들로 인해 부담스러움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이는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많이 유발되었다고 하였다.

“술 마시고 막 함부로 하는 거. 말을 막 하거나.” (B1, 스페인)

“마트 계산대에서 아저씨가 계산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 만 아저씨 좀 빨리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더니 너 뭐야? 야! 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는 아줌마가 그냥 하지 말라고 말려줬어요. 그런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을 생각하지 않아요.” (B2, 일본)

“유럽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 그런 게 좀 넓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아주 가까워요. 보통 나이든 사람들이 아주 가깝고. 길에서 (어깨를 치는 동작을 하며) 이런 느낌으로 치는데, 피하려면 이렇게 걸어야 하고 좀 불편했어요.” (B3, 프랑스)

한편 면접 참여자 일부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아예 못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저는 2년 동안 한국어 배워서. 가게에 가면 직원들이 나한테 영어만 하면 좀. 저는 한국어 배웠다구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뒤에 제 머리 뒤에만 보면 한국 사람 같아서, 한국 사람 같이 생겨서 할머니들이 길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얼굴 보면 아니라고 도망가요. 이런 게 가끔 불편해요.” (B3, 프랑스)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차별과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상황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 타인들의 부정적 사례를 듣고 난 후 가진 편견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자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에게 외국인 며느리가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도망갈 수 있다, 해주지 말라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지금은 국적 따기 되게 어려운데 그때는 쉬웠어요. 남편이 가서 국적 하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왜 하냐고 해주면 도망갈 수가 있어 다른 집 애처럼. 그런데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바로 갔어요.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를 왜 낳겠냐고. 뱃속에 아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딱 그 얘기하니까 어머니 아무 말 안 하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의심하는지. 더구나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B10, 중국)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사용을 강요하거나,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를 쉽게 익히지 못할 때 구박하거나, 모국어 사용이나 자녀에게 한국어와 병행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아직도 기본 나쁘고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말 해도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아주 많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국어 배우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 말에는 존댓말 같은 게 없어서 자연스럽게 안 써져요. 신랑하고 대화할 때 그럴 때 존댓말 안 썼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냐고 신랑한테 존댓말 안 한다고...” (B11, 베트남)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시절에 돈 내고 외국어 배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아기 낳아서 엄마 언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가르치면 이중 언어까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어 가르치려 하니 까내자마자 여기서는 그냥 한국어만 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B11, 베트남)

“그 세대 어머니들이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 사람들 2008년 이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안 했어.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애가 조금 크고 해도 안 들어요. 진짜 저희 시어머니도 한국에서 살 건데 중국어 뭐 하러 배우냐고 했었어요.” (B10, 중국)

한편,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특히 일본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실로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OO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녀에게도 일본놈이라고 발언했다는 말을 들은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교육자로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하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이 일본 사람임을 알고, 아직 유치원생인 어린아이가 나를 죽이러 왔냐고 말을 하더라는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도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무섭게 느껴졌다고 언급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시간 선생님이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그다음 일본 놈들 이렇게 말했대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딸한테 일본 놈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갔어요. 이걸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제가 교육청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그 후엔 없었는데. 속으로 생각한다면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때.” (B12, 일본)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대놓고 일본에 대한 나쁜 인식을 표시하거든요. 옛날에 다문화 강사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강사를 했을 때 유치원생이 저한테 ‘선생님 오늘 나를 죽이러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정말 아이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 교육이 나쁘다고는 말 못 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은 가르칠 때가 있고 뭔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교육이라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되게 섭섭하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B12, 일본)

한편, 이주여성이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 은행이나 금융사의 매뉴얼마다 지침이 다른 탓인지 일관되지 않은 응대와 불친절을 겪었다는 소수 응답도 있었다.

“저는 신용카드 만들 때 기분이 나빴어요. A은행에서는 무조건 남편 친필 사진 필요하고 두 번째 B은행에서는 외국 사람이라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거였어요. 필요한 증명서들이 다 있는데 외국 사람이라 안 된대요. (중략) 솔직히 한도를 좀 낮게 해 주더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 것뿐만 아니라 남편 것까지 증명서를 떼고 남편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안 만들게요. 그리고 나와서 그 은행 것은 다 없애버리고 바꿨어요. 근데 다른 C은행 가니까 바로 해주더라고요.” (B5, 중국)

“직원 말투도 그렇고 약간 우리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정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날 진짜 열 받아서 바로 없애버리고 바로 C은행 넘어갔어요. 중국에서 저는 1등으로 살았는데 왜 한국에서 2등 국민으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B5, 중국)

나. 한국 사회 내 차별 경험

1) 한국에 살면서 차별받았다고 느낀 경험

기본적으로는 외형상의 모습으로 외국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가까이 서거나 앉기를 피하는 경험도 다수 있었다.

“우체국에서 뭐 해달라고 했는데 친절하지 않게 획 하거나. 남편이랑 앉아 있었는데, 여자 20살~25살 학생이 남자 친구랑 있었는데, 옆에 앉으라고 권하니깐 외국인 옆에 안 앉는다고...” (B1, 스페인)

“저는 체코 음식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가게 직원이 외국인이라 서로 영어 못한다고 하길래, 주문해드릴까요? 라고 한국어로 했더니 ‘한국어도 할 수 있냐’ 하더니 갑자기 ‘한국 직원 없다고 외국 식당인 것처럼 하네’라고 했어요.” (B3, 프랑스)

한국어를 잘못하는 점에 대해 무례하게 굴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 해결을 요청해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 것, 물건의 가격을 실제보다 더 높게 거짓으로 알려주어 한국인에게 파는 것보다 비싸게 받으려 했던 경험 등도 언급되었다.

“제가 쇼핑몰을 하는데, as 전화할 때 외국 사람이니까 좀 예의 없게 얘기해요. 외국 사람인 거 알고 말도 좀 안 좋게 해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환불이나 반품 똑같이 하는데 ‘외국 사람이구나’ 반말하고. 처음에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얘기하다 길어지면 외국인 티 나면 안 좋아요.” (B9, 중국)

“저는 명동 길에서 파는 석류 주스를 좋아해서 사러 갔는데 6천 원이라고 해서, 아쉽네. 좀 비싸요, 안 살 거예요 하고 왔어요. 근데 제 남자 친구, 남편이 다시 가니까 3천 원이었어요.” (B3, 프랑스)

공공기관이나 자녀의 교육시설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유선상 안내 등 연락을 하는 상황에서, 기재된 연락처 중 이주여성의 이름과 번호 등이 남겨져 있으면, 통화할 때 외국인인지를 확인한 후 한국 사람을 바꿔 달라고 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한편, 기재된 정보 중 1순위를 이주여성의 연락처, 2순위를 한국 사람의 연락처로 적어 났을 때, 이주여성의 것을 1순위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 아들 어린이집 상담 매달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시간 되냐고 전화해서 있다고 했는데, ‘혹시 외국인이에요?’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남편이나 시어머니 번호 주세요.’ 이런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고 그 때는 남편(번호 알려줬어요), 그날 후에는 남편이 가요.” (B6, 필리핀)

“저는 친정 어머니가 중국에서 오셔서 제 전화번호를 위에 적고, 남편 것은 아래에, 그리고 기본 정보들을 다 적어드렸어요. 그런데 공항 세관에서는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일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연락한 거예요. 제가 공항에 가 있는데. (남편한테 먼저 하고 저한테 나중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9시 되자마자 보건소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에는 먼저 저한테 한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또 먼저 한 다음이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먼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은 남편은 다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들은 평일에) 다 출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일단 저한테는 연락해 보고 만약에 말 안 통할 경우에는 남편한테 넘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싶지만 그런데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한 거지요.” (B5, 중국)

일자리 및 직장 내 상황에서는 학력, 경력, 능력 또는 성과와 관계없이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차별이 발생하거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관련 문제나 초과근무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국 40~50세대 동료 직원들이 일

을 잘하지 못하겠다며 물량을 이주민 직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일을 잘하는 이주민 직원들이 대신 그 일을 다 처리해주더라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두 외국인 직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떠넘기고 탓을 하기도 하였다.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40대~50대 다 그 정도 나이인데 우리는 그 아줌마보다 젊지, 손도 아직도 빠르지 기억력이 좋지.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우리보다 솔직하게 일 못하는데 빨리하지는 못하고 또 몰라요. 눈이 침침하잖아요. 오류 많이 내는데 다 우리한테 맡기고. 회사에서 항상 관리자들이 왔다 갔다 빨리하라고 하잖아요. 빨리하라니까 아줌마들이 눈 침침해서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한테 맡기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랬다고. 이 사람 일은 다 도와줬는데 고장 나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B11, 베트남)

차별받았을 때 대응 방법으로는 소극적 수용과 적극적 대응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수동적 수용 사례로는 전화 통화 시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한국 사람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아이 상담을 위해 학교 방문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 연락하는 상황에서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한국 사람을 바꿔주거나, 남편이 대신 상담을 위해 방문하게 하는 등을 경험하였다. 적극적 대응으로는 즉각적인 불쾌감을 표현하고, 외국인인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직접 하는 등 사례가 있었다.

“그냥 바꿔줬어요. 선생님 얘기 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긴 했어요. 남편이 한국 사는지 물어보고 그렇다 대답했더니,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 남편을 바꿔 달라고 해요. 그럼 그냥 바꿔줬어요.” (B4, 중국)

“선생님 저도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어쩔 수 없이 대화해야 해요. 다음에 저 찾으세요. 남편은 바빠요. 이렇게 차단해야 해요. 저는 거의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가 한 번은 다쳤는데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

에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의사소통 돼요. 알아서 들어요. 게다가 일 처리 하는 거는 남편보다 더 빨라요. 이렇게 확실히 그냥 얘기해드렸어요.” (B5, 중국)

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 오해

1)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잘못 생각/오해하는 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모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출신국가에 대해 차별하는 것에 대한 경험 및 공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로 출신국가에 대한 무시, 비하 발언이나 금전적 목적으로, 출신국가가 가난해서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것이라는 발언을 들은 경험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공감하고 있었다.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돈 주고 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왔다,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오 대학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 (B2, 일본)

“필리핀 여자들이 여기 결혼하면, 한국 사람 생각은 우리가 ‘돈 필요해서’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에도 돈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B6, 필리핀)

주로 어떤 상황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살펴본 결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시장, 쇼핑몰 등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무례하게 굴거나 오해하는 것을 경험한 사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옛날에 버스 타고 있을 때 뒤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들이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래. 또 다른 할머니가 일본인이 왜 이런 시골에 왔대? 고아인가 봐 이렇게 말 하는 거예요.” (B12, 일본)

“저는 장사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 말도 조금 예의 없

이해요. 저는 아직도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냥 반말하니깐요.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긴 해요. 한국엔 존댓말 있는데 아직 헛갈려요. 어떻게 존댓말 하는 건지 말만 배웠지 그렇게 붙이는 거 잘 못 써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싸가지 없다는 말 많이 들어요. 외국 사람이라 그렇다고.” (B9, 중국)

2) 편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 경험

한국 사람의 편견을 바꿔보려 한 노력으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소수는 상황에 따라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프랑스에서는 의견을 쉽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할 때 지하철을 많이 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 커플이 있었고 저는 앉아서 이어폰 꽂고 음악은 틀지 않고 좀 시끄러워서 그냥 끼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 친구한테 ‘요즘 한국이 다 외국 사람들 투성이야.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어폰 빼고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말할 수 있어서 요즘은.’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부끄러워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나라 가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라고 하니까 ‘죄송해요’하고 도망갔어요.” (B3, 프랑스)

“저는 들으면 단호하게 얘기해요. 솔직히 전 애국심보다는 그냥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렇다. 그러면 직접 가보세요. 가보시고 나서 그런 말을 다시 하세요. 본인이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말 안 하는 게 나요.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에 여학당 다녔을 때 한국 선생님 한 분이 일본하고 미국 좋아했어요. 근데 중국은 지하철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한국에 있는 거 빼고 중국에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거도 중국에 다 있어요. 일단은 가보고 나서 그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B5, 중국)

한편, 발언 주체에 따라 다른 태도도 보였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시간을 들여 설명하거나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에너지 낭비라 생각하고 설명을 포기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네, 있어요. (내용은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뭐 특히 아는 사람이나 뭔가 제가 신경 쓰면 설명해줘요. 친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한 번만 만나니까 설명해줘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고 에너지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 세상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렇게 하면.” (B8, 태국)

“그럴 때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 해버리라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B1, 스페인)

4.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 교환

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대인관계

1)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는 동향 출신 친구들,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주로 언급했고, 직장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조리원 동기들이나 자녀 친구들의 학부모 등과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 한국인은 남편의 친구, 본인의 직장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자녀가 있을 경우 조리원 동기들과 자녀 친구의 학부모 등으로 언급되었다.

“남편이랑 남편 친구도 많아요. 어린이집 사람, 애들 어머니들. 저는 한국 친구가 스페인어 말해요. 같이 일했어요. 스페인, 멕시코, 올리비아에 살아서 친구랑 문화나 생각이 같아요.” (B1, 스페인)

“조리원 동아리, 아들 낳을 때 산후 조리원에서 만난 엄마 5명. 고정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는 교포 언니 3~4명 정도. 일단 여기 오신 게 한 20년 정도 되는 분들이랑 계속 고정적으로 모임도 있었고. 남편, 남편 대학 동창 모임도 고정적으로 모임 다 가고 있어요.” (B5, 중국)

“직장 다니면서 저한테 잘 해주는 분들. 저 도와주고 이것저것 친절하게 해주니까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연락 자주 해주고 막 이것저것 막 드리고 그렇게 만나요.” (B11, 베트남)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존의 지인들을 만나기 힘들어져서 답답하거나, 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소수 응답도 있었다.

“저는 학교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할 때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요. 요즘엔.”(B3, 프랑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보통 안 만나요. 왜냐하면, 아이가 마스크 못 써. 그리고 밖에 가고 싶긴 한데 아이 때문에 (마스크) 못 써서 보통 가까운 데만...” (B4, 중국)

나. 이주 후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

1) 한국 온 후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 준 경험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 준 경험의 대부분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나 대중교통 타는 방법,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또한, 동네 어른들이 어려워하는 컴퓨터, 인터넷 쇼핑 등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동네 이웃들과 비슷한 동선일 때 카풀을 한 경험이나 소모임으로 모국의 요리를 알려주는 것 등을 떠올렸다.

“저는 컴퓨터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이불, 면도기 이런 거 사는 거 도와주고 하고 있어요. 상황 아니까 자주 해요. 이거 사달라 돈 주니까 많이 도와줘요. 저한테는 뭐 큰일도 아니니까 도와드리고. 어르신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많이 도와줘야 해요.” (B9, 중국)

일부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외국인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것, 이주여성 자신의 모국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해당 국가로 여행 또는 유학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였다.

2)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경험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경험으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또는 아이가 있을 때 짐을 거들어 주거나, 잠시 아이를 돌봐주거나 자리를 비켜주는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가족이 아팠을 때, 이웃으로부터 병원에 연락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가족상을 당했을 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직장 내에서도 아직 업무에 서투른 이주민에게 일을 친절하게 알려 주거나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다고 했다.

“많이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많이 아팠어요. 우리 옆에 아줌마 제가 병원 전화해주세요. 이런 것들. 제 아들도 병원, 서류도 그런 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줌마가 또 아들 번호 이런 거 알려주면 다 작성해준다고. 어려웠어요.”
(B6, 필리핀)

“그런 건 많지요. 일하면서 동료들이 알려주는 때가 있지요. 지금은 직장도 한국 분들이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B7, 베트남)

다. 다문화가족센터 등 기관 이용 경험

1) 다문화센터 등 센터 이용 경험 및 도움도

다문화센터 등 기관을 이용해봤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주로 한국어 공부, 언어교육 측면으로 도움받았던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한국 문화체험,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부부 상담 등을 통해 도움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한국어 교실.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1년 내내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 집에서 선생님 과외로 외국어 가르쳐 줬어요. 주에 2번 그 외에는 다문화가정 센터 가서 무료로 한국어 배우고 놀이 교실 이런 것 가서 한국어 무료로 배웠어요. 저는.” (B8, 태국)

“가족 모여서 체험 다니는 거랑 엄마 나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참석했어요. 부부 관계가 자주 다투는 부분도 있고 서로 그렇게 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담해주고. 명절이나 설날 같은 때 농산물도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늘 물려와서 선물도 나누고...” (B11, 베트남)

“저는 저희 애가 혜택받는 게 많았어요. 멘토, 멘토링 프로그램 받았어요. 딸은 별로라고 했고 아들은 되게 좋다고 했어요. 좋은 대학생이 멘토 돼서 너무 좋았다고. 둘이 좀 달랐어요.” (B12, 일본)

또한, 다문화센터, 외국인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로 일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 직접 속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담당했던 활동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출신국가에 대한 문화를 알리는 것,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 상담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 배우러 다문화센터 갔는데 언어 되니까 안 배우도 된다고 해서 그때는 잠깐 아르바이트했어요. 거기에서 강사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가서 그 중국 문화 알리는 거 있잖아요. 거의 한 1년 정도 했어요. 게다가 거기 안에서 뭐 자격증 여러 가지도 땀어요.” (B5, 중국)

“제가 한국말 잘했을 때는 이미 센터에 취직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용하지 못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일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B7, 베트남)

“저는 다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 한국 와서 알고 나서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다문화 강사라는 것도 해보고 여러 뭔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겨서 거기에다가 참여하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B12, 일본)

일부 참여자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되어 처음 왔을 당시에는 다문화센터 등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독학을 하는 등 힘든 점이 많았다고 회상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왔을 당시에는 이런 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독학했고 (학원도 안 다니고) 책,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중략) 이용 경험은 없는데 제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주여성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 상담 센터예요. 본인 힘들 때 필요한 게 상담이잖아요. 이제 전화 상담하고 문제 해결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저희 센터 같은 데가 이주여성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B7, 베트남)

한편, 다문화센터를 방문, 이용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소수 존재하였다.

“친구들 만났어요. 별로 안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도움은 안 됐어요.” (B1, 스페인)

5.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가. 한국 적응을 위한 지원 및 교육 경험

한국에 와서 다문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응 지원이나 언어 및 자격증 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였고,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앞서 센터 이용 경험에서 논의되었듯이 여러 교육 중 한국어 교육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것을 공통적으로 많이 응답했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도움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도 또는 정책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 응대, 건강검진 지원, 병원 등 의료시설의 이용 관련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 간 갈등 발생 시 상담을 통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제일 좋은 거는 생활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문의하면 다 알려줘요. 아 이사장카드 만드는 방법이나 어린이집 대기 신청, 영주권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본인이 생활 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문의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도움 엄청나게 됐지요. 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예약 어떻게 해야 해. 예약하나 아니면. 병원은 좀 찾아줄 수 있나요? 뭐 그런 거는 다 해줘요.” (B5, 중국)

“부부 상담. 저는 한번 했는데. 저는 중국말 반 신랑은 한국말 반 해서 거의 싸우는 거 많아요. 그때 상담했던 거 기억나요.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B9, 중국)

요리 문화교실 등을 통해 한국재료를 활용하여 한국 요리를 배운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으나, 프로그램 내 진행 속도가 빨라 시간 내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 집에 돌아와서 시도해보기 어려웠던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문화 습득과 언어 습득을 동시에 요하는 체험 교실은 이주민의 한국 체류

기간이나 언어적 능력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요리 교실을 다문화센터에서 갔는데 진짜 너무 빨라요. 만들다 끝났어. 집에 가서 뭐했는지 생각 안 나요. 두 시간에 15분 정도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한 시간 동안 세 개를 만들어야 하잖아. 천천히 하는 거 진짜 필요해요.” (B4, 중국)

나.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 및 도움 관련 인식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움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복지지원, 자녀 양육 관련 지원 등 이주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받은 정책을 떠올리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아이들은 많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동네 어르신과 적십자 봉사하러 다니다 보니 어머니들이랑도 친해지고. 선물도 주고 한국어 공부하는 거 알려주고, 둘째 임신할 때 다문화센터를 알게 됐고 선생님이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거 했어요.” (B10, 중국)

“애가 셋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받고 있다는 말 자주 들어요. 나라에서.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살기 좋다.” (B2, 일본)

일부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나 다문화 관련 센터 등을 통해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지거나, 확대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학비는 본인이 내야 해요. 전에는 한 20만 원 10만 원-2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했는데 강제적으로 다 실행한다고 한 거는 아니고 시 재정에 따라서 해주는 거라. 그래서 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애 한 명 보내면 한 달에 한 40 몇만 원 내야 해요. 그거는 단지 어린이집 보육비하고 수업경비만 내는 거고 다른 거는 포함하지 않거든요. 외국인한테는 그런 정책을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B5, 중국)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이주여성들한테 장학금 제도 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석사 하려는데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데, 혹시나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B7, 베트남)

전반적으로 지원정책이 존재는 하나, 정부의 방향성 변화에 따라 증감 폭이 다소 있는 것, 실효성, 지속성이 부족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관심이 없거나, 지원을 반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에서 노력하긴 하는데 시민들 댓글 보면 되게 안 좋게 얘기해요. 너희 나라 가라. 그런 거 있어서 상처받지요. 보면 진짜 힘들어요. 여기 와서 뭐 하나. 그런 인식 좀 바뀌었으면. (중략) 노력하기는 하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더 일회성이 많고 약간 보여주는 게 많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B7, 베트남)

“별로 없어요. 처음 시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했을 때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혜택을 100점만 붙여줬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맞벌이 부부 이상은 시립에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신청해 봤는데 31명 대기자 중 28등 했어요. 근데 제가 취직하자마자 맞벌이 돼서 3등 됐어요. 그거는 솔직히 혜택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만약 진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줬으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구별해서 혜택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도움 안 되는 거였어요” (B5, 중국)

“한국 사람들 생각해요. (한국에도) 돈이 없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 사람들 지원하면 돈 없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가 복지 많이 받았어요. 다문화 안에 여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만 위해서 돈 더 많이 주셨어요.” (B4, 중국)

반면, 일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이전 대비 다소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예로 외국인이 등장하는 방송의 다양화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된 것,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를 대하는 방법의 개선, 교사나 또래 친구의 인식이나 시선 등이 특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고, 향후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벤틀리랑 윌리엄 그런 애들 덕분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점점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 혼혈이라고 애들이 놀리면 마음 아플 수 있지만, 요즘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편찮을 것 같아요. 조금 바뀌고 있어요” (B3, 프랑스)

“그때 한창 TV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문화 애들은 누구누구 딱 이름 부르고 너 거기에 한국어 교실 가. 한글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있었잖아.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의 먼저 의견을 물어봐요. 너 그거 할래? 애들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도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자기 친구들 있을 때도 서로 누구 엄마 외국인인지 그런 건 잘 몰라요. 옛날에는 다 알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모르고. (중략)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교육청이나 다문화 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그런데 딸이 5학년, 6학년일 때부터 내가 다문화, 너는 일반 한국 학생. 그러면 나랑 친한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갈 수 있게 바꾸다 보니까 저희 애 인기 좋았어요. 나랑 가자! 일단은 되게 관심받고 좋아하고 친구와도 더 관계가 좋아지고...” (B10, 중국)

반면, 일부는 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떠올렸다.

“그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족 도우미. 한국 생활 익숙해지게 도움 주는 건 있는데, 진짜 필요한 도움은 아니에요.” (B2, 일본)

“어린이집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 아쉬워요.” (B1, 스페인)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룹을 특정 지어 구분하는 것, 단어 표현에 대한 언급도 다소 등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이해 혜택이나 지원이 많은 점, 도움을 받은 만큼 한국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여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고, 한국에 더 오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은 긍

정적인 견해였다. 반면, 다른 한국의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구별하지 말고 한국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법적으로도 차별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다문화라는 단어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 딸은 다문화라서 너무 좋은데 다문화라서 혜택받지, 뭐 하러 그런 소리 하나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달라요. 저는 정말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는 만큼 내가 어른이 돼서 돌려주면 좋겠다. (중략) 그런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을 거는 받고 정말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B12, 일본)

“지원해 주긴 하는데 법에 다문화가족이라는 거를 제가 법 항을 보면 약간 차별되는 느낌이, 어쨌든 그냥 한국 가정인데 한국 사람이랑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다문화가족보다 그냥 한국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결혼이민자 신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B5, 중국)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주여성, 결혼해서 온 사람들에게 좀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여성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의료 보험이라든지 제도도 잘 안 되어있고. 일반 이주민보다 이주여성한테 잘해줘요. 한국어 정보라든지.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결혼해서 온 사람들에게 해주고...” (B7, 베트남)

다. 이주민 대상 인식개선 정책 효과

1) 이주민 대상 인식개선 정책 캠페인 효과 및 도움

이주민 대상 인식개선 정책 캠페인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캠페인 대상 나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그보

다 사람들이 외국인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캠페인을 본 적이 없다는 면접 참여자도 있었으며,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젊은 분들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대상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했을 때) 변화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 듣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하고. 관련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장님이나. 사실 그분들이 사장님한테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B7, 베트남)

“젊은 사람들에게도 홍보 많이 하면 좋긴 해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이종언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젊은 사람들 마음이나 머리가 바뀌려면 조금 낫지요.” (B9, 중국)

2)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만나는 행사 및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인식개선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행사나 활동 등을 기획하여 서로 소통하게 된다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목소리가 높았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질문했을 때, 면접 참여자 대다수는 기존에 체험했던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나 활동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요리 교실,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화장품 만드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센터에서 가족 봉사단 하고 있어요. 아이들랑 같이 봉사 활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무슨 다른 프로그램도. 항상 요즘에는 일반 가정 50% 다문화가정 50% 같이 프로그램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최근에 다문화 센터에서 화장품 만드는 거 했었어요. 그때도 소모임이니까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돼요. 이주민 3명 한국인 2명 이렇게 하니까 나이는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또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신 본인데도 되게 친근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똑같이 한국 가정도 아빠랑 엄마랑 같이 나와서 아이랑 놀고 이쪽도 엄마 아빠랑 아이랑 같이하고, 별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은 별로 없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일 거니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B10, 중국)

“제 경험으로는 반응 너무 좋았어요. 광명 다문화 센터에서 각자 나라 대표 음식을 (동네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그때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핏타이로 메뉴 정해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재료도 다 무료로. 한국인들이 다문화가정을 첫날 방문해서 재료 다 가져가서 같이 만들어 봤어요. 하나씩 설명해 주고 반응 너무 좋았어요. 같이 경험해 만들고. 그 담당자 선생님도 작년도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반응 너무 좋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 음식, 일식,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도 있고. 소통 잘 된 것 같아서. 한국 음식 그때는 없었어요. 세계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B8, 태국)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강의,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다양하게 만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서로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한국 사람과 이주여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의미가 커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저는 이주여성 인식에 대한 강의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한테도 이주여성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걸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런 거 인정해주는...” (B7, 베트남)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한국인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외국인끼리만 즐겁게 놀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냥 들어가서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하면, 여러 계층 대학생이나 그런 거는 정하지 않고 20대~50대 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요즘은 캠핑 가는 거. 만약에 나라 별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갈

이 공동해서.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고, 이 나라 문화도 배우는 거, 다음에는 반대로 하고. 끝에 좀 얘기하면서 뭔가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B5, 중국)

한편,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하기 힘들고, 자녀의 진학 단계마다 관련한 시기에 맞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 모임에서 배제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막상 참여할 기회가 생겨도 교육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해서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 보였다.

“제가 요즘에 고민인 거는 딸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좀 한국 엄마들 같은 학교, 학급을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다들 일하시고 힘드니까 차라리 좀 이렇게 멘토, 멘티 좀 비슷한 아이들 한국 엄마들을 소개해 주면 같이 학교 어떻게 선정해야 하고 어떤 거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고 그런 거 좀 요즘 고민 되게 많더라고요. (중략) 저도 아는 지인들이나 한국 언니들한테 물어보지만, 그분들은 이미 아이는 다 크고 좀 오래전 얘기라 지금 시기랑 또 다르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모르고 인터넷 찾아봐도 되게 어려운 면이 많아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연계했으면 더 좋겠어요.” (B10, 중국)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아요? 저는 나이 먹었으니까. 정말 큰 애를 키울 때 대학교 가는 시스템 자체가 뭐가 뭔지 몰랐는데 진짜 물어보려고 해도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말해서 했지만 저는 말해서 물어볼 수 있었지만, 그거를 물어보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좀 더 엄마들을 만나게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B12, 일본)

“엄마들이 모여서 모임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제 마음 같으면 내가 외국인이고 내 능력도 안 되고 생활이 능력도 안 되는 내 아이 기준하고 엄마들이 기준하고 어울릴 수 있나? 모이는 건 또 겁나요. 자기 기준하고 우리 기준이 너무 달라서 모이면 오히려 또 우리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모이는 것도 무서워서 연락이 오면 너무 안 나가고...” (B11, 베트남)

3) 미디어 속 이주민의 이미지 관련

미디어 속 이주민이 나오는 것이 재밌거나, 힘이 되고 필요하다는 점은 다수가 공감했으나, 노출되는 모습이 국가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표현되거나, 부유한 국가는 부유한 모습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는 어려운 모습만 나오면 오히려 그 이미지로 더욱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났다. 미디어에서 이주민 관련 영상이나, 모국에 대해 언급할 때 자극적인 소재나 대비되는 것을 찾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게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음, 바꿀 수 있지만 사실 TV에 나온 외국 사람들이 솔직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랑 이런 TV 쇼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해. 그 연기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아닌데 그런 느낌이 많아요. 생각이 바꿀 수 있지만, 아마도 진짜, 솔직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 생각이 바꿀 수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걱정이예요.” (B3, 프랑스)

“라디오나 TV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면 눈길을 끌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 잘 잡으면 그 프로그램 나쁘지 않아요. 홍보해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놓은 거 있다고 보여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저런 프로 보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찍어야 하지?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요.” (B9, 중국)

“좋은 거 같은데. ‘한국은 처음이지?’ 보니 거의 잘 사는 분들이 와서 한국에 여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되게 못 사는 모습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여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려운 모습만 나오면) 못사는 나라 이미지로 이어질 텐데. 잘 사는 건 다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지요. 여행하거나 재미있게 맛있는 음식 먹고...” (B7, 베트남)

“옛날에 ‘아시아 헌터?’ 그 텔레비전 나오는 그거 조금 이상하게 그 나라에 가셔도 이상하게 단점만 찍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이상한 거만 가서 찍으니까. 굳이 힘들고 가난한 거 못사는 거.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게, 전체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B8, 태국)

라. 이주민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1) 이주민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우선 사항

한국 정부가 이주민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언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였다. 한국어 교육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교육 기회 공급이 충분하기를 바라는 희망과 한국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통역,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기본적인 생활 속 정보 교류,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국말 공부. 저는 처음 와서 한국말 못 해서 다문화 선생님 통역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중략) 우리 이거 병원 가야 할 때, 이틀 전에 이야기하면 선생님 시간표 줘요. 그리고 같이 병원 가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B4, 중국)

“센터나 협회 이런 데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B6, 필리핀)

“한국어 프로그램 더 필요해요. 수요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문법하고 단어 일단 그런 것부터 하니까. 제일 수요가 필요한 거는 대화. 근데 관련 프로그램 없어요. 선생님 한 명에 학생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대화 시간은 별로 없고 결혼이민자 분들이 일단 환경조성해서 말해야지 단어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화 과정이 없어요. 있다면 도움 돼요. 만약에 같은 반, 우리처럼 3명, 4명 그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엄청 좋은 거지요. 그때 일단은 익히고 나중에는 말이 엄청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어요.” (B5, 중국)

“웹사이트에서 설명은 다 한국어로 있고 그 영어 웹사이트 가면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불편해요.” (B3, 프랑스)

“아무래도 학교 문서 많이 있어서 어려워요. 정말 어린이처럼 다 학교에서 트레이닝 필요해요. 이렇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라고...” (B1, 스페인)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행정 서류 작성 및 준비할 때, 여권 및 비자 관련 문제해결이 필요한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내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 시 외국인으로서 겪는 불편함도 있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 우리도 시간 내면서 가잖아요. 예약하고 가면 바로 상담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약했을 때도 시간 좀 많이 기다려야 해요. 가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계속 모자라. 안내해줬지만, 또 뭐 필요한 게 있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태도가 좀 나빠요. 그래서 가기 너무 힘들고...” (B2, 일본)

“외국인 가정,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나 여러 가지 비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새 재난지원금부터 차별받았잖아요. 일단은 필수로 등본에 한국인이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영주권 분들이 더 가족들이 다 와서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B5, 중국)

“예를 들어 저는 카카오 페이 쓸 수 없었어요. 외국어 이름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금도 쓸 수 없어요. 이름이 한글 아니라 어떻게 할지, 그냥 너무 어려워요.” (B3, 프랑스)

그리고 정착 후 본국의 가족과 만남 좀 쉬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친부모님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는 것, 그리고 부모를 돌보아야 하거나 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을 부탁하기 위해 본국의 친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앞서 어려움으로 지적된 언어적 어려움과도 연결된다. 이주여성 당사자의 비자나 서류상 문제 처리과정도 어렵지만, 국가에 따라 부모님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 관련 문제 등도 주요한 걱정거리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려운 거 일단 부모님이 모시는 거 제일 문제예요. 부모님이 오는 비자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40대고 어머니 연세는 거의 65세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는 단기 비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몸이 상태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몸이 약간 좀 힘들거나 하면 저는 부모님 부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민자분들한테는 아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형제자매들 있어도 자녀로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좀 원해요. 비자 제한하거나 상관없는 나라 있지만. 중국은 발급해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쪽에는 약간 좀 풀어줬으면 좀 해요. 아니면 부모님 나이를 좀 정해서 만 몇 세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좀 줬으면. (그런 조건을 좀 더) 어차피 우리는 건강보험료나 그런 거는 다 똑같이 내니까 한 명 모셔도 내잖아요. 저는 혼자 여기 오고 부모님이 본국에 계시고 그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B5, 중국)

한국에 들어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은 한국 남성의 상황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혼비자 발급 시 결혼이주여성만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국 남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도 확인하여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지, 결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더 어려워질 것임을 우려하였다.

“굳이 결혼시키는 거 있잖아요. 비자 발급해 주는 거. 그것부터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비자 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외국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아예 결혼비자 그런 거 발급해 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와서 보니 신용 불량자고 여러 가지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외국 여자 데리고 와서 사는데 최소한 기본 생활 보장은 못 하면 아예 좀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좀 일하는 의지가 있거나 하는 걸 보여줘야지 뭘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여자 쪽에 언어 되면 바로 결혼비자 발급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나라도 힘들고. 뿌리부터 일단하고 다음에 차근차근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략) (결혼비자 발급 시) 남자 여자 서로 조건이 좀 됐으면. 언어는 어차피 지금 최소한 1, 2급 정도 받아야 결혼비자 해주거든요. 지금 여자한테만 요구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결혼 프로그램 참

여하기는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기부터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비자 발급할 때 조건 좀 따져보고. 와서 잘 살 수 있는지 좀 고려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예요.” (B5, 중국)

한국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경우는 일반 한국인이 느끼는 것과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불안해 진 것을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어, 이주민으로 특별히 어려운 점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집값 불안정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자주 언급되었다.

“집값 내려주세요. 5년 전처럼.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젊은 앤데 이런 말 해요.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어쨌든 자기 월급으로 열심히 많이 노력해도 집 못 살 것 같아서 하루하루 커피 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소확행. 결혼도 안 하겠다고. 진짜 평생 혼자 월급 받고 잘 살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명품 가방 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좀 슬픈. 어느 정도 적당하게 저축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인간이면 집 있어야 하나까...” (B8, 태국)

“경기 살려줘야 해요. 지금 너무 장사 잘 안 돼요. 경기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줘야 해요.” (B9, 중국)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이나 제도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모든 이주여성들이 동일한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 오히려 맞춤형 제도로 운영하면 더 효율과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다는 제안도 있었다.

“저희 일단 해주면 감사히 받고 있어요. 해주면 일단 필요한 분들한테 가능하면 어떤 거 필요할지 그건 힘들겠지만. 비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좋겠고... (중략) 사람들 요구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거 받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다문화가정이지만 잘살고 있다고 스스로 하고 그냥 놔두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해서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서비스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물어
봐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게...” (B7, 베트남)

2) 결혼이주여성 대상 지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의 강화와 부부 갈등
등 문제 발생 시 증재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었고, 한국
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가정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내 친구 이혼해서 도와줄 사람 필요해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 없어요. 맨날 남
편이 때렸어요. 스페인 친구가 아기 두 명 있고, 남편이 때렸어요 하고 성차별
센터, 다문화 센터, 다 전화했는데 다 안 도와줬어요. 혼자 있었지만 다 안 도와
줘서. 다문화 센터 핫라인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
고 끝났어요. 도와주는 거 없어요. (중략) (남편이 폭력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는
데) 이 사람한테는 정보 필요해요. 한국어 잘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리소스가 없
어요. 보호 필요한 데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도와주
는 사람 없어요. 다문화 센터 있지만 거기서는 이런 일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 경찰서 가라고 하고, 도와줄 수 없어 죄송해요라고 해요. 보호, 도움을 안 줘
요.” (B1, 스페인)

“남자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랑 경찰서가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파
출소에 가면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요.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와이프
사이에 들어가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중략) 저 친구는 지금 결혼한 상
태로 참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욕 계속하고. 너는 누구
돈으로 사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디에 그런 말 해야 하는지 그
런 센터가 없다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부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
는 거지요.” (B2, 일본)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자녀의 입
신, 양육, 출산 관련 정보나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더 성장함

에 따라 필요한 한국의 전반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선생님과 상담 시 대화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정보는 잘 몰라서 애가 점점 크면서 학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애한테 가르치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 없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디로 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디 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미리 고민하고 있어요. 학교 어디 가는지, 몇 점 맞아야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를 다 미리 다 정해주는데 우리는 아예 잘 모르니까 옆에 앉아서 들어도 되게 복잡해요.” (B11, 베트남)

한국으로의 귀화나 출입국 관련 법, 관련 상황으로 인한 불편함, 어려움을 다수 토로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적 취득 시 남편의 동의나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한 점,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사례들을 주로 언급하였다.

“출입국법이 평등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주여성들한테 남편한테 의존하게 되어있어요. 엄마가 되니까. 어쨌든 아이는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도 편하게 안정적으로 체류가 돼야지 맘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건데... (중략) 공평하게 남편에 의존되지 않게 귀화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화 못 한 분들은 남편과 싸우면 그런 거 가지고 헐박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연장 안 해줄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아이도 있고 하면 쉽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의존하게 되니까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참는 경우가 많아요. 못 참는 경우엔 이혼 선택하고 본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못 만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출입국에서 법에 따라 하니까 체류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하고 사는 엄마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거지요.” (B7, 베트남)

“국적 취득 말고 그냥 3년씩 한국에서 3년 부부생활 계속 유지 되면 자동으로 영주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도 여기에 있는데 무조건 영주권 받아야 하

지 않나, 권리 충분하지 않을까...” (B8, 태국)

“한국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 엄마가 외국 사람이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탈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가는지 잘 알고
있다, 아내가 가는 게 맞다는 내용으로 써줘야 해요.” (B3, 프랑스)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한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마련, 사대보험 가입
등 제도 내 보호가 필요하며, 일반 생활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식자재 구
입, 홈택스 등 가계경제 운영 관련 교육도 원하고 있었다.

3) 이주민이 차별 없이 사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지원

이주민이 차별 없이 사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국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
에 대한 당당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마음을 다잡는 것
에 대한 중요성도 역설하였다.

“교육, 인식개선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관심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사는 것도 똑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말을 막 하잖아요. 내가 이 말 뵈으면 상처가 되는 말이
구나 모르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런 거 없어지는데 나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바뀌기가 쉽지 않지요. 인식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B7, 베트남)

“저는 그냥 자신감 그리고 내가 당당한 거. 항상 다른 데 강의나 뭐 이렇게 수업
나가도 항상 그런 얘기만 해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슨
교육해도 제 목표는 항상 당당한 엄마. 기죽지 않는 엄마. 그러면 우리 딸들 앞
에서 내가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요. 제가
어차피 여기서 생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격증이라든가 한
국 사회에서 먹고 살려는 노력은 본인이 먼저 해야 하는 거잖아요.” (B10, 중국)

“신랑이 안 도와줘도 우리 힘으로 자격증 같은 거 따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당

항하게 우리도 사람이고. 뭐든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나. 엄마가 외국인이라도 뭐든지 한국 사람처럼 그 기준처럼 똑같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있으면 아마 좋지 않을까. 다르게 보니까 소통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서 아무 것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B11, 베트남)

6.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대

가. 한국인과 이주민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필요사항

1) 한국인-이주민 조화롭기 위해 한국인이 해야 할 일 : 한국인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이주민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 문화에 대한 선입견, 차별 등에 대해 이를 줄이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 노력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주민에게 무조건 적응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와 이주민을 이해하고 적응을 기다려주는 태도를 원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람은 본인의 선입견 같은 거는 일단 내려놓고 그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건 다 똑같이 좀 봐 드리고. 아무 차별 없이 그냥 봐 드리고. 그다음에는 너희 나라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존중한다. 존중하지만 한국에서 살지만 강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강요하듯 얘기하는 게 심하잖아요” (B5, 중국)

“남자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여자를 와이프로 한다면, 한국 여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당연히 한국 여자처럼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문화를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 와이프 문화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국제결혼 하지 말라고 해야지. 교육은 꼭 해야 해요.” (B2, 일본)

“제가 개인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너는 너, 나는 건드리지 마. 나도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 너한테 나쁘게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런데 만약 너 때문에 나는 나쁜 영향 얻었으면 그냥 싸워야 한다는 약간 그런 성격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B8, 태국)

2) 한국인-이주민 조화롭기 위해 이주민이 해야 할 일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와 노력, 한국에 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인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들이 선택해 한국에 온 만큼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 한국인의 행동에서 느끼는 서운함이나 갈등 상황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좀 그냥 개인 문화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략) 저는 항상 프랑스에서 친구들한테 한국 살기 어렵지만, 엄청 편해 좋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프랑스 아니니까 좀 생각을 바꿔야 행동도 좀 바뀌어야지. 바꾸면 편해요. 그렇게 한국에서 프랑스타입 살고 싶으면 오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B3, 프랑스)

“이 나라에서 고유한 거는 받아들이고, 본인이 버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와서 살면 당연히 여기 문화들을 다 일단 접하고 인식하고 좀 해야 하는 거고.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한국어부터 배웠으면. 의사소통 안 되면 가정이 불화하고 또 사회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가 다 되잖아요. 저는 항상 여기서 살고 싶으면 한국어부터 배워라. 말을 해야 다 적응되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외국 사람들이 일단 본인의 인식을 좀 넓혔으면...” (B5, 중국)

“첫째는 한국어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가면 영어 배우고 어느 나라 가면 그 언어 소통 잘해야 하고 그래서 바보 되지 않고 내가 불리한 상황 유리할 수 있다. 둘째는 자기답게 잘 살고 자기가 뭐 잘 할 수 있는지. 가는 길 만나는 사람들들도 자기 세상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선택하는 것도...” (B8, 태국)

“한국 문화 적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떤 역사라든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성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문화 적응하고 그러면 이해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덜 상처 받지 않을까...” (B7, 베트남)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과 관련하여, 센터나 협회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린다면 이주민의 관심도가 어떨지 추가 질문한 결과, 한국에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는 필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센터나 협회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걸 소개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입국하는 사람한테 필요하긴 하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적응이 되니까 한국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요” (B7, 베트남)

한편, 한국 문화에 적응하여 한국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 꽤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한 면접 참여자 일부는 한국인의 열정, 노력, 생각 등을 업무를 통해 배웠을 때 스스로 성장한 것을 느낀 점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언가 요구하기 전에 이주여성 스스로 적응하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같은 수준으로 일한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지만, 확 늘었어요. 뭔가 생각도 바뀌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이렇게 되고 계획 세우는구나.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뭔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좀 성장했다는 거 느껴요. 아까 선생님도 한국어를 못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요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다문화 센터도 없었으니까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공부해야 하니까. 환경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일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한국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독한 환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환경이 있어야 뭔가 되나 싶어서, 지금 너무 힘든데 맨날 그만둘래. 그만둘래. 하면서 일단 하고 있어요” (B12, 일본)

3) 한국인-이주민 조화롭기 위해 서로가 해야 할 일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서로 대화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른 점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외국 사람들이 가끔 적응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니까. 서로 조금씩 노력해야...” (B3, 프랑스)

“살아보니까 그냥 만나서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그런데 먼저 얘기를 해주면 내가 다문화가정이야 그러면 좀 너는 못 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익숙해요. 다문화가정. 좀 잘 못 사는” (B9, 중국)

“인식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좀 친근감 있게 서로 알면서 소모임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문화 센터에서도 지금도 처음에 가족 봉사단 따로따로 했어요. 일반 가정, 다문화가정. 요즘에는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깐 그런 거 참 좋은 거 같아요” (B10, 중국)

4)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망

면접 참여자 모두 앞으로 이주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서로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 점차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있었다.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교육이나 복지적인 그런 게 좋아서. 공공기관 이런 쪽도...” (B11, 베트남)

“나아질 것 같아요. 뭐든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쓰레기 버리거나 침을 뱉던 사람 지금도 있지만 그런 것도 확 줄고 빨간 신호 지키

고. 한국 사람들이 횡단보도 아닌 다른 도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지금 요즘에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짜 매너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B12, 일본)

나. 향후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

1) 기대되는 부분

향후 한국에서의 삶이 비슷하거나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응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대되는 이유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 교육의 장점을 주로 언급하였다. 한편, 천천히 세상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였다.

“이미 경제 발전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편리하게 살고 있고. 더 발전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충분히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깐 좋아질 거로 생각해요. 세상은 좋아져야 해요.” (B7, 베트남)

“한국의 교육 상황 사람마다 다른 교육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양심 가지고 있고 법도 따라서 하시고…” (B8, 태국)

“아기 커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고. 그런데 서로 지금 부모님이 도와 주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좋아지고 그거 생활 쪽에서는 일단은 좀 편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생활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B5, 중국)

반면, 걱정되는 점으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각 단계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하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 남성 중심의 사회로 운영되고 있으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근데 좀 걱정이예요. 아이가 점점 커서, 아이가 학원 많이 가야 해요. 한국에서 (상위) 다섯 개 대학교 가면 좋겠어요. 대학교가 중요해서 (졸업하고) 여기 삼성, 엘지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대학교 끝나면 취직이 어려워요. 이건 중국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취직 못 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대학교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걱정돼요.” (B4, 중국)

“한국 사회가 남자들 사회잖아요.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중국처럼 똑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중략) 한국 사회에서 보통 남자가 일 많이 해요. 여자가 임신 하면서 취직을 어떻게 해요. 이게 끝나서 스위치 해서 집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나랑 똑같아요. 2년 3년(동안) 일 못하고.” (B4, 중국)

제3절 전문가가 본 한국 사회 수용성

이번 제4장의 1절과 2절에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주민 그룹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직접 들었다. 이주민의 생각을 직접 들은 다음 이주민을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한국인과 이주민 서로에 대한 태도와 감정 등을 파악할 기회가 많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견을 공유한 전문가는 이주민 관련 기관/센터에서 직접 이주민을 상대하는 현장 전문가로 전체 1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5-3〉 전문가 특성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성별	여성	6	50.0
	남성	6	50.0
연령	40대	5	41.7
	50대 이상	7	58.3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6.7
	외국인지원센터	4	33.3
	인권지원센터	2	16.7
	청소년지원센터	2	16.7
	기타	2	16.7
계		12	100.0

현장 전문가의 응답은 자주 만나는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주민 그룹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았다. 현장 전문가들이 자주 접하는 이주민 그룹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연령 또한 1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넓게 분포해 있었으나 30대 이주민을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이유는 일 때문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고, 동반이나 결혼으로 인한 이주민을 자주 접하는 경우도 그다음으로 많았다.

〈표 5-4〉 전문가가 만나는 이주민 그룹 특성

(단위: 건,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다수	5	31.3
	남성 다수	4	25.0
	여성과 남성 비율 비슷	7	43.8
	계	16	100.0
연령	10대 이하	6	14.6
	20대	8	19.5
	30대	11	26.8
	40대	9	22.0
	50대 이상	7	17.1
	계	41	100.0
주요 이주 목적	일	13	13.1
	결혼	6	17.1
	학업	2	5.7
	동반	8	22.9
	거주	4	11.4
	기타(난민, 국내 출생)	2	5.7
	계	35	100.0

주: 현장 전문가 12인의 복수 응답임.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먼저 알아보았다.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수용적인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 중 매우 부정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6명,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5명, 그리고 수용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과거보다 수용적으로 변하였지만,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주민이 귀화를 해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할 정도로 수용성이 부족한 현상은 그 태도가 모두 부정적인

면을 향해 있는 경우이다. 반면, 이주민 수용성에 있어 한국인의 양면적인 태도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양면적인 태도는 1) 이성적으로는 수용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이익과 결부되면 인색하거나 폐쇄성이 강한 태도, 2) 이주민에 대해 온정적이면서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선호하지 않는 태도, 3) 가까운 이주민에 대해서는 수용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 4) 노동시장 등 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이주민 수용은 찬성하지만, 복지지원은 받기 싫은 태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5-5〉 전문가가 본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내 용
A	<p>〈수용적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들과의 생활한 경험 유무, 개인의 경험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각인된 측면이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이나 이슈들도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게 됨 - 피부색이나 국적에 대한 계급화 경향도 남아 있음
B	<p>〈수용적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노동력으로만 인식할 뿐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음 - 출신국, 피부색, 종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친근감의 정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매우 다름 - 오래 거주하였거나 귀화를 하였더라도 외국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C	<p>〈양면적인 태도를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인식, 수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일상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고 자신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임 - 인지적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으나, 생활영역에서의 정서나 행동의 수용성은 여전히 높지 않음 - 의식주 등 표면적 문화, 특히 식문화와 관련하여 수용성은 높아졌으나, 신념, 종교 등 이주민의 본질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수용적이지 않음 - 이주의 결과가 문화적 동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함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내 용
D	<p><매우 부정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규모가 늘어나고 접촉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주민에 대해 익숙해지긴 했지만, 문화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계 의식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정책지표에서도 이들은 외국인주민으로 범주화되어 있음 - 혈통적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보임
E	<p><양면적인 태도를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온정주의를 보임 - 무지하고, 덜 문명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위생문제, 이주민들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인종주의를 보임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함
F	<p><양면적인 태도를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거리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동정적, 수용적이나 평등적 개념은 부족함 - 자신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는 적대적, 차별적, 잔인한 경우도 상당함
G	<p><양면적인 태도를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만나는 이주민 그룹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적임 - 이주민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주민을 위한 정책,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정책에 수용적임 - 그렇지 못한 그룹은 한국인 우선 지원을 강조함
H	<p><수용적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외국인은 한국인의 그룹 안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음 - 곧 떠나갈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구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더라도 나그네로 인식함
I	<p><수용성이 예전보다는 다소 높아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높아졌다고 보임 - 오히려 이주민을 특별한 대상으로 보고 무조건적 지원을 지양해야 할 것임
J	<p><수용적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의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인 혐오 현상도 보이고 있음 -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필사적으로 숨겨주며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의식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으나,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기 위한 존재로 활용되고 있음 - UN에서는 인종차별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비하와 차별의식이 계속되고 있음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내 용
K	<p><양면적인 태도를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한 필요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차원의 수용성에서는 저항이 강함 - 문화적으로는 난민으로 들어오는 특정 종교의 외국인에게는 혐오에 가까운 관점을 보이나, 노동자로 살고 있는 같은 외국인에게는 수용성이 높음 - 온라인 댓글이나 미디어에 대한 반응과 지역사회 내 수용성은 차이를 보이며, 지역사회에서 좀 더 높은 수용성이 발견됨
L	<p><수용적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동남아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으로 파악됨

다음으로 현장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 것은 이주민이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 및 환경이다. 현장 전문가의 응답을 통해 이주민은 매우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이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 상황에서 근로조건 및 환경, 임금 등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하는데 이는 특히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차별을 경험한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 태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주민이 복지혜택을 받거나 제도를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차별 환경이 논의되었다. 이사를 하거나 핸드폰 개통, 대중교통 이용, 식당 이용 등 계약 절차가 필요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일회성 성격을 가진 단순 이용 시설에서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

다. 한편으로는 과거보다는 차별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환경에서 차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차별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뿐 아니라 출신국에서도 차별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많으면 한국에서의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이주민의 이미지에서도 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6〉 전문가가 본 이주민의 차별 경험 상황 및 환경

이주민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주로 차별을 경험합니까?	
전문가	내 용
A	<p>〈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경우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는 차별이 감소하는 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차별을 더 많이 함
B	<p>〈피부색, 외모, 언어를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에서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아래위로 훑어보거나 옆자리에 오지 않음 - 고객이나 민원인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방문했을 때 존칭 없이 이름만 부르거나 반말을 함 - 수십 년간 한국에 살았고, 귀화도 했지만,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하고 한국인이다 되었다고 말함 - 코로나 이후 가게, 식당 등에 입장을 거부하거나 반기지 않는 티를 냄 - 길에서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심지어 폭력을 씀
C	<p>〈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인간 관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 영역에서의 차별은 많이 감소함 - 구직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급여 외 처우, 비인격적 의사소통에서 차별을 경험함 - 조직 생활이나 사회적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 암묵적인 방법으로 배척함
D	<p>〈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차별과 불평등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음 - 기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기여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주는 사례 - 고유한 문화에 대한 멸시, 모욕, 저평가, 금지, 억압, 계몽 등 사례 - 밥 따로 먹기, 대중교통에서 옆자리 앉지 않기 등 사례 - 부정적, 적대적, 위협인물 등 그릇된 고정관념 사례

이주민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주로 차별을 경험합니까?	
전문가	내 용
E	<p><매우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주민을 정책적으로 배제 -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 검사 행정 명령 -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등의 뉴스를 통해 무개념 외국인으로 묘사
F	<p><이주민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을 다르게 받아들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우, 더 거센 표정, 언어, 폭력적 태도에서 차별을 느낌 -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우, 작게 속삭이는 말, 어휘 하나, 분위기에서 예민하게 차별을 느낌 -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존중을 덜 받은 경우는 이미 차별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차별에 덜 민감하게 느낌
G	<p><일상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를 할 때 한국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 야근도 내국인보다 더 많이 하며, 야근을 하지 않으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인하여 주 52시간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고 근무를 함
H	<p><노동 현장, 일상생활, 교육 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고, 주휴수당이나 시급 등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음 - 핸드폰 개통 시 부가서비스 요금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거나,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을 제대로 안 해줌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 편입을 거부하며, 학교에 진입하더라도 교우관계, 교사 관계에서 차별, 소외, 배제감 경험
I	<p><한국어 수준에 따른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시를 경험 - 핸드폰 기기를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 경험 - 택시를 이용하거나 하면 억양에서 차이가 나면 결혼 여부, 연애 경험 여부 등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한국 지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여 돌아가는 경험
J	<p><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부터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기회도 없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3년 짜리 근로계약을 해야 함 - 3년 근로계약 이후 1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연장 시에는 고용주의 추천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내미는 근로계약서에 또 서명해야함 - 현대판 노예제도가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제도에 의한 차별이 매우 심각함 <p><일상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난민 등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세금을 내고 한국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으면서도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주민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주로 차별을 경험합니까?	
전문가	내 용
K	<p>〈복지자원 분배,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아동수당, 재난지원금 등 복지자원을 나눠야 한다는 상황에서 차별과 혐오가 높음 -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 - 노동시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하면서도 틈만 보이면 가장 함부로 대하는 상황
L	<p>〈한국 언론,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 차별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언론으로 보도를 하여 사회 이슈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도 2010년 이후부터 폭력성 영화에 악역 등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와서 대중들에게 나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경우가 심해짐

이주민의 출신국가나 이주민의 한국계 여부 등 이주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종류나 강도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현장 전문가는 대부분 이주민 특성에 따라 차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신국가, 피부색, 한국어 능력, 종교 등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계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한국계 이주민에 대해 차별이 더 심하기도 하고 한국계 이주민이 차별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출신국가나 한국계 여부와 함께 한국어 능력도 이주민의 차별 경험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계 이주민의 경우는 오히려 한국어를 잘하면서 외모와 언어가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이주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더 차별받는다 고 보는 의견이 있어 이주민이라도 한국계 여부에 따라 언어 능력이 차별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표 5-7〉 전문가가 본 이주민 특성에 따른 차별 경험 차이

이주민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라 차별 종류나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가	내 용
A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출신국에 따른 차별의 강도는 존재하며, 한국어 표현이 서툴거나, 종교적 특색이 강할수록 차별 경험이 늘어남</p>
B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출신국, 피부색, 한국어 수준 여부, 영어 수준 여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짐</p>
C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이주민 채용 과정에서 한국계, 특정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차별로 이어짐</p>
D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한국계 외국에 대한 차별이 더욱 혹독하고 심각함</p>
E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일용직 시장에서 한국인 대체하는 존재, 범죄자, 우범지역을 연상하게 하거나, 가난해서 돈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은 사람들로 묘사</p>
F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한국계의 경우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차별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임</p>
G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은 심하지는 않지만, 업무 배정을 받을 때 좀 더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p>
H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더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소문들로 인한 포비아 현상을 불러일으킴</p> <p>-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계의 경우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등 편견과 선입견을 내보이는 경우가 더 많음</p>
I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보다 한국어 수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한국어가 능숙한 한국계의 경우는 차별을 덜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주민 내의 또 다른 격차가 있다고 보임</p>
K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출신국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인종주의도 있음</p> <p>- 한국계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이 있음. 중국 동포를 더 혐오하며 고려인동포는 좀 더 민족주의적인 차원의 동정을 보임</p>
L	<p>〈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p> <p>- 출신국에 따라 다른 면도 있지만 낙후된 국가에서 온 경우 낙후한 사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피부색이 다른 경우 차별과 강도가 다름</p> <p>- 출신국에 따라 생활문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내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인 이주민 집거지가 형성된 곳에서 내국인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등으로 떠나고 있어 이는 아이들 간의 교육 차별로 이어짐</p>

앞서 알아본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아직은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주민이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수준이지만,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현장 전문가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양분화되거나 일부는 악화된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아직 한국인이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다수의 평가는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갈등이 늘어나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난민 입국 등 특정한 일례 계기로 일어나는 인식 변화 등이 작용해 수용 반대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면,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이주민의 영향력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과거에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차별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이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의견과 동시에 이주민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접촉과 생활 공유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향후 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8〉 전문가가 본 한국인의 이주민 수용 및 차별 태도 개선

한국 사람들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나 차별적인 태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내 용
A	<p>〈이주민과 일상을 공유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쓰레기, 불법주차, 지역의 분위기, 집값 등 불편함을 호소함 - 외국인을 자주 접하지 않는 한국인의 경우는 미디어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수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임
B	<p>〈그렇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종교, 특정 국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C	<p>〈인지적인 수용 정도는 향상되었으나, 정서적, 행동적 수용 정도는 그렇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효과, 매체의 영향, 지역사회 구성원의 변화 등을 통해 인지적인 수용성은 향상되었음 - 차별적 태도가 외형적으로는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D	<p>〈그렇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조건에 대한 인식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한국을 다문화국가라고 평가하는 비율은 오히려 매우 낮아짐 -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을 한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연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함
E	<p>〈그렇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예멘 난민사태 이후로 적극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주민을 배척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F	<p>〈일부는 나아지고 있으나, 일부는 혐오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수가 늘어나고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수용성이 높아짐 - 반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심하게 높아지고 있음
G	<p>〈나아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늘어나고, 이주민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예전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최저임금, 야근수당 등 한국인과 동일하게 임금 방면에서도 보장을 받고 있음
H	<p>〈나아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10여 년 전보다는 더 나은 수용성을 가짐 -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소수자들과의 통합적 환경을 구축하면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 - 다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나타나기도 함

한국 사람들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나 차별적인 태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내 용
I	<p><나아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는 더디지만 조금씩 수용적인 자세는 좋아지고 있음 - 이주민을 차별보다는 한국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수용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음 - 다만, 아직도 특정 국가에 대한 비하하는 말은 아직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
J	<p><그렇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최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환대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때 무조건적인 반감과 혐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제도적인 차별의 고착화, UN으로부터의 인종차별 금지 법률 제정 권고 미이행 등
K	<p><나아지고 있으나 양분화 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나 교육 등을 통해 인권과 혐오 등에 대한 이슈를 긍정적인 문제의식으로 가지게 되는 등 10년 전과 비교하여 확연히 나아지고 있음 - 그러나 복지자원 배분이나 모호하거나 무관심했던 분위기에서 2018년 예멘인들의 입국을 기점으로 더욱 선명하게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L	<p><그렇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나아지지 않고 있음 - 다문화 교육, 다문화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일자리 창출용이고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주민과 내국인 갈등 해소 중간자 역할을 하는 상담원들의 자질 향상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라고 보임

이번에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반대로 이주민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이주민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으며 일부 부정적이더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출신국보다 발전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경험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는 듯했다. 입국 후에도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는 데 특히 출신국과 비교해 사

회·경제·문화 및 교육 환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면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 환경보다는 한국 사람들로 부터 경험하는 차별이나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표 5-9〉 전문가가 본 한국에 대한 이주민의 생각

이주민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부정적입니까?	
전문가	내 용
A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편리함, 발전된 기술, 교육 환경, 공공과 민간의 복지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복지서비스, 문화 활동의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B	<p>〈전반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차별 경험으로 부정적이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음 - 한국인들의 우호적인 태도나 한국 정부의 이주민 친화 정책으로 인하여 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시스템 측면을 장점으로 두고 있음 - 수준 높은 교육, 의료·공공서비스, 편리한 교통·통신, 양호한 치안 등 긍정적으로 인식함 - 반면, 이주 아동들의 경우 한국의 공교육을 받으며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다가, 본인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부모의 출신국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짐
C	<p>〈긍정적이지만 실생활을 통해 부정적으로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 아동·청소년은 해외에 전파된 한국 문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 입국 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주민일수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생활로 인한 허탈감, 상실감, 상대적 어려움을 보임
D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 경제와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차별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있음
E	<p>〈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감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이 이주민들은 한국에 결혼, 노동, 유학, 거주 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여 생활하므로,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 고된 노동조건 등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입국 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내하는 경향이 많음

이주민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부정적입니까?	
전문가	내 용
F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 다만, 상황이 좋거나 차별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항상 차별받아 왔거나 당연하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G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을 위한 센터들이 이주민의 한국 정책을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국어 번역을 통해 이주민에게 안내를 해주는 등 이주민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 학교 및 센터에서 통·번역지원, 이중언어코치 등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 보험도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렀을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등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H	<p>〈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안전하고 살기에 쾌적하며 질서 있고 사람들도 친절한 편이라고 느끼고 한국을 좋아함 - 하지만 한국에 오래 살더라도 한국인으로 받아 들여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평생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소외감을 받아드릴 각오를 하고 있음
I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통해 서비스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 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 사회 복지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아직도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수용성은 부족하다고 생각
J	<p>〈긍정적인 동시에 힘든 노동의 측면에서 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등히 급여도 많고, 교통, 위생 보건 등 발달해 있으므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혹독한 근무조건, 장시간 노동, 가족과 헤어짐으로 인한 상실감, 고립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음
K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과 혐오를 직면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을 통해 얻는 경제적 만족도가 높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 - 사람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집착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함 - 한국 사회의 안전, 경제적 성취, 편리함, 지역사회 내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 이주민지원 서비스 인프라 등으로 만족도가 있음
L	<p>〈처음에는 긍정적, 살아갈수록 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기 전이나 처음 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을 알면 알수록, 한국인을 보면 볼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부정적으로 인식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들에게 이주민 대상 정책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주민 대상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포괄성의 문제로 보였다.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 사이에서도 대부분 일부 집단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간 측면에서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법률적 측면에서는 불법적 체류가 아닌 경우에 한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있었다. 집단별로 보면 결혼이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으로 결혼이주민 집단에 대한 정책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정착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지원의 장점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포괄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공유되었다.

〈표 5-10〉 전문가가 본 이주민 대상 정책의 도움 정도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도움이 되나요?	
전문가	내 용
A	<p><결혼이주민에게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민들은 초기 정착 한국어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결혼과 그 이후의 생애주기와 동일한 형태를 가짐 - 출산, 자녀 양육, 자녀 돌봄과 학습, 이주 당사자의 심리 정서 및 경제적 자립 욕구 등 다양한 사업이 통합적이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법무부의 사회통합 서비스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보임
B	<p><도움이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정책은 우수 인재, 투자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의 유치와 정주를 장려하는 정책이나, 비전문 인력의 도입은 활용하되 정주화는 방지하고 있음 - 난민 자격을 까다롭게 하여 난민 자격 부여를 최소화하고 있음 - 사회통합정책은 통합을 위한 것이기보다 체류와 정착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난지원금, 학습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됨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도움이 되나요?	
전문가	내 용
C	<p><초기 이주민에게 일부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인 한국어 교육, 지역 정착 지원 등은 효과가 있음 - 입국 초기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도움이 됨
D	<p><참여자보다 수혜자가 적은 구조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의 사회통합정책은 참여 외국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는 하나, 한국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E-7 비자 전환 등 체류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도움이 됨 - 결혼이민자 대상 일자리 지원정책의 경우는 분리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며, 연계되는 일자리의 처우가 낮아 교육-취업의 매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만족도는 떨어짐
E	<p><일부 이주민과 한국인에게만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함께 생활의 공간을 영위하는 한국인들에게 유익하도록 설계된 정책이며, 일부 이주민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의 경우 일손이 모자라는 업종에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유지하는 정책으로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의 기회를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의 경우 한국어 교육, 통역, 고충 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봄
F	<p><도움이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원도 한국어 교육, 가족 간 소통 증진, 자녀 양육 지원 등 1차적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후 문제해결 중심임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고용허가제), 결혼이주자에 대한 제한적 지원(혼인 관계 유지하는 경우만 체류자격 제공) 등은 시민들에게 차별의식을 강화하는 것임
G	<p><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대상으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 초기 정착에 기여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동법, 인권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유학생들에게는 다문화 인식개선에 필요한 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을 위한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지원
H	<p><법률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들에게만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적법, 난민법 등 기본법들이 법률로서 제정된 이주민은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으로 생활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음 - 결혼이민자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달체계를 통해 한국어 교육, 정보취득, 생활 고민 등 상담을 지원받음 - 그러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미등록자의 자녀, 난민의 자녀는 보호 체계와 안전망에 진입하지 못함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도움이 되나요?	
전문가	내 용
I	<p><결혼이민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정책이 단계별로 당시 상황에 맞게 수립되어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이민정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결혼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J	<p><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이주노동자 정책이 도움은 되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 초기에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 -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단기순환의 원칙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을 더 발생시킴
K	<p><여가부, 지자체, 법무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동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동체 지원 사업, 점수제를 통한 비자 변경의 가능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전문인력이나 유학생보다는 동포 가족, 비전문취업자 가족, 난민 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언어교육이 도움이 됨 -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 중 일부 지나친 온정주의적 정책은 혐오나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
L	<p><전반적으로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고충 상담, 외국인 자생 단체 지원, 출입국 정책 등이 존재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봄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이주민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고, 이에 더해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1.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중국 동포, 베트남, 태국,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12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들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경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작업장에서의 차별, 정책·제도에 의한 차별 등 -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현실을 파악하면서 이들의 좁고 폐쇄적인 사회관계를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맥락은 이들의 한국 사회 인식에 어떤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이주민과 한국인이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생각을 청취하였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국 입국 전 이주노동자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K-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깨끗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 입국 후 불과 몇 주도 안 되어 바뀐다고 한다. 자신들이 일하고 사는 곳은 K-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K-드라마의 판타지와는 다른 모습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람 사는 곳이 모두 같다는 정도이며, 이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과 지역으로 대표되는 현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였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미디어에 의한 판타지적인 이미지에서 점차 임금이나 근로환경, 대중교통, 병원 등 취업

과 생활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어갔다. 해외 취업이 가능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을 주는 나라, 치안과 위생, 대중교통이 매우 좋고, 의료기술과 시설이 좋은, 살기 좋은 사회로 인식되었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주로 작업장에서 만나는 고용주나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아직은 이주노동자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며 자신들이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태도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주민이 어느 나라에서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심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한국인에 대해 높게 여기는 점은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고 잘 지키는 시민의식과 근면 성실한 태도 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너무 목적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모습 역시 보인다고 한다. 한국의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이주민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한국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면접 참여자 중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자막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일부 프로그램이 이주민에 대해 일부의 모습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이주민과 그 모국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자주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인종차별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법과 제도에 의한 차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상적 차별은 이주노동자를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 취급을 한다거나, 반말 등 일상적인 하대와 무시, 성차별, 출신국가별 편견과 차별적 태도에 대해 다루었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한국인보다 과중한 노동을 하면서 더 적은 임금과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과 경제적, 제도적, 언어적 우위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한국인 고용주에 관한 이야기

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차별에서는 체류자격 취득조건을 강화하여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방해하는 법적 제도와 체류자격별로 상이한 취업제한 조건과 지원 혜택, 건강보험 적용상의 차별이 주로 언급되었다.

한국인과의 관계와 도움 교환의 측면을 살펴본 결과, 이주노동자는 한국인과 업무 외적 사회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고용주가 자신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의견이 각기 다른 4회의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한국 사회가 상호 도움을 교환하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주로 이주민지원센터 등이 매개가 되어 그러한 기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이주민지원센터 없이도 지역의 중국 동포 자치 모임 등에서 거리를 청소한다거나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주민 대상 지원과 정책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편견이나 인식개선 등의 사회문화적 차원보다는, 취업 활동 제한 완화,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 등 국내 체류 및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다문화 축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비정기성과 일회성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대에서는 이주민과 한국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상호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한국인은 이주노동자의 의견에 대해 존중과 융통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주민은 한국어 습득을 통해 한국인들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하

고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결혼이주여성

이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 12명에 대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사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기분 나빴던 경험, 한국 사회 내 차별 경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 오해에 대해 청취하였다. 그다음으로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에 대해 알아보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 적응을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주민 대상 인식개선 정책과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사항, 한국인과 이주민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향후 기대에 대한 생각을 청취하였다.

우선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발전된 경제 수준, 편리한 생활환경, 복지, 교육, 의료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유교 국가로 한국 사람은 착하고 예절이 잘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는 위와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생활을 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한국의 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었으며, 서로 배려 없는 모습, 정직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 등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미지에 주는 영향요인으로 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이 있었으며, 복지정책에 대해

서는 코로나19에도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등의 감동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결혼이주여성을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남편의 지인들은 반가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 밖의 사람들은 출신국가에 관한 관심이나 결혼 계기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호기심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외모에서는 외국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평범하게 대하다가 대화를 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하는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임을 알게 되면 눈빛이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 부모들끼리만 더 친하게 지내거나 대화에 잘 끼워주지 않아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한 경험도 떠올렸다.

다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기분 나빴던 경험으로는 언어적 측면의 어려움, 외국인임을 알게 된 후 태도의 변화,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출신국가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불쾌한 경험을 호소하였다. 또한 시댁 식구들이 한국어 사용을 강요하거나 존댓말 등 한국 예절에 익숙하지 않을 때 구박을 하거나 하는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별 적대관계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자녀의 교육시설 등에서 전화로 상담할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바꿔 달라는 등의 경험을 떠올렸다. 일자리 및 직장 내 상황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차이, 보너스 미지급, 초과근무 요구 등의 경험하였다. 이러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대부분은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소수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여 그냥 대응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들, 같은 결혼이주여성, 직장 및 사회생활 지인 등을 언급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인들을 만나기 힘든 점도 호소하

였다.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거나 가족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서류작성에 도움을 받았거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고 해당 센터에 취업을 하는 등의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었으나,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도 소수 존재하였다.

이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증감의 폭이 다소 있다는 것, 실효성, 지속성이 부족하고 보여주기 식이라는 정책의 측면에 아쉬움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식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변화될 것이며, 향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인식개선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 캠페인은 거의 보지 못했으나 외국인과 많이 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인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였으며, 이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며, 미디어 속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도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주여성의 출입국 과정, 서류, 여권 등에 대한 불편 해소, 다양한 제도보다는 맞춤형 제도 필요,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시 외국인의 불편 해소,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주민 외국어 사용, 문화에 대한 선입견, 차별 등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주민도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과 행동, 의지 등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한국인과 이주민 모두가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향후 한국에서의 삶은 비슷하거나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보였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교육의 장점을 주로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적 걱정과 좋은 대학, 좋은 회사의 취업에 대해 걱정을 하였으며, 남성 중심 사회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3. 현장 전문가

현장 전문가는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거나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도덕적으로는 수용을 당위로 생각하면서도 개인 이익과 결부되거나 가까운 환경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주민이나 외국인인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여전히 피부색이나 외모, 언어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특히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포착되었다. 한국인의 수용성이나 태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나아지고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일부에서는 혐오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즉, 양분화 되어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듯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부정적이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해 참을 각오가 되어있으며, 기대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현재까지 다수의 이주민 관련 연구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점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특정 집단별 연구로 분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따라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특정 이주민 집단이 아닌 다양한 이주민을 포함하였다. 또한 그동안 이주민의 생활 실태나 한국 적응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던 연구와 달리 이주민의 생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이주민의 인식에 관해서는 이주민의 생각을 직접 알아보는 방식과 수용성과 관련된 한국인의 생각과 태도를 이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인을 통해서만 알아보았던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을 이주민의 시각을 통해 확인해 봄으로써 수용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국의 수용성을 알아보는 시도를 통해 이주민의 시각에서 충족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구분해 냄으로써 집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의 인식과 생각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정책 대상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차별 경험

가.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이주민은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대화하는 빈도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회와 3~7회 사이인데,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한국어이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이주민의 한국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은 주변에 1~2명 정도 있으며,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인이 많다. 이는 한국에 생활하는 시간에 따라 주변의 도움 받을 수 있는 한국인 수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정주나 결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도움받을 수 있는 한국인이 많으나, 취업 자격은 그 수가 적었다.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은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환관계가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도움을 주는 관계가 3분의 1 정도로 한국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교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와 남성 이주민의 경우이다.

이주민은 한국인 위주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참석 안 하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장 많다. 참석하는 경우는 한

달에 1회 미만인 경우가 많다. 한국인 중심의 모임에는 한국어를 못하면 참여 빈도가 낮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 중심인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체류 기간 3년 미만,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로 한국에 거주 기간이 짧거나 정주 가능성이 작을수록 한국인 위주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전반적으로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도움을 줄 한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인과 모임을 하는 경우에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차별 경험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간 전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몇 번 경험했다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이다.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수도권 거주, 한국어 못할수록, 한국계인 경우에 차별 경험 빈도가 낮다. 차별을 경험하는 곳은 마트나 식당, 카페, 극장 등 대중 시설과 일하는 곳, 길거리나 대중교통이 주를 이루었으며, 차별을 경험한 이유는 한국어 능력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고, 출신국이나 피부색도 주된 이유였다. 차별 경험에서 한국어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 빈도도 높아지는 특징과 차별의 중요한 이유가 한국어 능력인 결과와 종합해 보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차별을 경험할 빈도가 낮고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여러 환경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언어로 인해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더 잘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 6-1〉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결과

구분		특성
한국인과 관계 및 차별 경험	한국인과 대화	한국어 못하는 편(-)
	도움 줄 한국인	취업 자격(-)
		한국어 못하는 편(-)
	한국인 중심 모임 참여	취업 자격(-)
		한국어 못하는 편(-)
	한국인과 관계 만족	비수도권(+)
도움 줄 한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인 중심모임 참석하는 경우 (+)		
차별 경험	체류 기간 5년 이상(+) 한국어 잘하는 편(+)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 한국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정책적 경험은 그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한국이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에게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족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한국이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비율이 87.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 초기에 주로 받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28.9%로 3분의 1이 되지 않는 정도이지만, 일단 참여한 후에는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혜택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필요했던 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필요함을 느꼈을 때 지원을 받았던 경험은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 보건/의료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 도움을 느끼는 편이었는데

데, 그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보건/의료 정책,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정책은 상대적으로 필요도나 실제 지원을 받은 경험도 낮은 경향이 있고, 다른 정책들은 필요도나 지원 경험이 비슷한 수준이다. 단, 자녀 양육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할 가능성이 커서 그 수요가 적어 보이지만, 필요함을 느끼면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교육, 자녀 양육정책이 이주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6-2〉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일자리 정책	37.5	(1,310)	51.9	(491)	3.30	(255)
주거 정책	28.7	(1,310)	29.0	(376)	3.35	(109)
교육 정책	30.9	(1,310)	67.7	(405)	3.50	(274)
보건/의료 정책	47.4	(1,310)	65.4	(621)	3.52	(406)
자녀 양육정책	25.3	(1,310)	70.8	(332)	3.51	(235)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현재 한국 생활에 대해 이주민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92.8%) 나타났다.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86.3%). 여기서도 한국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만족도가 이주민에

게 한국의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하는 이유는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쉽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로 나타났다. 즉, 추천과 비추천 이유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목적과 관련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의 이주민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어서 한국을 추천한다는 이유가 다른 출신지역 이주민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응답 이주민의 90% 이상이 한국 생활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한국 국적 취득을 가장 희망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비율이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92.7%로 높은 비율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긍정적인 기대 비율이 높은 집단(긍정 응답 95% 정도)은 결혼이주민,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나타났다.

〈표 6-3〉 이주민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결과

구분	특성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	5년 이상(+) 결혼 자격(+) 동·서남아시아(+)
이주민 관련 기관 이용	결혼 자격(+) 동·서남아시아(+) 비수도권(+) 3년 미만(-) 한국어 못하는 편(-)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정책 지원
	보건/의료 정책 필요도 가장 높음 교육, 보건/의료, 자녀 양육정책 지원 경험 높음 이주민 관련 기관 이용할수록 지원 경험 높음
한국 생활 만족	중양아시아·몽골·러시아 (+) 비수도권(+) 차별 경험 없는 경우(+)
한국 생활 추천	3년 미만(+) 중양아시아·몽골·러시아 (+) 비수도권(+) 차별 경험 없는 경우(+)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가.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에서는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통해 이주민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성 차원 중 문화개방성에 대해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수용성이 높은 부분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다. 다양성 차원 중 가장 수용성이 낮은 하위요소는 국민정체성으로 그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까지는 주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

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주민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차원

다양성 하위 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하위 요소 별 평균	다양성 평균
문화개방성	1.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수용	4.18	3.85	3.47
	2. 이주민 증가에 대한 수용	3.95		
	3. 가까운 이웃으로의 이주민 수용	3.42		
국민정체성	1. 피부색 조건	3.15	3.11	
	2. 한국 출생의 조건	3.20		
	3. 국가 지도자로 이주민 인정	2.99		
고정관념 및 차별	1. 이주민끼리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	3.64	3.45	
	2. 국제결혼 후 이혼 시 외국인 배우자 문제로 생각	3.45		
	3. 피부색에 따른 국가 고정관념	3.27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관계성 차원의 하위요소 중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는 거부·회피 정서이다. 즉, 이주민이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거부나 회피 정서가 강하지 않아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호교류 행동 의지도 어느 정도 보여 수용성의 정도가 매우 낮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 동화기대에 대해서는 항목 점수가 낮은 경향으로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고 동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차원

관계성 하위 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하위 요소별 평균	다양성 평균
	한국 사람은...			
일방적 동화기대	1.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길 바람	2.80	2.93	3.39
	2. 이주민의 자녀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함	2.88		
	3.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람	3.25		
	4.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바람	2.80		
거부·회피 정서	1. 한국보다 못하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대중교통 옆자리 거부	3.81	3.80	
	2.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 기피	3.79		
상호교류 행동의지	1. 이주민과 같이하는 모임·활동 기꺼이 함	3.65	3.71	
	2. 이주민과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함	3.70		
	3.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줌	3.79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나. 신뢰와 포용성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7.3%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 집단은 신뢰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보면, 응답 이주민의 86.4%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한국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을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 출신 이주민이며, 가장 낮은 신뢰 정도를 보인 집단은 중국 출신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느끼는 감정은 보통보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갖는 감정이 어느 정도 따뜻한지는 이주민의 거

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주민과 관계를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에서는 보통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쪽에 가까웠는데, 네 가지 관계 중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느끼며, 배우자가 되는 것을 가장 덜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해당하는 이주민 집단과 한국인이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고,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는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다. 이웃이나 절친한 친구는 결혼이나 정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0에서 10점 중 평균 5.78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더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도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한국인의 태도가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어,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인의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 국민과의 물리적·정서적인 거리가 실제로 밀접할 뿐 아니라 결혼 이주 집단에 대한 한국 국민의 수용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나 인종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국민정체성에서는 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민정체성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항목으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9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4점

중 3.21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다문화 수용성이나 차별 등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이 나타난 결과와 방향을 함께 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다음은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이 뒤를 잇고, 3점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국방의 의무는 그동안 질문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인데 외국인도 한국에서의 국방의 의무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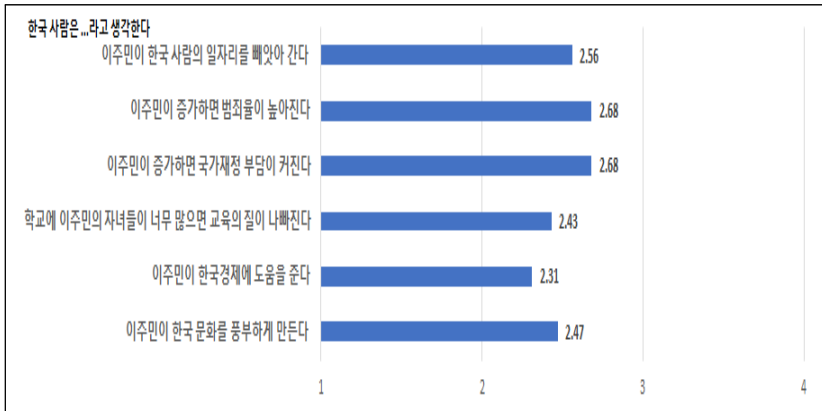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 산출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한국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범죄율과 국가재정에 관한 생각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대한

점수가 높아 이 세 가지에 대해 한국인이 이주민을 안 좋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관한 생각과 위협의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현재 이주민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체류 기간 5년 이상인데, 한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은 처음 인식과 달리 변화하는 기점으로 보이고, 이때 한 쪽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닌 긍정이나 부정의 방향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은 처음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양이나 일본 및 대만 등 출신의 이민자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비율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한국인 동료나 친구가 가

장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변 한국 사람이 주는 영향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의 영향도 여러 요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 인식 비교

이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 내용 중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과 관계성은 한국인 대상 조사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 내용과, 신뢰와 포용성 내용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 결과와 비교한다. 이 두 조사와 이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는 대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용성과 이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수용성의 정도 차이나 경향성을 검토하는 수준임을 분명히 해 둔다.

가.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항목에서 이주민에게 질문이 가능한 문항을 변경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한다. 가장 최근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2018년 조사로 전국의 일반 국민 만 19세~74세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의 항목을 비교한다.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는 「2018년 국민 다

문화 수용성 조사」의 수용성 문항을 이주민의 입장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응답의 선택지는 비교를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점으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 척도로 세부 항목의 점수, 각 차원의 점수, 전체 점수 등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하위 문항 개수가 동일하지 않아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활용한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 비수용적인 내용의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역 코딩한 점수로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1) 다양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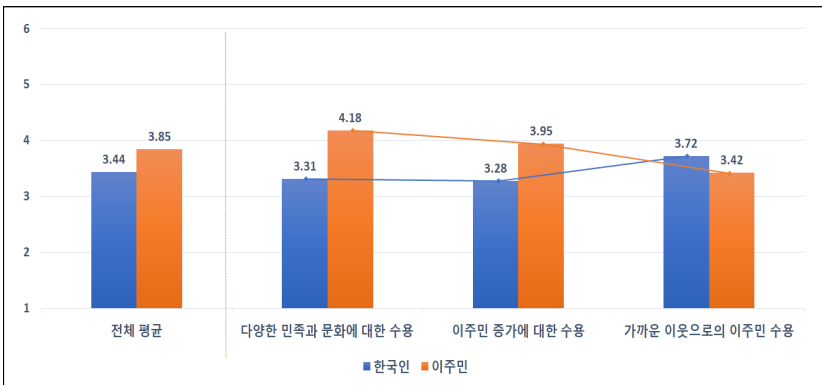
다양성 차원에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비교한다.

문화개방성은 다양한 민족·문화,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의 증가,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의 거주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문화 등에 대한 수용과 이주민 증가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개방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이웃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응답 점수가 이주민의 응답 점수보다 낮아 한국인의 생각과 달리 이주민은 이 점이 가장 개방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민은 한국인이 다양한 문화나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

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한국인 가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지 않다고 인식해 서로의 생각이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6-3]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문화개방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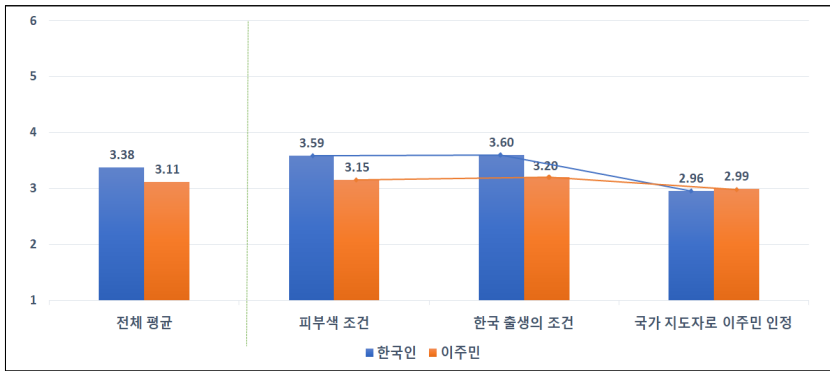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항목3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국민정체성에서는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데, 피부색의 중요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주민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비교한다. 전체 평균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인이 되는 것에 있어 피부색과 한국에서의 출생 중요성에 대해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될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이주민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나 이주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체성

항목 중 한국인과 이주민이 공통적으로 가장 덜 개방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인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을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수용성도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에 대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인을 인식하고 있다.

[그림 6-4]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국민정체성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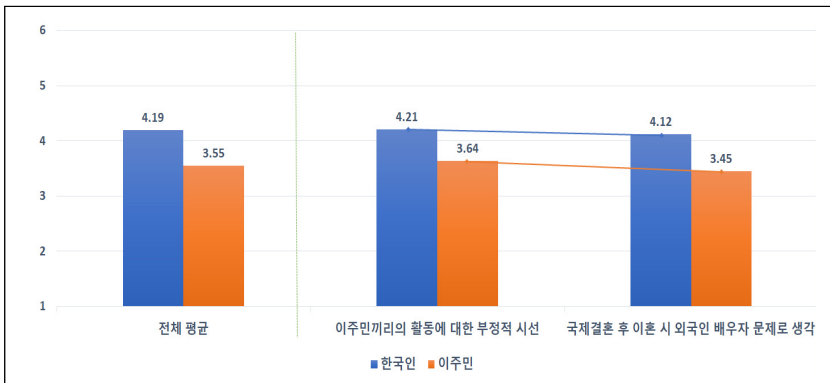
다양성 차원 중 마지막 하위개념은 고정관념과 차별인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주로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관념 조사에서는 요리, 음악이나 무용, 종교행사에 대해 따로 구분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세 항목을 종합해 하나의 항목으로 대체하였다.

고정관념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응답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개방성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정도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

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주민끼리의 활동에 대한 것보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이주민 역시 한국인은 이주민끼리의 활동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고정관념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정관념은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은 고정관념이 없이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주민의 시각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정도로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없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5]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고정관념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관계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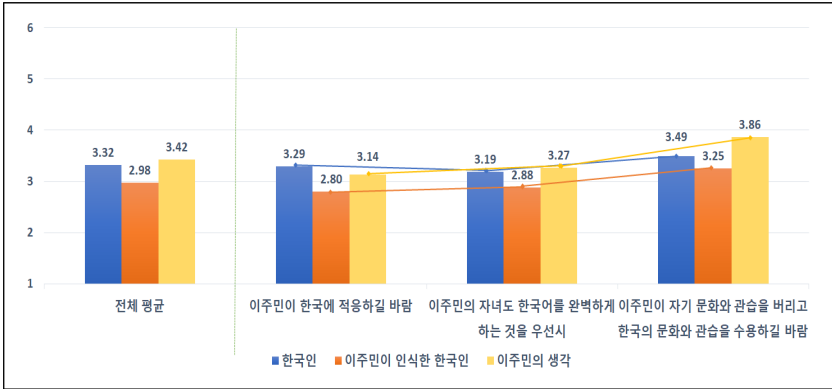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대해 한국인의 생각과 그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한다. 일방적 동화기대는 한국인의 동화기대,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동화기대, 그리고 이주민의 동화에 관한 생각 세 가지를 비교한다.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정도와 이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동화기대 정도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이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방적 동화를 덜 기대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 동화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주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 수준은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에 가깝다. 한국인과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이주민이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동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이다. 다른 항목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수준의 동화는 아닌 반면, 마지막 항목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관습을 따르는 수준의 동화에 대한 항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은 다른 항목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주민은 이 항목에 대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엿볼 수 있어 일방적 동화기대에서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6]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일방적 동화기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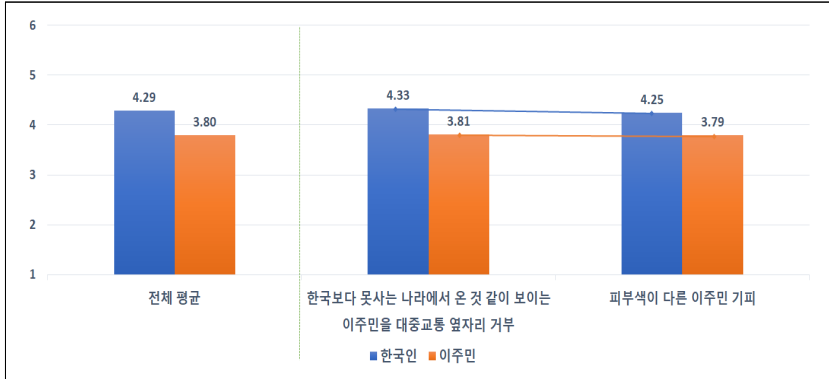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거부·회피 정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가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의 시각에서는 한국인을 덜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항목 사이의 차이를 보면, 한국인은 한국보다 개발이 덜 된 국가 출신에 대한 수용 정도보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약간 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인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이주민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7]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거부·회피 정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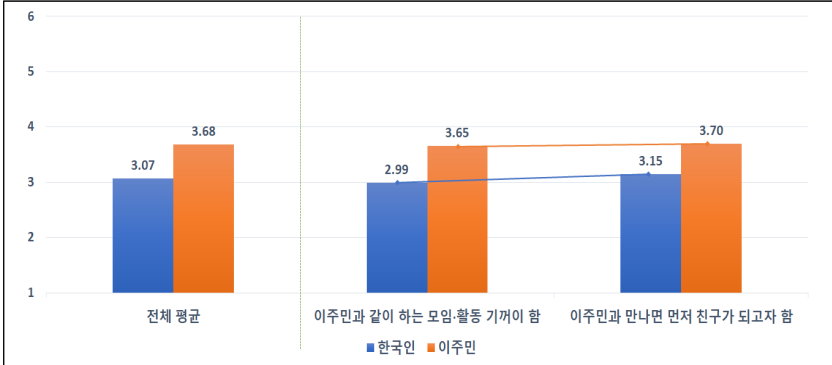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사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이주민과 모임이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먼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에 비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태도를 더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과 함께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은 평균 3.0점 이하로 나타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는 한국인이 교류에 대한 행동의지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이 한국인은 자신들과 적극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8]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상호교류 행동의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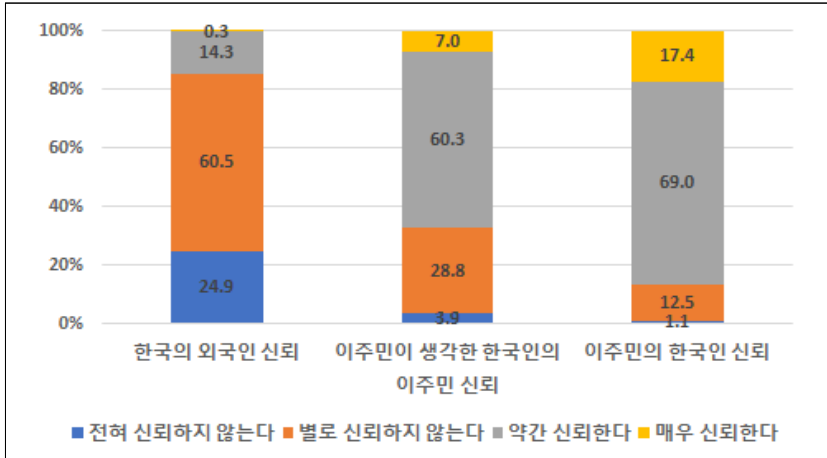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신뢰의 측면에서는 한국인과 이주민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의 차이로 인해 비율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고, 이주민은 한국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주민의 응답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많다. 실제 한국인이 이주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6-9]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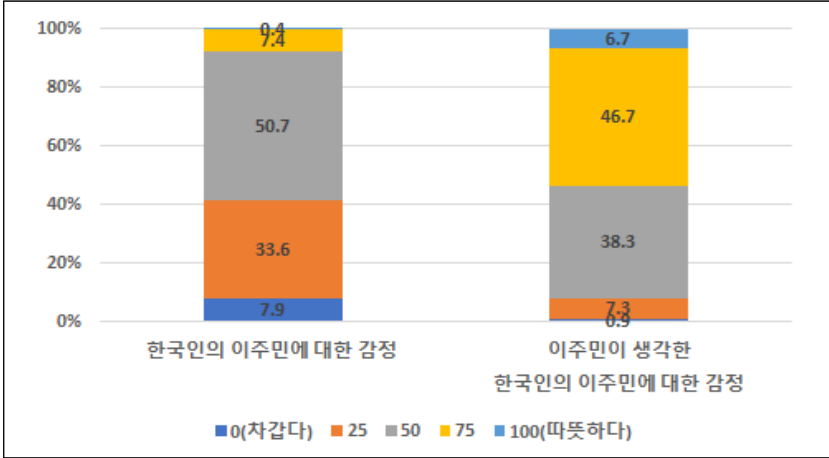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174.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감정의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평균 점수로 비교해 그 경향을 알아보면,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가진 감정이 차갑다와 따뜻하다는 중간에 못 미치는 정도로 차갑다는 쪽에 가깝지만, 이주민은 중간에서 따뜻하다는 쪽에 더 가깝게 한국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가 응답한 것으로 비교해 보아도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응답은 차갑다와 따뜻하다는 중간 지점이고, 이주민이 인식하기에는 중간보다 더 따뜻한 지점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을 약간 따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6-10]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단위: %)



주: '차갑다(0)' 1점, '25' 2점, '50' 3점, '75' 4점, '따뜻하다(100)' 5점으로 평균 산출 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은 평균 2.6점, 이주민이 생각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은 평균 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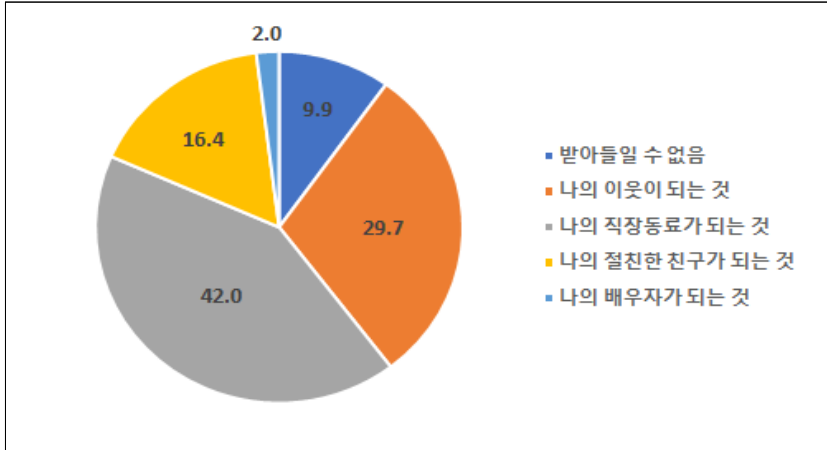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82.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친밀함의 순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인은 이민자/노동자를 직장동료가 되는 것까지 받아들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은지 조사했는데, 이주민의 인식 결과에서도 한국인은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점수가 가장 높다.

[그림 6-11]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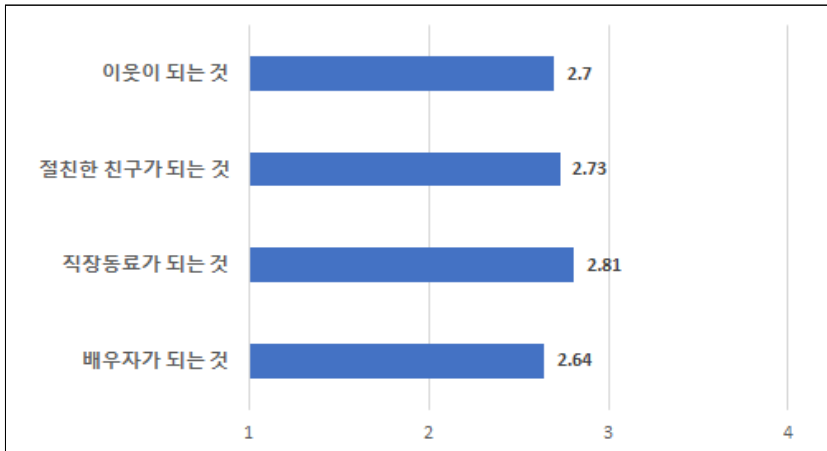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60.

[그림 6-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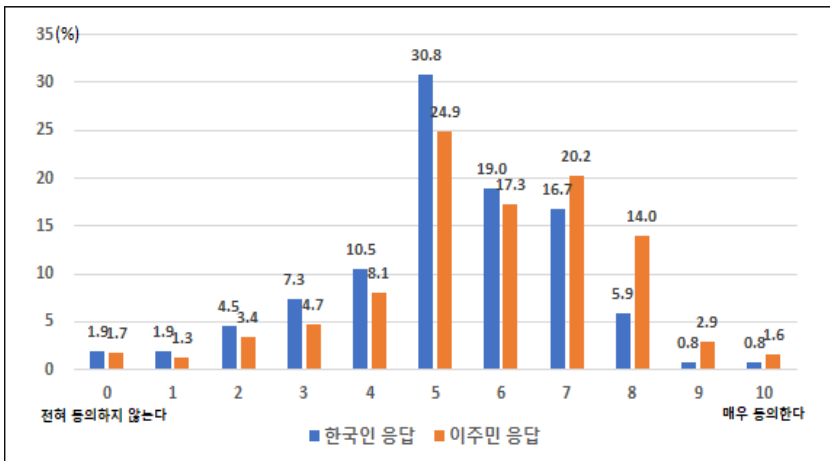


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평균 산출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한국인에게 알아본 결과와 그에 관한 이주민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 정도의 수준이며 이주민은 동의한다고 인식하는 방향에 아주 약간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13] 이주민(외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단위: %)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매우 동의한다' 10점으로 평균 산출 시, 한국인 응답 평균은 5.2 점, 이주민 응답 평균은 5.8점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57.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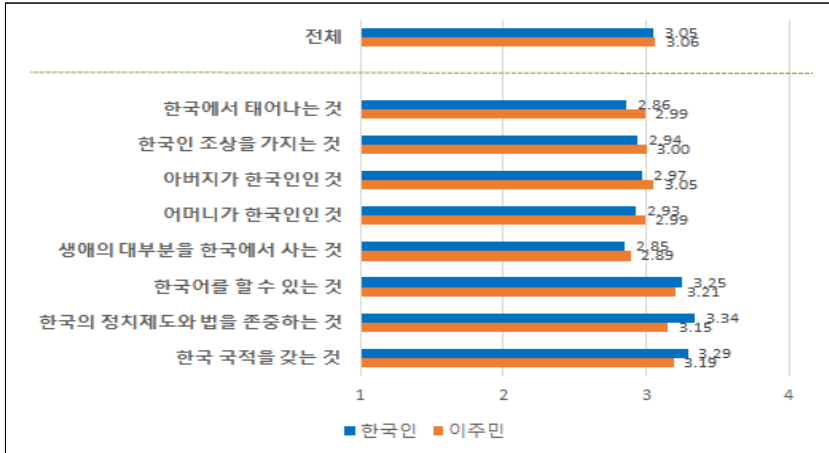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세부 항목별로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이주민이 인식하기보다 한국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에 대해서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여러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 중 한국인

과 이주민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위 세 가지 요건이다.

[그림 6-14]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 산출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 수용성에 대해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결과와 이주민이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을 경향성 파악 수준에서 비교해 보았다.

다문화 수용성 중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더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국민정체성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덜 수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고정관념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덜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개방성 측면에서 한국인의

수용성은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개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정체성이나 고정관념 측면에서는 이주민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보다 한국인 스스로의 평가가 더 개방적이다.

다문화 수용성 중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일방적 동화를 더 기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스스로 응답한 거부·회피 정서 수준보다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가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보다 한국인은 더 높은 수준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호교류 행동의지 측면에서의 수용성은 실제 한국인의 생각보다 이주민이 더 한국인의 태도를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동화기대와 거부·회피 정서 차원에서는 반대로 한국인의 생각보다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은 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는 한국인의 응답과 이주민의 응답이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와 별개로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민의 시각을 통해 알아본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한국 사회는 여러 민족·인종이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이 되거나 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지도자

가 되는 상황, 또는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주민이 자신이나 한국의 주류가 되거나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민을 수용하지는 않는 선택적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는 기준보다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기준과 일방적 동화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도 보인다. 이주민 전체 집단으로 보면, 이주민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주로 한국인의 친절함이나 감정, 신뢰 등에 대한 것은 실제 한국인의 감정보다 이주민이 더 좋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 이외에 한국인이 되는 기준이나 조건, 동화기대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 생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는 자신이 취업을 위해 선택할 수 있던 국가 중 가장 나은 국가를 선택해 왔고, 한국에서의 생활시간 대부분을 경제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가까운 경제활동 및 대가가 있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이 연구의 양적 결과는 비확률 표본 조사를 통한 결과라는 점이다. 일반화가 가능한 이주민에 대한 양적 조사의 필요성은 이전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양혜승, 2011)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종료된 후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를 바탕으로 인식 및 수용과 관련된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일반화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주민의 인식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 규모 또는 체류 기간의 증가, 그리고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적·관찰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주요 결과를 통해 살펴본 현재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이주민이 한국에 대해 갖게 된 인식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두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현재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언론과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반(反)다문화주의 여론이 조성되면서 한국 정부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주민 수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와 제2차, 제3차에 걸쳐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인권 보호를 정책목표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이 중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와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두 가지 목표에서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민자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을 위해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동포와 함께 공존하는 환경조성,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을 추진하여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교육부, 법무부, 문체부)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세계인 주간 및 세계

인의 날 행사 운영,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국민과 이주민 대상 문화 다양성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등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2018).

[그림 6-15]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 목표	중점 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 이주민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3.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주민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주민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자료: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p. 2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을 설정하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보다 중장기 관점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환류를 시행하고, 부처 간 다문화 이해 교육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 교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분야에서 다문화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주민에 대한 반차별적, 인권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다문화 수용성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공모 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 지역사회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그림 6-1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역량 강화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자료: 여성가족부. (20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p. 10.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은 모두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난민, 유학생 등 한국 사회 이주민들의 자립과 정착 그리고 한국 사회로의 참여와 통합을 위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가시적으로 제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더욱 실질적이고,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한편 교류와 소통을 이끄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수준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나 상

호문화주의와 같은 원칙과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동화기대의 측면에서는 한국인보다 이주민이 더 동화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욱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측면도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 정책에서 이주민이 한국을 이해하고 관습을 따라야 할 부분은 이주민의 노력을 끌어내 갈등 상황을 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수용성을 높여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정책적으로 상호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 큰 틀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미디어 활용과 교류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방향은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내용인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즉, 인권과 관련한 추진 정책을 통해 실제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더 엄밀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체류자격별로 결혼이나 정주 자격과 취업 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업 자격의 경우는 일정 기간 후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접촉 측면은 일하는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이다. 반면, 결혼이나 정주 자격의 경우 한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며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이주민의 집단 사이에 목표와 정책적 욕구가 다른 것이 포착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주민 대상 정책 접근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이 분명해질 것이다.

앞서 검토한 대표적인 이주민 관련 정책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또는 사회통합정책 추진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책적 설계에서 한국의 수용 수준을 반영해 역차별에 대한 반감이 없도록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는 여전히 '인식개선'으로 남아있는데, 시대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의 변화를 끌어내 인식이 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식개선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별·배제모형이나 일방적 동화를 강요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벗어나 있는지 냉정히 판단하고 이주민 대상뿐 아니라 한국인 대상 정책, 사업, 교육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인권 및 반 차별·반 편견 교육 강화

한국인의 수용성과 이주민이 생각한 한국인의 수용성을 비교한 결과, 문화개방성 차원에서는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수준이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정체성과 고정관념은 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국민정체성이나 고정관념과 관련해서는 더 수용적인 한국인의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관련 한국인 대상 교육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책뿐 아니라 주류집단인 한국

인이 해야 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교육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의 수용 정도는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차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과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은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중요성이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다.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과정 일부에 포함하는 방식인 부가적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 제고가 아니라 모든 집단과 개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 의식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의 학생이 어우러져 지내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더해, 이제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이나 국제이해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어린 시기부터 다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교육, 반차별 및 반 편견 교육, 나아가 다양성 교육과 같이 확장된 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 형식이 아니라 의무교육과 같이 교과 과정에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언어나 행동, 태도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에 부합한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의 차별은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뿐 아니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는 교

육의 실효성을 위해 성인에게 적절한 방식의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선언적인 교육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인지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고쳐 나가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동화주의 관점보다는 다문화주의 및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 영역에는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상대의 문화를 억압하는 입장이 녹아있지는 않은지 검토되어야 한다.

확대할 것은 교육 대상도 마찬가지이다. 공공 영역 교육에서 대상이 되는 성인은 물론 이주민과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 지역주민과 직장 및 고용주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 또는 친구의 편견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공유되었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의 한국 생활은 남편과 그의 가족이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만난 가족뿐 아니라 그들의 주변 사람에게 받는 부정적인 시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일단 시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접촉하는 한국인은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고용주 등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 한국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인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빈번히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는 특정 업종 종사자나 특정 지역 거주자만 이주민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더욱 흔해질 수 있으므로 교육 범위와 교육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이주민과 한국인의 교류의 질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인과 이주민의 교류 및 접촉은 서로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주민을 사회적 차원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부분도 남아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한 사이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서로 이질적인 존재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류가 누적되어 편견은 줄이고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본계획에서는 대부분 환경조성이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등 자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와 별도로 한국 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접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곽윤경 외, 2019). 주변에 이주민이 없는 일반 성인은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주민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데, 그 정보가 부정적이라면 그 때문에 배타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쉽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수 민족이나 인종의 문화를 체험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tephan & Stephan, 2000).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판단을 거친 결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형성되도록 도와서, 나아가 시민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장기체류로 인한 가족 결합의 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 국민의 일자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보호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역차별 논란, 이주민 증가

에 따른 사회불안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 등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주민들이 한국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 '이주민=한국 사회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지만, 일부 이주민에 대해서는 현실적 실행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체류자격별로 한국에서의 경험과 인식, 또는 한국인과의 교류나 기대하는 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로 다른 거주권이 경험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일부 이주노동자 집단은 교류하는 한국인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이외 사람과의 교류 필요성과 욕구가 낮아서 한국 사회와의 소통 양상이 체류자격 특성상 다를 수밖에 없는 이주민 집단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거주 권리가 위계화된 이주민 정책 안에서 완전한 비차별적 문화 확산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은 국제사회의 이민정책에서 이주민의 거주 권리에 대한 방향 설정을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에서 발전 가능한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수준의 교류 기회 제공과 함께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부모 간 네트워크이다.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녀를 둔 이주민 부모는 자신이 경험하는 정보 부족이나 네트워크에서의 배제가 자녀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염려하면서도 한국 학부모

모와의 소통이나 교류에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이주민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와 정보 측면에서 부족함을 경험하는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학부모와의 교류를 원해도 적극적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특수한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에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시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이주민 부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인 학부모가 외국인 학부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주민과의 일상 교류가 자연스러워진다면 이 또한 해결될 수 있는 일로 생각된다.

4. 이주민 대상 언어 및 사회 교육 강조

한국인과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기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는 한국인의 응답이 더 수용적으로 나타나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 동화를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 수준이 사실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의 실제 동화의 기대는 이주민이 생각하는 동화의 수준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주민도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닌 적절한 수준에서 동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습득이나 필수적인 사회 교육은 이주민의 한국 체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주민의 언어 능력은 차별에 놓일 환경과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주민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

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주민이 원한다면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가 많아 한국어 능력에 관심이 덜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자나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일해야 할 시간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언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이다. 그러므로 법적 이유가 아니라 언어의 한계로 억울함을 견뎌야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어 능력은 노동 현장에서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이용할 때도 제약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도 있는 체류 기간이 짧은 집단이 센터 및 기관 이용이 낮아 접근 가능성이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 능력과도 관련이 있었다. 다른 조사에서도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이 많이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p. 7). 즉, 언어의 중요성은 이주민의 업무 환경에서나 일상 생활, 정책 활용 등 한국 삶에서 전방위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주민이 서비스 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언어능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 이수 과정이 있고, 이주민 관련 기관이나 센터에서 언어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접근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능력이 일상생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해 이주민이 한국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 및 사회 교육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

실생활에 바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특히 강화된 사전 교육을 통해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갈등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인과 이주민의 갈등 원인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해 관련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고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이 한국의 독특한 제도 및 중요한 관습에 대한 사전 교육 강조를 통해 갈등 상황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주민이 한국의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은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의 법규를 지키는 것에 이주민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국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주민 대상 사회 교육에서 한국 생활의 중요한 규칙과 법규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어나 한국의 규범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동화주의적 접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동화의 방식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통합에 유리한 접근일 수 있다. 다만 동화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언어나 문화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수준에서의 동화는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5. 이주민의 의견·능력 존중 및 기회균등 환경 마련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이주민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이주민이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상황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실생활의 사례에서도 이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 않거나 이

주민이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 환경의 합이 나중에는 이주민의 의견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환경을 만들게 된다. 즉, 개인 생활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모여야 사회적으로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지방선거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 한국의 수용 정도에 관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사회통합을 추구한 국외 사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나 출마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보면, 이주민의 정치참여 인정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어(유숙란, 2010)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한 한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이동과 방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주민을 지역민의 일부로 인식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이주민 개인 또는 집단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뿐 아니라 능력을 존중하고, 능력 발휘에 대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주민의 능력이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주민으로 형성된 국가인 미국은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주 정부, 대학, 기업 등 소수인종 입학이나 고용에 특별히 우대하는 방식으로 소수인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정책은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측면과 소수인종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미

국 소수인종우대정책이 소수인종의 대학 입학률에 매우 큰 실증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12).

이주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증가하는 것까지는 수용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나 주류가 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의 이유로 반발감이 클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채용 비율 지정이나 대학 입학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일부 행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능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장단점을 고려한 한국형 정책을 마련·활용하여 이주민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6. 이주민의 정책 활용 및 제도 접근성 강화

이주민에게는 보건 및 의료 정책, 교육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정책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나 이주민 대상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한국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의 정책 및 제도 활용 가능 여부 자체가 이주민 내부 집단 사이에서 차별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보니 다른 이주민 집단과의 정책 활용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발견되었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은 경우는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기관 및 센터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적 제

약으로 인해 정착 초기에 오히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센터나 기관을 이용할 때 정책 활용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 관련 센터와 기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 인지와 효과적 사용

최근 미디어의 역할은 여러 방면에서 매우 크다. 한국인 중 일부는 이주민을 가까이에서 접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전혀 마주칠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다수이다. 이런 경우 TV나 영화,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인상이 집단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이 TV나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사실인 점도 있지만,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일부의 이야기나 모습이 전체의 모습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것,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방송과 프로그램 및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주변 한국인을 통해서 많이 형성되지만, 이렇게 직접 사람을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타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감정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이주민권가이드라인」에서도 “인종주의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1)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2)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이행 강화,

3)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과 인식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p. 20). 이러한 권고가 정책에 반영되어 이주민 관련 보도 및 언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곽윤경, 주유선, 우선희. (201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진, 경승구. (2016).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43(1), 165-185.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 국제이주기구. (2011). 이주용어 사전 제2판.
- 김경숙, 유미. (2012). 간호대학생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인식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4(5), 531-539.
- 김문길, 우선희, 곽윤경, 정해식, 이정윤, 김미곤.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석호, 김상욱, 한지은 (2009). Social Distance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한국인구학*, 32(2), 115-140.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 사회*, 14(1), 3-30.
- 김영옥. (201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통합. *다문화사회연구*, 3(2), 123-154.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 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재, 최현미. (2016). 이주민 당사자들이 인식한 선주민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식 경험.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18(4), 143-167.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 205-246.
- 김정훈. (2017).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연구*, 10(2), 89-124.

-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Issue Brief, 아산정책연구원.
- 김진희. (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127-153.
- 김태완, 서재권. (2015).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 부산 강서구 주민의 인식과 태도. 국제정치논총, 55(4), 203-240.
- 김태원, 김유리. (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 323-362.
- 김태원.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9, 179-213.
- 김학태. (2015).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 책 연구: 한국과 EU의 사회 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유럽 헌법 연구, 18, 127-170.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 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51-89.
- 김혜순. (2019). 국내 이민현상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민현상 행위자 간 어긋난 시대성과 대안으로서 이민관점. 다문화사회연구, 12(2), 147-179.
- 김혜순. (2017).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1), 31-55.
- 김혜련, 임채완. (2014).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연구: 상생·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2, 299-330.
- 김혜련. (2014). 한국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조사: 재한 중국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2), 1-23.
- 김희정. (2017). 한국 거주 이주민 출신국에 따른 고정관념의 탐색. 미디어, 젠더 & 문화 32(2), 125-173.
- 남순현. (2012). 한국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49-980.
- 배은주, 장소현. (2020). 외국 이주민에 대한 직·간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

- 성에 미치는 영향: 위협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생명 연구, 55, 51-77.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 변중헌. (2016).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전망과 과제. 윤리교육연구, 41, 253-272.
- 성균관대학교.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3-2018. 서울:성균관대학교.
- 소성규. (2010).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 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연구, 10(2), 477-513.
- 신동훈, 양경은. (2020). 일상 속 이주민의 목격과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6(1), 111-139.
- 양경은, 함승환. (2020). 다문화정책은 이주 아동의 사회통합에 늘 효과적인가?: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고려한 비교사회정책 재분석. 한국 사회정책, 27(2), 71-92.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59-79.
- 양혜승. (2011). 이주민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이용이 한국 사회의 가치(value)에 대한 인식 및 한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6), 181-205.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 여성가족부. (20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제1차(2008~201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제2차(2013~201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우수명, 주경희, 김희주. (2021).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경기: 양서원.
- 유민이. (2019).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 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서울:

IOM이민정책연구원.

- 유숙란. (2010).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0(1), 237-260.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2(2), 72-103.
- 윤인진, 송영호. (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 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춘천, 강원대학교. 2007년 12월 14~15일.
- 윤혜수. (2015).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국가 자긍심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이민학, 6(1), 74-98.
- 이부영, 강운선. (2015).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5(1), 1-19.
- 이성순. (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이용승. (2016).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1), 1-26.
- 이종두, 백미연 (2012).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정책. 국제관계 연구. 17(1). 335-361.
- 이우연. (2021. 10. 4.). 코로나로 이주노동자 줄었는데...임금체불은 3년 새 34%나 늘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675.html#csidxe1ceb25cf01d6988b1fafa6abc60c57)에서 2021.10.15. 인출.
- 이창원. (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13, 1-7.
- 임도경, 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1-29.
- 장이츠,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

- 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보건 사회 연구, 41(1), 22-41.
- 장임숙, 이원일. (2012).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이주 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 연구, 15(4), 177-199.
- 장주영. (2021). 한국인의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1-6.
- 장준영. (2020).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문법 교육, 38, 159-204.
- 전경옥, 김영란, 홍기원, 설진배, 김연화.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실태조사연구.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 전대성, 이주실. (2015).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53(3), 197-218.
- 전영자, 전예화. (2010).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정기선, 이선미, 김석호, 이상림, 박성일. (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 관련 태도 연구, 서울: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장엽, 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 정하나. (2016). 다문화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 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정책, 23(2), 83-112.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준형. (2020. 3. 11.). '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 외국인에 문턱 높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59300502>)에서 2021.10.15. 인출.
- 최영미, 이나련. (2016).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3), 149-166.
- 통계청, 법무부. (2020.12.21.).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고용·보건 및 정보화·한국생활·한국어 능력·체류사항·비전문취업·유학생].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8228>)에서 2021.10.15.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2019).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9. 11. 1. 기준).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홍성수, 김정혜, 노진석, 류민희, 이승현, 이주영, ... 설정은.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황성식, 김두섭. (2020). 교육 수준, 직업 및 지역에 따른 이민자 수용 태도의 편차: 규범의식과 현실위험인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43(2), 1-26.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창호, 정세희. (2019).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37-74.

Ea, E. E., Griffin, M. Q., L'Eplattenier, N., & Fitzpatrick, J. J. (2008). Job satisfaction and acculturation among Filipino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0(1), 46-51.

European Commission. (2018). Special Eurobarometer 469: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from <http://www.europeanmigrationlaw.eu/documents/EuroBarometer-IntegrationOfMigrantsintheEU.pdf>

European Social Survey. (2015). *Round 7 Module on Attitude toward Immigration and their Antecedents-Question Design Final Module in Template*. London: Centre for Comparative Social Survey, City University London.

IOM. (2019). *N°34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

- KOSIS. (2020).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1975049&outLink=Y#content-group>
 에서 2021.10.12. 인출
- Levin, B., & Perry, B. (Eds.). (2009). *Hate Crimes: Understanding and Defining Hate Crime*. Praeger.
- Oh, D. (2012). The Michigan Decision on Affirmative Action and Its Social Impact in the US : Focusing on the Grutter Case & Gratz Case. Chosun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99658#:~:text=%EC%B5%9C%EA%B7%BC%20%EB%AF%B8%EA%B5%AD%20%EC%82%AC%ED%9A%8C%EC%97%90%EC%84%9C%20%EC%86%8C%EC%88%98,%ED%9A%8C%EC%82%AC%20%EB%93%B1%EC%97%90%EC%84%9C%20%EC%8B%9C%ED%96%89%EB%90%98%EA%B3%A0%20%EC%9E%88%EB%8B%A4.>
- Parekh, B.,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Parekh, B., (2007). *Multiculturalism*. In: J. Baggini and J. Strangroom, eds. What more philosophers think, London: Sage.
- Stephan, W. G., &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Oskamp, S.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Mahwah, NJ: Erlbaum, 23-45.
- UNESCO. (1974).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자료> 국제규범.
 (https://unesco.kor.cafe24.com/assets/data/standard/MzpXBFoTdYOMLKGyEj14Sv0MSJlqPx_1218034800_1.pdf)에서 2021.10.29. 인출.
- Wang, X., & Sangalang, P. J. (2005). Work adjus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Filipino immigrant employe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Administration*, 22(3), 243-254.

〈홈페이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에서 2021.5.6. 인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자료)통계>승인통계>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붙임 5. 참고자료(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와의 차이) 에서 2021.6.21. 인출.

Survey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KGSS 설문지 Questionnaires]. (http://kgss.skku.edu/?page_id=41). (Documentation)KGSS 설문지 Questionnaires>한글 >2018A)에서 2021.3.19. 인출.



[부록 1] 부표

〈부표 1〉 배우자와 한국 거주

(단위: %, 명)

구 분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계	(명)
		한국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음	배우자 한국에 있지만, 따로 살고 있음	배우자 있지만, 한국에 살지 않음		
전체	45.8	43.5	2.0	8.7	100.0	(1310)
성별($\chi^2=206.51^{***}$)						
여성	35.4	57.5	2.4	4.7	100.0	(844)
남성	64.6	18.2	1.3	15.9	100.0	(466)
체류기간($\chi^2=169.12^{***}$)						
3년 미만	63.4	25.1	1.4	10.1	100.0	(355)
3년~5년 미만	56.9	32.5	1.5	9.1	100.0	(394)
5년 이상	26.9	62.9	2.7	7.5	100.0	(561)
체류기간($\chi^2=165.39^{***}$)						
5년 미만	59.9	29.0	1.5	9.6	100.0	(749)
5년 이상	26.9	62.9	2.7	7.5	100.0	(561)
체류지역($\chi^2=569.06^{***}$)						
취업	68.3	13.2	0.9	17.7	100.0	(463)
결혼	7.0	88.4	3.8	.8	100.0	(370)
정주	45.6	45.6	2.1	6.8	100.0	(338)
학업 및 기타	74.8	20.1	0.7	4.3	100.0	(139)
출신지역($\chi^2=18.37^*$)						
중국(한국계 포함)	41.8	48.0	2.1	8.0	100.0	(423)
동·서남아시아	43.3	42.9	3.0	10.8	100.0	(434)
중남아시아 동남 아시아	53.0	39.0	0.6	7.3	100.0	(315)
기타	49.3	42.0	1.4	7.2	100.0	(138)
거주지($\chi^2=21.24^{**}$)						
대도시	48.6	42.8	2.0	6.7	100.0	(659)
중소도시	46.2	41.0	1.7	11.1	100.0	(515)
농촌	30.9	56.6	2.9	9.6	100.0	(136)

41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계	(명)
		한국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음	배우자 있지만, 따로 살고 있음	배우자 있지만, 한국에 살지 않음		
거주지 ($\chi^2=10.79^*$)						
수도권	47.6	40.5	1.7	10.2	100.0	(761)
비수도권	43.4	47.7	2.4	6.6	100.0	(549)
연령 ($\chi^2=157.87^{***}$)						
19~29세	71.0	24.7	1.3	2.9	100.0	(373)
30~39세	40.0	49.0	2.2	8.8	100.0	(647)
40세 이상	26.2	55.5	2.4	15.9	100.0	(290)
학력 ($\chi^2=257.77^{***}$)						
고졸 이하	40.3	44.8	2.5	12.4	100.0	(591)
대졸 이상	50.3	42.4	1.5	5.7	100.0	(719)
한글어능력 ($\chi^2=35.29^{***}$)						
못하는 편	57.4	30.6	1.5	10.5	100.0	(324)
보통	42.7	45.5	1.9	10.0	100.0	(422)
잘하는 편	41.5	49.5	2.3	6.7	100.0	(564)
취업 여부 ($\chi^2=44.41^{***}$)						
취업	50.7	37.4	2.2	9.7	100.0	(906)
비취업	34.9	57.2	1.5	6.4	100.0	(404)
차별 경험 ($\chi^2=1.55$)						
없음	45.4	44.5	1.5	8.6	100.0	(595)
있음	46.2	42.7	2.4	8.8	100.0	(715)
한국 국적 ($\chi^2=103.29^{***}$)						
취득	21.5	74.6	2.9	1.0	100.0	(205)
미취득	50.3	37.7	1.8	10.1	100.0	(1,105)

주: 1) * p<0.05, ** p<0.01, *** p<0.001

〈부표 2〉 자녀와 부모·형제·자매의 한국 거주

(단위: %, 명)

구 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명)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자매 있는 비율	(명)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음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전체	55.0	11.6	33.4	(1,310)	74.3	(1,310)
성별						
여성	46.3	8.5	45.1	(844)	72.5	(844)
남성	70.8	17.2	12.0	(466)	77.5	(466)
체류 기간						
3년 미만	76.1	9.6	14.4	(355)	77.2	(355)
3년~5년 미만	69.5	12.4	18.0	(394)	79.4	(394)
5년 이상	31.6	12.3	56.1	(561)	68.8	(561)
체류 기간						
5년 미만	72.6	11.1	16.3	(749)	78.4	(749)
5년 이상	31.6	12.3	56.1	(561)	68.8	(561)
체류자격						
취업	73.0	17.9	9.1	(463)	82.5	(463)
결혼	25.4	7.0	67.6	(370)	77.0	(370)
정주	53.8	10.9	35.2	(338)	55.9	(338)
학업 및 기타	77.0	4.3	18.7	(139)	84.2	(13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5.6	13.9	40.4	(423)	61.5	(423)
동·서남아시아	55.3	12.2	32.5	(434)	81.8	(434)
중앙아시아 몽골 라틴아	64.4	10.5	25.1	(315)	76.5	(315)
기타	61.6	5.1	33.3	(138)	84.8	(138)
거주지						
대도시	59.8	8.8	31.4	(659)	76.3	(659)
중소도시	53.0	12.6	34.4	(515)	70.5	(515)
농촌	39.7	21.3	39.0	(136)	78.7	(136)
거주지						
수도권	57.3	12.0	30.7	(761)	73.2	(761)
비수도권	51.9	11.1	37.0	(549)	75.8	(549)
연령						
19~29세	84.7	1.9	13.4	(373)	75.3	(373)
30~39세	51.6	11.7	36.6	(647)	76.0	(647)
40세 이상	24.5	23.8	51.7	(290)	69.0	(290)

414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명)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자매 있는 비율	(명)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음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학력						
고졸 이하	46.9	18.1	35.0	(591)	72.1	(591)
대졸 이상	61.8	6.3	32.0	(719)	76.1	(71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63.9	12.7	23.5	(324)	78.1	(324)
보통	56.4	11.1	32.5	(422)	76.3	(422)
잘하는 편	48.9	11.3	39.7	(564)	70.6	(564)
취업 여부						
취업	57.3	12.9	29.8	(906)	75.4	(906)
비취업	50.0	8.7	41.3	(404)	71.8	(404)
차별 경험						
없음	54.8	11.3	33.9	(595)	75.3	(595)
있음	55.2	11.9	32.9	(715)	73.4	(715)
한국 국적						
취득	22.0	11.2	66.8	(205)	66.8	(205)
미취득	61.2	11.7	27.1	(1,105)	75.7	(1,105)

주: 1) * p<0.05, ** p<0.01, *** p<0.001

416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Screening Questions	
* 만 19세 이상 조사 응답 가능 (2002년 이전 출생자 응답 가능)	
<p>SQ1) 귀하가 거주나 취업, 학업 등을 위해 한국에 처음 입국한 것은 언제입니까? (*출장, 여행, 친인척 방문 등을 위해 단기간(90일 이하) 입국한 경우는 조사 제외) _____년 _____월</p>	
<p>SQ2) [QUOTA]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년 미만 ② 3년-5년 미만 ③ 5년 이상</p>	
<p>SQ3) [QUOTA] 귀하의 현재 국적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의 숫자를 아래의 빈칸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① 귀화하여 한국 국적 취득 (귀화 전 국적명: _____) ② 외국 국적 (국적명: _____) 【 => 처음부터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 조사 종료】</p>	
구분	[보기]
중국(한국계 포함)	① 중국(한국계 포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② 베트남
	③ 필리핀
	④ 캄보디아
	⑤ 인도네시아
	⑥ 타이(태국)
	⑦ 미얀마
	⑧ 말레이시아
	⑨ 동티모르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⑩ 라오스
	⑪ 네팔
	⑫ 스리랑카
	⑬ 방글라데시
	⑭ 파키스탄
	⑮ 인도
	⑯ 우즈베키스탄
	⑰ 카자흐스탄
⑱ 키르기즈	
기타	⑲ 몽골
	⑳ 러시아(한국계 포함)
	㉑ 미국
	㉒ 일본
	㉓ 타이완(대만)
	㉔ 영국
	㉕ 캐나다
	㉖ 프랑스
㉗ 독일	
㉘ 오스트레일리아	
㉙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p>SQ4) [QUOTA] 귀하의 현재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p>	
구분	[보기]
취업	① E-9 (비전문취업) ② H-2 (방문취업) ③ E-1-E-7 (전문인력)
결혼	④ F-2-1, F-5-2, F-6(F-6-1-F6-3) (결혼이민)
정주	⑤ F-4 (재외동포) ⑥ F-5 (영주) ⑦ F-2 (거주)(F-2-1은 제외) ⑧ 한국 국적 취득 (직전 체류 자격: _____)
학업 및 기타	⑨ D-2(D-2-1-D-2-8), D-4(D-4-1, D-4-7) (유학생) ⑩ F-1 (방문통거), F-3 (통반) ⑪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⑫ 모름

1. 다양성

* '한국 사람'은 귀하가 아는 '가장 훌륭한 한국 사람'이나 '가장 못 된 한국 사람'이 아닌 '보통 한국인'을 염두에 두고 응답해 주세요.

A1) 귀하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성차원 (문화개방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개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A2) 귀하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성차원 (국민정체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A3) 귀하는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성차원 (고정관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18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2. 관계성

B1) 다음은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B1-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어떠한지 바란다고 느끼십니까?

관계성차원 (일반적 동화기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나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B1-2) 귀하는 다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성차원 (일반적 동화기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나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B2) 귀하는 한국인이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성차원 (거부·회피 정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하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B3) 귀하는 한국인이 이주민과 다음과 같이 교류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성차원 (상호교류 행동의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20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C7) 귀하는 한국인이 다음의 이주민 집단에 대해 각각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수용적이지 않다	별로 수용적이지 않다	약간 수용적이다	매우 수용적이다	모르겠다
1.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2. 결혼이주여성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①	②	③	④	⑤
4. 유학생	①	②	③	④	⑤
5. 동포	①	②	③	④	⑤
6. 난민	①	②	③	④	⑤

C8) 귀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한국인 이웃
- ② 한국인 직장·학교 동료나 친구
- ③ 외국인 이용 센터(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만나는 한국인
- ④ 관공서(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만나는 한국인
- ⑤ 외국인을 돕는 민간 단체
- ⑥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
- ⑦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정책
- ⑧ 외국인 친구나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
- ⑨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C9) 귀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①	②	③	④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①	②	③	④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①	②	③	④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①	②	③	④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①	②	③	④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①	②	③	④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9.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①	②	③	④

C10) 귀하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 ② 있음 →

C10-1) [C10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사회통합이나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 ② 별로 없음
- ③ 약간 있음
- ④ 매우 많음

C10-2) [C10의 ② 응답자만]

사회통합이나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귀하의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 됨
- ④ 매우 도움 됨

C11) 귀하는 한국 정책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약간 관심 많다	매우 관심 많다	모르겠다
1.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2. 다문화가족	①	②	③	④	⑤

C12) 귀하는 한국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 ③ 약간 노력한다
- ④ 매우 노력한다

C13) 귀하는 한국에서 정책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C13-1) 귀하는 '일자리 정책'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2)로 이동
- ② 있음 → C13-1-1)로 이동

C13-1-1) [C13-1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일자리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2)로 이동
- ② 있음 → C13-1-1-1)로 이동

C13-1-1-1) [C13-1-1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일자리 정책'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 됨
- ④ 매우 도움 됨

C13-2) 귀하는 '주거 정책'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3)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2-1)로 이동

C13-2-1) [C13-2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주거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3)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2-1-1)로 이동

C13-2-1-1) [C13-2-1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주거 정책'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 됨
- ④ 매우 도움 됨

42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C13-3) 귀하는 '교육 정책'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4)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3-1)로 이동

C13-3-1) [C13-3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교육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4)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3-1-1)로 이동

C13-3-1-1) [C13-3-1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교육 정책'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 됨
- ④ 매우 도움 됨

C13-4) 귀하는 '보건/의료 정책'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5)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4-1)로 이동

C13-4-1) [C13-4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C13-5)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4-1-1)로 이동

C13-4-1-1) [C13-4-1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보건/의료 정책'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 됨
- ④ 매우 도움 됨

C13-5) 귀하는 '자녀 양육 정책'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D1)분항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5-1)로 이동

C13-5-1) [C13-5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자녀 양육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D1)분항으로 이동
- ② 있음 → C13-5-1-1)로 이동

C13-5-1-1) [C13-5-1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자녀 양육 정책'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 됨
- ④ 매우 도움 됨

4. 위협 의식 및 차별 경험

D1) 귀하는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위협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한국 사람은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로 인해 한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D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
- ② 한 번 →
- ③ 몇 번 →
-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
- ⑤ 한 달에 몇 번 정도 →
- ⑥ 일주일에 한 번 이상 →

D2-1) [D2의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만]

귀하가 한국인에게 차별을 받은 경험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길거리나 대중교통
- ②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목욕탕 등 대중 이용 시설
- ③ 교육기관이나 학교
- ④ 외국인 이용 센터(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⑤ 관공서(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 법원, 주민센터 등)
- ⑥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 ⑦ 일하는 곳
- ⑧ 개인적인 모임
- ⑨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D2-2) [D2의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만]

귀하가 차별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출신 국가
- ② 한국어 능력
- ③ 피부색이나 외모
- ④ 경제력
- ⑤ 일하는 능력
- ⑥ 종교
- ⑦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5. 가족 및 주변 관계	
E1) 귀하는 현재 배우자(사실혼, 동거 포함)가 있습니까?	
① 배우자 없음	→ E2)로 이동
② 배우자 있음	→ E1-1)로 이동
E1-1) [E1의 ② 응답자만]	
귀하의 배우자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①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② 한국에서 따로 살고 있음	
③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음	
E1-2) [E1의 ② 응답자만]	
귀하의 배우자 국적은 무엇입니까?	
①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	
② 귀화하여 한국 국적 취득	
③ 외국 국적(국가명: _____)	
E2)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음	→ E3)으로 이동
② 있음 (몇 명: _____)	→ E2-1)로 이동
E2-1) [E2의 ②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 중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양육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음	→ E3)으로 이동
② 있음 (몇 명: _____)	→ E2-1-1)로 이동
E2-1-1) [E2-1의 ② 응답자만]	
한국에 같이 사는 귀하의 자녀는 중 미취학 연령(-만7세)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음	→ E2-2-1)로 이동
② 있음 (몇 명: _____)	→ E2-1-1-1)로 이동
E2-1-1-1) [E2-1-1의 ② 응답자만]	
그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음	→ E2-2-1)로 이동
② 있음 (몇 명: _____)	→ E2-1-1-1-1)로 이동
E2-1-1-1-1) [E2-1-1-1의 ② 응답자만]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기관의 다른 한국인 부모들과 얼마나 교류(모임으로 만나거나 전화, 문자, 채팅 등)하십니까?	
①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3회	
④ 일주일에 1-2회	
⑤ 일주일에 3회 이상	

E2-2-1) [E2-1의 ② 응답자만]

한국에 같이 사는 귀하의 자녀는 중 취학 연령(초중고등학생 연령)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없음 → E3으로 이동
 ② 있음 (몇 명: _____) → E2-2-1-1)로 이동

E2-2-1-1) [E2-2-1의 ② 응답자만]

그 자녀 중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없음 → E3으로 이동
 ② 있음 (몇 명: _____) → E2-2-1-1-1)으로 이동

E2-2-1-1-1) [E2-2-1-1의 ② 응답자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다른 한국인 부모들과 얼마나 교류(모임으로 만나거나 전화, 문자, 채팅 등)하십니까?

- ①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3회
 ④ 일주일에 1-2회
 ⑤ 일주일에 3회 이상

E3) 귀하의 부모와 형제, 자매 중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몇 명: _____)

지금부터는 귀하와 가까이 지내는 주변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E4) 가족을 제외하고, 귀하는 요즘 한국 사람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십니까?

- ①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3회
 ④ 일주일에 1-2회
 ⑤ 일주일에 3-7회
 ⑥ 하루에도 여러 번

E5) 가족을 제외하고, 귀하는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다른 언어(모국어나 영어 등)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언어(모국어나 영어 등)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는 조금 사용한다
 ③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모국어나 영어 등)는 조금 사용한다
 ④ 한국어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모국어나 영어 등)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E6) 가족을 제외하고, 귀하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한국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 있습니까?

- ① 없음 → E7)로 이동
 ② 1-2명 → E6-1)로 이동
 ③ 3-4명 → E6-1)로 이동
 ④ 5-9명 → E6-1)로 이동
 ⑤ 10명 이상 → E6-1)로 이동

426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E6-1) [E6의 ②,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친구
- ② 직장 상사나 동료
- ③ 이웃
- ④ 이주민 이용 센터(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계자
- ⑤ 이주민을 돕는 민간기관 및 단체 관계자
- ⑥ 주민센터 등 관공서 관계자
-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E7) 귀하는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웃, 친구, 동료 등)과 도움을 주고받습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② 내가 주변 한국 사람들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
- ③ 주변 한국 사람들이 나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
- ④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E8) 귀하는 한국 친구, 또는 한국 사람이 중심(한국인이 절반 이상)인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친구 모임, 친목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포함)

- ①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회 미만
- ③ 한 달에 1-3회
- ④ 일주일에 1-2회
- ⑤ 일주일에 3회 이상

E9) 귀하는 같은 국가 출신 친구, 또는 이주민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 ①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회 미만
- ③ 한 달에 1-3회
- ④ 일주일에 1-2회
- ⑤ 일주일에 3회 이상

E10) 귀하는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주민을 위한 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회 미만
- ③ 한 달에 1-3회
- ④ 일주일에 1-2회
- ⑤ 일주일에 3회 이상

E11) 귀하는 주변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③ 약간 만족한다
- ④ 매우 만족한다

6. 한국 생활 만족

F1) 귀하는 현재 한국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③ 약간 만족한다
- ④ 매우 만족한다

F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이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살기 나쁘다
- ② 대체로 살기 나쁘다
- ③ 대체로 살기 좋다
- ④ 매우 살기 좋다

F3) 귀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F3-1)로 이동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F3-1)로 이동
- ③ 약간 그렇다 → F3-2)로 이동
- ④ 매우 그렇다 → F3-2)로 이동

F3-1) [F3의 ①, ② 응답자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 ②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
- ③ 외국인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 ④ 물가가 비싸서
- ⑤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서
- ⑥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나빠서
- ⑦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F3-2) [F3의 ③, ④ 응답자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 ②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어서
- ③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쉽기 때문에
- ④ 물가가 싸서
- ⑤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 ⑥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좋아서
- ⑦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F4) 귀하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428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F5) [SQ4의 ⑥ (한국 국적 취득) 응답자 제외]

귀하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F6) 귀하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떠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 ② 약간 나빠질 것이다
- ③ 약간 좋아질 것이다
- ④ 매우 좋아질 것이다

7. 경제활동

G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① 예 → **G3)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G2)로 이동**

G2)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① 예, 있었음 → **G3)으로 이동**
- ② 아니오, 없었음 → **H1 분항으로 이동**

일하는 사람만 응답 [G1의 ① OR G2의 ① 응답자만]

일자리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주 수입원이 되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G3) 귀하가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장노동자 ② 건설노동자 ③ 어업종사자 ④ 음식점 종업원 ⑤ 간병인
- ⑥ 가사 관련 단순 노동자(가정부, 파출부, 보육사 등) ⑦ 기타 단순노동자(모델청소 등 육체노동종사자)
- ⑧ 기타 서비스 종사자(관광가이드 등) ⑨ 판매종사자(가게운영,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⑩ 준전문직 종사자(학원 강사, 유치원/학교 교사 등) ⑪ 사무종사자(일반 행정사무 등)
- ⑫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약사, 간호사, 엔지니어, 통번역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⑬ 임직원 및 관리자(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임원 등) ⑭ 농축산업 종사자 ⑮ 기타 (적어주세요:_____)

G4) 귀하가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 ① 4명 이하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명 이상

G5) 귀하가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중 외국인 또는 귀화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80% 이상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30% 이상 - 50% 미만 ④ 10% 이상 - 30% 미만
- ⑤ 10% 미만 ⑥ 함께 일하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 없음 ⑦ 모르겠음

G6) 귀하가 일하는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상용 근로자 ② 임시 근로자 ③ 일용 근로자 ④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⑥ 모름

* 상용 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경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 자영업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G7) 귀하의 최근 3개월 동안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1개월 평균(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1개월 평균(월평균) : _____ 원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8. 일반사항

H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H2)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H3)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H4)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동'과 '읍/면'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동 ② 읍/면

H5) 귀하의 현재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최종학력’ 및 ‘수학여부’, ‘최종학위(졸업장) 취득 국가’ 각각 응답 부탁드립니다.)

최종학력	수학여부	최종학위(졸업장) 취득 국가
(응답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 교육 과정 또는 동등한 자격 기관의 졸업기준으로 학력 판정) (예: 응답자 국가에서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로 기입)		(현재 한국에서 박사 과정 재학 중인 경우 석사 취득 국가, 고등학교 중퇴자인 경우 중학교 졸업장 취득 국가)
① 안받았음(무학) ① 초등학교(6년) ② 중학교(3년) ③ 고등학교(3년) ④ 전문대(초급대, 2년·3년제 대학 포함) ⑤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 포함) ⑥ 대학원(석사) ⑦ 대학원(박사)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⑤ 수료	① 한국 ② 본국 ③ 한국이나 본국이 아닌 제3국

430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H6) 귀하는 한국계입니까?

- ① 예, 한국계입니다
- ② 아니오, 한국계가 아닙니다

H7)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못함
- ② 약간 못하는 편
- ③ 보통
- ④ 약간 잘하는 편
- ⑤ 매우 잘함

H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개신교
- ② 천주교
- ③ 이슬람교
- ④ 힌두교
- ⑤ 유교와 중국전통종교
- ⑥ 불교
- ⑦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⑧ 없음

H9) 귀하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 ② 결혼
- ③ 동반
- ④ 학업
-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H10) 출장, 여행, 친인척 방문 등 90일 이하 단기 입국을 제외하고, 귀하가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체류자격은 현재 체류자격과 같았습니까?

- ① 예, 같았습니다 →
- ② 아니오, 달랐습니다 →

H10-1) [H10의 ② 응답자만]

달랐다면, 그 때 체류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1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보기]
취업	① E-9 (비전문취업) ② H-2 (방문취업) ③ E-1-E-7 (전문인력)
결혼	④ F-2-1, F-5-2, F-6(F-6-1-F6-3) (결혼이민)
정주	⑤ F-4 (재외동포) ⑥ F-5 (영주) ⑦ F-2 (거주)(F-2-1은 제외) ⑧ 한국 국적 취득 (직전 체류 자격: _____)
학업 및 기타	⑨ D-2(D-2-1-D-2-8), D-4(D-4-1, D-4-7) (유학생) ⑩ F-1 (방문통거), F-3 (동반) ⑪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⑫ 모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3]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조사표 언어별 샘플

3-1. 영어(샘플)

Survey on Migrants' Perception of the Receptivity of Korean Society					
<p>Hello.</p> <p>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is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survey by KIHASA is intended to find out about how receptive Korean society is to migrants and produc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formulate government policies. The survey respondents are migrants and the expected time for completing the survey is about 30 minutes. Your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ill be used as valuable data to formulate policies for migrants in Korea.</p> <p>All your responses and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encoded and kept strictly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Protection of Secrets) and Article 34 (Duty of Statistics Staff, etc.) of the Statistics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ata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statistics and sha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We'd like to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u>correct and honest responses</u> so that this survey can be used as valuable data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p> <p>If you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you may refuse to participate or stop answering questions at any time without any risk or penalty. If you agree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is survey and to provision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please give your consent in the box below. We will provide a small gift as a token of our appreciation for those who complete this survey. If you take some time to answer the survey, your participation will be appreciated.</p> <p>Thank you.</p> <p style="text-align: right;">August-September, 2021 Lee, Tae Soo, President of KIHASA</p> <p style="text-align: center;">Head of Research: Byoun, Soo Jung,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p>					
Embrain Public Co., Ltd. CEO: Lee, Byeong Il Researcher in charge: Vice Chief Ryu, Ho Tack Tel: 02-3406-3857					
[Consent for Survey Particip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p>[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items] Respondents' general information (gender, age, area, etc.)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Korean society, economic matters, individual and family matters, policy needs</p> <p>[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To find out about migrants' perception of the receptivity of Korean socie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policy desire, etc. for formulating and sup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p> <p>[Period of hol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for the period required to achiev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specified above. But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held even after the purpose has been accomplished if hol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by other laws, etc.</p> <p> <input type="checkbox"/> I understand that I may refuse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at any time if I want to and that there will be no penalty if I refuse to participate. <input type="checkbox"/> I understand that I can ask KIHASA to access, correct, delete or stop processing my personal information at any time. <input type="checkbox"/> I understand the foregoing and wish to participate as a respondent in the 'Survey on Migrants' Perception of the Receptivity of Korean Society' and consent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Consent <input type="checkbox"/> Non-consent </p> <p style="text-align: center;"> (month) / (date) / 2021 Respondent : _____ </p>					

3-2. 중국어(샘플)

移住民对韩国社会可接受性的认知调查							
<p>您好!</p> <p>韩国保健社会研究院是国务总理属下的国家政策研究机构。本次问卷调查,旨在了解当前在韩移住民对韩国社会可接受性的认知程度,进而用作政府制定相关政策时所需的基础资料。该问卷调查面向移住民进行,所需时间约为30分钟。您回答的内容将会成为制定韩国移住民相关政策的重要依据。</p> <p>根据《统计法》第33条(保密)及34条(统计从业者等的义务)和《个人信息保护法》,个人信息将被编码化,您回答的内容将被严格保密。本资料仅用于统计,不会用于其他用途。衷心希望您积极参与本次问卷调查,并认真、如实地回答问卷调查各项内容,使之成为制定并推进政府政策的重要依据。</p> <p>您可以随时拒绝参与该问卷调查,在参与过程中也可以随时终止。拒绝或终止参与该问卷调查,不会给您带来任何危险或不利影响。若您愿意自主参与并同意提供个人信息,烦请签阅如下同意书。完成所有问卷内容时可获赠特定礼品,非常希望您百忙之中抽出宝贵时间参与该问卷调查。谢谢!</p> <p style="text-align: right;">2021年 8月~9月</p> <p style="text-align: right;">韩国保健社会研究院 院长 李兑洙 研究负责人: 人口政策研究室研究员 边秀晶</p>							
						(株) EMBRAIN PUBLIC 代表 李炳日 研究负责人 柳浩洋次长 电话) 02-3406-3857	
《移住民对韩国社会可接受性的认知调查》参与及提供个人信息同意书							
<p>[个人信息收集项目] 参与人一般信息(性别、年龄、地区等),对韩国社会的认知及态度,经济相关事项,个人及家属相关事项,政策相关诉求等。</p> <p>[个人信息收集·利用目的] 掌握移住民对韩国社会可接受性的认知程度、受歧视经历、政策相关诉求等,使之成为制定及完善政府政策所用。</p> <p>[个人信息保留及利用期间] 个人信息的保留及利用期间仅限于达成上述『个人信息收集·利用目的』所需期间。但,根据其他法令等有必要继续保存时,即使已完成收集及利用目的,也有可能继续保存个人信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人已了解到不愿意时可随时拒绝参与该问卷调查,即使拒绝也不会受到任何不利影响。 ■ 本人已了解到可随时向韩国保健社会研究院提出自己的个人信息阅览、修改、删除、停止处理等的要求。 ■ 本人已了解上述内容,并同意参与《移住民对韩国社会可接受性的认知调查》及提供个人信息。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同意 <input type="checkbox"/> 不同意 </p> <p style="text-align: center;"> 2021年 月 日 问卷调查参与人: _____ </p>							

3-3. 베트남어(샘플)

CUỘC KHẢO SÁT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NHẬP CƯ ĐỐI VỚI KHẢ NĂNG CHẤP NHẬN XÃ HỘI HÀN QUỐC							
<p>Xin chào các bạn !</p> <p>Viện nghiên cứu y tế xã hội Hàn Quốc là một cơ quan nghiên cứu chính sách quốc gia trực thuộc Thủ tướng chính phủ, đã tiến hành cuộc khảo sát này để xác định mức độ chấp nhận xã hội Hàn Quốc của những người nhập cư hiện đang sinh sống ở Hàn Quốc và cung cấp các dữ liệu cơ bản để thiết lập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 Cuộc khảo sát này được thực hiện với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nhập cư và dự kiến kéo dài khoảng 30 phút. Các câu trả lời của bạn sẽ được sử dụng làm dữ liệu quý báu để thiết lập các chính sách cho người nhập cư vào Hàn Quốc trong tương lai.</p> <p>Tất cả các thông tin mà bạn đã cung cấp được bảo mật nghiêm ngặt và được mã hóa theo 「Luật thống kê」 Điều 33 (bảo vệ bí mật), Điều 34 (nghĩa vụ của người làm thống kê) và Luật bảo vệ thông tin cá nhân. Ngoài ra, thông tin này không được sử dụng cho bất kỳ mục đích nào khác ngoài mục đích tính toán thống kê. Rất mong các bạn tích cực tham gia cuộc khảo sát này, trả lời chính xác và trung thực để chúng tôi có thể sử dụng làm tư liệu quý báu cho việc thiết lập và thực đẩy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p> <p>Nếu bạn không muốn, bạn có thể từ chối tham gia khảo sát bất cứ lúc nào hoặc có thể dừng tham gia khảo sát trong khi đang trả lời. Không có bất kỳ rủi ro, hoặc bất lợi nào cho bạn khi tham gia khảo sát, từ chối hoặc dừng lại trong quá trình tham gia khảo sát. Nếu bạn đồng ý tự nguyện tham gia cuộc khảo sát và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cho cuộc khảo sát này, chúng tôi mong sự đồng ý của bạn dưới đây. Ngoài ra, chúng tôi sẽ tặng một món quà nhỏ để tỏ lòng biết ơn của chúng tôi đối với các bạn đã tham gia cuộc khảo sát này, mong các bạn bỏ chút thời gian để hợp tác với chúng tôi.</p> <p>Xin cảm ơn.</p> <p style="text-align: right;">Tháng 8- tháng 9 năm 2021 Viện trưởng Viện nghiên cứu y tế và xã hội Hàn Quốc: Lee Tae-soo Người phụ trách nghiên cứu: Nghiên cứu viên Byoung Soo-jung, phòng nghiên cứu chính sách dân số</p> <p style="text-align: right;">Giám đốc Công ty Mbrain Public : Lee Byeong-il Trưởng phòng: Phụ trách nghiên cứu : Ryu Ho-taek Điện thoại 02-3406-3857</p>							
<p>[Tham gia khảo sát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nhập cư về sự chấp nhận của xã hội Hàn Quốc và bản đồng ý thông tin cá nhân]</p> <p>[Mục thu thập thông tin cá nhân] Nội dung chung của người trả lời (giới tính, độ tuổi, khu vực), nhận thức và thái độ về xã hội Hàn Quốc, các vấn đề kinh tế, cá nhân và gia đình, nhu cầu chính sách</p> <p>[Mục đích thu thập thông tin cá nhân] Thiết lập và bổ sung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 bằng cách nắm bắt các yêu cầu chính sách, trải nghiệm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nhập cư đối với khả năng chấp nhận xã hội Hàn Quốc</p> <p>[Thời gian lưu giữ và sử dụng thông tin cá nhân] Thông tin chỉ được lưu giữ và sử dụng trong khoảng thời gian cần thiết để đạt được 「mục đích thu thập và sử dụng thông tin cá nhân」 ở trên. Tuy nhiên, ngay cả khi đã đạt được mục đích thu thập và sử dụng thông tin cá nhân thì vẫn có thể lưu giữ theo các quy định và điều luật khác nếu thấy việc lưu giữ là cần thiế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ản thân bạn đã hiểu, có thể từ chối tham gia cuộc khảo sát bất cứ lúc nào nếu bạn không muốn, và cho dù bạn từ chối thì cũng không nhận bất kỳ sự bất lợi nào. ■ Bản thân bạn đã hiểu, có thể đưa ra các yêu cầu như truy cập, chỉnh sửa, xóa, dừng xử lý thông tin cá nhân của bạn với Viện nghiên cứu Y tế xã hội Hàn Quốc bất kỳ lúc nào. ■ Bản thân bạn đã hiểu những điều trên và đồng ý về việc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khi tham gia với tư cách là đối tượng điều tra của 「Khảo sát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nhập cư đối với việc chấp nhận của xã hội Hàn Quốc.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Đồng ý <input type="checkbox"/> Không đồng ý</p> <p style="text-align: center;">Ngày tháng năm 2021 Đối tượng điều tra : _____</p>							

3-4. 필리핀어(샘플)

Pagsisiyasat sa Pananaw ng mga Imigrante Ukol sa Antas ng Pangtanggap sa Lipunang Koreano

Magandang araw po!

A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 KIHASA', isang pambansang institusyon ng pananaliksik ng patakaran sa ilalim ng Punong Ministro, ay nagsasagawa ng survey na ito upang alamin ang antas ng pagtanggap sa lipunang Koreano ng mga imigranteng kasalukuyang naninirahan dito sa Korea, at upang makabuo ng pangunahing datos para sa pagtaguyod ng mga naunang na patakaran ng gobyerno. Ang survey na ito ay isinasagawa para sa mga imigrante at inaasahang tatagal ng halos 30 minuto. Ang inyong mga tugon ay gagamitin bilang mahalagang data upang maitaguyod ang mga patakaran para sa mga imigrante sa Korea sa hinaharap.

Ang lahat ng nilalaman ng inyong sasabihin ay naka-encode alinsunod sa Artikulo 33 (Proteksyon ng mga Lihim) at Artikulo 34 (Mga Tungkulin ng Manggagawa sa Istatistika, atbp.) at ng Batas sa Proteksyon ng Personal na Impormasyon ng 'Batas sa Istatistika', kaya maaasahang protektado ito. Bilang karagdagan, ang data na ito ay gagamitin lamang para sa layuning pagkalkula ng istatistika at hindi gagamitin para sa anumang ibang layunin. **Hinihiling namin ang iyong aktibong pakikilahok at tumpak at matapat na mga tugon upang ang survey na ito ay maaaring magamit bilang mahalagang data para sa pagtaguyod at pagpapatupad ng mga patakaran ng gobyerno.**

Kung hindi nais, maaaring tumanggi sa paglahok sa survey anumang oras, at maaari rin na huminto sa paglahok habang tumutugon. Walang peligro o kawalan na magaganap sa pagtanggap o paghinto sa pakikilahok sa survey. Kung sang-ayon sa paglahok sa survey na ito at magbigay ng mga impormasyon ay mangyaring sumang-ayon sa pahintulot sa ibaba. Bilang karagdagan, kayo ay malakatangang ng munting regalo bilang pasasalamat sa pagpapahalaga sa inyong pagtugon sa survey. Marunong salamat po.

Agosto ~ Setyembre 202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irector LEE TAE-SOO

Tagapamahala ng Pagsisiyasat: Laboratoryo sa Patakaran ng Populasyon, Researcher Board Member BYOUN SOO-JUNG

Embrain Public, CEO LEE BYUNG-IL
Researcher In-Charge RYU HOTAEK Tel.# 02-3406-3857

[Paglahok sa Pagsisiyasat sa Pananaw ng mga Imigrante Ukol sa Antas ng Pangtanggap sa Lipunang Koreano at Pahintulot para sa Personal na Impormasyon]

[Mga Kokolektahing Personal na Impormasyon]

Karaniwang impormasyon(kasarian, edad, lugar, atbp.) ng tagapagsagot, pananaw at saloobin ukol sa lipunan ng Korea, impormasyon ukol sa pinansiyal, impormasyon ukol sa sarili at sa pamilya, pangangailangan sa patakaran

[Layunin ng Pagkolekta ng Personal na Impormasyon]

Upang alamin ang mga pangangailangan ukol sa patakaran, alamin ang pananaw ng mga imigrante ukol sa antas ng pagtanggap ng lipunang Koreano, mga diskriminasyon na karanasan, at iba pa para itaguyod at paunlarin ang mga patakaran ng pamahalaan

[Panaon ng Pagpapanatili at Paggamit ng Personal na Impormasyon]

Mananatili at gagamitin lamang sa panaon na kinakailangan upang makamit ang nasa itaas na 'Layunin ng pagkolekta at paggamit ng personal na impormasyon'. Gayunpaman, kahit na nakamit ang layunin, maaaring iimbak ang personal na impormasyon kung kinakailangan na panatilihin ito alinsunod sa ibang mga batas at regulasyon.

- Naunawaan ko na maari akong tumanggi sa paglahok sa pagsisiyasat anumang oras kung hindi ko nais, at walang anumang parusa sa pagtanggap humahok.
- Naunawaan ko na maari akong humiling 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 basahin, wastuhin, tanggalin, o ihinto ang pagproseso ng aking personal na impormasyon anumang oras.
- Naunawaan ko ang nasa itaas, at sumasang-ayon sa pagbigay ng aking personal na impormasyon sa pamamagitan ng paglahok sa 'Pagsisiyasat sa Pananaw ng mga Imigrante Ukol sa Antas ng Pangtanggap sa Lipunang Koreano'.

Sumasang-ayon Hindi sumasang-ayon

Taon 2021 buwan _____ ika-_____ Lumalahok : _____

3-5. 캄보디아어(샘플)

ការស្ទង់មតិស្តីពីការយល់ឃើញរបស់ជនអន្តោប្រវេសន៍លើការទទួលយកសង្គមកូរ៉េ	
រាជធានីភ្នំពេញ	
<p>វិទ្យាស្ថានសុខភាពនិងសង្គមកិច្ចការពារស្តីពីការវិវឌ្ឍន៍សង្គមស្រាវជ្រាវគោលនយោបាយជាតិក្រោមការដឹកនាំរបស់នាយករដ្ឋមន្ត្រីកូរ៉េហើយ យើងបានធ្វើការស្ទង់មតិលើការយល់ឃើញអំពីការទទួលយកសង្គមកូរ៉េដោយជនអន្តោប្រវេសន៍ ដែលបច្ចុប្បន្នកំពុងរស់នៅប្រទេសកូរ៉េ និងធ្វើប្រតិបត្តិការងារសម្រាប់បង្កើតគោលនយោបាយ។ ការស្ទង់មតិ ទាំងនេះត្រូវបានធ្វើឡើងសម្រាប់ជនចំណាកស្រុកហើយត្រូវបានចាត់ទុកជាពេលវេលាប្រហែល 30 នាទី។ ការឆ្លើយតបរបស់ លោកអ្នកនឹងត្រូវបានប្រើជាទិន្នន័យសម្រាប់បង្កើតគោលនយោបាយស្តីពីជនអន្តោប្រវេសន៍នៅក្នុងរដ្ឋ ពេលអនាគត។ 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របស់លោកអ្នកត្រូវបានគោរពរក្សាទុកដោយសម្ងាត់បំផុត។ លើសពីនេះទៀត ទិន្នន័យទាំងនេះ មិនអាចត្រូវបានប្រើសម្រាប់គោលបំណងណាមួយនោះឡើយ។</p> <p>យើងស្នើសុំការចូលរួមយ៉ាងសកម្មរបស់អ្នកនិងការឆ្លើយតបត្រឹមត្រូវនិងស្មោះត្រង់ដើម្បីឱ្យការស្ទង់មតិទាំងនេះអាចត្រូវបានប្រើជាទិន្នន័យសម្រាប់បង្កើតនិងអនុវត្តគោលនយោបាយរបស់រដ្ឋាភិបាល។</p> <p>ប្រសិនបើអ្នកមិនចង់ ឬមិនអាចបំពេញប្រតិបត្តិការស្ទង់មតិបានទេ យើងស្នើសុំអោយអ្នកបញ្ជូនការស្ទង់មតិទៅលើទូរស័ព្ទរបស់យើង ឬអ្នកអាចបំពេញប្រតិបត្តិការស្ទង់មតិបាននៅពេលអ្នកកំពុងឆ្លើយតបកំឡុងពេល ក្នុងការពិធីការសម្រាប់ការស្ទង់មតិ ឬការយល់ចូលរួមក្នុងការស្ទង់មតិ មិនអាចព្រមព្រៀងបានឡើយ។ ប្រសិនបើអ្នកយល់ព្រមចំពោះការចូលរួមដោយស្ម័គ្រចិត្តទៅក្នុងការស្ទង់មតិទាំងនេះ នឹងការផ្តល់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 យើងសុំអោយលំអិតអំពីអ្នកនៅខាងក្រោម។ លើសពីនេះយើងស្នើសុំ អំពោយតូចមួយជាមួយនៃការកាត់សំរេចចំពោះអ្នកដែលបានឆ្លើយតបទៅនឹងការស្ទង់មតិទាំងនេះ។ សូមអរគុណ។</p> <p style="text-align: right;">ថ្ងៃសីហា - កញ្ញា ឆ្នាំ2021 Lee Tae-Soo, ប្រធានវិទ្យាស្ថានសុខភាពនិងសង្គមស្រាវជ្រាវនិងសុខភាពនិងសង្គម ជាយកស្រាវជ្រាវ: Byoun, Soo-Jung, អនុប្រធាននៃការស្ទង់មតិគោលនយោបាយប្រជាជន Lee Byeong-II, ជាយកប្រតិបត្តិក្រុមហ៊ុនអេមប្រេនដ្យូក អនុប្រធាននៃការស្ទង់មតិ: Ryu Ho-Tack, អនុប្រធាននៃការស្ទង់មតិ +82-2-3406-3857</p>	
[ទម្រង់យល់ព្រមសម្រាប់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 និងការចូលរួមក្នុងការស្ទង់មតិស្តីពីការយល់ឃើញរបស់ជនអន្តោប្រវេសន៍លើការទទួលយកសង្គមកូរ៉េ]	
[ធាតុប្រមូល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	
ព័ត៌មានទូទៅរបស់អ្នកឆ្លើយតប (ភេទ អាយុ កំរិតសិក្សា) ការយល់ឃើញនិងអាកប្បកិរិយាចំពោះការសង្គមកូរ៉េ បញ្ហា សេដ្ឋកិច្ច បញ្ហាផ្ទាល់ខ្លួននិងគ្រួសារ និងការប្រើប្រាស់គោលនយោបាយ	
[គោលបំណងនៃការប្រមូល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	
ធ្វើឱ្យបង្កើតនិងបំពេញប្រតិបត្តិការគោលនយោបាយរបស់រដ្ឋាភិបាលដោយកែលម្អការយល់ឃើញរបស់ជនអន្តោប្រវេសន៍ចំពោះការទទួលយករបស់សង្គមកូរ៉េ បទពិសោធន៍នៃការរស់នៅ និងការប្រើប្រាស់គោលនយោបាយ	
[រយៈពេលនៃការរក្សាទុកនិងការប្រើប្រាស់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	
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ត្រូវបានរក្សាទុកសម្រាប់រយៈពេលចាំបាច់ដើម្បីសម្រេចបាននូវគោលបំណងនៃការប្រមូលនិងការប្រើប្រាស់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ខាងលើ។ ទោះបីជាគោលបំណងនៃការប្រមូលនិងការប្រើប្រាស់ត្រូវបានសម្រេចក៏ដោយ ព័ត៌មានផ្ទាល់ខ្លួនអាចត្រូវបានរក្សាទុកប្រសិនបើមានការរក្សាទុកតាមច្បាប់និងបទបញ្ជាផ្សេងទៀ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ផ្តល់ថាទិន្នន័យសម្រាប់បង្កើតគោលនយោបាយរបស់រដ្ឋាភិបាលប្រសិនបើទិន្នន័យទាំងនេះ ហើយត្រូវបានកែលម្អ ■ ផ្តល់ថាទិន្នន័យសម្រាប់បង្កើតគោលនយោបាយរបស់រដ្ឋាភិបាលប្រសិនបើទិន្នន័យទាំងនេះ ហើយត្រូវបានកែលម្អ ■ ផ្តល់ថាទិន្នន័យសម្រាប់បង្កើតគោលនយោបាយរបស់រដ្ឋាភិបាលប្រសិនបើទិន្នន័យទាំងនេះ ហើយត្រូវបានកែលម្អ 	
<input type="checkbox"/> យល់ព្រម <input type="checkbox"/> មិនយល់ព្រម ថ្ងៃ___ ខែ___ ឆ្នាំ2021 ប្រធានបទនៃការស្ទង់មតិ	

3-6. 네팔어(샘플)

<p>कोरियन समाजमा प्रवासीको स्वीकार्यता विषयमा प्रवासीको धारणा सम्बन्धी सर्वेक्षण</p>	
<p>नमस्ते</p> <p>कोरियन प्रधानमन्त्रीको मातहतमा भएको कोरियन स्वास्थ्य र सामाजिक मामिला सम्बन्धी संस्थानले राष्ट्रिय नीति अनुसन्धान संस्थान मार्फत वर्तमानमा कोरियामा बसोबास गरिरहेका प्रवासीमा केन्द्रित भएर कोरियाली समाजले प्रवासीलाई स्वीकार गरेको विषयमा प्रवासीको धारणा र के कतौ मात्रामा स्वीकृत गरेको छ अनुसन्धान गरेर यस सम्बन्धी राष्ट्रिय नीति निर्माण गर्न आवश्यक आधारभूत सामग्री खोजी गर्नको निमित्त यो सर्वेक्षण तयार गरिएको हो। यो सर्वेक्षण प्रवासीको निमित्त तयार गरिएको हो र यो पुरा गर्न लगभग 30 मिनेट जति समय लाग्नेछ। तपाईंले दिनुहुने उत्तर कोरियामा भएका प्रवासीको निमित्त नीति निर्माण गर्न अमूल्य सामग्रीको रूपमा सदुपयोग हुनेछ।</p> <p>तपाईंले दिनुभएको सारा जानकारी 'तिर्यांक ऐन' को अनुच्छेद 33(गोप्यताको संरक्षण), र अनुच्छेद 34(तथ्यांकविद आदिको कर्तव्य) तथा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सुरक्षा ऐन अनुसार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कोडमा रूपान्तरित गरेर गोप्यता पूर्णरूपमा कायम गर्नेछौं। साथै यो सर्वेक्षणमा संग्रह गरेको सामग्री तथ्यांक गणना गर्ने उद्देश्यको लागि मात्र प्रयोग हुनेछ र यो बाहेक अन्य प्रयोजनको लागि प्रयोग गरिने छैन। राष्ट्रिय नीति स्थापना तथा कार्यान्वयन गर्न यो सर्वेक्षणको नतिजा महत्वपूर्ण सामग्रीको रूपमा सदुपयोग गरिने भएकोले यो सर्वेक्षणमा तपाईंको सक्रिय सहभागिता अपेक्षा गर्दै साँच्चो र इमानदार उत्तर दिन विनम्र अनुरोध गर्दछौं।</p> <p>आफूले नचाहेको खण्डमा जुनसुकै समयमा सहभागीता नकार्न सक्नुहुन्छ तथा उत्तर दिइरहेको बेलामा पनि सहभागीता रोक्न सक्नुहुन्छ। सर्वेक्षणमा सहभागी भए पनि या नभए पनि सहभागी भइरहेको क्रममा रोके पनि कुनै किसिमको खतरा वा बेफाइदा आइपर्ने छैन। यो सर्वेक्षणमा स्वैच्छिक रूपमा सहभागी हुन र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प्रदान गर्न सहमत हुनुभएको खण्डमा तल सहभागी हुन इच्छुक भएको लिखित रूपमा जनाउन आग्रह गर्दछौं। यसका साथै यो सर्वेक्षणमा भाग लिएर उत्तर प्रदान गर्नुहुने सहभागीहरूको लागि कृतज्ञताको चिह्न स्वरूप सानो उपहार पनि तयारी गरेका छौं। समय लगाएर इमानदारीपूर्वक उत्तर दिएर सहयोग गरिदिनु हुन फेरी पनि आग्रह गर्दै धन्यवाद टक्र्याउदछौं।</p> <p style="text-align: right;">साल 8 महिना~ 9 महिना</p> <p style="text-align: center;">कोरियन स्वास्थ्य र सामाजिक मामिला संस्थान प्रमुख(Lee Tae-soo)</p> <p style="text-align: center;">अनुसन्धान निर्देशक: जनसंख्या निती अनुसन्धान विभाग III अनुसन्धान आयुक्त(Byoun Soo-jung)</p> <p style="text-align: center;">एम्ब्रइन पब्लिक (क.) प्रमुख ई प्यङईल (Lee, Byeong-il)</p> <p style="text-align: center;">प्रमुख अनुसन्धानकर्ता ल्यु होथेक सहायक प्रमुख फोन नम्बर (Ryu, Ho-Tack) +82-2-3406-3857</p>	
<p>[कोरियन समाजमा प्रवासीको स्वीकार्यता विषयमा प्रवासीको धारणा सम्बन्धी सर्वेक्षण]</p>	
<p>[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संकलन खण्ड]</p> <p>सहभागीको सामान्य जानकारी (सिंग, उमेर, क्षेत्र आदि), कोरियन समाजको बारेमा धारणा तथा आचरण, आर्थिक स्थिति, व्यक्तिगत तथा पारिवारिक मामला, नीतिको चाहना</p>	
<p>[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संकलन गर्नुको उद्देश्य]</p> <p>कोरियन समाजले प्रवासी स्वीकार गरेको विषयमा आफ्नो धारणा, भेदभावको अनुभव, चाहेको नीति माग आदि उजागर गरेर राष्ट्रिय नीति निर्माण तथा परिपूर्ति</p>	
<p>[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को स्वामित्व र प्रयोग अवधि]</p> <p>माथि उल्लेखित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संकलन, प्रयोग गर्न उद्देश्य' हसित गर्न आवश्यक अवधि सम्म मात्र संचित गरी प्रयोग गरिनेछ। अपवादमा संकलन गर्ने र प्रयोग गर्ने उद्देश्य पुर्ण भएतापनि अन्य कानूनी प्रायोजनको निमित्त आवश्यक परेको खण्डमा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संचित गरेर राख्न सकिने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आफूले नचाहेको खण्डमा जुनसुकै समयमा पनि सर्वेक्षणमा सहभागिता अस्वीकार गर्न सक्नु र अस्वीकार गरेता पनि कुनै किसिमको बेफाइदा हुने छैन भन्ने बारेमा अवगत छु। ■ कोरियन स्वास्थ्य तथा सामाजिक मामिला संस्थानमा आफ्नो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अध्ययन गर्न, सुधार गर्न, मेटाउन, प्रशोधन स्थान गर्न आदि कुराहरू जुनसुकै समयमा माग राख्न पाउने बारेमा अवगत छु। ■ माथि उल्लेखित सबै कुरा राम्रोसँग बुझेर, 'कोरियन समाजमा प्रवासीको स्वीकार्यताको विषयमा प्रवासीको धारणा सम्बन्धी सर्वेक्षण' मा सहभागी भएर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प्रदान गर्न सहमत छु।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सहमत छु <input type="checkbox"/> सहमत छैन</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साल महिना दिन सहभागी: _____</p>	

3-7. 인도네시아어(샘플)

Survey Pemahaman Imigran Tentang Penerimaan Sosial Korea			
<p>Halo Apa Kabar ?</p> <p>Perkenalkan Kami adalah Lembaga Penelitian Kebijakan Nasional Institut Kesehatan dan Urusan Sosial Korea, Kami akan melakukan survey yang intinya bertujuan untuk mengidentifikasi seberapa tingkat penerimaan masyarakat Korea terhadap para Imigran yang berada dan tinggal di Korea. Hasil dari survey ini akan kami pergunakan untuk data dasar menetapkan kebijakan Pemerintah.</p> <p>Untuk mengisi jawaban survei ini diperlukan waktu sekitar 30 menit. Jawaban Anda akan digunakan sebagai landasan yang berharga untuk menetapkan kebijakan Imigran di Korea untuk Masa Mendatang.</p> <p>Semua isi dari jawaban Anda akan dilindungi sesuai ^fPeraturan Undang Undang Pasal 33 yaitu(Perlindungan Rahasia), Pasal34 (Kewajiban Ahli Statistik) tentang Perlindungan Undang Undang Informasi Pribadi dan kerahasiaan. Dan data ini hanya digunakan untuk tujuan perhitungan statistik tidak akan dipergunakan untuk tujuan lain. Maka dari itu kami berharap Partisipasi dan Tanggapan Anda untuk menjawab dengan sejujurnya supaya melalui survey ini jawaban Anda dapat digunakan sebagai data berharga untuk menetapkan dan melaksanakan kebijakan Pemerintah.</p> <p>Jika Anda tidak berkenan dalam menjawab pertanyaan dalam survei ini Anda dapat bebas untuk menolaknya, atau dipertengahan membaca pertanyaan Anda boleh juga untuk berhenti menjawab. Berkeinginan menjawab ataupun tidak, berhenti ditengah menjawab pertanyaanpun Tidak ada resiko. Jika Anda berkenan dalam partisipasi survey ini Kami meminta persetujuan Anda untuk mengisi kolom yang ada dibawah ini. Bagi Anda yang bersedia meluangkan waktu untuk menjawab pertanyaan ini sebagai tanda dan ucapan Terimakasih Kami akan memberikan sebuah hadiah kecil sebagai Tanda Penghargaan. Terimakasih.</p> <p style="text-align: right;">Agustus ~ September . 2021 Institut Kesehatan dan Sosial Korea Kepala Lee, Tea-Soo Penanggung Jawab Riset : Lab Penduduk Kebijakan Politik Ahli Peneliti Byoun, Soo-Jung</p>			
		<p>Embtain Public Perwakilan Lee, Byeong-il Penanggungjawab Penelitian Kondektur Ryu, Ho-Tack (Telp) 02-3406-3857</p>	
<p>[Persetujuan Penggunaan Personal Data dan Partisipasi Imigran Survey Sosial Korea]</p>			
<p>[Informasi Personal Data]</p> <p>Data Penjawab (Jenis Kelamin, Umur, Alamat Dll), Pemahaman dan Sikap terhadap masyarakat Korea, Keadaan Ekonomi Negara, Kepribadian, kekekhargaan, dan Permintaan Politik</p>			
<p>[Tujuan Diperlukan Personal Data]</p> <p>Untuk mengetahui penilaian Imigran tentang pemahaman, diskriminasi, Pengajuan Politik, dll terhadap masyarakat Korea yang nantinya digunakan untuk penetapan dan pelengkapan kebijakan Pemerintah</p>			
<p>[Masa Penggunaan dan Penyimpanan Personal Data]</p> <p>^fPengumpulan dan tujuan pemakaian Personal Data akan disimpan dan digunakan hanya dalam periode yang diperlukan. Namun, jika Personal Data dibutuhkan akan disimpan sesuai dengan Peraturan Undang Undang yang berlak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ka saya tidak berkenan untuk berpartisipasi dalam survey ini kapan saja bisa menolaknya, dan tidak akan terkena sanksi. ■ Saya kapan saja dapat mengajukan Data Pribadi saya kepada Istitut Kesehatan dan Sosial Korea didalam pembacaan, penceditan, ataupun penghapusan. ■ Saya telah memahami hal hal yang tertera diatas, dan saya menyetujui Data Pribadi saya digunakan untuk survey , ^fTentang Pendaapat Imigran Untuk keperluan Sosial Korea.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Setuju <input type="checkbox"/> Tidak Setuju </p> <p style="text-align: center;">Tgl bl th 2021 Penyelidik : _____</p>			

3-9. 몽골어(샘플)

Цагаалал хүсэгчдийн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мийн талаарх ойлголтын судалгаа					
<p>Сайн байна уу</p> <p>Солонгосын Эрүүл мэнд, нийгмийн асуудал хариуцсан хүрээлэн (СЭТНАХХ)(KIHASA) нь БНСУ -ын Ерөнхий сайдын дэргэдэх үндэсний бодлого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юм. KIHASA -ийн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 нь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 цагаачдыг хэр хүлээж авдаг болохыг олж мэдэх,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одлогыг боловсруулахад ашиглаж болох үндсэн мэдээллийг гаргах зорилготой юм. Судалгаанд хамрагдсан хүмүүс бол цагаачид бөгөөд судалгааг бөглөх хугацаа 30 орчим минут болно. Таны асуулгад өгсөн хариулыг Солонгос дахь цагаачдад зориулсан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хад үнэ цэнэтэй мэдээлэл болгон ашиглах болно.</p> <p>Таны өгсөн бүх хариулт, 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Статистикийн тухай хууль, 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ийн 33 дугаар зүйл (Нууцыг хамгаалах), 34 дүгээр зүйл (Статистикийн ажилтнуудын үүрэг гэх мэт) -ийн дагуу кодчилж, чанд нууцлах болно. Мэдээллийг статистик гаргах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х бөгөөд өөр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хгүй.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боловсруулж хэрэгжүүлэхэд үнэ цэнэтэй өгөгдөл болгон ашиглахын тулд бид та бүхний <u>идэвхтэй оролцоо, үнэн зөв</u> хариулыг өгөхийг хүсч байна.</p> <p>Хэрэв та судалгаанд хамрагдахыг хүсэхгүй байгаа бол ямар ч эрсдэл, шийтгэлгүйгээр оролцохоос татгалзах эсвэл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ахаа хүссэн үедээ зогсоож болно. Хэрэв та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д сайн дураараа оролцож, хувийн мэдээллээ өгөхийг зөвшөөрсөн бол доорх хайрцагт зөвшөөрлөө өгнө үү.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 бөглөсөн хүмүүст талархаж байгаагаа илэрхийлэхийн тулд бид жижиг бэлэг өгөх болно. Хэрэв та судалгаанд хариулахад хэсэг хугацаа зарцуулбал таны оролцоог үнэлэх болно.</p> <p>Баярлалаа.</p> <p style="text-align: right;">Ли, Тэ Су. KIHASA -ийн Ерөнхийлөгч</p> <p style="text-align: center;">Судалгааны албаны дарга: Youn, Soo Jung.</p> <p style="text-align: center;">Хүн амын бодлогын судалгааны газрын судалгааны хорооны гишүүн.</p>					
<p>Embrain Public Co., Ltd. Гүйцэтгэх захирал: Ли, Бён Ил</p> <p>Хариуцсан судлаач: дэд ахлагч Рю, Хо Так Утас: 02-3406-3857</p>					
<p>[Судалгаанд оролцох зөвшөөрөл ба хувийн мэдээлэл цуглуулах]</p> <p>[Хувийн мэдээлэл цуглуулах зүйлс]</p> <p>Судалгаанд хамрагдагсдын ерөнхий мэдээлэл (хүйс, нас, газар нутаг гэх мэт),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суудал, хувь хүн, гэр бүлийн асуудал, бодлогын хүсэл, хандлага</p> <p>[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цуглуулах, ашиглах зорилго]</p> <p>Цагаачдын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мийг хүлээж авах тухай ойлголт,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гдсан байдал, бодлогод оруулах зүйлс гэх мэт төр засгийн бодлогыг боловсруулж, нэмэлт оруулах талаар олж мэдэх.</p> <p>[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хадгалах, ашиглах хугацаа]</p> <p>Цуглуулсан 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дээр дурдсан "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цуглуулах, ашиглах" зорилгод хүрэхэд шаардлагатай хугацаанд хадгалж, ашигладаг. Шаардлагатай тохиолдолд 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хадгалахыг бусад хууль тогтоомж гэх мэт зөвшөөрсөн бол тухайн мэдээллийг цуглуулах, ашиглах зорилго биелсэний дараа ч хадгалж болн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Би хүссэн үедээ судалгаанд оролцохоос татгалзаж болно, оролцохоос татгалзвал торгууль төлөхгүй гэдгийг ойлгож байна. ■ Би KIHASA -аас хүссэн үедээ миний хувийн мэдээлэлд хандах, засах, устгах эсвэл боловсруулалтаа зогсоохыг хүсч болохыг ойлгож байна. ■ Би дээр дурдсан зүйлсийг ойлго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Цагаачдын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д хүлээн авах тухай ойлголт" судалгаанд хариулагчаар оролцож, 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ашиглахыг зөвшөөрч байна.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Зөвшөөрнө <input type="checkbox"/> Зөвшөөрөхгүй </p> <p style="text-align: right;">(сар) / (огноо) / 2021 Хариулагч:</p>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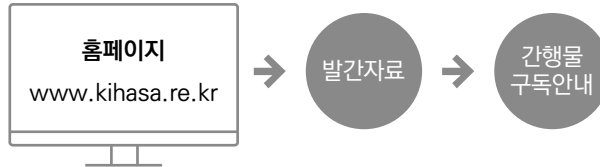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